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博士 學位論文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2023年 2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唐 莉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指導教授 朴正九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唐莉

唐莉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년 1월

위원장 이옥주 (인)

부위원장 유수경 (인)

위원 전기정 (인)

위원 임소정 (인)

위원 박정구 (인)

【 국 문 초 록 】

본고는 정보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VN 了’ 형식의 은현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주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来客人了’, ‘出太阳了’, ‘*来狼了’ 등의 예문이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었지만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결정적인 해결법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고, 형식상으로 이러한 예문들은 모두 ‘VN 了’ 은현문에 속하기에 함께 묶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에서 은현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하위분류인 ‘VN 了’ 은현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VN 了’ 은현문의 통사, 의미, 인지, 화용적 특성을 귀납하여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각 측면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개별 예문과 관련된 문제 또한 깊이 분석하여 해결법을 탐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VN 了’ 은현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VN 了’ 은현문은 ‘VN 了’와 ‘장소+VN 了’ 형식이 가장 많으며 V는 구어성, 단음절성을 지닌다. 통사적 분포에서 ‘VN 了’가 고빈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복문의 시작절과 진술, 감탄류의 단문에서이다.

둘째,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능력-절대격성’을 갖는 자동사를, 비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타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사, 타동사와 관련된 논항의 집합은 각각 ‘행위자 의미역 위계’,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한다. N의 자주성은 담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주성이 떨어질수록 후속 글에서 화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은현문의 지시체는 일반적으로 확인불가하거나 비활성화된 심적 상태이다. 따라서 V가 은현문의 이러한 인지적 특성

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VN了’ 은현문에 쓰이기 어렵다. 이것이 ‘*停雨了, *走客人了’가 비문이 되는 주된 이유이다. 동사뿐만 아니라 쉽게 활성화된 고유명사, 친족 명사 등도 제약을 받는다. 경고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앞에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았어도 인지상으로 지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여 그것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기에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며, 경고성 어투일 경우에는 ‘VN了’가 아니라 ‘NV了’ 형식이 우선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양치기 소년》에서 ‘*来狼了’가 아니라 ‘狼来了’를 사용하게 된다. 심적 상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적 측면과 통시적 관점 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화용적 관계로 보면 비록 지시체의 심적 상태와 화용적 관계 간에 일대일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둘은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 ‘문두+VN了’ 은현문은 서술어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문두+VN了’는 논항초점구조로도 나타날 수 있다. ‘VN了’는 주로 문장초점구조로 나타난다.

다섯째, 담화 기능 측면에서 보면 ‘VN了’는 은현문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전형적인 은현문과 다른 점도 존재한다. 인간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발 상황 혹은 사건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하려는 화용적 상황에서 도상성과 경제성 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VN了’ 은현문이 사용될 수 있다.

‘VN了’ 은현문의 활용적 기능과 통사, 의미, 인지 등의 측면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구어성 동사, 이와 결합할 수 있는 고빈도로 쓰인 명사들이 ‘VN了’ 은현문에 많이 출현한다. 또한 돌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간적 도상성 원칙이 적용되어 논항이 동사 뒤로 이동한다. 능격-절대격성을 가진 동사는 내포적 특징이 ‘VN了’ 형식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동사보다 더 쉽게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다. 관련 지시체는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로 파악된다. 행위자 주어가 없고 ‘了₂’가 나타나며 비활성화된 심적 상

태 등으로 인해 ‘VN了’의 활용적 관계는 문장초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제성 원칙을 적용하여 은현문은 맨동사, 맨명사 또는 문두 생략을 특징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VN了’ 은현문은 주로 대화의 단문과 복문의 시작절에 많이 출현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VN了’ 은현문의 화용적인 기능이 어떻게 언어의 형식, 의미, 인지 등에 반응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본고는 전체적인 연구에서 ‘来客人了’와 같은 개별 예문 또한 ‘客人来了’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화용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客人’은 ‘来客人了’에서는 주로 확인불가하고 비활성화된 상태이지만 ‘客人来了’에서는 비활성화 상태를 제외하면 다양한 심적 상태를 보인다. ‘来客人了’는 주로 문장초점으로 나타나고 ‘客人来了’는 서술어초점, 문장초점, 논항초점구조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장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 ‘客人’은 ‘来客人了’에서 비활성화된 상태이고, ‘客人来了’에서는 주로 접근가능한 심적 상태이다. 또한 ‘来客人了’는 은현문 자체의 영향을 받아 단계적으로 화제를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客人来了’에서는 이런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연구와 개별 예문 분석을 통해 ‘VN了’ 은현문의 형식과 기능은 일대일의 대응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문장형식과 인지, 화용 등의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존현문에 속하는 ‘VN了’ 은현문의 기능은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 즉, ‘제시’의 기능에서 ‘지시체가 참여하는 사건을 도입’이라는 화용적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번: 2015-30726

주요어: ‘VN了’ 은현문, 정보구조, 확인가능성, 초점구조, 담화 기능, 도상성, 경제성

〈제목 차례〉

국문초록	1
1. 서론	1
1.1. 문제제기	1
1.2. 선행연구	5
1.2.1. 은현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	5
1.2.1.1. 은현문의 상위분류	5
1.2.1.2. 은현문 동사의 분류	7
1.2.2. 은현문 동사와 후치 논항의 의미관계에 관한 연구	12
1.2.3. 은현문 동사 후치 논항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15
1.2.4.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16
1.2.5. 은현문의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	17
1.2.6. ‘VN了’ 은현문에 관한 연구	18
1.3.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3.1. 연구 범위	20
1.3.2. 연구 방법	25
1.3.3. 연구 내용	27
2. 이론적 토대	29
2.1. 형식-기능의 다중 대응	29
2.2.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상태	32
2.3. 초점 관계, 주제 관계와 논리적 판단	36

2.4. 제시문의 담화 기능	39
2.4.1. 제시문의 개념	39
2.4.2. 담화 기능 분석	45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47
3.1. ‘VN了’ 은현문의 성분 분석	47
3.1.1. ‘VN了’ 은현문의 문두성분	47
3.1.2. 동사와 공기 성분의 특성	59
3.2.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분포	61
3.2.1. ‘VN了’ 은현문의 문장성분 기능	61
3.2.2. 단문으로의 ‘VN了’ 은현문	64
3.2.3. 복문에서의 ‘VN了’ 은현문	70
3.3. ‘客人来了’와 ‘来客人了’의 비교	77
3.3.1. 문두성분의 차이	77
3.3.2. 통사적 분포의 차이	78
3.4. 소결	82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84
4.1. V의 의미적 특성	84
4.1.1. V의 자동성과 타동성	84
4.1.2. V의 능격-절대격성	87
4.2. N의 의미적 특성	91
4.2.1. N의 의미 분류 기준	91
4.2.2. ‘VN了’ 은현문 부류별 논항 분석	95
4.2.2.1. 生·死류	95
4.2.2.2. 来·走류	97

4.2.2.3. 下(雨)류	100
4.2.2.4. 增·減류	101
4.2.2.5. 建·拆류	102
4.2.2.6. 破·裂류	103
4.2.2.7. 기타	106
4.2.3. N의 유형별 의미적 차이	108
4.2.4. N의 의미적 제약	110
4.3. 소결	114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117

5.1. V의 인지적 특성 및 제약	117
5.1.1. ‘VN了’의 부류별 동사의 제약	117
5.1.2. V의 관련 지시체의 심적 표상	127
5.1.2.1. V _{소설1} 류 동사	128
5.1.2.2. V _{소설2} 류 동사	135
5.1.3. V _{소설} 과 은현문의 모순 및 일치성	140
5.2. N의 심적 표상	143
5.2.1. N의 확인가능성	143
5.2.1.1. 유정 명사	143
5.2.1.2. 무정 명사	163
5.2.2. N의 인지적 제약	168
5.2.3. 인지적 제약의 해소	175
5.3. 개별 예문 분석	177
5.3.1. ‘*来狼了’와 ‘狼来了’	177
5.3.1.1. 소극적인 의미에 근거한 분석	177
5.3.1.2. 유생성에 근거한 분석	178

5.3.1.3. 동시적 관점에 근거한 분석	179
5.3.1.4. 인간 중심적 관점에 근거한 분석	183
5.3.2.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	187
5.4. 소결	193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195
6.1. ‘문두성분+VN了’의 초점구조	198
6.1.1. 문두성분과 주제성	198
6.1.2. 문두성분과 초점성	209
6.2. ‘VN了’의 초점구조	217
6.2.1. 서술어초점구조	217
6.2.2. 문장초점구조	220
6.2.3. 논항초점구조	224
6.2.4. 부사절의 정보구조	226
6.2.5. 화용적 관계의 표현방식	231
6.3. 소결	241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242
7.1. ‘VN了’ 은현문 부류별 담화 기능 분석	242
7.1.1. 生·死류	243
7.1.2. 来·走류	245
7.1.3. 下(雨)류	248
7.1.4. 增·减류	250
7.1.5. 建·拆류	251
7.1.6. 破·裂류	252
7.2. ‘来客人了’와 유사구문의 담화 기능 비교	256

7.2.1. ‘来了X客人’의 예문 분석	256
7.2.2. ‘来客人了’의 예문 분석	264
7.2.3. ‘客人来了’의 예문 분석	272
7.2.4. 세 가지 예문의 담화 기능 비교	275
7.3.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84
7.3.1. 了 ₂ 의 담화 기능	284
7.3.2. 경제성 원칙의 작용	285
7.4. 소결	286
제8장 결론	288
참고문헌	295
부록	304
中文摘要	317

〈표 차례〉

<표1-1> 술어문의 분류(邓思颖 2010)	5
<표1-2> 행위자 목적어문의 분류(储泽祥 2010)	6
<표1-3> 존현문의 분류(黄正德 2007)	7
<표1-4> 은현문 동사의 분류(출현과 소실)	8
<표1-5> 은현문 동사의 분류(李临定 1986)	9
<표1-6>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이동)	9
<표1-7>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증감)	10
<표1-8>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파손)	11
<표1-9>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 이동과 동작동사)	11
<표1-10> 비능격과 비대격 동사	13
<표1-11> ‘VN了’ 은현문 각 부류의 관계	25
<표1-12> 연구대상의 선정 방법	26
<표1-13> 연구 내용	28
<표2-1> 언어의 개별성과 보편성	31
<표2-2> Lambrecht의 확인가능성	33
<표2-3> 심적 변화들을 기호화하는 언어형식	34
<표2-4> 활성화 상태에 따라 달라진 형식	35
<표2-5> 제시문과 사건-보고문	37
<표2-6> 초점 관계와 주제 관계	38
<표2-7> ‘Existential Construction’과 현대중국어의 ‘존재문’, ‘존현문’의 관계	42
<표2-8> ‘제시문’의 분류(Lambrecht 1994)	44
<표3-1> 장소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52
<표3-2> 시간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54

<표3-3> 문두성분의 연속체	56
<표3-4> 소유자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56
<표3-5> 문두성분이 없는 ‘VN了’의 출현빈도 통계	57
<표3-6>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58
<표3-7> 동사와 공기하는 부사와 조동사	60
<표3-8> ‘VN了’ 은현문이 목적어로 쓰일 때 공기하는 동사	63
<표3-9> 문장성분으로 쓰인 ‘VN了’ 은현문	63
<표3-10> 단문으로 쓰이는 ‘VN了’ 은현문	69
<표3-11> 복문의 분류(黄伯荣·李炜 2016)	71
<표3-12> 복문에 쓰이는 ‘VN了’ 은현문	75
<표3-13> ‘来客人了’와 ‘客人来了’ 문두성분의 출현빈도	78
<표3-14>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통사적 분포	81
<표3-15> ‘来客人了’의 문두성분과 통사적 분포	82
<표4-1> ‘VN了’ 은현문에 출현하는 동사 분류	85
<표4-2> 金立鑫·王红卫(2014)의 동사분류	89
<표4-3> 논항의 의미적 분류(陈昌来 2000:69)	91
<표4-4> 논항의 의미적 분류(袁毓林 2002:13)	92
<표4-5> 논항의 의미적 분류(范晓 2003:3~4)	92
<표4-6> 生·死류 동사의 논항 정리	96
<표4-7> 来·走류 동사의 논항 정리	97
<표4-8> 来·走류 동사의 논항의 이동성	100
<표4-9> 增·减류 동사의 논항 정리	101
<표4-10> 建·拆류 동사의 논항 정리	103
<표4-11> 破·裂류 동사의 논항 정리	104
<표4-12> ‘피위자’와 ‘결과’의 차이점	104
<표4-13> ‘행위자 의미역 위계’를 보여주는 논항의 의미적 특성	107
<표4-14> ‘피위자 의미역 위계’를 보여주는 논항의 의미적 특성	109

<표4-15> 표준중국어와 다이어의 은현문 비교	110
<표4-16> ‘VN了’ 은현문 N과 V의 의미적 특징	115
<표4-17> 동사 측면과 은현문 측면에서 본 N과 V의 특징	115
<표5-1>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生·死류)	117
<표5-2>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来·走류)	121
<표5-3>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下[雨]류)	123
<표5-4>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增·减류)	124
<표5-5>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建·拆류)	125
<표5-6>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破·裂류)	126
<표5-7> ‘VN了’ 은현문의 출현동사의 제약	127
<표5-8> 소실 ₁ 류 동사의 의미항목	129
<표5-9> ‘下, 起, 停, 散’의 예문 분석	130
<표5-10> ‘长, 结, 消’의 예문 분석	131
<표5-11> ‘来, 走, 跑, 飞’의 예문 분석	131
<표5-12> ‘내향동사’와 ‘외향동사’	134
<표5-13> 소실 ₂ 류 동사의 의미항목	137
<표5-14> V _{소실} 동사와 은현문의 모순과 일치성	142
<표5-15> ‘V _{소실} N了’와 ‘NV _{소실} 了’의 비교	142
<표5-16> ‘来N了’와 ‘N来了’의 예문 비교(심적 명사)	160
<표5-17> ‘来N _{심적 명사} 了’와 ‘N _{심적 명사} 来了’의 출현빈도	161
<표5-18> ‘来电话了’와 ‘电话来了’의 예문 비교	164
<표5-19> ‘来水了’와 ‘水来了’의 예문 비교	165
<표5-20> ‘来暖气了’와 ‘暖气来了’의 예문 비교	166
<표5-21> ‘来风了’와 ‘风来了’의 예문 비교	166
<표5-22> ‘来生意了’와 ‘生意来了’의 예문 비교	167
<표5-23> ‘V _{추상명사} N了’와 ‘NV _{추상명사} 了’의 출현빈도	167
<표5-24> ‘V了一个N’의 예문	174

<표5-25> ‘VN了’ 은현문의 심적 특징 및 제약	176
<표5-26> ‘来’의 의미항목(갑골문)	180
<표5-27> 명-청시대 ‘来N’의 정리	183
<표5-28>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185
<표5-29>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1)	192
<표5-30>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2)	192
<표5-31>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3)	193
<표6-1> 주제의 특징(徐炯烈·刘丹青1998)	195
<표6-2>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	196
<표6-3> 장소 문두성분의 분류	202
<표6-4> ‘문두+VN了’에 관한 의문문	210
<표6-5> 악센트가 있는 ‘是’와 악센트가 없는 ‘是’(祁峰 2014)	214
<표6-6> ‘문두+VN了’의 정보구조	217
<표6-7> ‘警察来了·来警察了’, ‘人来了·来人了’, ‘狼来了·*来狼了’의 논리 판단	223
<표6-8> ‘来N了’와 ‘N来了’의 초점구조와 논리판단	224
<표6-9> 전경과 후경	227
<표6-10> ‘VN了’와 ‘NV了’의 정보구조	230
<표6-11> 문장초점과 서술어초점의 예시	231
<표6-12> ‘是, 是不是, 呢/啊’가 부가된 ‘NV了’	232
<표6-13> ‘NV了’의 생략	233
<표6-14> Schmerling(1976:90)의 예시	234
<표6-15>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236
<표6-16> 세 가지 초점구조의 강세의 위치	236
<표6-17> ‘My car broke down’의 예문 분석	237
<표6-18> 귀류법으로 본 강세의 이동 원리	240

<표7-1> ‘VN了’의 담화 기능	253
<표7-2> ‘来了X客人’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264
<표7-3> ‘来客人了’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272
<표7-4> ‘客人来了’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275
<표8-1> ‘VN了’ 은현문의 특징	291
<표8-2>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차이점	292

〈그림 차례〉

<그림3-1> 단음절V와 이음절V의 출현빈도	59
<그림3-2>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통사적 특징	81
<그림4-1> ‘VN了’ 은현문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빈도	86
<그림4-2> 참여 역할 S, A, P의 개념 공간과 의미지도	88
<그림4-3> 논항의 행위자 원형성 정도 차이	108
<그림4-4> 논항의 피위자 원형성 정도 차이	109
<그림4-5> ‘VN了’ 은현문과 논항의 ‘자주성’	113
<그림5-1> N의 심적 상태	168
<그림5-2> ‘客人’과 ‘彩虹’의 집합	175
<그림5-3> ‘장소성분+来狼了’ 형식인 뉴스의 제목	184
<그림7-1> 화제의 확장 방식	258
<그림7-2> ‘来了X客人’, ‘来客人了’, ‘客人来了’의 화제-도입 기능	276
<그림7-3> ‘来了X客人’의 화제 확장 방식	281
<그림7-4> ‘来客人了’의 화제 확장 방식	282
<그림7-5> ‘客人来了’의 화제 확장 방식	283
<그림7-6>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284

1. 서론

1.1. 문제제기

사물이나 사람의 출현, 존재, 소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범주에 포함되며 언어에 반영될 경우 제시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범언어적으로 보면 제시문은 독특한 어순을 보이는데 현대중국어의 제시문 역시 특이한 어순과 형식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중국어학계에서는 제시문을 존현문(存現句)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예문으로는 ‘来客人了’, ‘来了一位客人’ 등이 있다. ‘来客人了’는 흔히 ‘客人来了’와 함께 쌍으로 연구 대상이 된다. 예문(1)을 보면 동일한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来客人了’와 ‘客人来了’가 서로 다른 구조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1) a.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b. 客人来了。
손님이/은 왔다.

본고는 예문(1)의 ‘来客人了’, ‘客人来了’와 같은 형식을 ‘VN了’, ‘NV了’로 표기하고자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VN了’, ‘NV了’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들은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형식들과는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갖는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 a. *走客人了。
- b. 客人走了。
 손님이/은 갔다.

예문(2)에서 ‘走’가 출현하는 경우 ‘客人走了’는 가능하지만, ‘*走客人了’는 비문이 된다. 또한, ‘客人’을 ‘狼’으로 대체할 경우 ‘狼来了’는 가능하지만, ‘*来狼了’는 비문이 된다.

- (3) a. *来狼了。
- b. 狼来了。
 늑대가 왔다.

‘出太阳了’는 ‘来客人了’와 동일한 ‘VN了’의 형식이지만, ‘*太阳出了’로 대체할 수 없다.

- (4) a. 出太阳了。
 해가 뜨다.
- b. *太阳出了。(吕叔湘 1989:160)

또한, ‘VN了’ 형식인 ‘来电了’는 상반된 의미인 ‘停电了’로 표현할 수 있지만 ‘下雨了’는 ‘*停雨了’로 표현할 수 없다.

- (5) a. 来电了。
 전기가 들어왔다.
- b. 停电了。
 정전이다.
- (6) a. 下雨了。
 비가 왔다.
- b. *停雨了。

그리고 ‘VN了’의 목적어가 수량구인 경우 맨명사인 경우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 | | | | |
|--------|--------|-----|------------------------|
| (7) a. | *走客人了。 | a'. | 走了一个客人。
손님 한 명이 갔다. |
| b. | *来狼了。 | b'. | 来了一只狼。
늑대 한 마리가 왔다. |
| c. | *停雨了。 | c'. | *停了一场雨。 |

예문(4a), (5a), (6a)는 모두 ‘来客人了’와 동일한 ‘VN了’의 형식으로서 은현문에 속한다. 그러나 동일한 형식일지라도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처럼 자유롭게 전환될 수는 없다. 또한, ‘来客人了’와 ‘客人来了’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특정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 | | |
|--------|--|---------------------|
| (8) a. | A: 客人来了吗? | B: 是的, 客人来了。(*来客人了) |
| | A: 손님 오셨어요? | B: 네, 손님 오셨어요. |
| b. | 要是客人来了(来客人了), 就赶快沏茶。
손님이 오면 빨리 차를 끓여 주세요. | |

예문(8a)에서 ‘客人来了’는 ‘来客人了’로 대체할 수 없지만, (8b)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식이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 및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 | |
|--------|---|
| (9) a. | 来客人了, 快沏茶!
손님이 왔으니 빨리 차를 끓여 주세요! |
| b. | 来客人了, 是老家来的朋友。
손님이 왔어요, 고향에서 온 친구예요. |

예문(9a)와 (9b)는 같은 문장형식인 ‘來客人了’을 사용하므로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통사, 의미 등의 측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구조적 분석과 담화 차원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흔히 ‘來客人了’만을 다루었을 뿐, ‘VN了’의 형식으로 쓰인 모든 은현문(隱現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존현문은 사람 혹은 사물의 존재나, 출현 및 소실을 표현하며 ‘장소/시간+동사+명사’의 구조를 가진 문장을 가리킨다. 또한, 출현이나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은현문,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은 존재문(存在句)이라고 부른다. 은현문과 존재문은 모두 존현문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현재까지 존재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은현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지금까지의 은현문에 대한 연구들은 ‘수식어+N’과 같은 전형적인 비한정 목적어를 가진 은현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¹⁾ 다시 말해서 기존 존현문 연구들에서는 ‘VN了’ 은현문의 문법적, 의미적 및 기능적 특징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VN了’의 형식으로 쓰이며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현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VN了’ 은현문이 ‘NV了’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약과 규칙이 존재하는지, 동일한 명제를 갖는 ‘VN了’와 ‘NV了’ 간에는 어떠한 화용적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의미적 및

1) 卢福波(1996:235)에서는 “목적어 앞에는 대부분 수량 수식어나 묘사적인 수식어가 존재하는데 수식어가 없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였다. 刘月华·潘文娉·故韡(2001:726)에서는 “목적어 앞에는 종종 수량구가 존재하는데, ...간혹 수량구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陆剑明(2005:173)에서는 ‘출현, 소실류’의 행위자 목적어가 반드시 수량구라고 주장하였다. 宋玉柱(1991:118)에서는 “은현문의 C 부분은 맨명사가 와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현상은 비교적 드물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이 특성은 존재문과 비교 시에 두드러진 특성이 다.”라고 지적하였다.

화용적 특징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2. 선행연구

1.2.1. 은현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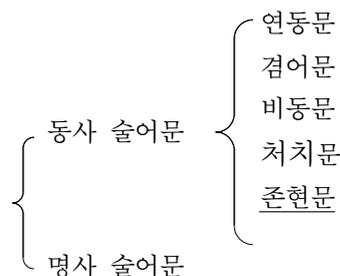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은현문의 범위와 분류가 다양하다. 范晓(2009:318)의 견해에 따르면 문형(句型)은 상위 문형과 하위 문형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이다. 먼저 상위계층을 확정된 뒤 하위 층위를 확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학자들이 은현문의 상위분류와 하위분류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뒤 이를 토대로 좀 더 명확하고 전면적인 분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1.2.1.1. 은현문의 상위분류

(1) 존현문의 지위

范晓(1998:207), 刘月华·潘文娱·故韡(2001:719), 邓思颖(2010:169)에서는 존현문을 겹어문, 연동문 등과 같이 특별한 문형으로 분석하였지만 전체 시스템의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표1-1〉 술어문의 분류(邓思颖 2010)



邓思颖(2010:169)에서는 ‘존현문’이 위와 같이 ‘동사 술어문’의 하위분류라고 제시하였다. 张先亮·范晓(2010:15)에서는 “존현문은 주술문, 비주술문 등과 같은 평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2), 范晓(2009:326)에서는 “현대중국어 문장 유형 시스템이 먼저 ‘단문과 복문’으로 분류되며 단문은 다시 주술문과 비주술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비주술문은 존현문을 포함한다.”라고 제시하였다.

〈표1-2〉 행위자 목적어문의 분류(储泽祥 2010)

행위자 목적어문	{	존현식(存现式)(门一开, 跑出来一个七八岁的孩子)
		손익식(损益式)(那天, 她来了几个同学)
		배치식(配备式)(一条船坐十六个人)
		피해식(蒙受式)(他淋了雨)
		부분실현식(局部实现式)(作业我们班交了七个人)
		상태유인식(状态诱因式)(我的好女儿啊, 可想死我了)

储泽祥(2010:27)에 따르면 SVO 언어는 행위자 목적어문이 존재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현문은 행위자 목적어문의 하위분류로 간주할 수 있다.

(2) 은현문의 지위

黄正德(2007:231)에서는 존현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은현문이 속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가 존재문에 속한다.

2) 范晓(2009:326)에서는 “비주술문(非主谓句)이란 직접적인 성분(直接成分)이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라고 하였다.

〈표1-3〉 존현문의 분류(黄正德 2007)

존현문	{	1. ‘有’로 표현하는 문장 (有鬼)
		2. ‘출현’과 ‘소실’동사로 표현하는 문장(死了一个人)
		3. 장소동사로 표현하는 문장(床上躺着一个病人)
		4. 어떤 사건의 존재나 경험의 존재를 표현하는 문장(我选了一门课很难懂)

帅志嵩(2017:89)에서는 위에 언급한 분류들의 기초에 더욱 확대하였고 ‘이중목적어문’까지 존현문에 귀속하라고 하였다.³⁾ 邓思颖(2010:205)에서는 형식적으로 존현문을 ‘술어-목적어 구조’와 ‘술어-보어 구조’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은현문과 존재문을 존현문의 하위분류로 본다. 宋玉柱(1991:96~97)에 따르면 존현문은 문두에 있는 시간이나 장소, 중간에 있는 동사구, 문미에 있는 명사구로 구성된다. 이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으면 존현의 의미를 나타내도 존현문이 아니다. 즉 존현문의 명칭은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에서 얻은 것이지만, 형식과 의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존현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 역시 ‘장소/시간+동사구+명사구’라는 형식의 범위 안에서 존현문을 논의할 것이다. 이에 따라 邓思颖(2010:205)에서 언급한 두 번째 부류, 帅志嵩(2017:89)에서 언급한 ‘이중목적어문’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2. 1. 2. 은현문 동사의 분류

(1) 출현과 소실

宋玉柱(1987)에서는 처음으로 은현문을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
- 3) 帅志嵩(2017:89)에서는 존현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존재(①有 ②是 ③경태위치[挂/站/贴]) 2. 은현(①출현[出/来/多] ②소실[死/掉/破]) 3. 경험/사건의 존현(①경험[V 过] ②사건[V 了]) 4. 이중목적어
- 4) 邓思颖(2010:205)에서는 존현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술어-목적어 구조([전치사]명_{장소}+동+명); ②술어-보어 구조([전치사]명_{장소}+동+명+보어[谓项])

라고 정의하였다.⁵⁾ 李临定(1986)에서도 ‘은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黄伯荣·廖序东, 杨成寅, 刘月华, 卢福波, 허성도 등 학자들은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개론서에서 대부분 위의 이분법적인 의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의미적으로 은현문의 동사는 인물이나 사물의 출현과 소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이형호(1991:5)에서도 존현문은 출현문과 소실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표1-4〉 은현문 동사의 분류(출현과 소실)

	출현	소실
黄伯荣·廖序东(1991)	飘来, 透出	隐去, 死, 少
杨成寅(1993)	来, 出来, 传来, 进来, 走出来	少, 走, 搬走, 逃走, 不见
刘月华(2001)	来, 发生, 钻出, 走出来	死, 搬走, 飞过, 走出
守屋宏则(2002)	来, 开过来	掉下
邓守信(2014) ⁶⁾	来, 出, 起, 下, 进, 到	去, 死, 跑, 逃, 过
허성도(2005)	来, 出现, 搬来, 走来	死, 跑, 过去
한민이(2014)	来, 发生, 跑过来, 考进来	死, 搬出去

李临定(1986:92)에서는 은현 동사를 6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적으로 크게 출현과 소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5) 黎锦熙(1924)에서는 ‘동사의 분류(动词的细目)’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有, 存在, 出现, 消失’ 등 존현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언급하였다. 陈庭珍(1957)에서는 ‘门前来了一个人’과 같은 문장은 존재문(존현문)에 속한다고 하였다. 高明凯(1957)에서도 은현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客厅里来了一个生人, 海里起了波浪, 身上生了疮’과 같은 문장을 언급하였다. 朱德熙(1982)에서는 ‘은현문’이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존재문’과 평행한 ‘존현문’의 하위구조로 분류하였다.
- 6) 邓守信(2014)에서는 동사를 동작동사(Action verb), 상태동사(State verb), 변화동사(Precess verb)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死(죽다), 逃(도망가다), 走(떠나다), 掉(떨어지다), 破([구멍]만들다/깨다/찢다), 裂(縫)(틈이 갈라지다), 生(疮)(종기가 생기다) 등의 동사들은 모두 변화동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표1-5〉 은현문 동사의 분류(李临定 1986)

출 현	1.‘来’형	来, 上来, 下来, 进来, 出来, 回来, 过来, 起来
	2.‘동사+来’형	飞来, 走出来, 跑进来……
	3.‘出现’형	出现, 现出, 呈现, 显现, 展现, 浮现, 显出, 发生
	4.‘长’형	长, 结, 出
소 실	5.‘去’형	去, 上去, 下去, 进去, 出去, 回去, 过去; 跑上去, 飞回去…
	6.‘走’형	走, 跑(逃走), 死

1, 2, 3, 4 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5, 6 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来’와 ‘去’가 결합된 1, 2, 5 형은 대부분 ‘동사+보어’형식이고 3, 4, 6 형은 모두 맨동사이다.

(2) 은현과 이동

刘月华(2001:726)에서는 은현문을 기본적으로 출현과 소실로 분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범위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먼저 선별하여 한 부류로 묶고 나머지 동사들은 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로 분류하였다. 潘文(2003:28)에서는 刘月华(2001)과 유사하게 동사를 이동동사와 비이동동사로 분류하였다.

〈표1-6〉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이동)

	비이동동사	이동동사
刘月华(2001)	飘, 冒, 浮现, 涌, 响, 刮, 弥漫, 死, 出现, 爆发,	走, 来, 跑, 钻, 掉, 开
潘文(2003)	浮现, 刮	走, 来, 跑, 钻出来, 飘过, 开来

范晓(1998:215)에서도 ‘出现’은 출현의 의미를 나타내고 ‘飞来, 来’ 등의 동사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邵敬敏(2001)에서는 현대중국어의 문장체계를 논할 때 동사의 이동성에 따라 은현문을 ‘이동성 은현문(位移性隐现句)’과 ‘비이동성 은현문(非位移性隐现句)’으로 나누었다. 그

는 ‘外边走进来一个大汉(밖에서 한 사나이가 들어온다)’와 같은 문장은 이동성 은현문에 속하고, ‘脑海中浮现出一幅神异的图画(머릿속에 신기한 그림이 떠오른다)’와 같은 문장은 비이동성 은현문에 속한다고 하였다.

(3) 은현과 증감

胡晓研(1988:83)에서는 ‘多, 少, 添’ 등이 출현하는 은현문을 형식적으로 보면 일반 은현문과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小钱盒子里添了一张大几千的存折(작은 돈 보관함에 돈 몇 천원이 있는 통장 하나가 추가되었다)’, ‘世界上少了几个让人讨厌的人(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몇 명이 감소하였다)’와 같은 문장에 주목하였고 은현문에 추가하여 ‘증감문(增減句)’이라고 불렀다.

〈표1-7〉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증감)

	출현·소실		증가·감소	
	胡晓研(1988)	传来	掠过	添
范晓(1998)	来, 出现…	走, 死…		丢, 少

范晓(1998:211)에서도 ‘会场上少了几个人(회의장에 사람이 몇 명 빠졌다)’, ‘羊圈里丢了两只羊(외양간에서 양 두 마리를 잃었다)’에 나타나는 ‘丢, 少’ 등의 동사가 수량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한다고 언급하였다.

(4) 은현과 파손

谭景春(1996:405~412)에서는 전형적인 은현문은 ‘일반 은현문’이라고 지칭하고, 의미적으로 파손을 나타내는 은현문을 따로 구분하여 ‘파손 은현문’이라고 하였다. 宣恒大(2011), 남양우(2019) 등도 파손문을 은현문의 하위분류로 본다.

〈표1-8〉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과 파손)

	일반 은현문	파손 은현문	
谭景春(1996)	来, 走, 长出…	裂, 破, 磕, 划, 拉…	淋, 沾, 蹭, 崩…
남양우(2019)			

남양우(2019:73~95)에서는 谭景春(1996)을 참고하여 ‘파손·손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현문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하여, “‘파손·손해’의미 은현문은 구문이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구문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라고 하였다.

(5) 은현, 이동과 동작동사

崔建新(1987:45~47)에서는 단순히 출현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와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를 은현문의 하위구조로 분류하고, 그 외에 동작성 동사를 추가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9〉 은현문 동사의 분류(은현, 이동과 동작동사)

은현	出现, 爆发, 发生, 出, 发, 添, 加, 生, 死, 消失, 剥落, 掉, 丢, 少
이동	进来, 来, 出来, 出去, 下来, 下去, 上来, 过来
동작	(1) V+来: 跑, 送, 传, 吹, 开, 飘
	(2) V+出: 露, 吐, 射, 放, 发, 流, 咧, 闪, 现, 作, 杀, 叠, 转, 溢, 变
	(3) V+起: 扬, 涌, 纵, 点, 绉, 响, 涨, 腾, 闪, 掠, 掀, 升
	(4) V+过: 晃, 露, 下, 驶, 掠, 走, 划, 飞掠
	(5) V+出来/进来/过来/进/入: 跑, 漏, 插, 射, 飞, 钻, 闯, 透, 涌
	(6) V+上/下: 画, 滴, 滚, 扔, 流, 落, 罩

은현문의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존현문의 하위 개념인 은현문 동사의 분류가 학자에 따라 제각각이며 학자 간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각 분류의 동사를 열거할 때는 일반적으로 ‘A, B, C……’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생략부호가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전체의 양상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동사용법사전(汉语动

词用法词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동사들을 대상으로 검색하여 맨동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동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는 의미에 따라 은현문의 동사를 열거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맨동사와 ‘동사+보어’를 각각 구분하지 않았다. <표 1-6>에서 ‘走, 来, 跑, 钻, 掉, 开’ 등이 모두 이동성 동사로 분류되지만 ‘钻, 开’ 등 동사는 방향 보어가 없으면 단독으로 은현문에 쓰일 수가 없다.

또한 <표 1-4>에서는 ‘走’, ‘跑’가 출현과 소실 분류에 모두 등장한다. 사실 소실류에 등장하는 ‘走’, ‘跑’는 ‘떠나다’라는 의미항목으로 쓰이고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출현류에 등장하는 ‘走’, ‘跑’는 ‘걷다, 뛰다’라는 의미항목으로 쓰이고 방향보어가 부가되어야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은현문의 동사에 대해 분석할 때 각 동사의 의미항목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맨동사에만 집중하고, 각 맨동사의 세분화된 의미항목 또한 구분하여 ‘VN了’ 은현문을 분석하려고 한다.

1. 2. 2. 은현문 동사와 후치 논항의 의미관계에 관한 연구

존현문이나 은현문 동사와 후치 논항 N의 의미관계에 대해서는 李临定(1984), 崔建新(1987), 黄伯荣·廖序东(1991), 이형호(1991), 邢福义(1998), 宋玉柱(1989), 范晓(1998), 任鹰(2005), 邓思颖(2010) 등의 학자가 논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은현문의 상위구조인 존현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논의하여 왔다.

(1) 행위자로 본 견해

黄伯荣(1991:129), 邢福义(1998:76) 등의 학자는 대다수 존현문의 N이 동사의 행위자라고 간략하게 언급할 뿐 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고 은현문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范晓(1998:216)는 N과 존현 동사와의

의미관계를 ‘행위자, 피위자, 대상’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고 ‘外边来了许多工人(밖에서 많은 노동자가 왔다)’의 경우는 ‘행위자’이고 ‘桌子上放着一台英文打字机(책상 위에 영어 타자기가 한 대 놓여 있다)’의 경우는 ‘피위자’이고, ‘灯笼下边是一张张嫣红真挚的脸(등불 아래는 새빨강고 진지한 얼굴이다)’의 경우는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가 열거한 예문 중에서는 현문의 N(许多工人)은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宋玉柱(1989:114)는 또한 ‘厢房门一响, 走出一个干瘦的老头(안방에서 소리가 나더니 마른 노인이 걸어 나왔다)’, ‘又过一会, 隐隐响起雷声(잠시 후, 은은하게 천둥소리가 울렸다)’와 같은 은현문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라고 지적하였다. 이형호(1991:27)에서는 존현문의 문말 명사구는 동사에 대해 행위자와 피위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2) 피위자로 본 견해

Perlmutter(1978)는 1항 술어를 ‘비능격’과 ‘비대격’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1항 비능격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으로 행위자를 주어로 하고, 1항 비대격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피행위자 혹은 대상을 목적어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해 黄正德(2007), 邓思颖(2010) 등은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1-10〉 비능격과 비대격 동사

	1항	2항
비능격	笑, 哭, 飞, 跳, 吵闹	打, 骂, 吃, 写, 批评, 欺骗
비대격	来, 死, 出现, 发生, 是, 有	开, 关, 沉, 摇, 吓, 气死

7) 范晓(1998:216)에서는 존현문의 NP2와 동사의 의미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행위자 : a.车上坐着一个小孩子。b.外边来了许多工人。c.仓库里钻出一只猫。2. 피위자 : a.桌子上放着一台英文打字机。b.街道两边竖着许多广告牌。c.黑板上写着“肃静”两个大字。3. 대상(止事) : a.灯笼下边是一张张嫣红真挚的脸。b.村外是一片水田。c.山上有灯, 街上油灯, 到处都是灯。

위에서 보여진 분류의 1 항 비대격 동사 ‘来, 死, 出现, 发生’ 등은 바로 은현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邓思颖(2010:89)에서는 피위자는 어떤 동작 또는 행위에 관련된 대상이거나 상태의 변화, 위치 변화를 겪는 개체라고 정의하였다. 黄正德(2007:5)에서는 ‘张三’은 1 항 비대격 동사 ‘来’의 문장인 심층구조 ‘来了张三’이나 표층구조 ‘张三来了’에서 모두 피위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 행위자와 피위자로 보지 않은 견해

위와 달리 李临定(1984), 胡晓研(1988), 任鹰(2005), 吴卸耀(2006) 등 학자들은 N이 행위자와 피위자가 모두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李临定(1984:14)에서는 행위자와 피위자의 기능이 존현문에서 이미 상실했다고 하였다. 任鹰(2005:43)에서는 존현동사의 의미가 존현문에서 성립되지 못하기에 논항의미와 문법 성분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이미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胡晓研(1988:81)에서는 행위자와 피위자의 역할이 존현문에서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념보다 ‘존재자(存事), 출현자(现事), 소실자(消事), 증가자(增事), 감소자(减事)’ 등 각각 존재문, 출현문, 소실문, 증가문, 감소문에 나타나는 지시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吴卸耀(2006:136)에서는 존현문의 목적어는 행위자인지 피위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자들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N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실 학자들의 관점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각각 다른 측면에서 N을 서술하고 있다. 黄正德(2007), 邓思颖(2010) 등은 형식문법의 시각에서 N을 ‘피위자’로 보고, 黄伯荣·廖序东(199), 邢福义(1998) 등은 의미적으로 N과 동사 사이의 의미관계를 고찰하고 대부분의 N은 행위자라는 결론을 냈으며, 李临定(1984), 任鹰(2005), 吴卸耀(2006) 등은 은현문 구문의 시각에서 N과 동사의 의미관계를 관찰하고 “N은 행위자와 피위자가 모두 아니다.”라고 논의하였다.

본고는 N 과 동사의 관계에 대해 특정 구문인 은현문 안에서 의미관계를 관찰할 필요도 있고, 은현문 이전의 ‘NV 了’ 상태에서 어떤 의미관계를 내포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를 통해서 앞서 7 가지로 세분화 한 N 이 어떤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후자를 통해 N 간에 각각 어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록 N 이 동사와 결합하고 은현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본연의 특성을 잃었지만, 이 특성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고 제 4 장에서 먼저 N 이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들과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후에 은현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1. 2. 3. 은현문 동사 후치 논항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명사의 한정성과 어순의 관계에 대한 논문에서도 ‘VN 了’ 형식의 예문들이 보인다. 朱德熙(1982)에서는 “중국어에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즉 주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목적어는 확정되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주장하였다. 赵元任(1968) 등은 ‘人来了’의 ‘人’은 한정적인 명사이고 ‘来了人了’의 ‘人’은 비한정적인 명사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백은희(2007)에서는 정보구조의 시각에서 ‘太阳出来了’와 ‘出太阳了’ 등의 예문으로 반박하였다. ‘太阳出来了’와 ‘出太阳了’에서 각각 SV 와 VS 문장구조에 포함된 ‘太阳’의 한정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칭 명사, 지시 명사, 고유명사 등은 한정으로 보고, 수량 명사는 비한정으로 보는데 맨명사는 형식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한정적인지 비한정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정성과 비한정성으로 중국어의 문장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灿龙(2017:7)에서는 ‘来 N 了’와 ‘N 来了’의 지칭성을 비교하였다. 다른 학자의 견해와 달리 그는 N 의 의미에 따라 ‘N 来了’의 N 의 지칭성도 달

라진다고 제시하였다. 즉 모든 ‘N来了’의 지칭성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周韧(2020:51)에서도 王灿龙(2007)의 견해에 동의하고 ‘중국어 주어의 뚜렷한 한정적인 경향’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통해 논하였다.

본고 제 5 장에서 ‘확인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N의 다양한 심적 표상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정성은 불연속적인 문법적 범주이고 확인가능성은 연속적인 언어 범주이다. 따라서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다.

1. 2. 4.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은현문의 상위구조인 존현문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다. 许余龙(2005), 吴卸耀(2006), 方梅(2005), 屈承熹(2006), 林忠(2014) 등 학자들은 존현문은 목적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许余龙(2005:123)에서는 존현문의 목적어는 편장(篇章)의 화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吴卸耀(2006:137)의 견해에 따르면 존현문의 기능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존 목적어에서 정보를 끌어낸 후 이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서술하는 것이다.

方梅(2005:170)의 주장에 따르면 존현문은 화제-도입 기능을 가지고 있다. 屈承熹(2006:253)에서도 역시 ‘刚才来了几个客人, 都是我的老同学(방금전 손님이 몇 분 오셨는데, 모두 나의 옛 동창들이었다)’의 ‘几个客人’은 존현문으로 후속 맥락에 도입되었고, 후행절 ‘都是我的老同学’에서 영 형식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林忠(2014:87)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 전달의 기능으로 볼 때 존현문은 목적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며 이 정보는 다음 단락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지속적인 편장 현상(篇章现象)을 형성한다.

그러나 존현문은 존재문과 은현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은현문은 ‘VN了’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존현문의 담화 기능만을 분석

하면 ‘VN了’ 형식의 은현문과 다른 형식의 은현문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는 제 7 장에서 ‘VN了’, ‘NV了’, ‘V了XN’ 등을 비교하여 이들이 각각 어떠한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2. 5. 은현문의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

은현문의 정보구조를 단일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존현문의 정보구조를 단일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몇 편 확인된다. 丁玲(2006), 宋雪茹(2022), 남양우(2022) 등 학자는 존현문의 정보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丁玲(2006)에서는 존현문의 정보 전달은 구정보에서 신정보로의 과정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존현문의 문두성분이 문장의 정보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丁玲은 분류에서만 은현문을 언급하였고, 그가 정보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한 예문은 대부분 존재문이었다. 宋雪茹(2022)에서는 존현문을 존재문, 출현문, 소실문으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 부류의 공통점은 동사 앞의 명사구는 주제, 동사 후의 명사구는 초점인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宋雪茹(2022)에서는 문두성분과 명제의 주제 관계만 분석하였을 뿐, 문두성분과 명제의 초점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남양우(2022)에서는 존현문에 대해 “진리조건적으로 동일한 문장을 정보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동일한 장면을 서로 다르게 구조화하는 이유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화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김현철·손미리(2009)에서는 ‘王冕死了父亲(왕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에 관한 연구성과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이 구문과 존현문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고,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王冕死了父亲’을 분석하여 이 구문은 ‘사건성’이 강조된 문형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사실상 은현문의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중국어의 정보구조

에 관한 많은 논문에서 은현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Wu(1998), 徐烈炯·刘丹青(2003)에서는 화제와 초점, 그리고 화제와 초점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였다. 백은희(2005)에서는 중국어에서 정보구조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을 조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어순 변화에 의해 문장 구성요소의 정보자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구조가 변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어의 정보구조 유형이 다양하다면 각 유형에 따라 강세도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략은 초점부를 명시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생략은 단순히 중복되는 정보의 ‘사라짐’과 함께 생략된 성분의 정보적 자질도 사라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정보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략된 성분의 정보자질을 포함하는 정보구조로 분석을 해야 한다. 본고는 6장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VN了’ 은현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1.2.6. ‘VN了’ 은현문에 관한 연구

‘VN了’ 은현문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VN了’ 형식의 예문들은 비교적 다양한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高明凯(1957), 张中行(1985), 李子云(1991), 范晓(2009), 박경혜(2013) 등은 ‘VN了’ 은현문에 관련된 예문을 언급한 바 있다.

高明凯(1957:460)에서는 ‘下雨了(비가 온다)’, ‘花园里有一棵大桃树(화원에 큰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있다)’, ‘客厅里来了一个生人(거실에 모르는 사람 한 명이 왔다)’, ‘海里起了波浪(바다에 파도가 일었다)’ 등을 ‘절대문(绝对句)’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열거하는 예문 중에 ‘花园里有一棵大桃树’, ‘客厅里来了一个生人’ 등은 맨명사 형식인 NP2가 아니지만 ‘下雨了’는 맨동사, 맨명사를 가진 ‘VN了’ 형식 은현문이다.

张中行(1985:37~39)에서는 ‘刮风了(바람이 분다)’, ‘来了一个人(사람 한

명이 왔다)’ 등을 불완전 구문의 하위분류인 무주어문(无主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장들이 ‘어떤 사물은 어떤지(什么事物怎么样)’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怎么样)’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주어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范晓(2009:259~260)에서는 ‘下雨了(비가 온다)’, ‘刮风了(바람이 분다)’, ‘出太阳了(해가 뜨다)’, ‘来客人了(손님이 왔다)’ 등의 예문이 ‘불완전 구문(非主谓句)’의 하위분류인 동사성 불완전구문에 속한다고 하였다. 李子云(1991:331)에서도 ‘불완전 구문’을 서술할 때 ‘出太阳了’를 예시로 들었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다. 박경혜(2013)에서는 동사성 불완전 구문의 시각으로 ‘VN了’형식을 가진 기상 변화, 자연현상 변화, 신체 상태 변화 등의 문장을 연구하였다.

- (1) a.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b. 客人来了。
손님이/은 왔다.
- (10) a. 下雨了。
비가 온다.
b. *雨下了。
- (11) a. 出太阳了
해가 뜨다.
b. *太阳出了。

이외에 吕叔湘(1989:160)에서는 같은 명제, 다른 형식을 지니고 있는 여러 예문의 쌍들을 열거하였다. 그중 예문(1), (10), (11)이 있는데 (1a)와 (1b)는 자연스럽게 전환되지만 (10a)와 (11a)가 (10b)와 (11b)로 전환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吕叔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대해 연구할 만하다.”라고 언급하였으나 吕叔湘(1989:160)에서 언급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VN了’ 은현문에 관한 예문은 각 주제별 논문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VN了’ 은현문에 대한 통사적으로 체계적인 설명과 분석이 없으며,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존재문과 구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1.3.1. 연구 범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은현문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학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문들, 핵심적인 동사들을 집중적으로 분류하여, 그것들을 토대로 예문들을 정리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더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본고는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나타난 모든 은현문을 정리했다.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류를 참고하여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104 개 동사들을 정리하여 7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7 가지 부류는 형식과 의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다. 즉 본고는 ‘(장소/시간)+동사구+명사구’라는 형식의 범위 안에서 사람 혹은 사물의 출현이나 사라짐을 표현하는 은현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生·死류
5.建·拆류

2.来·走류
6.破·裂류

3.下(雨)류
7.기타

4.增·減류

(1) 生·死류(14)

长(zhǎng), 起, 结, 生, 出₅(发出: 发泄), 发₃(产生, 发生), 闹₃(发生灾害或不好的事),
爆发, 发生, 产生, 出₄(出产: 产生: 发生), 出现, 死, 消失

生·死류의 내부는 매우 복잡하여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 ‘长, 起, 结, 生, 出₅’ 등은 주요의미가 ‘자라다’이고, ‘发生, 爆发’ 등은 주요의미가 ‘발생하다’이며, ‘出现’ 등은 주요의미가 ‘나타나다’이다. 그리고 ‘消失’은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수록된 예문에서는 ‘존현문’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대표적인 ‘소실류’ 동사중 하나로, 은현문에 관련된 연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기에 추가하였다. Li & Thompson(1989:403)에서는 ‘发生, 出现, 产生, 死, 消失’ 등과 같은 동사들은 ‘출현과 소실 동사(Verb of appearing or disappearing)’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부류의 동사들은 전형적인 은현 동사이며 핵심적 의미를 출현과 소실로 나타낸다.

(2) 来·走류(11)

来, 进, 出₁(从里面到外面), 上₁(由低到高), 下₁(由高处到低处), 到(到达), 掉₁·1(落), 走₃(离开), 跑, 飞, 逃

이 부류의 동사들은 모두 이동동사인데, 동사의 핵심 의미에서 生·死류의 동사처럼 출현과 소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을 통해 출현과 소실을 나타낸다.

(3) 下(雨)류(9)⁸⁾

下₂(雨), 刮₂(风), 起₅(风), 打₂(雷), 出₁(太阳)₂, 滴₂(雨点儿), 降₁(雨), 掉₁·1(雨点儿)₂, 落(雨)

来·走류에 속하고 있는 동사들은 이동 동사인데 예문을 살펴보면 기상과 관련된 예문이 적지 않다. ‘出₁’ 뒤에 오는 명사는 오직 ‘太阳’, ‘水’ 단 두 개밖에 없지만,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太阳’이 992 개로 높은 빈도수를

8) 下(雨)류에 속하는 동사는 총 9 개가 있는데, 그중 2 개는 来·走류에도 속하므로 중복 통계하지 않겠다.

나타내고 있다. ‘下, 降, 掉, 落’의 뒤에 오는 명사들은 대부분 기상 관련 명사이므로 来·走류에서 분리하여 下(雨)류로 따로 분류할 것이다. 张中行(1985)에서는 ‘下雨了’와 같은 下(雨)류의 문장들을 전형적인 은현문 ‘来了一个人’과 같은 유형으로 본다. 본고도 이러한 문장을 모두 은현문에 속한다고 보며, 下(雨)류를 은현문의 하위부류로 분류하였다.

(4) 增·减류(22)

多, 补, 补充, 加₂(增加), 添, 增加, 上₆(添补: 增加), 撵, 丢, 少₁(不够原有或应有的数目), 少₂(丢, 遗失), 差, 缺₁, 落_{là}, 漏₂(遗漏), 掉_{1·2}(遗失: 遗漏), 脱₄(漏掉文字), 删, 减, 减少, 撤₁(除去), 抹

胡晓研(1988:83)에서는 ‘多, 少, 添’ 등이 등장하는 은현문을 ‘증감문(增減句)’이라고 불렀지만 증감류에 속하는 동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增·减류를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多, 少, 差, 缺’ 등은 동작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이고 ‘删, 撤’ 등은 동작 동사이다. 이 부류의 동사들의 핵심 의미에서 출현과 소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사람이나 사물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출현과 소실을 표현한다.

(5) 建·拆류(19)

修, 盖₄(建筑[房屋]), 挖, 掘, 砌, 架, 树立, 起₇(建立), 搭, 打₅(建造, 修筑), 开₂(打通, 开辟), 办, 开辟, 建筑, 建立, 建设, 成立, 拆, 塌₁(支架起来的东西倒下)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서 수집한 자료에는 建·拆와 관련된 동사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단일주제로 진행된 연구가 없고, 吕叔湘·宋玉柱(1999)와 张先亮·范晓(2010)에서만 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바가 있다. 吕叔湘·宋玉柱(1999:518)에서는 ‘门前挖了一条沟(문 앞에 도랑을 하나 팠다)’와 같은 문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존재문’에 귀속시켰으며, 이런 문장은 ‘동사+了’ 형식을 가지고 있고 ‘동사+着’로 바꿀 수 없다고 보충 설명하였다. 张先亮·范晓(2010:72)에서는 “이런 견해에는 이론적인 모순이 있으며, ‘동사+了’가

‘동사+着’로 바꿀 수 없다면 존재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존재문과 은현문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런 문장은 은현문의 하위부류로 분류해야 한다. 본고는 张先亮·范晓(2010)의 견해에 동의하고, ‘门前挖了一条沟’와 같은 建·拆류 존재문은 은현문의 하위부류로 보고자 한다.⁹⁾

(6) 破·裂류(27)

钻, 扎, 凿, 炸, 磨, 扯, 打¹¹(揭, 凿), 捅, 掏, 划, 掐, 碰, 磕, 踩, 踏, 登, 踢, 叮, 摔, 穿¹(破, 透), 破, 裂, 缺²(残破, 残缺), 肿, 蘸, 沾, 淋

谭景春(1996), 宣恒太(2011), 남양우(2019) 등은 파손문을 은현문의 하위부류로 본다. 본고도 破·裂류 동사를 연구 대상으로 볼 것이다. 이 부류의 은현문은 파손을 통해 ‘구멍’ 등의 출현을 표현한다. 谭景春(1996)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손’ 은현문은 ‘단순 파손’과 ‘종합 파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파손’에 속하는 동사는 원래 동사 자체적으로 파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종합 파손’에 속하는 동사는 동사 자체적으로 파손의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은현 구조’에 들어가서 파손의 원인을 제공하여 파손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他的衣服破了一个洞(그의 옷에서 구멍 하나가 났다)’에서 동사 ‘破’는 자체가 파손의 의미를 지니지만 ‘他的衣服烧了一个洞(그의 옷에 불이 붙어 구멍 하나가 났다)’라는 문장에서는 동사 ‘烧’는 원래 파손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파손의 원인을 제공하여 파손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9) 建·拆류에 속하는 문장들은 세분할 수 있다. (I) 하나는 ‘동사+了’를 ‘동사+着’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존재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게 한다. (II) 다른 하나는 ‘동사+了’가 ‘동사+着’로 변환될 수 있지만 중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형 (I)는 확실히 은현문이고, 유형(II)는 은현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현문의 연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7) 기타(4)

切除, 发现, 沉, 漏₁(东西从孔或缝中滴下, 透出或掉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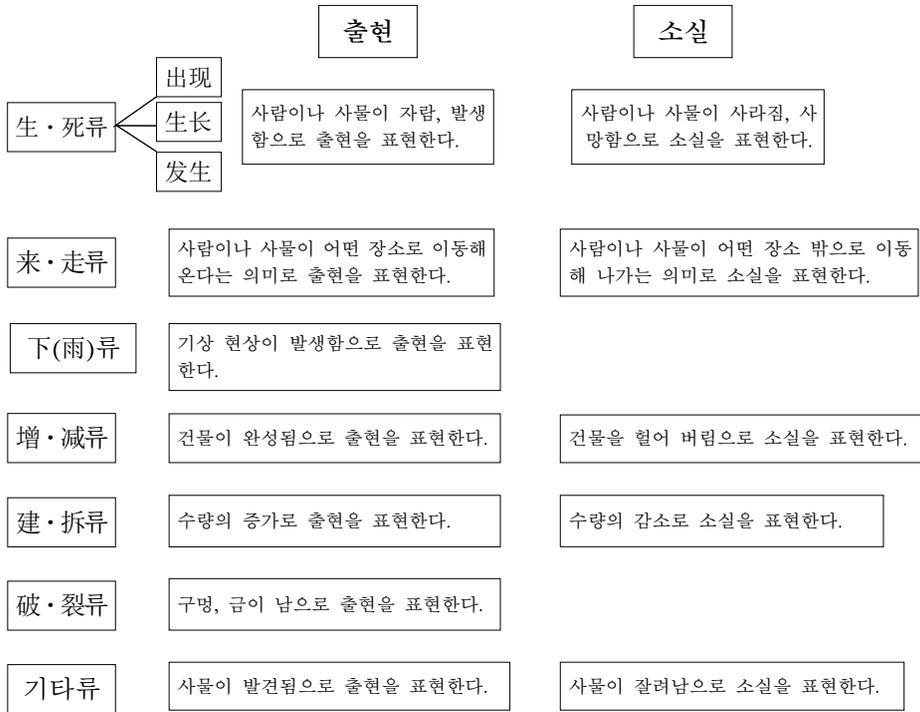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서는 ‘腹腔里切除了一个大肿瘤(복강에서 큰 종양을 잘라냈다)’, ‘太平洋上又发现了一个小島’(태평양에서 또 섬을 발견했다)¹⁰, ‘漏水了(물이 샌다)’, ‘海湾里沉了一条船(만 안에 배 한 척이 침몰했다)’ 등의 문장을 존현문으로 표시하였다. 이 4개의 동사는 다른 분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기타’에 넣었다.

위에 언급했던 각 부류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1-11>과 같다.

Lakoff(1995:463)에서는 구문 내부에도 어휘처럼 방사형 범주(radial categories)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구문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범주(central subcategory)와 여러 개의 비중심적 하위범주(noncentral subcategories)가 존재한다. 중심 범주에 속하는 문장은 형식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 나타내고, 비 중심적 하위범주에 속하는 문장들은 중심적 범주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를 통해 위의 은현문의 각 부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生·死류의 은현문은 중심적 범주에 속하고, 来·走류, 下(雨)류는 이 중심적 범주의 사이와 좀 가깝고, 增·減류, 建·拆류, 破·裂류, 기타류 등 부류는 중심에서 점점 멀어졌는데 형식과 의미의 관계는 중심적 범주에 담겨 있는 원칙에서 유발된(motivated) 것이다.

10) Bresnan(1994:78)에서 ‘장소 도치 구문(Locative inversion sentence)’은 일반적으로 자동사인데 ‘find’ 등 타동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In this rainforest can be found the reclusive lyrebird(이 열대 우림에서 은둔하는 금조[호주산의 큰 새]가 발견될 수 있다)’에서 ‘find’는 피동형으로 나타난다.

〈표1-11〉 ‘VN了’ 은현문 각 부류의 관계



1.3.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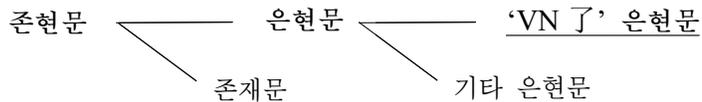
(1) 연구 대상의 선정

본고는 먼저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나타나는 모든 존현문을 정리하였다. 이런 문장들은 주로 사전에 ‘존현문’이라고 표기된 것이다. 또한 존현문 표기가 되지 않은 문장 몇 가지 역시 형식과 의미가 모두 존현문의 기준에 부합하기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존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총 351 개 동사를 정리하였다(부록). 이후 ‘着, 了, 过’의 부가 여부 및 기타 수단 등을 통해 앞서 정리된 문장들을 다시 은현문과 존재문 두 가지 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일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에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그 후 기존연구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류를 참고하여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104 개 동사들을 정리하고 7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모든 형식의 은현문이 아닌 ‘(장소/시간)+VN了’ 형식 은현문이기 위 방법론으로 정리된 은현문에 대한 세 번째 정리를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나타나는 예문들을 ‘VN了’ 형식으로 변환하고 필자의 어감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을 코퍼스에서 검색하여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필자의 어감에는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고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 종종 코퍼스에서 검색되었다. 또한 원어민을 대상으로 어감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1-12〉 연구대상의 선정 방법

(동사용법사전+선행연구 (‘着, 了, 过’가 부가 여부 등) (코퍼스검색+어감 조사)



(2) 연구 자료의 수집과 편집

각각의 ‘VN了’에 관련된 예문들은 검색할 때 주로 BCC¹¹⁾와 CCL¹²⁾ 등 인터넷 코퍼스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드라마, 교재, 영화 등을 포함하는 코퍼스로 보완하였다. 만약 코퍼스에서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이두(baidu), 구글(google)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수집하였다. 고대 중국어에 관련된 예문들은 주로 Sinica 코퍼스¹³⁾에서 추출하였다. 코퍼스에 출처가 표시된 경우 이를 본문에도 그대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BCC에서 ‘대화(对话)’ 등으로 분류된 자료에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본고는 예문 뒤에 구체적인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대화’로만 표시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EmEditor 등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에서 편집하고, 단어 분리가 필요한 경우 CorpusWordParse 등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행하였다. 수집하고 가공한

11) BCC: 북경어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코퍼스

12) CCL: 북경대학교 중국언어연구중심에서 개발한 코퍼스

13) Sinica Corpus: 대만중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퍼스

예문들은 엑셀을 이용하여 하나씩 통사적, 의미적, 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엑셀+KESS 등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진행할 것이다.¹⁴⁾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서 정리한 예문들은 주로 은현문의 분류, 각 성분의 의미 유형, 특징 등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었고, 코퍼스에서 검색된 예문들은 주로 은현문의 통사적, 인지적, 화용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1. 3. 3. 연구 내용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정보구조 이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VN 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제 4 장에서는 ‘VN 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이는 차후 다룰 정보구조 등의 분석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제 5 장에서는 ‘VN 了’ 은현문의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인데 이는 정보구조 차원에서 문장형식, 인지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담화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VN 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주제구조, 그리고 논리적 판단유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심적 상태, 초점 관계와 주제 관계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제 7 장의 담화 기능 연구를 통해 답을 찾으려 시도할 것이다. 본고는 ‘VN 了’ 은현문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형식과 의미가 유사한 ‘NV 了’, ‘V 了 XN’ 등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고는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과 이론적인 분석을 결합하여 ‘VN 了’ 은현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전체적인 규칙성과 경향성을 귀납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봄과 동시에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미세한 차이와 공

14) 코퍼스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은 강병규(2013), 강병규 외(2020) 등을 참고하였다.

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VN了’ 은현문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고자 한다.

〈표1-13〉 연구 내용

선행연구 및 문제점	해결 시도	관련성
<p>분류</p> <p>통사적</p> <p>의미적</p> <p>인지적</p> <p>화용적</p>	<p>제1장</p> <p>제3장</p> <p>제4장</p> <p>제5장</p> <p>제6장 제7장</p>	<p>제8장 결론</p>

2. 이론적 토대

각 언어는 문장의 형식, 어휘, 문법체계, 정보를 포장하는 수단 등이 다르기에 개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방식 등이 같기에 보편적인 공통점 또한 갖고 있다. 정보구조 이론은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언어의 화용적인 의미가 어떻게 형식에 반영되는지를 연구한다. 박정구·이명숙·유수경(2022:109)에서도 정보구조가 문장의 구조에 반영되는 정도는 언어에 따라 다르며, 중국어는 정보 포장의 인지적 방식이 문장의 어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언급하였다.

정보구조는 언어의 형식적 영역, 화용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 정보구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운율, 형태, 통사구조 등과 관련이 있고, 화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의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담화 기능 등과 관련이 있다.

사실 정보구조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데 학자들의 주장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Lambrecht 는 《정보구조와 문장형식(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이라는 책에서 정보구조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정리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책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예문의 쌍을 통해서 정보구조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본고는 왜 Lambrecht 의 정보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을 분석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2.1. 형식-기능의 다중 대응

Lambrecht(1994:27)에서는 (1), (2)와 같은 예문의 쌍을 언급했다. ‘네 차에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을 때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는 각각 (1a),

(1b), (1c)와 같이 대답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라고 물었을 때 각각 (2a), (2b), (2c)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 (1) a. My car broke DOWN.
내 차는 고장이 났어.
- b. la mia macchina si é ROTTA.
the my car itself is broke down.
- c. Ma voiture est en PANNE.
My car is in break down.

- (2) a.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이 났어.
- b. M si é rotta la MACCHINA.
to-me itself is broken the car.
- c. J'ai ma VOITURE qui est en PANNE.
I have my car that is in breakdown.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2a), (2b), (2c) 세 문장 모두 기존의 문장구조 (1a), (1b), (1c)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영어문장 (1a), (2a) 모두 동일한 ‘NP-V’ 통사구조를 유지하지만 악센트의 위치가 다르다. (2a)에서는 악센트가 오른쪽 문말에서 왼쪽 문두로 이동하는데 유표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어의 악센트를 소멸시킨 것이다. 또한 뒤에 있는 강세를 앞쪽에 이동시키려는 운율적 강세 변화를 통해서 ‘초점-악센트’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리아어(1b)와 (2b)는 둘 다 주제-앞, 초점-뒤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통사 순서가 다르다. 영어에서는 한정적 소유 명사구 ‘my car’로 소유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어에서는 이를 문두 위치에 있는 여격 (to-me/나에게 있어서)으로 표기하기에 문장 전체가 ‘나의 차’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소유 관계가 명사구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사구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어(1c)와 (2c)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혼합된 전략’을 사용한다.

먼저 ‘J’ai ma VOITURE(I have my car)’ 형식으로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는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났다’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문두-주제, 문말-초점이 만들어진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我有一台车, (那台车)坏了’와 유사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지시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전체적인 하나의 새로운 정보로 만들게 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과 (2)는 동일한 명제인데 언어마다 상이한 통사구조, 운율구조 등을 쓴다. 문장들이 화용적 영향을 미치고 형식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무표적인 예문(1)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유표적인 예문(2)로 변화하고 담화유형도 주제-평언문에서 사건-보고문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표적인 문장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출현빈도가 높으며 유표적인 문장은 제약을 많이 받아서 무표적인 문장보다 출현빈도가 낮다.

〈표2-1〉 언어의 개별성과 보편성

	(1)a	(1)b	(1)c 무	주제-평언	
개별성(형식)	운율적	통사적	운율적		보편성(화용)
			통사적		
	(2)a	(2)b		사건-보고	
			(2)c 유		

이런 개별성과 보편성은 다른 언어에서도 반영된다. 체코어는 중국어와 비슷하게 어순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포장한다.

- (3) a. Kniha je na stole.
The book is on the table.
책은 탁자 위에 있다.
- b. Na stole je Kniha.
On the table (there) is a book.
탁자 위에 책이 있다.

다른 정보 포장 방식을 나타내는 예도 살펴보자. 제 1 장 예문(1)이 보여준 대로 중국어에서는 어순에 더 민감하기에 어순을 통해 다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1-1)의 예문의 쌍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来客人了’, ‘客人来了’ 모두 한국어로 ‘손님이 왔다’로 표현된다. 상이한 인지적 상태에 반응하기 위해 이를 한국어에서 운율적으로 다를 수 있다. 무엇이 초점인지에 따라 강세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 (1-1) a.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 b. 客人来了。
손님이/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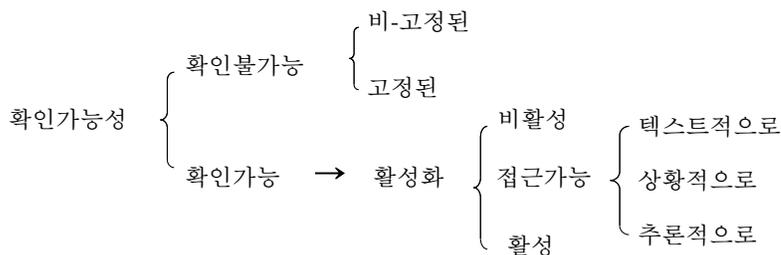
한국어에서는 ‘来客人了’, ‘客人来了’와 같은 어순 변화가 용납될 수 없기에 강세가 서술어에 놓이는지 여부에 따라 문장의 정보구조가 달라진다. 영어에서도 무표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강세가 서술어에 놓인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에서도 어순, 운율, 표지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정보를 포장한다. 형식과 기능은 일대일의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동일한 명제, 상이한 형식의 문장들의 정보가 어떻게 포장되는지, 그와 관련된 사고방식과 문장형식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2.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상태

동일한 명제가 어떻게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담화 환경에서 상이한 문법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Lambrecht 는 심리적 상태와 형식적 범주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때 정보구조 범주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지식(knowledge)과 관련되고 활성화는 의식(conscious)과 관련되어 있다. 지식에 없는 것은 확인불가능하(unidentifiable)고 지식에 있는 것은 확인가능하다(identifiable). 확인가능한 것 중에서는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담화의 논의가 핵심은 아니지만 어떤 요소를 통해서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는 준 활성화나 접근 가능성에 속한다. 즉 일단 지시체가 확인가능하다고 가정되면 반드시 세 가지 활성화 상태 활성화적(active), 비활성적(inactive), 접근가능적(accessible) 중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지시체는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textually accessible), 상황적으로 접근가능(situationally accessible), 추론적으로 접근가능(inferentially accessible)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표2-2〉 Lambrecht의 확인가능성



아래의 세 가지 예문은 대화 과정에서 겪는 심적 변화들과 이런 심적 변화들을 기호화하는 언어 형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 (4) a. Here comes the CAT.
여기 고양이가 왔어.
- b. Here he COMES.
여기 그것(고양이)이 왔어.
- c. And here the cat COMES!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왔군!

(4a)에서 화자는 누군가의 고양이가 발화 장면에서 지금 도착했다는 사실에 청자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화자는 지시체 고양이가 청자의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정하며 고양이를 동사 뒤에 놓았다. 화자는 청자가 현장에서 어떤 고양이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the CAT’를 사용할 수 있다.

(4b)에서 화자는 고양이가 오기 전에 이미 이 고양이를 알고 있으며 담화과정에서도 언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양이는 동사 앞에 오고 주제-표시 장치 악센트가 없는 대명사 ‘he’를 사용하게 된다.

(4c)는 화자가 고양이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고양이 알려주기가 있는 어떤 손님은 주인의 집에 앉아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고양이를 보고 ‘And here the cat COMES!’라고 말한다. (4b)와 (4c)는 명사구의 위치와 두드러짐의 위치가 동일하지만 담화지시체의 형태가 다르다. 화자는 청자의 의식을 고려해서 명사구 ‘the cat’이나 대명사 ‘he’를 선택한다. 지시체의 심적 표상의 활성화의 정도가 (b)보다 (c)에서 더 낮다. (a-c)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단으로 이런 심리적 표상의 차이를 표현한다.

〈표2-3〉 심적 변화들을 기호화하는 언어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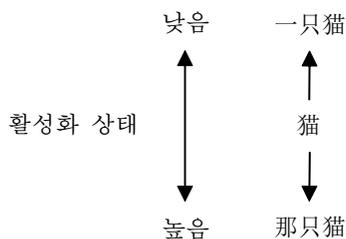
	지시체의 위치	지시체의 형식	악센트의 위치
(a) Here comes the CAT.	comes 뒤에	the CAT	CAT
(b) Here he COMES.	COMES 앞에	he	COMES
(c) And here the cat COMES.	COMES 앞에	the cat	COMES

여기서 명사구의 위치, 악센트, 형식 등의 선택은 발화 참여자의 정신에서의 실체와 사태의 담화 표상과 관계가 있다. 중국어에서도 이처럼 명사구의 위치, 악센트, 담화 지시체 형태의 차이 등 기호화하는 언어 형식을 통해 대화 과정에서 겪는 심적 표상의 변화들을 반영하고 표현한다.

- (5) a. 来了一只猫。/猫(小猫咪/小猫猫)!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 고양이(야옹이/야옹야옹)!
- b. 猫"来了。/它来了。/那只猫来了。
 고양이가 왔다. / 그것이 왔다. / 그 고양이가 왔다.
- c. "猫来了。
 고양이가 왔다.

(5a-c)에서 ‘一只猫’는 확인불가능이나 낮은 활성화 상태에서 접근가능하고, ‘那只猫’는 높은 활성화 상태에서도 접근가능하다. 맨명사 ‘猫’는 문맥에 따라 높은 활성화 상태에서도 접근가능하고 낮은 활성화 상태에도 접근가능하다.

〈표2-4〉 활성화 상태에 따라 달라진 형식



여기에서 “‘확인가능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한정성(definiteness)’으로 문장형식과 지시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정성은 불연속적인 문법적 범주이고 확인가능성은 연속적인 언어 범주이다. 한정성과 비한정성으로 중국어의 문장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 초점 관계, 주제 관계와 논리적 판단

확인가능성과 활성화는 대화 참여자의 기억과 의식의 범주이다. 주제와 초점은 화용적 역할과 관계되는 것으로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관계적 범주이다. Lambrecht 는 정보구조 범주의 다양한 초점 관계, 주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6) a. (What did the children do next?) The children went to SCHOOL.
(아이들이 다음에 무엇을 했니?)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
- b. (Who went to school?) The CHILDREN went to school.
(누가 학교에 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
- c. (What happened?)The CHILDREN went to SCHOOL!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학교 갔어.
- d. (John was very busy that morning.) After the children went to SCHOOL, he had to clean the house and go shopping for the party.
(그날 아침 존은 매우 바빴다.) 아이들이 학교를 간 후에 그는 집을 청소하고 파티를 위해 쇼핑을 갔다.

(6a)의 대답은 ‘the child’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the child’는 주제이고 문장의 초점구조는 ‘서술어 초점’이다. (6b)의 대답은 ‘누가 학교에 갔니’라는 질문에 지시체 ‘the child’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the child’는 초점이고 문장의 초점구조는 ‘논항초점’이다. (6c)의 대답은 ‘the child’가 참여하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의 초점구조는 ‘문장초점’이다. (6d)에서는 ‘the child went to school’ 이 주절에 표현된 명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Lambrecht 는 논리적 표상을 기준으로 진술을 단정적(thetic) 진술과 정언적(categorical) 진술로 나누었다. 정언적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A 는 B 이다’ 또는 ‘A 는 B 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다. 단정적 판단의 논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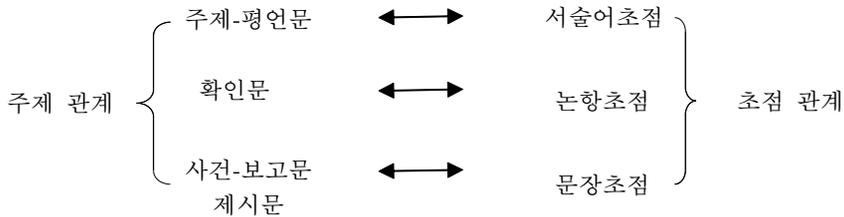
구조는 ‘A 이다’ 또는 ‘A 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다. 단정문은 ‘사건-보고문’과 ‘제시문’ 범주를 포괄하는 상위의 정보구조 범주이다. Sasse 는 사건-보고문을 사건-중심적 단정문(event-centralthetic sentence)이라 하고 제시문을 실체-중심적 단정문(entity-centralthetic sentence)이라 부른다. 즉 실체 출현인지 사건 출현인지에 따라 단정문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Lambrecht(1994:192~193)에서 ‘JOHN arrived’와 ‘The PHONE’s ringing!’ 두 문장을 제시하여 제시문과 사건-보고문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표2-5〉 제시문과 사건-보고문

언어	방식	문장초점/단정적 판단	
		제시문	사건-보고문
영어	주어 강세화	a. JOHN arrived.	a. The PHONE’s ringing!
		존이 도착했다.	전화가 울리고 있어!
이탈리어	주어·동사 도치	b. E arrivato GIOVANNI.	b. Squilla il TELEFONE!
프랑스어	ya 분열문	c. Y’a JEAN qui EST arrivé.	c. Y’a le TELEPHONE qui SONNE!
일본어	ga 표지	d. JOHN ga Kita.	d. EDNWA ga NATTE iru yo!

‘JOHN arrived’는 화자가 담화에 지시체 ‘John’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The PHONE’s ringing’은 전화기를 담화에 지시체로 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시적이지 않다. 여기서는 전화벨이 울리는 사건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 전화기는 단지 필수적인 참여자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예문은 제시문과 사건-보고문 사이의 형식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Sasse, Lambrecht 등 학자들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6〉 초점 관계와 주제 관계



주제-평언 유형에서 단언의 목적은 이미 확립된 담화 지시체의 어떤 특성을 화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예문(6a)에서 ‘The children’이라는 지시체는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의도는 아이들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확인문의 유형에서 단언의 목적은 논항과 이전에 환기된 열린 명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확인문’이라고 불린 까닭은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ho went to school?) The CHILDREN went to school.”을 확인문으로 본 이유는 ‘The CHILDREN’은 다른 후보와 함께 집합으로 형성되었고 열린 명제 ‘X went to school’에서 가장 나은 후보이기 때문이다.

사건-보고 유형에서 단언의 목적은 이미 설정된 주제나 전제된 열린 명제 그 어떤 것에도 연결되지 않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6c)에서 주어 명사 ‘The children’은 비-주제적이다. 이 문장은 ‘The children’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The children’은 단지 사건의 참여자 신분으로 문장에 출현한 것이다.

배경-설정 유형에서 화용적으로 전제된 명제는, 그 자체가 나머지 세 유형 중의 어느 하나일 수 있는 다른 명제를 위한 장면-설정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when, after, before, because, since, although’ 등과 같은 부사적 접속사를 포함하는 ‘부사절(adverbial clause)’은 화용적으로 전제된 명제를 표현한다.

Lambrecht 는 초점 관계와 주제 관계를 논의할 때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개념보다는 대체로 ‘전제’와 ‘단언’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Lambrecht(1994)는 ‘신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신정보’는 항상 발화 자체에 의하여 구정보의 바탕으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이다. Lambrecht 는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두 용어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를 ‘전제’와 ‘단언’이란 두 용어로 대체하였다.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는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2.4. 제시문의 담화 기능

2.4.1. 제시문의 개념

현대중국어의 ‘존현문’에 관한 연구에서 ‘존현문’에 대한 번역은 상당히 불일치하며, 이를 지칭하는 영문 용어로는 ‘Existential Sentence’, ‘Presentational Sentence’, ‘Existential-presentational Sentence’ 등이 있다. Lambrecht(1994)에서는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현대중국어의 ‘존현문’과 동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 절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여 표준중국어의 ‘존현문’, ‘존재문’, ‘은현문’ 등이 정보구조 측면에서 본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Existential Construction’은 존현문인가?

Freeze(1992:553)에서는 예문(7a-c)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연구하며 (7b)

과 같은 문장은 ‘장소적 주어 존재문(Locative Subject Existential)’이라고 보았다.

- (7) a. Predicate locative: The book is on the bench.
장소 서술어: 책은 벤치 위에 있다.
书在长椅上。
- b. Existential: There is a book on the bench.
존재: 벤치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长椅上有一本书。
- c. Have: Lupe has a book.
소유: 루페는 책을 가지고 있다.
卢佩有一本书。

‘장소 주어-존재문’에는 동사 ‘be’뿐만 아니라, ‘arrive, come’과 같은 ‘이동동사(motion verbs)’, ‘sit, stand’와 같은 ‘자세동사(body-position verbs)’ 등도 포함된다.¹⁵⁾

- (8) a. ku-mu-dzi ku-li chi-tsíme.
In the village is a well.
마을에는 우물이 있다.
村子里有一口井。
- b. ku-mu-dzi ku-na-bwér-á a-lendô-wo.
To the village came those visitors.
마을에는 방문객들이 왔다.
村里来了一些观光客。

위의 예문(8a)는 동사 ‘be’, 예문(8b)는 이동동사 ‘come’을 사용하는 ‘장소적 주어 존재문’이다. 형식적,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소적 주어 존재문’은 현대중국어의 존현문과 유사하며 ‘이동동사’류 ‘장소적 주어-존재

15) Freeze(1992:565)에서는 Bresnan & Kanerva(1989)의 분류를 인용하였다.

문’은 존현문의 하위부류 은현문과 유사하다.

Lakoff(1987:468)에서는 ‘There-구조’를 ‘직시(deictics)’와 ‘존재(existential)’ 두 가지로 분류하고, ‘존재적 구조’와 ‘직시적 구조’ 사이엔 형식적, 의미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둘 사이의 중요한 화용적 차이는 ‘직시적 There’는 텍스트-외적 세계의 지시체를 가리키는 반면 ‘존재적 There’은 텍스트-내적 세계에 지시체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9) a. There goes Harry.
해리가 갔다.
亨利走了。
- b. Here comes the bus!
버스가 왔다!
车来了!
- c. There goes a beautiful car.
예쁜 차 한 대가 간다.
开走了一辆很漂亮的汽车。

‘직시적 There-구조’는 11 개의 하위구조로 세분화할 수 있다.¹⁶⁾ Lakoff 는 예문(9)와 같은 문장을 언급하였는데 이런 문장들에 출현하는 동사는 来·走류 동사에 속한다.

- (10) a. There arose a commotion.
소동이 일어났다.
出现了一阵骚动。
- b. There ensued a riot.

16) Lakoff(1987:482~483)에서는 ‘직시적 There-구조(Deictics There- Constructions)’를 다음과 같이 11 가지 분류하였다. (1)주심(Central); (2)지각(Perceptual); (3)담화(Discourse); (4)존재(Existence); (5)행위 시작(Activity Start); (6)전달(Delivery); (7)전범(Paragon); (8)분노(Exasperation); (9)진술의 초점(Narrative Focus); (10)열정 시작(New Enterprise/Enthusiastic Beginning); (11)묘사(Presentational)

폭동이 뒤따랐다.

发生了一场暴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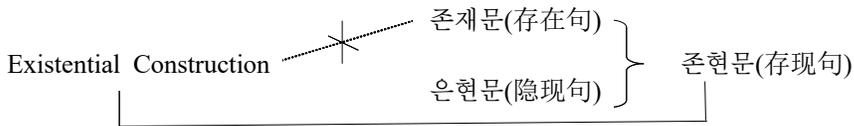
c. There entered a policeman.

경찰관이 들어왔다.

进来了一个警察。

또한 Lakoff(1987:573)에서는 예문(10a-c)를 제시하고, ‘존재 상태가 시작되다(coming into existence)’,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다(moving to a new location)’, ‘새로운 상태로 변하다(changing to a new state)’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자동사들은 다른 동사보다 더 쉽게 ‘존재적 There-구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문(10a-c)에 출현하는 ‘arose, ensue, enter’ 등 동사는 生·死, 来·走류 은현문에 해당하는 동사들과 아주 유사하다.

〈표2-7〉 ‘Existential Construction’과 현대중국어의 ‘존재문’, ‘존현문’의 관계



Freeze(1992), Lakoff(1987) 외에 Levin(1993), Twardzisz(2000) 등 학자들 또한 ‘Existential Construction’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existential’이 ‘존재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Existential Construction’을 중국어로 ‘존재문(存在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 1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중국어의 존현문은 존재문과 은현문보다 상위층위이다. 학자들이 ‘Existential Construction’을 분석할 때 언급한 예문들은 ‘존재, 출현, 소멸’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Existential Construction’은 ‘존재문’이 아닌 ‘존현문’과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Presentational Construction 은 존현문인가?

Li & Thompson(1989)에서는 ‘Presentative Sentence’는 ‘是, 有’와 같은

존재동사(existential verb), ‘坐, 躺’와 같은 자세동사(positional verb), 그리고 ‘来, 到’와 같은 이동동사(Verb of Mot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Presentative Sentence’는 중국어로 ‘存现句(존현문)’이나 ‘引介句(도입문)’로 번역되고,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제시문’이라고 불린다.

Lambrecht 는 Lakoff(1987)에서 언급했던 ‘직시적(deictics)’과 ‘존재적(existential)’의 두 개념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했던 ‘Here comes the CAT’와 같은 직시적 예문들을 ‘제시 구문(Presentational Construction)’이라고 보았다.

- (11) a. Once there was a wizard. He was very wise, rich, and was married to a beautiful witch.

옛날에 한 마술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고 부유했으며, 아름다운 마녀와 결혼했다.

从前有一个魔术师, 他聪明、富有, 娶了一个美丽的女巫了。

Lambrecht(1994:111)

위의 예문에서 명사구 ‘a wizard’의 지시체는 앞의 문장에서 어휘적으로 표현되었고, 두 번째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대명사로 나타난다. 이런 문장은 종종 존재적 문장(Existential Sentence)이라고 불리며 Lambrecht 에 의하면 제시적 구문(presentation)에 속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문장의 화용적 기능이 담화에 새로운 대상(new entity)을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existential)’는 잘못 쓰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적, 직시적 문장들은 모두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된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점에서 Lambrecht(1994:143)는 영어의 ‘there-존재 구문’, 그리고 중국어의 ‘어순 도치 구문’ 등은 모두 제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보구조와 문장형식》의 전체적인 논술을 살펴보면 제시문은 단지 이 두 가지 유형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Lambrecht(1994:39)의 연구에 따

르면 제시적 구문은 ‘be, come’와 같이 적은 수의 자동사들, 이동 동사의 주어, 지시 부사 here 이나 there 와 관련된다. ‘John arrived’, ‘John called’와 같은 문장도 제시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제시문은 현대중국어의 은현문에 만 대응되는 것이 아닌 존재문, 은현문, 그리고 일부 주술문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2-8〉 ‘제시문’의 분류(Lambrecht 1994)¹⁷⁾

Lambrecht(1994)의 분류				현대중국어의 분류		
제시문	there- here-	존재적 (existential)	There was a wizard...	有一个魔法师	存在句 존재문	존 현 문 句
		직시적 (deictics)	There comes the cat.	来了一只小猫	隐现句 은현문	
주술	자동사	존재	God exist.	上帝是存在的	主谓句 주술문	
		이동	John arrived.	约翰到了		
		타동사	John called.	约翰打电话了		
주술		John called his wife. ×	约翰给妻子打电话了			

Lambrecht(1994:180)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시된 제시질의 유형은 ‘be, be at, live, arrive’ 등이 나타나는 문장이고, 그는 이러한 동사의 논항이 매우 비-행위자적이고 자주 장소격-역할을 가진다고 하였다. 타동사 또한 제시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관련 지시체의 행위자성(agentivity)은 제시적 기능에 종속되고 화용적으로 비-행위자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중국어에서 은현문의 논항과 동사도 위와 같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4 장에서는 전형적인 은현문의 동사는 주로 자동사이며 관련 지시체도 비-행위자적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비-전형적인 은현문의 동사는 주로 타동사이며 관련 지시체도 은현문에 들어가면 행위자성을 억압받는다. 따라서 같은 서술어더라도 ‘John called’처럼 제시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John called his wife’처럼 제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John called’와

17) 이 표는 영어의 ‘존재적 there-구문’과 중국어의 ‘존재문’, ‘직시적 there-구문’과 ‘은현문’은 일대일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John called his wife’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장 ‘约翰打电话了’와 ‘约翰给妻子打电话了’는 존현문이 아니다.

다시 정리하면 ‘존현문/存现句’은 문장들의 의미와 형식에, ‘제시문/引介句’ 등은 문장들의 기능에 집중하여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존현문을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정보구조와 문장형식》에서 언급했던 제시문에는 there-구조, 장소 도치 구문 외에 일반 주술문도 포함되기에 존현문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다.

2.4.2. 담화 기능 분석

제시문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논의한 바가 있다. 앞서 Lakoff(1987:474, 561)에서는 ‘There-구문’의 기능은 청자의 주의(awareness)를 지시체에 집중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청자가 지시체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청자가 전에는 의식했다가 지금은 잊어버린 경우이다. 화자가 지시체를 잊어버린 청자에게 이런 문장형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remind)려고 하는 것이다. Bresnan(1994:85)에서는 ‘장소 도치 구문’의 지시체를 ‘제시적 초점(presentational focus)’로 부르며, 그는 담화 기능은 장소 성분을 통해 어떤 장면으로 도입된다고 하였다.

또한 Hetzron 은 제시문의 담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시문의 담화 기능: 이어지는 담화나 상황에서 상기하기 위하여 문장의 한 요소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 이러한 상기는 그 요소가 계속되는 담화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말해지는 것이 문제의 그 요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요소가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이루어질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Hetzron(1975:374); Lambrecht(1994:177)

이에 대해 Lambrecht 는 어떤 대상을 설치해 놓고 바로 주제가 될 수 없

지만 다음에 나타나는 절에서 주제화되는 것은 주제 인상이라고 하였다. 주제로 인상시키는 것은 제시적 구문의 중요한 담화 기능이다.

제시구문(presentation)의 담화 기능: 제시구문을 사용하는 요점은 수신자의 주의를 발화 장면에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에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 구성은 ‘제시’라고 불리는데 그것의 의사소통적 기능이 주어진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 새 대상을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Lambrecht(1994:39)

위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존재적 구성, 직시적, 제시적 구문 등의 공통점은 아직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적인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표준중국어의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관련된 설명은 없지만 은현문의 상위구조 존현문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다. Li & Thompson(1989:478)에서 제시문은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구를 담화 속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许余龙(2005), 吴卸耀(2006:137), 林忠(2014:87) 등 학자들은 존현문은 목적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정보구조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정보구조 연구는 문장형식과 인지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본고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통사적, 화용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은현문 ‘VN了’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고는 다수의 경쟁하는 문장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왜 반드시 하나의 형식만이 출현 가능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본 장에서는 묘사와 통계를 통해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선 ‘VN了’ 내부의 각 성분을 살펴본 후, 나아가 외적으로 ‘VN了’의 통사적 분포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정보구조 등의 분석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다.

3.1. ‘VN了’ 은현문의 성분 분석

3.1.1. ‘VN了’ 은현문의 문두성분

은현문의 문두성분에 관해 학자들은 주로 장소 성분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코퍼스 자료를 통하여 문두성분의 전체적인 양상을 정리한 결과 ‘VN了’ 앞에는 장소(1a), 시간(1b), 소유자(1c), 원인(1d) 등 성분이 나타날 수 있다.

- (1) a. “哥哥，不得了了，船舱里进水了，你快来看啊！”(儒勒·凡尔纳《十五少年漂流记》)
“오빠, 큰일 났어, 선실에 물이 들어왔어, 빨리 와서 봐!”
- b. 早晨下雨了。(弗拉基米尔·纳博科夫《洛丽塔》)
아침에 비가 왔어요.
- c. 你来客人了，我就不说了。(余华《女人的胜利》)
당신 손님이 오셨으니 내가 말하지 않을게.
- d. 西鲁村一位老人因突发脑溢血去世。谣言一下子传遍了鲁南，说西鲁村的“非典”死人了。(文汇报 2003-5-20)
시루 마을의 한 노인이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루난 지역에 “시루 마을에서 사스(SARS)때문에 누가 죽었어요.”라고 소문이 돌았다.

(1) 장소

黄伯荣·廖旭东(1997:129) 등 학자들은 존현문을 정의할 때 “어떤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 출현,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형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소 성분은 은현문의 기본 구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장소 성분은 형식적으로 방위사, 명사+방위사, 전치사+명사, 명사, 대명사, 복합구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2) a. 对面来车了, 怎么办, 怎么办?(对话)
맞은편에 차가 왔는데, 어떡해, 어떡해?
- b. 场子里出事了: 有一面墙倒下来。(契诃夫《集市》)
광장에서 벽 하나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 c. 从新加坡来客人了, 多准备一双筷子。(微博)
싱가포르에서 손님이 오셨으니 젓가락 한 벌 더 준비해 줘.
- d. 宿舍昨天来暖气了。(对话)
기숙사에 어제 난방이 들어왔다.
- e. 那边又来人了, 她们要接待客人。(张炜《你在高原》)
저기 또 사람이 왔어요. 그녀들이 손님을 접대할 거예요.
- f. 已经绿化了的山岗, 一个个枯泉又出水了。(人民日报 1957-6-9)
이미 녹화한 언덕에서 메말랐던 샘에 또 물이 나왔다.

(2a)의 문두성분 ‘对面’은 방위사이다. 방위사는 일반적으로 단순 방위사와 합성 방위사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上, 下, 左, 右’ 등은 단순 방위사이고, ‘面, 边, 方, 部’ 등과 결합한 것은 합성 방위사이다. 본문에서 수집한 예문에 나타나는 방위사는 주로 (2a)와 같은 합성 방위사이고, 단순 방위사가 사용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2b)의 문두성분 ‘场子里’는 ‘명사+방위사’ 형식이다.¹⁸⁾ (2c)의 문두성분 ‘从新加坡’는 ‘전치사+명사’ 형식이고, 싱가포르의 이동의 종점이 아닌 출발하는 기점이다. (2d)의 문두성분

18) 문장 의미의 영향으로 문두성분의 출현빈도도 달라진다. ‘来客人了’류 예문에서는 ‘전치사+명사’ 형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来人了’류 예문에서는 명사 형식 장소 성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宿舍’는 ‘명사’ 형식이다. (2e)의 문두성분 ‘那边’은 대명사 형식이다. 여기서 ‘那边’은 앞의 문맥에서 이미 언급한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¹⁹⁾ (2f)의 문두성분은 ‘복합구조’로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장소 성분은 극히 드물다.

- (3) a. 昨天晚上震完, 政府就来人了。(人民日报 2013-11-24)
어젯밤 지진이 멈추자 정부에서 사람이 왔다.
- a'. 昨天晚上震完, 建设部就派人来了。
어젯밤 지진이 멈추자 정부가 사람을 보냈다.
- b. 建设部来人了, 他必须设晚宴接待。(胡小胡《太阳雪》)
건설부에서 사람이 왔으니, 그는 반드시 만찬 접대를 준비해야 한다.
- b'. 建设部派人来了, 他必须设晚宴接待。
건설부에서 보낸 사람이 왔으니, 그는 반드시 만찬 접대를 준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명사류의 내부는 조금 복잡하며 ‘政府(정부)(3a), 建设部(건설부)(3b), 公安局(공안부), 工商局(공상부), 检察院(검찰청), 学校(학교), 医院(병원), 公司(회사)’ 등과 같은 기관 명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명사들은 문장형식에 따라 그 문장에서 담당하는 의미 역할도 달라진다. ‘政府(정부)’와 ‘建设部(건설부)’는 (3a'), (3b')에서 행위자로 볼 수 있지만, (3a), (3b)에서는 ‘VN了’ 형식 은현문의 문두성분으로 나타나며 사람이 출현하는 기점을 표현한다.

또한 (3a)‘政府来人了’의 ‘政府’, (3b)‘建设部来人了’의 ‘建设部’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3a)의 ‘정부’와 (3b)의 ‘건설부’는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종점이 될 수도 있다. 유수경(2012:245)에서는 전치사와 공기하지 않으면서 기점의미를 지닌 장소 문두성분은 중의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19) ‘那边’은 앞의 발화 환경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일 경우도 있고,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말하기에 ‘那边’을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这时他抬起头来, 用手遮着阳光向车道那边凝望。“那边来人了, ”他在阳光中眨巴着眼睛说(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고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차도 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사람이 왔어요.” 그는 햇빛 속에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米切尔《飘》)

(3a)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고위직 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발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3b)의 문맥을 살펴보면 만찬 접대를 해야 하는 사람 ‘他’가 일을 하는 기관이 건설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부가 기점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이동의 ‘기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면 전치사 ‘从’을 앞에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从新加坡来客人了’라는 문장에서 문맥이 없어도 ‘从’을 통해 ‘新加坡’가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²⁰⁾

- (4) a. 禮林的生活或其他方面又出事了, 不得了啦。(张炜《你在高原》)
개림이 생활이나 다른 방면에서 또 일이 생겨 큰일이다.
b. 他们之间出现问题了。(百度)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또한 (4a)‘...方面’, (4b)‘...之间’이라는 범위를 나타내는 문두가 있는데 이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기에 장소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 (5) a. 井, 终于出水了。(人民日报 1977-2-19)
우물에 드디어 물이 나왔다.
b. 天, 不知什么时候已经开始下雨了。(王火《战争和人》)
하늘에서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20) ‘政府来人了, 建设部来人了’의 ‘정부, 건설부’를 중점으로 볼 경우는 사람이 ‘정부, 건설부’에 도착하였음을 나타내므로 ‘출현’을 의미하는 은현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政府, 建设部’를 기점으로 볼 경우 사람이 ‘정부, 건설부’를 떠났음을 나타내므로 소실을 표현하는 은현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경우에 출현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소실로 해석할지는 동사와 발화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즉 발화자를 중심으로 보면 ‘政府来人了, 建设部来人了’는 사람이 출현하였음을 나타내므로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은현문이 아닌 출현을 나타내는 은현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장소 성분 뒤에 쉽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수집된 자료 중 단 2개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런 형식적인 표현은 화용적 기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宋玉柱(1991:121)에서는 장소 성분이 문두에 위치하지 않고 겹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这个消息使大家的心里又出现了一线希望(이 소식은 모두의 마음속에 또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은현문의 앞에 동사 ‘使(~하게 하다/시키다)’가 있다. 장소 ‘大家的心里(모두의 마음속)’은 앞 문장의 목적어, 뒤 문장의 주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본문의 연구 범위가 아니며, 코퍼스에서도 ‘주어+使+장소 문두성분+VN了’ 형식인 예문을 찾아볼 수 없다.

- (6) a. 문두 없음(22.33%)
 来人了! (王旭烽《筑草为城》)
 누가 왔어요!
- b. 장소(64.73%)
 北京来人了! (科技文献)
 북경에서 누가 왔어요!
- c. 시간+장소(7.77%)
 此时, 门口来人了。(戴维·赫伯特·劳伦斯《儿子与情人》)
 이때, 입구에 누가 왔어요.
- d. 장소+시간(1.62%)
 他们办事处已经是第二次来人了。(陀思妥耶夫斯基《罪与罚》)
 그들의 사무실에 벌써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 e. 소유자+시간+장소(0.32%)
 “嘿嘿, 我下午家里来人了, 没给你说声。”(对话)
 “헤헤, 오후에 집에 사람이 와서 너한테 말 안 했어.”

‘来人了’를 예로 문두성분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6a)와 같이 문두가 없는 예문은 전체의 22.33%이고, (6b)와 같이 장소 문두성분이 나타나는 예문은 64.73%이다. 다른 성분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 주로 시간명사와 공

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현빈도가 높지 않다. (6c)와 같이 ‘시간+장소’, (6d)와 같이 ‘장소+시간’ 형식 문두성분이 나타나는 예문은 각각 7.77%, 1.62%이다. (6e)와 같이 ‘소유자+시간+장소’ 형식 문두성분이 나타나는 예문은 단지 0.32%밖에 되지 않는다. ‘장소’, ‘시간+장소’, ‘장소+시간’, ‘소유자+시간+장소’를 포함하는 모든 장소 문두성분이 나타나는 비율은 74.44%이며, ‘VN了’ 앞에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표3-1> 장소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21)

예문	L	L · T		L · P	L · P · T	총계
		T+L	L+T	P+L	P+T+L	
来人了(309)	200(64.73%)	24(7.77%)	5(1.62%)		1(0.32%)	230(74.44%)
来客人了(147)	76(51.7%)	8(5.44%)	3(2.04%)			87(59.18%)
来车了(34)	5(14.71%)					5(14.71%)
来暖气了(217)	72(33.18%)	4(1.84%)	2(0.92%)			78(35.94%)
来电了(100)	5(5%)	2(2%)				7(7%)
进水了(115)	89(77.39%)	4(3.48%)	3(2.6%)	11(9.57%)	1(0.87%)	108(93.91%)
出水了(79)	34(43.04%)	5(6.33%)	2(2.53%)	1(1.27%)		42(53.17%)
死人了(40)	20(50%)	1(2.5%)				21(52.5%)
下雨了(110)	12(10.9%)					12(10.9%)
出太阳了(17)	5(29.41%)					5(29.41%)
长痘痘了(50)	13(26%)	3(6%)				16(32%)
裂缝了(32)	28(87.5%)	3(9.38%)				31(96.87%)
1250	559(37.82%)	54(4.32%)	15(1.2%)	12(0.96%)	2(0.16%)	642(51.36%)

통계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장소 성분이 ‘VN了’ 은현문의 문두에 출현하는 빈도는 전체의 51.36%를 차지한다. 따라서 ‘VN了’ 은현문은 장소 성분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며 장소와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시간

앞서 黄伯荣·廖序东(1997:123)에서는 존현문을 정의할 때 장소 문두성

21) <표 3-1> ~ <표 3-6> 안에 장소 문두성분은 ‘L’로, 시간 문두성분은 ‘T’로, 소유자 문두성분은 ‘P’로, 원인 문두성분은 ‘C’로 표시한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黄伯荣·廖序东(1991:114~115)에서는 존현문을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존재, 출현,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이 정의는 이론적으로 존현문의 기본 구조에 시간 성분을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1997 판(黄伯荣·廖序东), 2016 판(黄伯荣·李炜)에서는 ‘何时(언제)’라는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가 삭제되었다.

宋玉柱(1987:196)에서는 은현문의 앞부분 구성성분에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范晓·陈昌来(2015:238)에서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물은 일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시간은 넓은 의미의 장소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刘月华(2001:726), 张先亮·范晓(2010:96), 王建军(2003:59~89)²²⁾ 등도 이와 비슷하게 주장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문두성분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배경으로 시간을 존현문의 문두성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시간 성분의 출현빈도 등에 대해 통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VN了’ 형식인 은현문은 시간 성분과 공기하는 비율이 대략 10% 정도이다. ‘进水了’가 시간 성분만을 나타내는 예문의 수는 전체의 0.87%에 불과하며 가장 적다.

시간 성분과 장소 성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시간+장소+VN了’ 형식이 ‘장소+시간+VN了’ 형식보다 월등히 높다. ‘来人了’의 ‘시간+장소’형 문두는 전체의 7.77%를 차지하고, ‘장소+시간’형 문두는 1.62%를 차지하여 시간 성분과 장소 성분이 같이 나타나는 문장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7) a. 两个月后, 国家公安部来人了, 要看他现场的业务表演。(张宇《软弱》)
두 달 후, 국가 공안부에서 누가 그의 현장 연주를 보러 왔다.

22) 王建军(2003)의 연구 대상 존재문은 본고에서 언급한 존현문이며, 존재문과 은현문을 포함한다.

- b. 7月24日下午4点4, 南石门村来电了。(人民日报 2016-8-15)
7월 24일 오후 4시에 남석문촌에 전기가 들어왔다.
- c. 4月3日, 新井出水了, 每小时出水量达50吨, 是眼好井。(科技文献)
4월 3일, 새 우물에서 물이 나왔는데 시간당 50톤의 물이 나오는 좋은 우물이었다.

또한 시간 성분은 장소 성분보다 쉽표와 공기하는 빈도가 더 높다. 예문 (7)의 ‘2개월 후, 7월 24일 오후 4시, 4월 3일’ 등 시간 성분은 모두 뒤에 쉽표가 쓰인 후, 장소 성분이 등장한다.

수집된 자료에는 ‘那一刻, 这时, 这时候, 第二天, 这样的晚上, 不久, 两个月后, 一段时间以后’ 등도 있지만, ‘中午 13:30, 7月24日下午4点, 4月4日, 9月16日, 2001年5月26日中午, 大约在晚上8:30左右’ 등과 같이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시간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현했다. 시간 문두성분의 출현빈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2〉 시간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예문	T	L · T		T · P		L · P · T	총계
		T+L	L+T	T+P	P+T	P+T+L	
来人了(309)	9(2.91%)	24(7.77%)	5(1.62%)	1(0.32%)		1(0.32%)	40(12.95%)
来客人了(147)	5(3.4%)	8(5.44%)	3(2.04%)				16(10.88)
来车了(34)	3(8.82%)						3(8.82%)
来暖气了(217)	17(7.84%)	4(1.84%)	2(0.92%)				23(10.6%)
来电了(100)	8(8%)	2(2%)					10(10%)
进水了(115)	1(0.87%)	4(3.48%)	3(2.6%)			1(0.87%)	9(7.83%)
出水了(79)	2(2.53%)	5(6.33%)	2(2.53%)				9(11.39%)
死人了(40)		1(2.5%)		1(2.5%)			2(5%)
下雨了(110)	7(6.36%)		3(2.73%)				10(9%)
出太阳了(17)	1(5.88%)						1(5.88%)
长痘痘了(50)	3(6%)	3(6%)			1(2%)		7(14%)
裂缝了(32)		3(9.38%)					3(9.38%)
1250	56(4.48%)	54(4.32%)	18(1.44%)	2(0.16%)	1(0.08%)	2(0.135%)	133(10.64%)

위의 분석과 통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과 장소의 성분은 ‘VN了’의 문두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현하거나, 사라지는 사람이나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사물의 시간적, 공간적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출현빈도, 출현위치, 심표와의 공기’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시간 성분은 공간 성분에 비해 출현빈도가 매우 낮고, 대부분 동사에서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즉, ‘VN了’ 은현문과 장소 성분은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시간 성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유자

문두에 나타나는 소유자는 주로 ‘我, 你, 他’와 같은 인칭대명사인데 ‘명사’ 형식 또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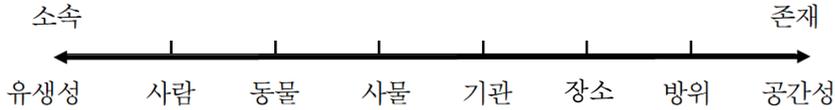
- (8) a. 雁冬取出钥匙开了大门。走进院里，她就冲西屋叫道：“望婆婆，我来客人了！”(谌容《梦中的河》)
안동이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서옥을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나에게 손님이 왔어요!”
- b. 过寿是送礼祝贺，现在人家死人了，仍是送礼祝贺。(人民日报 1948-8-6)
생신에도 선물을 드리며 축하하고, 지금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선물을 드리며 축하를 한다.
- c. 孩子长痘痘了。(微博)
아이가 여드름이 났어요.

(8a) ‘来客人了’의 문두 소유자는 ‘我’이고, (8b) ‘死人了’의 문두 소유자는 ‘人家’이며, (8c) ‘长痘痘了’의 문두 소유자는 ‘孩子’이다. 유명한 예문인 ‘王冕死了父亲’의 문두성분도 소유자이지만 그 형식은 ‘了₁’를 가진 ‘V了N’ 이기에 본고의 연구 대상인 ‘了₂’를 가진 ‘VN了’와는 다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 ‘소속문(领属句)’과 ‘존현문’의 의미 범주가 유사하다고 본다. 杨安红(2004:115~116)에서는 ‘소유자’와 ‘공간’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 ‘소속’에서 ‘공간’까지 하나

의 연속체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표 3-3>).

<표3-3> 문두성분의 연속체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만약 더 상위 차원에서 본다면 ‘소속문’과 ‘존현문’은 같은 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본문은 장소/시간 문두를 가진 은현문을 논의하면서 때때로 ‘소속문’과 비교하여 논의할 것이다.

<표3-4> 소유자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예문	P	L · P		T · P		L · P · T	총계
		P+L	T+P	P+T	P+T+L		
来人了(309)			1(0.32%)		1(0.32%)		2(0.64%)
来客人了(147)	7(4.76%)						7(4.76%)
来车了(34)							
来暖气了(217)							
来电了(100)							
进水了(115)		11(9.57%)			1(0.87%)		12(10.44%)
出水了(79)		1(1.27%)					1(1.27%)
死人了(40)			1(2.5%)				1(2.5%)
下雨了(110)	1(0.9%)						1(0.9%)
出太阳了(17)							
长痘痘了(50)	9(18%)			1(2%)			10(20%)
裂缝了(32)							
1250	17(1.36%)	12(0.96%)	2(0.16%)	1(2%)	2(0.16%)		34(2.72%)

(4) 원인

‘VN了’ 은현문의 문두 위치에 시간, 장소 등 이외에 원인 성분도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에는 (3-1d) ‘西鲁村的非典死人了(시루 마을에서 사스(SARS)때문에 누가 죽었어요)’라는 예문이 있는데 여기서 ‘西鲁村(시루 마을)’은 누군가 사망한 장소이고, ‘非典’은 사망자가 죽은 원인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루 마을에서 사스때문에 누가 죽었다’와 같이 ‘때문에’ 이 단어는 ‘非典’이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원인 성분의 출현은 극히 드물고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은현문 ‘VN了’의 필수 구성성분으로 보지 않는다.

(5) 문두성분 없음

은현문 앞의 장소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예문도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9) a. 这时候, 厢房门一响, 走出一个干瘦的小老头.
그때 문 소리가 나더니 깡마른 노인 한 분이 나왔다.
- b. 不想过午忽然刮起一种阵风.
오후에 갑자기 돌풍이 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 c. 又过一会, 隐隐响起雷声.
또 잠시 후 천둥소리가 어슴푸레하게 울렸다.

宋玉柱(1991:114)의 견해에 따르면 장소 성분이 나오지 않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예문(9a)처럼 문맥이나 담화 환경으로 담화 참여자가 공간적 배경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이다. (9a)에서 은현문 ‘走出一个干瘦的小老头’는 장소 문두성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앞의 절 ‘厢房门一响’에서 장소 관련 정보를 회복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문(9b), (9c)처럼 명제 관련 지시체가 어디서 출현, 소실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주로 자연현상 관련 상황인 경우이다.

〈표3-5〉 문두성분이 없는 ‘VN了’의 출현빈도 통계

예문	문두 없음
来人了(309)	69(22.33%)
来客人了(147)	48(32.66%)
来车了(34)	26(76.47%) [3]

来暖气了(217)	122(56.22%) [5]
来电了(100)	85(85%) [1]
进水了(115)	6(5.22%)
出水了(79)	35(44.3%)
死人了(40)	17(42.5%)
下雨了(110)	87(79.09%) [2]
出太阳了(17)	11(64.71%) [4]
长痘痘了(50)	21(42%)
裂缝了(32)	1(3.12%)
1250	528(42.24%)

위의 통계 결과를 보면 문두성분이 없고 ‘VN了’ 형식으로 쓰이는 은현문으로 ‘来电了’, ‘来暖气了’, ‘来车了’, ‘下雨了’, ‘出太阳了’ 등이 가장 많이 출현한다. 1 위인 ‘来电了’, 3 위인 ‘来车了’, 그리고 5 위인 ‘来暖气了’는 발화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에 문두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현상 관련 상황이기에 ‘下雨了’는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79.09%를 차지하며, ‘出太阳了’는 네 번째로 많은 64.71%를 차지한다.²³⁾

앞서 <표 3-1> ~ <표 3-5>의 통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6> 문두성분 출현빈도 통계

문두성분		총비율		총비율	
1	장소 (L, L·T, L·P, L·P·T)	642	(51.36%)	최소	
2	문두 없음	528	(42.24%)	문두 없음	
3	시간 (T, L·T, T·P, L·P·T)	133	(10.64%)	시간	
4	소유자 (P, L·P, T·P, L·P·T)	34	(2.72%)	소유자	
5	원인 (C)	1	(0.08%)	원인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소 성분이 문두에 출현하는 ‘장소+VN

23) 자연현상에 관한 ‘VN了’ 은현문의 문두에 다른 장소가 오는 경우도 있다. ‘福州出太阳了(복주에 해가 떴다)(福州新闻广播 2022-06-19-20:55)’와 같은 문장에서 ‘福州(복주)’라는 공간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了’ 형식의 은현문, 어떠한 문두성분도 없는 ‘VN了’ 은현문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소 성분과 동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를 은현문의 필수 구성성분으로 볼 수 있다. 시간 성분은 장소 성분보다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 성분이 ‘VN了’ 은현문에 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유자 성분이 ‘VN了’의 문두에 출현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속문’으로 보며 은현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은현문과 소속문의 형식적, 의미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3.1.2. 동사와 공기 성분의 특성

본문의 연구 대상은 맨동사이기에 ‘동사+보어’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은현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V는 단음절인 경우가 많다.



〈그림3-1〉 단음절V와 이음절V의 출현빈도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의 단음절과 이음절 간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음절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음절 동사가 86.41%, 이음절의 동사는 13.59%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은 구어성도 지닌다.

‘VN了’ 은현문의 동사는 맨동사이지만 동사 앞에도 부사나 조동사가 많이 출현한다. 총 1250 개 예문 중 339 개 예문에 동사 앞에 부사 또는 조동사가 출현했으며 이는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7〉 동사와 공기하는 부사와 조동사

又 44	>	就 42 要 41	>	终于 39	>	都 21	>	也 16 不 13	>	就要 10 快 9
真的 7 马上 7	>	突然 6 已经 6	>	原来 5 又要 5 没 5 快要 5	>	全 4 居然 4 一定 4 在 4	>	不要再 3 确实 3	>	可算 2,早就 2, 正好 2,大概 2, 果然 2,真是 2, 难道 2, 不会再 2,
幸亏 1, 可能 1, 也许 1, 肯定 1, 刚刚 1, 才 1, 才能 1, 忽然 1, 竟然 1, 难怪 1, 即 > 刻 1, 立马 1, 不巧 1, 略略有点儿 1, 果真 1, 总算 1, 真 1, 陆续 1, 陆陆续续 1, 应该 1, 该 1										

통계를 보면 동사 앞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又(44)’이다.²⁴⁾ ‘又’는 보통 예문(10a), (10b)처럼 맨동사 앞에 바짝 붙어 나타난다. 문장 문두에 장소 등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 ‘又’는 예문(10c)처럼 다른 성분의 뒤이자 동사 앞에 위치한다. 때로는 예문(10d)의 ‘又’와 그 뒤의 쉼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동사 앞 위치에서 휴지를 가지는 경향도 있다.

- (10) a. “又来人了。”
 “来了, 并且手术了。”(对话)
 “또 누가 왔어요.” “와서 수술도 했어요.”
- b. 那最安全的话题就只有天气：“是啊, 天真冷。”或者“又下雨了。”(特雷西·基德尔《生命如歌》)
 가장 안전한 주제는 날씨뿐이다. “그래, 날씨가 정말 춥다.” 아니면 “또 비가 왔어요.”
- c. 我脸上又长痘痘了。(微博)

24) ‘又+VN了’의 출현빈도 통계: 来了 17, 长痘痘了 8, 来客人了 6, 下雨了 6, 出水了 4, 死人了 2, 来电了 1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내 얼굴에 또 여드름이 났다.

- d. 早上一早被拉起来当司机, 然后买菜, 下午好容易想看书, 又, 来客人了……唉, 没时间看书。(微博)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전사가 되고, 야채를 샀고, 오후에 책을 보고 싶었는데, 또 손님이 왔다. 아이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네.

맨동사와 공기하는 부사는 시간, 범위, 부정, 추측 등과 관련된 부류이고, 조동사에는 가능, 허용, 필요 등과 관련된 부류가 주로 포함된다. 동사 앞에 출현한 부사와 조동사 성분들은 후술할 정보구조 부분에서 좀 더 논의 하도록 하겠다.

3.2.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분포

‘VN了’ 은현문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복문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때로는 한 문장의 내부의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VN了’ 은현문의 통사적인 분포를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3.2.1. ‘VN了’ 은현문의 문장성분 기능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VN了’ 은현문이 문장의 등위표현(同位语), 서술어, 부사어, 보어, 목적어 등으로 출현하는 예문이 존재한다.

- (11) a. 《上面又来人了》组照, 则如一犀利的杂文, 一段幽默的小品, …批评了吃喝风。(科技文献)

“위에 또 사람이 왔다.”라는 사진들은 날카로운 잡문, 유머러스한 소품처럼 ... 먹고 마시며 낭비하는 풍조를 비판했다.

- b. 大量沉睡于江底千百年的各朝古币得以重见天日。当然, 也就一同出水了许许多多的故事。(人民日报 2016-4-25)

강바닥에서 수천 년 동안 잠을 자던 각 시대의 화폐들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많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다.

- c. 你好像比家里死人了还难受...(微博)
너는 집에 누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픈 것 같다.

‘VN了’ 은현문이 등위표현, 서술어, 부사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어서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각각 한 개씩만 발견되었다. (11a)의 ‘上面又来人了’는 ‘组照’의 등위표현이다. (11b)의 ‘出水’는 문장의 서술어가 된다. (11c)의 ‘比家里死人了’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 (12) a. 北方冷得都来暖气了。(微博)
북방은 너무 추워서 난방이 들어왔다.
b. 我们老家快旱死了, 水库都干得裂缝了。(微博)
우리 고향은 가뭄으로 다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저수지도 갈라졌다.
c. 最近累得长痘痘了。(微博)
요즘 피곤해서 여드름이 났어요.

‘VN了’ 은현문이 보어일 경우는 모두 ‘得’의 뒤에서 상태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12a)의 ‘来暖气了’는 북방 지역이 얼마나 추운지를 보충 설명했다, (12b)의 ‘裂缝了’는 고향의 가뭄이 심한 정도를 보충 설명했다, (12c)의 ‘长痘痘了’는 여드름이 날 정도로 피곤하다는 상태를 보충하여 설명했다.

- (13) a. 他们养了5头, 当把两头白胖肥猪抬到收购站里卖时, 那儿的老会计大瞪着眼, 以为西边出太阳了…(《读者》1987)
그들은 다섯 마리를 키웠는데, 두 마리의 통통한 돼지를 구매점으로 옮겨 팔았을 때, 그곳의 회계사는 서쪽에서 해가 뜨는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b. 我最最喜欢家里来客人了。(戴厚英《诗人之死》)
나는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c. 今天醒来雾气环绕, 唯一的欣慰是来暖气了。(对话)
오늘 잠에서 깨어날 때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유일한 기쁨은 난방이 들어 온 것이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VN了’ 은현문은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13a)의 ‘西边出太阳了’는 ‘以为’의 목적어이고, (13b)의 ‘家里来客人了’는 ‘喜欢’의 목적어이고, (13c)의 ‘来暖气了’는 ‘是’의 목적어이다.

〈표3-8〉 ‘VN了’ 은현문이 목적어로 쓰일 때 공기하는 동사

是	喜欢	感知·言说 (지각·발화)	看到, 看见, 见, 见到, 听见, 听到, 听说, 了解到, 感到, 估计, 预测,
			推测, 怀疑, 担心, 明白, 知道, 以为, 想到, 想起, 忘了, 不怕/怕, 发现, 发觉, 记得, 记起, 说明, 表明, 看来, 想象着, 意识到, 直觉到, 看样子, 看起来, 注意到, 预示着, 搞清(原来是), 问, …

수집한 동사 자료 중 가장 많이 출현한 부류는 (13a)와 같은 ‘지각·발화’류 동사이다. ‘지각·발화’류 동사는 ‘是’, ‘喜欢’보다 그 뒤의 은현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기에 뒤의 내용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VN了’ 은현문이 문장성분으로 출현하는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3-9〉 문장성분으로 쓰인 ‘VN了’ 은현문

예문	문장성분					총계
	수식어/ 등위표현	부사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来人了(309)	1(0.32%)				28(9.06%)	29(9.4%)
来客人了(147)					15(10.2%)	15(10.2%)
来车了(34)					2(5.88%)	2(5.88%)
来暖气了(217)				2(0.92%)		2(0.92%)
来电了(100)					4(4%)	4(4%)
进水了(115)					15(13.04%)	15(13.05%)
出水了(79)			1(1.27%)			1(1.27%)
死人了(40)		1(2.5%)			3(7.5%)	4(10%)
下雨了(110)						
出太阳了(17)						
长痘痘了(50)				3(6%)	2(4%)	5(10%)
裂缝了(32)				1(3.12%)		1(3.12%)
1250	1(0.08%)	1(0.08%)	1(0.08%)	6(0.48%)	69(5.52%)	78(6.24%)

‘VN了’ 은현문이 문장의 수식어, 부사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VN了’ 은현문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 주로 ‘지각·발화’류 동사 뒤에 출현한다.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得’의 뒤에서 상태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3.2.2. 단문으로의 ‘VN了’ 은현문

黄伯荣·李炜(2016:87)에서는 ‘문형(句型)’과 ‘문류(句类)’의 개념을 구분하고 단문을 ‘문류(句类)’로 다음과 같이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한다. 黄伯荣·李炜에 의하면 문형과 문류는 모두 문장의 분류인데 문형은 형식적으로 단문을 분류하는 것이고, 문류는 문장의 어투로 단문을 분류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문류의 하위분류들을 활용하여 단문으로 등장하는 ‘VN了’ 은현문의 예문들을 분류하고 묘사할 것이다.

- (14) a. 下雨了。(진술)
비 온다.
b. 下雨了吗?(의문)
비가 오나요?
c. 快点儿下雨吧!(명령)
빨리 비가 와라!
d. 哎呀!下雨了!(감탄)
아이고! 비가 오네!

본고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예문(14a)와 같은 진술문, (14b)와 같은 의문문, (14d)와 같은 감탄문이 많이 발견되는 반면, 예문(14c)와 같이 명령문의 기능을 나타내는 예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동작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혹은 동사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는 흔히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2인칭 대명사로 보완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VN了’ 은현문의 문두는 소유자가 아닌 시간, 장소 등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이다. 따라서 ‘VN了’ 은현문은 명령문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진술, 감탄, 의문문으로 나타난 ‘VN了’ 은현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술

진술문으로 등장하는 ‘VN了’ 은현문은 일반적으로 대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서술자의 서술에 많이 나타난다.

- (15) a. 第四天，抢修器材一到位，他就干了整整一天。7月24日下午4点，南石门村来电了。当夜幕降临，山脚下的南石门村，这么多年来王生廷一直守护的亮光，点点的灯火又亮了起来。(人民日报 2016-8-15)
넷째 날, 수리 기구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루종일 일했다. 7월 24일 오후 4시에 남석문촌에서 전화가 왔다. 어둠이 내리자 산기슭의 남석문 마을에서, 왕생정이 몇 년 동안 지켜온 빛, 드문드문한 등불이 다시 켜졌다.
- b. 又长痘痘了。今晚要早睡…累了，就休息！(微博)
또 여드름이 났어. 오늘 밤은 일찍 자야겠어 ... 피곤하니까 쉬자!

예문(15a)는 어떤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뉴스이고 예문(15b)는 웨이보(微博)에서 추출한 것으로 기록자 본인의 일기체로 볼 수 있다.

- (16) a. 那最安全的话题就只有天气：“是啊，天真冷。”或者“又下雨了。”(特雷西·基德尔《生命如歌》)
가장 안전한 주제는 날씨뿐이다. “그래, 날씨가 정말 춥다.” 아니면 “또 비가 왔어요.”

진술문에 속하는 예문 중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로, 단순히 인용 등의 형식으로 출현한 예문도 있다. 예문(16a)의 ‘下雨了’는 인용문에 사용되었다. 제 7장에서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대해 논의할 때 이러한 문장들은 기타류로 분류할 것이다.

(2) 의문

黄伯荣·李炜(2016:88~90)에 의하면 의문문은 다시 ‘판단 의문문²⁵⁾, 특정 의문문, 선택의문문, 정반 의문문, 반문’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17) a. “来暖气了吗?”
“没, 桌子上垫了一个电热桌垫。”(对话)
“난방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전열 테이블 패드를 깔았어요.”
- b. 为何正好我在这儿时墙壁裂缝了?(余秋雨《道士塔》)
왜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벽에 금이 갔을까?
- c. 今早你那里下雨了没?(澎湃新闻 2022-8-24 08:38)
오늘 아침에 그 곳에 비가 왔나요?
- d. 现在是下雨了还是下雪了?(新浪网 2020-11-16 9:20)
지금 비가 오나요, 아니면 눈이 오나요?
- e. “你家里不是来客人了么?”
“有问题吗?”(对话)
“당신 집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나요?”

‘VN了’ 은현문은 의문문으로 출현할 때 (17a)와 같은 판단 의문문, (17b)와 같은 특정 의문문, (17c)와 같은 정반 의문문, (17d)와 같은 선택의문문, 그리고 (17e)와 같은 반문을 모두 발견했다.

- (18) a. “栗田, 来客人了吧。外面有人呢。”“是吗?”义三探出头看了看。原来是房子。(川端康成《河边小镇的故事》)
“쿠리타씨, 손님 오셨죠? 밖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의심이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원래 방자이었다.
- b. 来人了吧。(抖音)
누가 왔죠?

25) ‘是非问句’ 이 용어는 ‘일반의문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판정 의문문’, ‘판단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에 사용된 ‘판단 의문문’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수집한 예문 중에서 ‘VN了’ 은현문은 주로 판단 의문문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여기서 ‘吗’ 외에 ‘吧’가 문맥에 출현하는 예문도 다수 존재한다.

판단 의문문 형식을 사용할 때 담화 환경에서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에게 ‘VN了’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다른 대화 참여자가 ‘VN了’의 N에 대한 서술을 이끌어 낸다.²⁶⁾ 이러한 수단을 통해 화자와 청자는 후속 문맥에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문일 경우에는 문법 형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나타나며 판단 의문문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예문(17e)에서는 ‘不是…么’와 같은 부정적 형식을 통해 화자가 청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3) 감탄

黄伯荣·李炜(2016:91)의 견해에 따르면 감탄문은 일반적으로 놀라움, 두려움, 분노, 기쁨, 어찌할 도리가 없음, 혐오 등과 같은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 (19) a. 韩江正琢磨殊儿此话之意, 忽听身后有人叫道: “了不得了, 死人了!”韩江耳中“噙”地一响, 回头看时, 只见地上已躺了两人, 正是那两个仍跟着顾伦的家人。(刘铮《凤凰琴》)
한강은 이 말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큰일났다, 누가 죽었다!” 한강 귀에 “윙윙”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땅에 이미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계속 구류를 따라다니던 그 두 사람이었다.
- b. “快下去! 背后来车了!”徐秘书大喊了一声。(莫应丰《将军吟》)
“빨리 내려가! 뒤에서 차가 왔다!” 서 비서가 큰 소리로 외쳤다.
- c. 可是下午6时半, 电来了。厂长急得团团转。不知谁到宿舍一吆喝:

26) 모든 판단 의문문이 모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妇人说: 你家也进水了吗? 男子说: 可以网鱼了!(여자는 “당신 집에도 물이 들어갔나요?”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라고 말했다.)(沈从文《如蕤集》)”와 같은 용례도 존재한다.

“来电了!”当班的, 不当班的, 退休病休的, 一起往车间跑。(人民日报 1990-11-12)

그런데 오후 6시 30분에 전기가 들어왔다. 공장장이 급해서 찢절맷다. 누가 기숙사에 가서 호통을 쳤다. “전기가 들어왔다!” 근무중인 사람, 근무하지 않는 사람, 은퇴한 사람, 병가를 낸 사람 모두 함께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예문(19)를 통해 살펴보면 ‘VN了’ 은현문이 감탄문으로 출현할 때는 흔히 ‘叫道(19a), 大喊(19b), 吆喝(19c), 嚷到(20a), 叫了起来(20c), 大叫, 吼道’ 등과 같은 ‘소리 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공기할 수 있다.

- (20) a. 钢管厂的王部长在电话里慌慌张张地嚷道：“快点来，我们厂进水了！”(灾难《飞卢小说网》)
강관 공장의 왕 부장은 전화로 “빨리 와, 우리 공장에 물이 들어와!”라고 황급히 소리쳤다.
- b. 她听见两人在围墙边说话的声音, 便急急忙忙赶过来报信：“家里来客人了。”(施托姆《茵梦湖》)
그녀는 두 사람이 담장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소식을 알렸다. “집에 손님이 왔어.”
- c. 迎霜又激动地叫了起来：“来人了！来人了！”(王旭烽《筑草为城》)
영상이 다시 감격해서 소리쳤다. “누가 왔어! 누가 왔어!”

그리고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慌慌张张地(20a), 急急忙忙地(20b), 激动地(20c)’ 등의 표현을 동사 앞에 위치시켜 행동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 예문 (20b)의 문말에는 느낌표 대신 마침표를 썼는데 문맥상 ‘急急忙忙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예문도 감탄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VN了’ 은현문이 단문일 경우 각 분류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표3-10〉 단문으로 쓰이는 ‘VN了’ 은현문

예문	단문					총계
	진술			감탄(보고)	의문	
	일반	인용	보고			
来人了(309)	50(16.18%)	4(1.29%)	38(12.3%)	20(6.47%)	24(7.77%)	136(44%)
来客人了(147)	13(8.84%)	2(1.36%)	13(8.84%)	12(8.16%)	11(7.48%)	51(34.7%)
来车了(34)	3(8.82%)			8(23.52%)	2(5.88%)	13(38.24%)
来暖气了(217)	26(11.98%)			28(12.9%)	19(8.75%)	73(33.64%)
来电了(100)	42(42%)			9(9%)	3(3%)	54(54%)
进水了(115)	8(6.95%)		4(3.47%)	7(6.08%)	24(20.86%)	43(37.39%)
出水了(79)	11(13.92%)			11(13.92%)	1(1.26%)	23(29.11%)
死人了(40)	2(5%)		1(2.5%)	11(27.5%)	9(22.5%)	23(57.5%)
下雨了(110)	39(35.45%)	1(0.9%)	14(12.72%)	7(6.36%)		61(55.45%)
出太阳了(17)	1(5.8%)	1(5.8%)	1(5.8%)	4(23.53%)		7(41.18%)
长痘痘了(50)	20(40%)			6(12%)	2(4%)	28(56%)
裂缝了(32)				2(6.25%)	1(3.12%)	3(9.37%)
1250	215(17.2%)	8(0.64%)	71(5.68%)	125(10%)	96(7.68%)	515(41.2%)
	294(23.52%)					

먼저 세로로 이 표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감탄문 형식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예문은 ‘死人了’, ‘出太阳了’, ‘来车了’로 각각 전체의 27.5%, 23.53%, 23.52%를 차지한다. 의문문 형식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예문은 ‘死人了’, ‘进水了’이며 전체의 22.5%, 20.86%를 차지한다. 진술문 형식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예문도 ‘来电了’, ‘长痘痘了’이며 전체의 42%,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퍼스에서 찾아낸 ‘死人了’ 등 예문의 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 예문의 수량을 확대하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가로로 이 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술문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탄문, 의문문 순이다. 그러나 ‘死人了’와 ‘进水了’는 이러한 경향성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1) a. 你脑子进水了, 尼尔? (维卡斯·斯瓦鲁普《贫民窟的百万富翁》)

너의 머리에 물이 들어갔니, 닐?

b. 你那脑子在干啥? 进水了? (周大新《湖光山色》)

너의 그 머리는 무엇을 하고 있니? 물이 들어갔나?

‘进水了’에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면 의문문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脑子+进水了’와 같은 형식으로 쓰인다. ‘脑子+进水了’는 누군가의 머리가 이상하고 똑똑하지 않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반문 형식으로 나타나고 ‘다른 이의 머리가 이상하다’라는 비판을 강조하는 것이다.

- (22) a. 嫩嫩哭多了，安娜火就上来了，噼里啪啦在嫩嫩的屁股蛋上一阵乱拍，“叫你哭，叫你哭，丧门星！家里死人了啊？没事都给你哭死了！”(六六《王贵与安娜》)

눈눈이 많이 올라 안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눈눈의 엉덩이를 한동안 탁탁 때리며 “울라고, 울라고, 불길한 것! 집에 누가 죽었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니가 울어서 죽겠다!”

- b. “有事儿？你昨天晚上干吗去来着？”“我有急事！”“什么急事？你家死人了吗？”(中国传统相声)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어제저녁에 뭐 하러 갔었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급한 일 뭐요? 당신 집에 누가 죽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死人了’가 의문문으로 출현할 때는 주로 비현실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22a)에서 보이다시피 누가 죽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울음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내는 표현방식인 것이다. 예문(22b)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 2. 3. 복문에서의 ‘VN了’ 은현문

일반적으로 복문은 단문보다 한 단계 위의 어법 단위로 간주한다. ‘VN了’ 은현문은 단문 외에 복문의 한 구성 부분으로 시작, 중간, 혹은 끝에 위치할 수 있다. 본고는 黄伯荣·李炜(2016:100)의 분류를 참고하여 분석할 것이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표3-11〉 복문의 분류(黄伯荣·李炜 2016)

분류	하위 분류	접속사	예문
연합복문 (联合复句)	并列 병렬	(也)…也…	你(也)去,我也去. 너도 가고 나도 간다.
	承接 계승	首先…接着/然后	首先你去,然后我去. 내가 먼저 가고 그 후에 내가 간다.
	解说 해석	就是(说)	你去,就是说我不去了. 내가 가,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는 거야.
	选择 선택	(是)…还是	(是)你去,还是我去? 너 갈 거야, 아니면 내가 갈까?
	递进 점층	不但…而且…	不但你去,而且我也去. 내가 갈 뿐만 아니라 나도 간다.
	주종복문 (偏正复句)	条件 조건	只有…才…
假设 가정		如果…就…	如果你不去,我就不去. 만약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因果 인과		因为…所以…	因为你去,所以我也去. 내가 가니까 나도 가겠다.
目的 목적		为的是…	我不去,为的是让你去.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를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转折 전환		虽然…但是…	虽然你去,但是我不去. 너는 가지만 나는 가지 않는다.

(1) 시작절에 위치

시작절에 있는 ‘VN了’ 은현문은 가정복문, 병렬복문, 전환복문, 점층복문, 계승복문, 조건복문 인과복문 등 다양한 복문의 일부일 수 있다. ‘VN了’ 은현문은 이런 복문을 통해 문장의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 (23) a. 如果你的家里要来客人了,不妨先点上些淡淡的香薰,但千万别用化学香料,会适得其反。(微博)
집에 손님이 온다면 먼저 은은한 디퓨저를 놓아도 무방하지만 화학 향료는 사용하지 마세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 b. 高达一公尺五的墙裂缝了,同时基础也开始沉陷,上部墙壁也大量裂口了。
높이가 15 미터에 달하는 벽에 금이 갔고, 동시에 기초도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위쪽 벽도 크게 갈라졌다.

- c. 出太阳了, 但还是冷冷冷。(长江日报·大武汉客户端 2-20)
해가 떴지만 여전히 너무 춥다.
- d. 脸上长痘痘了, 而且还是多个进行!(微博)
얼굴에 여드름이 났고, 여러 개가 또 나는 중이다!
- e. 只有家里来客人了, 我才勉强收拾一下。(对话)
집에 손님이 와야 겨우 청소를 하게 됩니다.
- f. 正说着, 来客人了, 谷秀花赶忙起身招呼。(人民日报 2003)
말하는 도중에 손님이 왔고, 곡수화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를 했다.

예문(23a)는 ‘如果’가 쓰인 가정복문이고, (23b)는 ‘同时’를 통해 앞의 절과 뒤의 절의 병렬관계를 표현한다. (23c)는 ‘但是’, (23d)는 ‘而且’를 통해 각각 전환관계, 점층관계를 표현한다. (23e)는 조건복문이고, (23f)는 계승복문이다.

- (24) a. 来客也不少, 有送行的, 有拿东西的, 有送行兼拿东西的。
손님도 적지 않다. 배웅하는 자도 있고, 물건을 받는 자도 있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배웅하기도 하는 자도 있다.

刘月华(2001:866)에서는 병렬복문의 하위분류로 ‘분합관계(分合关系)’ 예문을 언급하였다.²⁷⁾ 예문(24)에서 ‘来客也不少’는 먼저 ‘손님도 적지 않다’라고 종합적으로 서술한 후 ‘배웅하는 자도 있고, 물건을 받는 자도 있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배웅하기도 하는 자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7) 刘月华(2001:866~878)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문을 분류하였다. 1.연합복문(联合复句): ①병렬(并列)[a 일반 병렬관계, b 대비관계, c 분합관계] ②계승(承接) ③점층(递进) ④선택(选择); 2.주중복문(偏正复句): ①인과(因果)[a 설명인과관계, b 추론인과관계] ②전환(转折)[a 강한 전환관계, b 약한 전환관계] ③조건(条件)[a 특정한 조건문, b 무조건문] ④가정(假设) ⑤양보(让步) ⑥취사선택(取舍) ⑦목적(目的) ⑧시간(时间) ⑨연쇄(连锁).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 (25) a. 这一次, 投资者仅仅是‘有望收回成本’, 换句话说, 很可能赔本。
이번에는 투자자가 “본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정도”일 뿐이다. 다시 말한다면 ‘밀지는 장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 b. 他有两个儿子, 一个是记者, 一个是公务员。
그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기자이고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다.

黄伯荣·李炜(2016:100)에서는 (24a)와 같은 예문을 병렬복문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석-설명’류에 귀속시켰다. 예문(25a) 경우는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예문(25b)는 ‘총-분(总分)’식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26) a. 有一天, 鲍十家来客人了, 是鲍十爱人的外地同学, 是母子俩。(黄蓓佳《追你到天涯》)
어느 날, 포십집에 손님이 왔는데, 포십 아내의 외지 동창이었고, 모자였다.
- b. 来客人了, 有七个人。(余华《许三观卖血记》)
손님이 왔는데 일곱 명이에요.

예문 (26a), (26b)와 같은 ‘VN了’ 은현문이 바로 ‘해석-설명’류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문은 ‘VN了’ 은현문 형식으로 후속 텍스트에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며 후속 절은 바로 이 지시체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담화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2) 중간절에 위치

복문의 중간절에 있는 ‘VN了’ 은현문도 앞, 뒤 문장 사이의 인과, 병렬 등 다양한 관계를 나타낸다.

- (27) a. 白雪唱完了, 教室里也来电了, 这时候距离下课不到10分钟了, 我叫学生们自己看书, 我在教室门外巡视着。(篇章)

백설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나자 교실 안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10 분도 남지 않아서 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책을 읽으라 하고 교실 밖을 살피며 돌아다녔다.

- b. 风吹雨打, 房屋的避潮层损坏了, 砖墙裂缝了, 屋架腐烂霉坏了, 房屋的居住功能濒临失效, 成了风烛残年的‘老人’。(文汇报 2002-1-11)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집의 피조층이 파손되고, 벽돌담이 갈라지고, 선반이 썩어 곰팡이가 나고, 집의 주거 기능을 거의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었다.
- c. 我只看了前半场, 后来来客人了, 没看完, 最后谁赢了?(教材)
전 전반전만 봤어요. 나중에 손님이 왔어요. 다 못 봤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 d. 完了, 就赖了下床, 家里来客人了, 我怎么可以经过客厅去卫生间又不被他们看到啊。(微博)
망했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갈 수 있어?

예문(27a)의 ‘VN了’ 형식인 ‘教室里也来电了’와 앞에 있는 ‘白雪唱完了’의 관계는 병렬적이다. 예문(27b)에는 ‘也’가 없지만 ‘砖墙裂缝了’와 ‘屋架腐烂霉坏了’ 간의 관계는 (27a)와 같이 병렬적이다. 예문(27c)의 ‘后来来客人了’는 ‘我只看了前半场’이 일어난 다음에 생긴 사건이므로 앞의 절과 뒤의 절은 시간적 계승 관계를 가진다. 예문(27d) 역시 마찬가지이다.

(3) 마지막 절에 위치

일반적으로 배경 정보는 앞에, 전경 정보는 뒤에 위치한다(이에 관련된 내용은 6.2.4 에서도 논의하겠다). ‘VN了’ 은현문은 원인, 조건, 시간 등의 배경 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장의 마지막 절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화자가 전경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결과적인 정보를 먼저 말하고 나서 ‘VN了’ 은현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충 설명한다면 ‘VN了’도 복문의 끝 위치에 등장할 수 있다.

- (28) a. 我说今天怎么没见你道晚安, 原来来客人了。(对话)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오늘 당신이 왜 저녁 인사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셔서 그랬군.

- b. 救援队伍先期 500 余人赶赴现场。“芦山现场街灯亮了，来电了！”(人民日报 2013-4-21)

먼저 구조팀 500 여 명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노산 현장 가로등이 켜졌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 c. “出来吧！这一局不下了，来客人了。”(米·布尔加科夫《大师与玛格丽特》)

“나와라! 이 판은 안 할 거야, 손님이 오셨어.”

예문(28a-c)는 모두 ‘역-인과복문’이다. ‘일반-인과복문’과 달리 ‘역-인과복문’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절은 앞에 위치하고 원인을 나타내는 ‘VN了’ 은현문은 뒤에 위치한다.

‘VN了’ 은현문이 본문의 각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12〉 복문에 쓰이는 ‘VN了’ 은현문

예문	복문			총계
	시작절	중간절	마지막 절	
来人了(309)	72(23.30%)	34(11%)	38(12.29%)	144(46.6%)
来客人了(147)	51(34.69%)	16(10.88%)	14(9.52%)	81(55.1%)
来车了(34)	10(29.41%)	5(14.7%)	4(11.76%)	19(55.88%)
来暖气了(217)	115(52.99%)		27(12.44%)	142(65.44%)
来电了(100)	27(27%)	5(5%)	10(10%)	42(42%)
进水了(115)	21(18.26%)	22(19.13%)	14(12.17%)	57(49.56%)
出水了(79)	21(26.58%)	13(16.45%)	21(26.58%)	55(69.62%)
死人了(40)	6(15%)	5(12.5%)	2(5%)	13(32.5%)
下雨了(110)	14(12.72%)	5(4.5%)	30(27.27%)	49(44.55%)
出太阳了(17)	9(52.94%)		1(5.88%)	10(58.82%)
长痘痘了(50)	6(12%)	4(8%)	7(14%)	17(34%)
裂缝了(32)	14(43.75%)	8(25%)	6(18.75%)	28(87.5%)
1250	366(29.28%)	117(9.36%)	174(13.92%)	657(52.56%)

‘来暖气了’는 복문의 시작절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는데 대부분의 예문이 ‘家里终于来暖气了，微微感觉到的温度还不错，但是还是需要热宝

(집에 드디어 난방이 들어왔다. 미세하게 느껴지는 온도는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핫팩이 필요하다)’와 같이 ‘微博’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下雨了’는 복문의 끝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예문(29a)의 ‘下雨了’와 앞절 사이의 관계는 전환이고 예문(29b)의 ‘下雨了’와 앞절 사이의 관계는 인과 관계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문(29c)와 (29d)처럼 앞의 절은 자연환경에 대해 묘사하고 뒷절 ‘真的下雨了/快下雨了’는 이 현상을 근거로 추론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 (29) a. 昨天晴了一天, 今天又下雨了。(郁达夫《郁达夫日记》)
어제는 하루 종일 맑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온다.
- b. 不到一小时, 船已张起帆篷, 因为天开始下雨了。(托马斯·曼《威尼斯之死》)
한 시간도 안 되어 배는 이미 돛을 올렸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 c. 零星的雨点飘打在脸上, 真的下雨了。(周国平《妞妞》)
산발적인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더니 정말 비가 온다.
- d. 西风呼呼地吹动他们的衣裳, 一堆堆灰色的云乘风飘过山头, 快下雨了。(约翰·斯坦贝克《愤怒的葡萄》)
서풍이 그들의 옷을 휘휘 날리고, 회색 구름 더미가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를 흘러가더니 곧 비가 올 것만 같다.

전체적으로 ‘VN了’ 은현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VN了’는 문장의 보어, 목적어, 수식어, 부사어, 서술어 등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비중이 실제로는 높지 않다.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VN了’는 진술과 감탄 위주로 쓰인다. 복문일 경우 ‘VN了’ 은현문이 본문의 시작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우세하다. ‘VN了’ 은현문의 유형별 분포 비율은 조금씩 다르며 각자 개별성을 지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상당히 유사하다.

3.3. ‘客人来了’와 ‘来客人了’의 비교

3.3.1. 문두성분의 차이

이 절에서는 ‘VN了’의 구조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 대표적인 예문의 쌍 ‘来客人了’와 ‘客人来了’가 통사적으로 어떤 공통성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문두성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0) a. 404 客人来了, 好好看着, 别说没用的! (村上春树《天黑以后》)
404 호에 손님이 오셨어. 잘 보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 b. 我们客人来了。(对话)
우리 손님이 왔어요.
- c. 我真想大哭一场, 可是这时候客人来了, 许多小朋友也跟着他们的爸爸妈妈一起来了。(左琴科《姐弟俩》)
나는 정말 크게 울고 싶었지만, 이때 손님이 왔고, 많은 어린이들도 그들의 엄마와 아빠를 따라왔다.

‘客人来了’에 해당하는 예문으로는 예문(30)과 같이 시간, 장소, 소유자 성분이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있다. 예문(30a)의 장소 명사 ‘404’는 손님도착하는 지점, 예문(30b)의 ‘我们’은 손님의 소유자, 예문(30c)의 ‘这时候’는 손님이 오는 시간으로 모두 문두에 위치한다.

- (31) a'. 我们的客人+来了。
a". 我们+客人来了。

그러나 예문(30b)는 중의성이 존재하며 (31a')와 (31a")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칭 대명사+(的)+사람과 관련 명사’일 경우는 ‘的’를 생략할 수 있기에 ‘我们客人’은 ‘我们的客人’으로 볼 수도 있다. 코퍼스

에서 검색된 예문들을 살펴보면 ‘我们姐姐(우리 언니)’, ‘我们丫头(우리 딸)’과 같은 ‘我们+친족 명사’ 형식인 표현들이 많이 출현하며 ‘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来客人了’와 ‘客人来了’ 문두성분의 출현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3〉 ‘来客人了’와 ‘客人来了’ 문두성분의 출현빈도

예문	L	T	P	C	L·T		L·P	T·P	L·P·T	문두 없음	총계
					T+L	L+T					
客人来了	1%	4%	1%							94%	100%
	6%										
来客人了	52%	3%	5%		5%	2%				33%	100%
	60%				7%						

‘客人来了’ 앞에 장소 성분이 나온 경우는 아주 적으며 단 ‘1%’로, ‘시간 성분’의 4%보다 낮다. 반면 앞서 분석한 것처럼 ‘来客人了’는 앞에 장소 성분이 나타나는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는다.

또한 ‘客人来了’는 문두성분이 없는 경우가 94%로 예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客人来了’는 장소 성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통사적 분포의 차이

먼저 문장의 내부 성분으로 쓰이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客人来了’는 ‘来客人了’처럼 ‘看见, 见, 听见’과 같은 ‘지각·발화’류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 (32) a. 一面是一张大桌子, 摆了茶烟瓜子碟, 是客人来了, 先休息的所在。(张恨水《欢喜冤家》)
 한쪽은 큰 식탁에 담뱃잎과 참외 접시가 놓여있어 손님이 오면 먼저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 b. 这总比某些不太实诚、好面子、讲排场、图豪华、要侈靡等毛病、客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人来了先整一桌再说的人要明智一些。(人民日报海外版 2005-4-1)
이는 그다지 성실하지 않고, 체면치레·겉치레·호화로움·사치스러움 등의 결점을 지니면서, 손님이 오면 먼저 상을 차려 놓고 말하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 c. 远处的深山, 还有穷得衣不蔽体、客人来了没有饭碗的农民。(人民日报 1987-7-10)
멀리 깊은 산속에는 아직 가난에 허덕이고, 손님이 와도 밥그릇이 없는 농민들도 있다.

‘客人来了’가 수식어로 나타나는 예문도 존재한다. ‘客人来了’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문(32a~c)와 같이 하나의 긴 수식어의 한 부분이였다. 이는 ‘来客人了’의 예문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현상이다.

- (33) a. 当客人来了, 祖父总是呼我念诗的, 我就总喜念这一首。(萧红《呼兰河传》)
손님이 왔을 때 할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시를 읽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늘 이 시를 자주 읽었다.
- b. 实在要发脾气时, 就把门关起来, 在家人面前逞威风, 及至客人来了, 仍得马上扮个笑脸相迎。(人民日报 1979-8-25)
막상 화날 때는 문을 닫고, 가족들 앞에서 위세를 부리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
- c. 老板是个 40 多岁的中年男子, 人很随和, 客人来了以后, 他总是用目光与你交流, 微笑着点一下头。(人民日报海外版 2016-4-27)
사장님은 40 대 중반의 중년 남자인데 매우 상냥하고, 손님이 온 후에는 항상 눈으로 당신과 교류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 d. 等客人来了, 让客人点餐。(百度)
손님이 오면 주문하라고 할게요.

또한 ‘客人来了’는 예문(33)처럼 ‘当, 及至, 等’ 등과 같은 시간적 요소와 결합하여 시간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来客人了’의 이러한 용례는 코퍼스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 (34) a. 客人来了。一个穿着风衣的，身材魁伟的叔叔，悄悄地来到了园子里。(人民日报 1957-8-22)
손님이 왔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덩치 큰 아저씨가 조용하게 정원에 왔다.
- b. 客人来了么?放下你的工作吧!(泰戈尔《泰戈尔诗选》)
손님이 오셨어요? 당신 일을 멈춰요.
- c. “泡了好茶没有? 客人来了!”(冰心《冰心全集(第六卷)》)
“좋은 차를 우렸어요? 손님이 왔어요!”

단문으로 쓰이는 ‘客人来了’에 대해서는 예문(34)와 같이 진술, 감탄, 의문 등의 예문을 찾을 수 있다. 예문(34a)는 진술문, (34b)는 의문문, (34c)는 감탄문으로 볼 수 있다.

- (35) a. 咪咪还有点“人来疯”，它特别喜欢客人，客人来了，它总在桌上的茶杯和点心之间走来走去。(冰心《冰心全集(第八卷)》)
미미는 사람이 오면 더 흥분한다. 그는 손님이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손님이 오면 항상 테이블 위의 찻잔과 과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 b. 他是芦湖上的渔夫，客人来了，就放下钓船，或者在湖上赏花。(辻井乔《父亲的肖像》)
그는 노호의 어부로 손님이 오면 낚싯배를 버려두거나, 혹은 호수에서 꽃구경을 한다.

복문으로 쓰이는 ‘客人来了’는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35a)와 (35b)에서 ‘客人来了’의 ‘客人’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며 고양이 ‘咪咪’와 ‘他’가 문장의 주어이다. ‘客人来了’는 단지 긴 문장에 끼워 넣은 작은 절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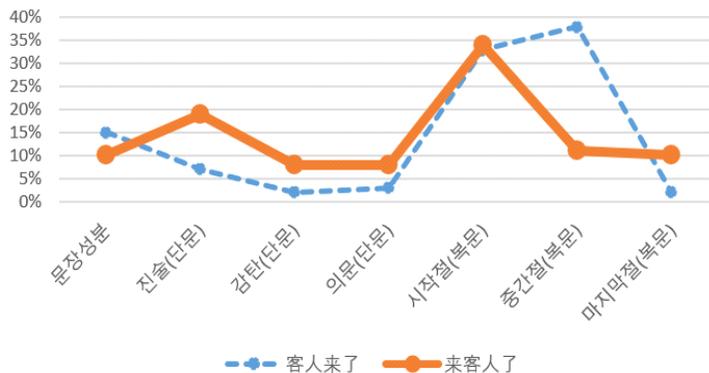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客人来了’와 ‘来客人了’의 통사적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표3-14〉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통사적 분포

예문	문장성분				단문			복문			총계
	보어	목적어	수식어	기타	진술	감탄	의문	시작	중간	마지막	
客人来了		5%	5%	5%	7%	2%	3%	33%	38%	2%	100%
	15%				12%			73%			
来客人了		10%			19%	8%	8%	34%	11%	10%	100%
	10%				35%			55%			

문장 내부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는 ‘来客人了’가 10%, ‘客人来了’는 15%에 해당한다. 단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来客人了’가 35%, ‘客人来了’는 12%에 해당한다. 복문에서 시작 위치에 나타나는 비율은 ‘来客人了’와 ‘客人来了’가 매우 비슷하다. ‘来客人了’가 34%, ‘客人来了’는 33%를 차지한다. ‘客人来了’는 문장의 끝에 있는 비율이 아주 적지만, 중간 위치에 있는 경우는 38%를 차지하며 ‘来客人了’보다 월등히 높다.



〈그림3-2〉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통사적 특징

위의 분석을 통해 ‘客人来了’와 ‘来客人了’가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단문의 사용 빈도는 ‘来客人了’가 ‘客人来了’보다 높지만, 복문의 사용 빈도는 ‘客人来了’가 ‘来客人了’보다 높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중간절의 ‘客人来了’는 ‘来客人了’보다 많지만 마지막 절에 사용되는 ‘来客人了’는 ‘客人来了’보다 많다.

그리고 감탄류 단문일 경우는 주로 문두 없는 ‘VN了’형식이고, 복문의 시작 위치일 경우는 주로 ‘장소 문두성분+VN了’형식이다.

〈표3-15〉 ‘来客人了’의 문두성분과 통사적 분포

‘来客人了’의 통사 분포		문두 없음		문두 있음			
		VN了(48)	L(76)	T(5)	P(7)	T+L(8)	L+T(3)
문장성분15		40%(6)	46.67%(7)		13.33%(2)		
단 문 51	진술28	42.86%(12)	53.57%(15)		3.57%(1)		
	감탄12	41.67% (5)	8.33%(1)		16.67%(2)	8.33%(1)	25%(3)
	의문11	36.36%(4)	63.64%(7)				
복 문 81	시작51	21.58%(11)	62.74% (32)	1.96%(1)	3.92%(2)	9.8%(5)	
	중간16	31.25%(5)	37.5%(6)	18.75%(3)		12.5%(2)	
	마지막14	35.72%(5)	57.14%(8)	7.14%(1)			

이러한 ‘来客人了’와 ‘장소 문두성분+来客人了’ 간의 통사적 특성은 담화 기능과 경제성 원칙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3.4. 소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존현문에 대한 통사적 해석은 존재하지만 ‘VN了’ 은현문에 대한 통사적 해석과 통계 처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유명한 예문인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에 대해 주로 ‘客人’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등의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통사적인 분석과 통계 처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 장에서는 통사적 해석과 통계 처리를 통해 ‘VN了’ 은현문의 전반적인 통사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VN了’ 은현문 내부 각 성분의 특성을 보면 동사 V는 대부분 구어성과 단음절성을 가지며, 문두성분은 장소 성분이 있는 경우와 문두성분이 아예 없는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고, 다른 형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3.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성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VN了’ 은현문은 형식적인 간결성과 경제성, 그리고 장소 성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통사적 분포를 보면 ‘VN了’ 은현문은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비중이 실제로는 높지 않으며 주로 진술과 감탄류 단문, 그리고 시작절에 위치하는 복문 위주로 쓰인다. 이러한 분포적 특성은 담화 기능과 연관성을 지닌다.

셋째, ‘VN了’ 형식인 ‘来客人了’는 장소 문두성분과의 결합이 매우 긴밀한 반면, ‘NV了’ 형식인 ‘客人来了’는 장소 성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두 없는 ‘来客人了’는 감탄류 단문에서, ‘장소+来客人了’는 복문의 시작절에서 쓰이는 경우가 우세하다.

이러한 ‘VN了’의 각 성분의 형태적 특성과 ‘VN了’의 통사적 분포는 그 화용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밝히고자 한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4.1. V의 의미적 특성

4.1.1. V의 자동성과 타동성

宋玉柱(1991:11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현구 B 단에 출현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死, 走, 跑, 来’ 등과 같은 자동사이며 타동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²⁸⁾ 또한 Lambrecht(1994:143)의 연구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존재, 출현 등과 관련된 동사는 자동사적인 경향이 있다.²⁹⁾ 즉, 은현문에 출현하는 동사가 주로 자동사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출현하는 은현문을 분석한 결과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즉, 자동사의 출현빈도는 50.96%였고 타동사의 출현빈도는 49.04%를 차지하였으며 각 유형의 동사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28) ‘B 段(B 단)’은 은현문의 동사구를 의미한다.

29) Lambrecht(1994:143)에서는 Kuno(1972)의 관찰을 인용하여 일본어의 ‘ga-’문장이 어떤 지시체의 존재나 존재하게 됨을 나타내는 또는 담화의 외부나 내부 세계에서의 지시체의 출현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포함하는 자동사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표4-1〉 ‘VN了’ 은현문에 출현하는 동사 분류30)

분류	자동사	타동사
1.生·死류 (14)	[14]长(zhǎng), 起, 结, 生, 出 ₅ (发出; 发泄), 发 ₃ (产生, 发生), 闹 ₃ (发生灾害或不好的事), 爆发, 发生, 产生, 出 ₄ (出产; 产生; 发生), 出现, 死, 消失	
2.来·走류 (11)	[11]来, 进, 出 ₁ (从里面到外面), 上 ₁ (由低到高), 下 ₁ (由高处到低处), 到(到达), 掉 ₁ ·1(落), 走 ₃ (离开), 跑, 飞, 逃	
3.下(雨)류 (7)	[7]打 ₂ (雷), 下 ₂ (雨), 起 ₅ (风), 刮 ₂ (风), 出 ₁ (太阳)②, 滴 ₂ (雨点儿), 降 ₁ (雨), 掉 ₂ (雨点儿)②, 落(雨)	
	100%	0%
4.增·减류 (22)	[10]多, 少 ₁ (不够原有或应有的数目), 少 ₂ (丢失), 差, 缺 ₁ , 落 _{1a} , 漏 ₂ (遗漏), 掉 ₁ ·2(遗失; 遗漏), 脱 ₄ (漏掉文字), 丢	[12]补, 补充, 加 ₂ , 增加, 添, 撵, 上 ₆ (添补; 增加), 删, 撤 ₁ (除去), 减, 减少, 抹
	45%	55%
5.建·拆류 (19)	[1]塌 ₁ (支架起来的東西倒下)	[18]修, 盖 ₄ (建筑[房屋]), 挖, 掘, 砌, 架, 树立, 起 ₇ (建立), 搭, 打 ₅ (建造, 修筑), 开 ₂ (打通, 开辟), 办, 开辟, 建筑, 建立, 建设, 成立, 拆
6.破·裂류 (27)	[8]摔 ₂ (很快地往下落), 穿 ₁ (破, 透), 破, 裂, 缺 ₂ (残破, 残缺), 肿, 炸, 磨	[19]钻, 扎, 凿, 扯, 打 ₁₁ (揭, 凿), 捅, 掏, 划, 掐, 碰, 磕, 踩, 踏, 登, 踢, 叮, 蘸, 沾, 淋
7.기타(4)	[2]漏 ₁ (雨, 水), 沉	[2]发现, 切除
	22%	78%
총계	[53]50.96%	[51]4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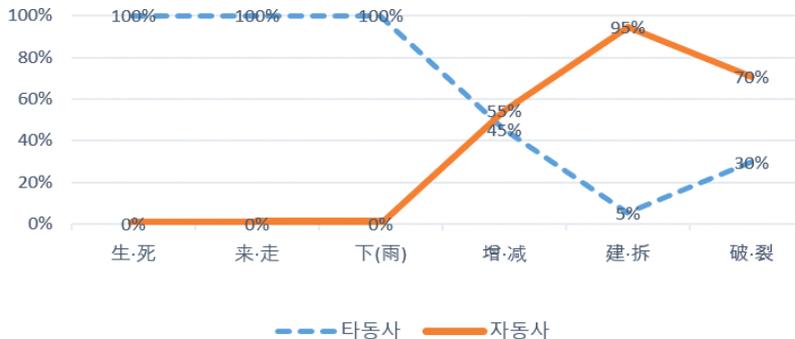
30) 본고는 胡裕树·范晓(199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현문의 동사들을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한다. 胡裕树·范晓(1995)는 타동사와 자동사는 동사의 목적어 수반 기능에 근거하여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형적인 ‘행위자주어문(主事主语句)’의 동사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5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① ‘행위자주어문’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면 타동사이다. ② ‘행위자주어문’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가 특정한 조건 없이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하면 이 역시 타동사이다. ③ ‘행위자주어문’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으면 자동사이다. ④ ‘행위자주어문’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고 때로는 장소빈어를 동반하기도 하면 이는 자동사이다. ⑤ ‘행위자주어문’에서 목적어를 수반할 때와 수반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서로 다른 의미항목에 속한 경우) 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에 모두 속한다.

<표 4-1>에서 来·走류, 生·死류, 下(雨)류는 모두 자동사이며 建·拆류(‘塌’만 제외함), 破·裂류의 ‘钻, 扎, 凿, 磨, 扯, 打₁₁, 捅, 掏, 划, 掐, 碰, 磕, 踩’ 등은 타동사이다. 또한, 增·减류의 ‘减少, 增加’ 등도 타동사에 포함되지만 ‘打, 捅, 掏’ 등 타동사의 타동성과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多, 少, 差, 缺, 落_{1a}’ 등의 경우도 자동사이지만 동작성이 없기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로 볼 수 있다.

陈昌来(2002:91)의 주장에 따르면 명령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동사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多, 少, 差, 缺, 落_{1a}’ 등은 명령문에 쓰일 수 없으므로 동작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1) a. *多!
- b. *少!
- c. *差!
- d. *缺!
- e. *落_{1a}!

아래는 은현문에 출현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VN了’ 은현문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빈도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역사적으로 은현문이 출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生·死류와 来·走류에 속하는 자동사만이 은현문에 쓰일 수 있었다. 이후 점차 타동사들도 은현문에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은현문의 의미 유형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生·死류, 来·走류 등과 같은 전형적인 은현문 동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은현문에 쓰이는 동사들이 주로 자동사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만으로는 동사의 출현 제약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며 다른 출현 기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1.2. V의 능력-절대격성

이번 절에서는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할 수 없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동사의 출현 제약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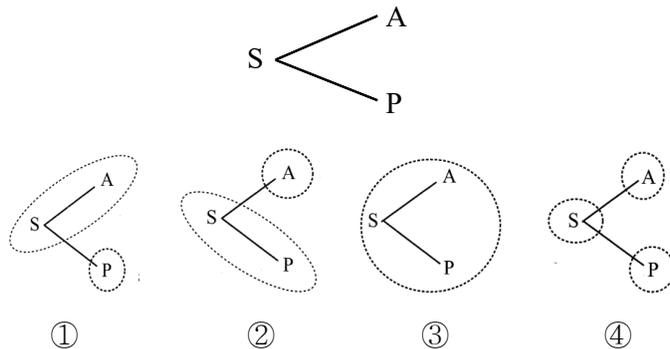
우선,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들의 내부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 b. 客人来了。
 손님이/은 왔다.
- (2) a. *跳客人了。
- b. 客人跳了。
 손님이 뛰었다.
- (3) a. 切除肿瘤了。
 암을 제거했다.
- b. 肿瘤切除了。
 암은 제거되었다.

- (4) a. *学生批评了。
 b. 批评学生了。
 학생을 비판했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来’와 ‘跳’는 모두 이동동사(motion verb)에 속하는 자동사이지만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모두 성립 가능한 반면 ‘客人跳了’는 성립되고 ‘跳客人了’는 성립되지 않는다. ‘批评, 切除’는 모두 타동사인데 ‘切除肿瘤了’, ‘肿瘤切除了’는 모두 성립 가능하지만 ‘批评学生了’는 성립되고 ‘学生批评了’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사 ‘来’와 ‘跳’, 타동사 ‘批评’와 ‘切除’의 간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Croft(1990:144~145)는 유형론적인 시각으로 자동사절, 타동사절, 이중 타동사절의 문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S(subject), A(agent), P(patient)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S는 자동사절의 주어의 의미이고, A는 타동사절과 이중 타동사절의 주어의 의미이며 P는 타동사절의 직접 목적어를 의미한다. Croft는 S, A, P의 개념 공간과 의미지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4-2〉 참여 역할 S, A, P의 개념 공간과 의미지도

의미지도①에 해당하는 주격-대격(nominative-accusative) 언어에서는 자동사의 A와 타동사의 행위자 S를 동등하게 보고 같은 어순이나 격 표지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를 사용하며 자동사의 A 를 타동사의 피위자 P 와 다르게 구분한다. 의미지도②에 해당하는 능격-절대격(ergative-absolutive) 언어에서는 자동사의 A 와 타동사의 피위자 P(서술어의 직접 목적어)를 동등하게 보고 같은 어순이나 격 표지를 사용하며 자동사의 A 를 타동사의 행위자 S 와 다르게 구분한다. 의미지도③에 해당하는 중성(neutral) 체계는 명사구에 중립적 구조적 부호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의미지도④에 해당하는 삼분(tripartite) 체계는 S, A, P 를 모두 문법적으로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이다.

金立鑫(2019)는 주격-대격과 능격-절대격의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어의 ‘오래된 난제(老大难问题)’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현대중국어는 VO-OV 어순이 공존하므로 능격-절대격, 주격-대격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대중국어에서는 자동사의 유일한 논항을 타동사의 목적어와 같게 보는 경우도 존재하며 타동사의 주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金立鑫·王红卫(2014:52)는 동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다.³¹⁾

〈표4-2〉 金立鑫·王红卫(2014)의 동사분류

	예문		논항 수	논항위치 자유 여부 ³²⁾
주격-대격 (主宾格配置)	他笑。	주어-동사	1항(자동사)	-
	他骂我。	주어-동사-목적어	2항(타동사)	-
능격-절대격 (施通格配置)	客人来了。 来客人了。	화제통어(通语)-동사 동사-통어(通语)	1항(자동사)	+
	我们打败了敌人。 敌人打败了。	시어(施语)-동사-통어(通语) 화제통어(通语)-동사	2항(타동사)	+

‘来’와 같은 동사의 논항은 하나이고 위치가 자유롭다. ‘打败’와 같은 동

31) 이 네 가지 분류는 黄正德(2007:4)의 ‘비능격동사(非作格动词), 비대격동사(非宾格动词), 타동사(及物动词), 사역동사(致使动词)’라는 분류와 유사하지만 金立鑫(2019)의 의견에 따르면 ‘非(비~)’라는 용어로 사용할 때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의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에 ‘施格, 通格, 主格, 宾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2) 논항 위치라는 것은 이항 논항의 경우 피위자 논항을 가리킨다.

사의 논항은 두 개이며 피위자 논항의 위치가 자유롭다. 또한, ‘笑’와 같은 동사의 논항은 하나이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骂’와 같은 동사의 논항은 두 개이며 피위자 논항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백은희(2007:380)에 따르면 ‘笑’는 비활성화 상태의 지시대상을 담화상황에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5a)처럼 제시문을 이룰 수 없다.

본고는 ‘笑了四个姑娘’과 같은 문장이 비문이 되는 이유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笑’는 주격-대격 영역에 속하므로 관련된 논항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또한, 黄正德(2007:5~6)도 (5b)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哭’가 비능격 계열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5) a. *笑了四个姑娘。(백은희 2007:380)
- b. *哭了不少客人。(黄正德 2007:6)

본고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은현문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능격-절대격에 속하는 동사임을 발견하였다.³³⁾ 즉, 능격-절대격은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를 동일하게 표현하므로 ‘来’와 같은 능격-절대격에 속하는 자동사가 은현문에 출현하는 경우 논항이 주어의 위치와 목적어의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는 자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능격-절대격에 속하는 동사인 반면, 비능격-절대격 자동사들은 은현문에 출현할 때 많은 제약을 받음을 알 수 있다.

‘切除’와 같은 타동사가 은현문에 출현하는 경우 역시 논항이 동사의 앞과 뒤의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打败’와 같이 능격-절대격에 속하는 동질적인 동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증할 필요가 있다. 그

33) 破·裂류 동사의 논항들은 대부분 동사 앞으로 이동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게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이유는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 논항이 동사의 앞으로 이동할 경우 주제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4.2. N의 의미적 특성

행위자와 피위자의 문법적 지위는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VN了’ 은현문에서 N의 의미적 특성은 동사(V)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절에서는 ‘VN了’ 은현문에 출현하는 N과 V가 의미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2.1. N의 의미 분류 기준

사건 참여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행위자와 피위자의 정의, 판단 기준 및 분류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陈昌来(2000), 袁毓林(2002), 范晓(2003) 등 학자들이 언급했던 행위자와 피위자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3〉 논항의 의미적 분류(陈昌来 2000:69)

원형 행위자 논항(主事动元)		원형 피위자 논항(主事动元)	
施事(행위자)	小李打了小王。 소리는 소왕을 때렸다. 小李走了。소리가 떠났다.	←	→ 受事(피위자) 小李打了小王。 소리는 소왕을 때렸다.
政事(사동동사와 관련 주체[主体])	小李端正了学习态度。 소리는 학습 태도를 바르게 했다.	←	→ 使事(사동동사와 관련 객체[客体]) 小李端正了学习态度。 소리는 학습 태도를 바르게 했다.
经事(심리, 인지, 경험 등의 경험자)	小李很喜欢她。 소리는 그를 좋아한다.	←	→ 感事(경험자의 대립적 실체) 小李很喜欢小王。 소리는 소왕을 좋아한다.
起事(어떤 관계 중 설명되는 실체)	小李是学生。 소리는 학생이다.	←	→ 止事(어떤 관계 중 상대방을 설명) 小李是学生。 소리는 학생이다.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系事(성질이 나 상태의 실 체)	小李醉了。 소리는 취했다.	하는 실체)	成事(행동의 결과) 小李只做了一把小提琴。 소리는 바이올린을 하나만 만들었다.
		任事(담임하 는 직무 등)	小李担任了班长。 소리가 반장을 맡았다.
		位事(위치나 목적)	小李返回了学校。 소리가 학교에 돌아갔다.
		涉事(비 동 작 동사와 관련 실체)	这样做合乎潮流。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에 부합한다.

〈표4-4〉 논항의 의미적 분류(袁毓林2002:13)

원형-행위자 논항(主体论元)	원형-피위자 논항(客体论元)
施事(agent, 자 주적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 小王吃了一个馒头。 소왕은 찰빵을 하나 먹 었다. 妹妹笑了。 여동생은 웃었다.	受事(patient, 小王吃了一个馒头。 행위자의 행동 에서 영향을 받는 실체) 소왕은 찰빵을 하나 먹었다.
感事(sentient, 자주적이지 않은 감지적 사건의 주체) 老王认识李校长。 노왕은 이교장님을 안 다.	对象(target, 감 지적 행동의 대상과 목표) 老王认识李校长。 노왕은 이교장님을 안다.
主事(theme, 성 질, 상태 또는 변화를 겪은 사건의 주체) 老赵是仓库保管员。 노조는 창고 관리인이다。 村后的桥塌了。 마을 뒤의 다리가 무너졌다.	系事(relevant, ‘主事theme’의 대립적 개념) 老赵是仓库保管员。 노조는 창고 관리인이다.
致事(causer, 어떤 사동적 사건을 일으 키는 요인) 他的成就令同行羡慕。 그의 성과는 동료들의 부러 움을 샀다.	结果(result, 행 동의 결과) 他把窗户纸捅了一个 窟窿。 그는 창호지를 찢러 구멍을 하나 냈다.
	与事(dative, 행 동의 피동적 참여자) 老板对雇员发火。 사장은 직원에게 화를 냈다.

〈표4-5〉 논항의 의미적 분류(范晓2003:3~4)

원형-행위자 논항(主事)	원형-피위자 논항(客事)
施事(행위자) 狗咬人。 개가 사람을 물다. 小明笑。 소명이 웃는다.	受事(피위자) 狗咬人。 개가 사람을 물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经事(심리, 인지, 경험 등의 경험자)	小黄认识我。 소황은 나를 안다.	← →	涉事(경험자의 대립적 개념)	小黄认识我。 소황은 나를 안다.
起事(어떤 관계 중 설명되는 실체)	小王属狗。 소왕은 개띠이다.	← →	止事(어떤 관계 중 상대방을 설명하는 실체)	小王属狗。 소왕은 개띠이다.
系事(성질이나 상태의 실체)	我累。 나는 피곤하다.		结果(행동의 결과)	他挖洞。 그는 동굴을 팠다.
			使事(사동동사와 관련 객체)	我熄灯。 내가 불을 끈다.
			位事(위치나 목적)	部队驻扎在山脚下。 부대는 산기슭에 주둔하고 있다.

위에 표를 보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원형-행위자 논항(proto-typical agent, 主事动元/主体论元/主事)’과 ‘원형-피위자 논항(proto-typical patient, 客事论元/客体论元/客事)’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각 범주 안에는 여러 소분류가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어떤 명사는 원형-행위자 또는 원형-피위자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명사는 몇 가지 특징만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바탕으로 ‘VN了’ 은현문의 N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원형-행위자의 의미적 특징

Dowty(1991:572)는 원형-행위자를 ‘사건이나 상태에 대하여 의지력을 가짐’, ‘감성(또는 지각)’, ‘다른 참가자에 속한 사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킴’, ‘이동(다른 참가자의 위치와 관련)’의 네 가지 특징으로 귀납하였다. 陈平(1994:162)는 Dowty(1991)이 제시한 ‘자주성(自主性)’, ‘감지성(感知性)’, ‘사동성(使动性)’, ‘이동성(位移性)’ 외에 ‘자립성(自立性)’이라는 특징을 더 추가하였다.

袁毓林(2002:15)는 원형-행위자의 특징을 ‘행위자(자립성, 사동, 감지)’, ‘경험자(자립성, 감지)’, ‘사역(자립성, 사동성, 술어)’, ‘대상(자립성, 변화성)’

으로 귀납하였다. 袁毓林(2002)는 ‘변화성’에 대해 ‘성질, 상태나 사건에 변화가 발생함’이라고 정의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된 ‘변화성’은 袁毓林(2002)에 의해 정의된 것이다. 또한 ‘VN了’ 은현문의 동사는 감지성과 사동성을 내포하지 않기에 본고 역시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张伯江(2002:485~486)은 원형-행위자의 특징을 ‘구체성’, ‘이동성’, ‘자주성’, ‘생물성(生物性)’, ‘유생’, ‘의지성’, ‘이성(理性)’, ‘서술자’의 8 가지로 귀납하였다. 그는 ‘행위자’ 내부의 강약 정도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성, 유생성, 이성’ 등도 함께 열거하였다. 본고는 ‘VN了’ 은현문 동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적 특징을 사용하여 원형-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 ①변화성: 성질, 상태나 사건에 변화가 발생함.
- ②이동성: 관련 사건에서 위치이동이 발생함.
- ③자주성: 관련 사건이나 상태에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참여함.
- ④자립성: 어떤 사건이나 상태보다 먼저 독립적으로 존재함.
- ⑤구체성: 구체적인 사람, 동물, 사물 등을 포함함.
- ⑥유생성: 생명을 가짐.
- ⑦이성(理性): 관련 사건이나 상태에서 이성적인 인지능력을 보여 줌.

(2) 원형-피위자의 의미적 특징

Dowty(1991:572)는 원형-피위자를 ‘사건의 변화를 겪음’, ‘증가식 대상역(incremental theme)’, ‘다른 참가자에 의해 영향을 받음’, ‘다른 참가자의 이동에 의해 정지됨’의 네 가지 특징으로 귀납하였다. 陈平(1994:162)는 Dowty(1991)의 이론을 바탕으로 원형-피위자의 특징을 ‘변화성’, ‘점진성(渐成性)’, ‘수동성’, ‘정태성’, ‘부가성(附庸性)’ 등으로 정리하였다. 陈平(1994:163)은 ‘부가성’에 대해 “사물의 존재가 그 사건의 결과이거나 원래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였고, ‘점진성’에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대해서는 “사물이 동사가 참여하는 사건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의만으로는 ‘점진성’과 ‘부가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문을 살펴보면 ‘他画了一群山羊(그는 염소 떼를 그렸다)’의 ‘山羊(염소)’는 ‘부가성’을 가지고 있고, ‘他造了一幢房子(그는 집 한 채를 지었다)’의 ‘房子(집)’은 ‘점진성’을 갖는다. ‘造’는 建·拆류에 해당하기에 본고는 ‘부가성’을 사용하지 않고 ‘점진성’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정태성’으로는 ‘VN了’ 은현문 동사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보여 줄 수 없기에 본고 역시 분석 시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袁毓林(2002:16)의 ‘자립성’, 张伯江(2002:485-486)의 ‘구체성’을 함께 활용할 것이다.

- ①변화성: 사건의 변화를 겪음.
- ②수동성: 다른 참가자에 의해 영향을 받음.
- ③점진성: 동사가 참여하는 사건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④자립성: 어떤 사건이나 상태보다 먼저 독립적으로 존재함.
- ⑤구체성: 구체적인 사람, 동물, 사물 등을 포함함.

본고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위에서 열거한 원형-행위자와 원형-피위자의 특징을 토대로 N의 의미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范晓(2008:11)에서 언급했던 ‘복원(还原)’ 방식으로 기존 은현문 문장을 일반 동-목구조로 만들어 N과 동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4.2.2. ‘VN了’ 은현문 부류별 논항 분석

4.2.2.1. 生·死류

生·死류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맨명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열거하면 <표 4-6>과 같다.

〈표4-6〉 生·死류 동사의 논항 정리

长	痘痘, 痘, 豆, 青春痘, 水痘, 头发, 白发, 冻疮, 疮1, 痔疮, 牙, 智齿, 牙齿, 蛀牙, 泡, 泡泡, 水泡, 针眼, 鸡眼, 溃瘍, 尾巴, 皱纹, 斑, 角, 翅膀, 东西, 肌肉, 痒, 坑, 指甲, 茧子, 老茧, 虱子, 粉刺, 心眼儿, 耳朵, 蛔虫, 虱子, 草, 蘑菇, 芽, 叶子, 花, 霉, 蛆, 虫子
起	泡, 水泡, 皮, 茧子, 老茧, 痒子, 疹子, 皱纹, 脓疱, 痂, 球
结	果子, 荚, 豆荚, 草莓, 瓜, 花苞, 藕, 霜, 冰柱, 冰渣, 晶霜, 冰晶, 蜘蛛网, 痂, 球
生	冻疮, 疮, 蛆, 虫
出4	问题, 大事, 事儿, 事情, 车祸, 事故, 故障, 差错, 纰漏
出5	汗, 油, 水泡, 疹子, 牙, 芽
发3	芽; 水, 洪水, 大水
闹3	水灾, 地震, 灾荒, 水患
发生	火灾, 事情, 大事, 车祸, 事故, 地震, 故障, 问题, 命案, 战争, 悲剧, 凶杀案, 怪事
爆发	战争, 内战, 洪水
出现	问题, 幻觉, 幻影, 错觉, 叠影, 故障, 障碍, 偏差, 差错, 裂痕, 裂缝, 縫隙, 裂纹, 分歧, 漏洞, 奇迹, 危机, 转机, 反效果, 状况, BUG, 赤字, 明火, 泡沫, 症状, 蓝天, UFO, 怪事, 拐点, 变数, 错字, 虫子, 传染病, 命案, 纠纷, 被害者, 目击者, 警察, 流氓, 第三者, 黑影, 第三方, 悍匪, 竞争者
产生	问题, 幻觉, 感情, 抗体, 错觉, 好感, 疑问, 免疫力, 偏差, 气泡, 误差, 疑虑, 恶果, 欲望, 自卑感, 代沟, 破绽
死	人, 驴

우선, 生·死류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맨명사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长, 起, 结, 生, 出’ 등은 주된 의미가 ‘자라다’로, 성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发生, 爆发’ 등의 주 의미는 ‘발생하다, 일어나다’이고, ‘出现’는 ‘나타나다, 출현하다’이다. ‘出, 发’ 등 동사들은 하나의 의미가 아닌 여러 의미항목을 동시에 갖는다. ‘발생’과 관련된 동사 뒤에 오는 명사들은 ‘전쟁, 문제, 사고’ 등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성장’과 관련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는 의미적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빨, 흰머리, 여드름’ 등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 있고, ‘나뭇잎, 꽃, 열매’ 등 식물과 관련된 명사가 있으며 또 다른 것으로는 ‘곰팡이, 쌀 벌레’ 등 세균, 박테리아와 관련된 명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풀’ 등과 같은 일반사물과 관련된 것이 있다.

다음으로 生·死류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의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马庆株(2005:166)의 주장에 따르면 ‘墙角生了绿苔(담 모퉁이에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이끼가 끼다)’의 ‘绿苔’는 성질 변화의 실체로 볼 수 있다. 본고는 生·死 류 동사의 논항도 변화의 실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실체가 동일한 자립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结, 起, 出, 发生, 爆发’ 등의 논항인 ‘果子, 红点儿, 痂子, 问题, 战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명사들은 다시 구체적인 명사와 추상적인 명사로 구분된다. 즉, ‘果子, 冰凌, 芽, 痘痘, 汗, 血’는 구체적인 명사인 반면, ‘问题, 灾难’은 추상적인 명사이다. 그러나 ‘出现’의 뒤에 출현하는 ‘경찰’과 같은 경우 자립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실체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2.2.2. 来·走류

来·走류 동사 뒤에 자주 출현하는 맨명사에 대해 검색 결과를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来·走류 동사의 논항 정리

생물	사람	人, 客人, 贵客, 贵宾, 亲戚, 新人, 小偷, 贼, 病人, 外星人, 书记, 妹, 鬼, 领导, 歌手, 敌人, 孩子, 导演, 和尚, 老朋友, 老太婆, 对手, 警卫, 上司, 神经病, 圣诞老人, 年轻人, 女兵, 新兵, 女人, 表叔, 变态, 朋友, 救星, 记者, 检查团, 刺客, 领导, 大人物
	동물	鸟, 老鼠
	식물	桃花
来	비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 车, 地铁, 船, 火车 · 통신 : 电话, 消息, 通知, 信息, 贺电, 网, 流量, 八卦, 视频, 电报, 讯息, 电邮, 感谢信, 圣旨, 声音, 广告, 画面, 铃声, 第10集, 第100集 · 음식 : 夜宵, 下午茶, 菜, 饭, 蜜桃, 火锅, 大餐, 蛋糕, 酒, 芒果, 绿茶 · 에너지 : 暖气, 水, 气儿, 电, 热水, 冷水 · 기상 : 冷空气, 风, 流星雨, 地震, 雪, 暴风雨了, 大水, 太阳, 龙卷风, 初雪 · 물건 : 货, 新货, 旧货, 产品, 春装 · 작문 : 报告, 作品, 素材, 照片, 例子, 论文
	추상	福利, 好运, 结果, 生意, 真相, 问题, 活儿, 好事, 效果, 坏事, 任务, 负担,

			福气
사람과 관련	정신	气, 劲儿, 精神, 灵感, 瘾, 兴趣, 脾气, 状态, 激情, 食欲, 情绪, 信心, 兴致, 感觉, 火气, feel, 高潮, 精神头, 朝气	
	신체	例假, 月经, 事儿, 姨妈, 奶	
进	水, 沙子/沙, 小偷, 老鼠, 人		
出	水		
上	人		
下	人		
掉	头发, 牙		
到	货		

<표 4-7>을 통해 ‘来’ 뒤에 오는 명사의 수는 매우 방대하지만, ‘进, 出’ 를 비롯한 나머지 동사의 뒤에 오는 명사의 수량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우선, ‘来’ 뒤에 올 수 있는 맨명사는 크게 생물명사, 무생물명사, 사람과 관련된 명사로서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생물명사를 사람명사, 동물명사, 식물명사로 재분류하였으며 식물명사에 등장하는 복숭아는 일반적 의미가 아닌 은유적 표현으로써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다. 이성에게 호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명사에는 ‘记者’와 같은 사회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亲戚’와 같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가 포함되며 ‘大人物’ 등과 같은 인식 평가적 명사도 포함된다. 동물명사는 ‘鸟, 老鼠’로,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이다. 반면, 사람명사는 40 개 이상으로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생물명사는 다시 추상과 비추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추상 명사에는 교통과 관련된 ‘车, 地铁’, 통신과 관련된 ‘短信, 电话’, 에너지와 관련된 ‘电, 水, 暖气’ 등 다양하고 방대한 명사가 존재한다. 추상명사에는 ‘福气, 问题’ 등이 속하며 비추상 명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관련된 명사는 정신과 신체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신과 관련된 명사에는 ‘精神, 兴趣’ 등이 있으며 신체와 관련된 명사에는 ‘例假, 奶’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체에 관련된 명사에서 ‘奶³⁴⁾를 제외한 4 개의 단어는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来姨妈了/大姨妈了’는 문자 그대로 ‘이모가 온다’라는 의미가 아닌 ‘생리기가 도래하다’라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기에 인물로 분류하지 않고 신체로 분류하였다.

‘进’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들은 ‘水, 沙/沙子, 小偷, 老鼠, 人’ 5 개밖에 없지만, 유형이 각각 다르고 ‘水, 人’을 제외하면 ‘进沙子了(모래가 들어왔다)’, ‘进小偷了(도둑이 들어왔다)’, ‘进老鼠了(쥐가 들어왔다)’는 모두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出’ 뒤에 오는 명사는 오직 ‘太阳, 水’ 두 개밖에 없다. ‘太阳’이 사용된 경우는 992 개로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下(雨)류로 분류된다. ‘下, 降, 掉, 落’ 뒤에 오는 명사들도 대부분 기상 관련 명사여서 下(雨)류로 분류한다.

‘上’ 뒤에 오는 명사는 오직 ‘人’ 하나뿐이고 의미는 ‘사람이 어떤 교통수단에 타다’라는 뜻이다. ‘到’ 역시 뒤에 오는 명사는 하나이고 ‘화물, 재화가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실체들은 ‘구체성’, ‘유생’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来·走류로 분류된 동사 뒤에 자주 출현하는 N이 실체적 물리 공간 경로나 추상적인 심리 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출현이나 소실의 의미를 표현한다. ‘来’ 뒤에 오는 모든 명사들은 이동 경로가 있고 이동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사람, 동물 명사는 물리적, 공간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이동이 가능하며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차, 기차, 비행기 등은 자유의지를 가지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작동하고 사람과 같이 이동하기에 ‘준-자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 편지 등의 명사들은 사람과 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명사들만 이동하기에 자주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정신, 스트레스 등 명사들은 보이지 않는 심리 이동 경로를 지니고 있기에 ‘자주성’을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34) 출산 후 모유가 생성될 때 ‘来奶了’로 사용한다.

〈표4-8〉 来·走류 동사의 논항의 이동성

A	물리 공간적 경로	자주적 이동	사람, 동물...	비 추 상 ↓ 추상
		준 자주적 이동	차, 지하철...	
B	심리 공간적 경로	비 자주적 이동	편지, 제품...	
		준 자주적 이동	문제, 운세... 정신, 스트레스...	

陈昌来(2000:69)는 ‘小王吃了一个馒头(소왕은 찰빵을 하나 먹었다)’, ‘弟弟正看电视呢(남동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妹妹笑了(여동생이 웃었다)’, ‘小李走了(소리가 갔다)’ 등 예문의 ‘小王, 弟弟, 妹妹, 小李’를 모두 행위자로 분석하였다. ‘走’는 来·走류 은현문에 속하는 동사이다. ‘走’와 관련된 지시체 ‘小李’는 ‘小王, 弟弟’처럼 다른 사물에 직접 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자립성’, ‘이동성’, ‘자주성’ 등의 의미적 특징을 지닌다.

4.2.2.3. 下(雨)류

下(雨)류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들은 ‘비, 눈, 바람, 안개, 미세먼지, 번개, 서리, 이슬, 우박, 태양’ 등으로서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陈昌来(2002)에 따르면 ‘비, 안개, 바람, 번개’ 등과 같은 명사는 ‘下, 起, 刮, 打’의 뒤에 출현하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邓守信(1975)는 ‘기상문’과 관련된 문장들은 행위자와 동작 동사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직접 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전형적인 행위자와는 다르며 변화의 실체인 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 안개, 바람, 번개’ 등 기상과 관련 명사들은 ‘유생성’을 지닌 사람이나 동물은 아니지만, 자연의 힘으로써 움직이는 ‘자연력’을 가지고 있기에 ‘준-자주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4.2.2.4. 增·減류

增·減류 동사 뒤에 출현하는 맨명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열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4-9〉 增·減류 동사의 논항 정리

多	钱
补	人, 货
补充	货物
加 ₂	冰块, 盐, 菜, 煤, 桌子, 椅子
添	菜, 人
增加	车床
上 ₆	货
搀	东西, 沙子
丢	东西, 钱, 车, 首饰, 账本
少	钱, 银子, 人, 字, 东西, 衣服
差	钱, 道具, 椅子, LED灯, 雪花, 美酒,
缺 ₁	钱, 水, 货, 粮, 血, 人手, 知识, 信息
落	字, 标点
漏 ₂	字
掉 _{1.2}	字 ³⁵⁾
删	字
减	人, 字
减少	库存
撤 ₁	人

增·減류 은현문은 수량의 증감을 나타내며, 위의 표를 통해 N은 서로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의미를 살펴보면 ‘少, 缺, 差, 落, 掉_{1.2}, 漏, 脱’ 등은 전체에서 부족한 부분이므로 보완되어야 하는 반면, ‘删, 抹, 撤₁, 减, 减少’ 등은 전체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李临定(1990:87)은 ‘多, 少’가 나타나는 문장들은 수량의 증가와 감소를

35) 门诊大夫在门诊手册上明确写着“左足背动脉触及”，这与石健的说法大相径庭。但院方却说，门诊大夫回忆说是未触及，门诊手册上是掉字了(외래진료 의사가 외래진료 수첩에 ‘왼발등 동맥까지 다쳤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석건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병원 측이 말하기를 외래진료 의사가 기억하기를 왼발등 동맥까지 다치지 않았으며, 진료 수첩에서 글자가 빠졌다고 하였다.)(人民日报 1994-7-30)

표현하므로 N을 행위자나 피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³⁶⁾ 또한 孟琮(1999:11)은 ‘多两个字, 少五块钱’과 같은 문장이 다른 목적어 N의 유형과 좀 다르기에 이를 기타류에 포함시켰다.³⁷⁾ 이러한 동사는 동작성이 없기에 관련된 실체들 또한 ‘자주성’, ‘이동성’ 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陈昌来(2002:92~93)은 N을 ‘행위자’, ‘피위자’로 간주하지 않고 ‘系事(동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명사를 가리킴)’으로 보았으며 胡晓研(1988)은 기준연구에서 언급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N을 새로운 용어 ‘增事·减事(증가자·감소자)’로 지칭하였다. 본고 또한 ‘少’와 같이 수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에 관련된 논항은 행위자, 아니면 피위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4. 2. 2. 5. 建·拆류

‘VN了’ 형식의 은현문에 建·拆류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코퍼스에서 찾기가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있는 관련 예문을 주로 분석하였다. 사전에 출현하는 예문에 따르면 建·拆류 동사는 오직 ‘修, 盖, 办’ 세 가지 동사만 맨명사와 결합하며, 코퍼스에서도 建·拆류 동사와 결합하는 맨명사의 수가 많지 않다. 코퍼스와 사전에 존재하는 예문 중 수량구가 존재하는 예문을 맨명사로 변경한 후 N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架’가 사용된 예문은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수록된 것이 아닌 宋玉柱(1991)에 기록된 것이다.

36) 李临定(1990:87)에서는 ‘비 자주성 동사’를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귀납하였다.

A. 사람과 동물의 행동(小猫死了) B. 사물의 변화(暖瓶炸了) C. 자연의 변화(打雷了) D. 생장을 나타냄(麦子出了芽了) E. 어떤 사건을 당함(你碰上机会了)

37) 孟琮·郑怀德·孟庆海·蔡文兰(1999:8~11)에서는 ‘목적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14 가지로 정리하였다. 1. 피위자 2. 결과 3. 대상 4. 도구 5. 방식 6. 장소 7. 시간 8. 목적 9. 원인 10. 사역 11. 행위자 12. 동원(同源) 13. 동등(同等) 14. 기타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표4-10> 建·拆류 동사의 논항 정리

A	修, 盖, 挖, 掘, 砌, 起, 架, 打, 开, 安	房子, 公路, 高楼, 楼, 沟, 井, 花池, 花坛, 秋千, 桥, 大坝, 窗口	비 추 상 ↓↓ 추 상
B	办, 建设, 建立, 成立	酒厂, 发电厂, 合作社, 剧团,	
C	树立	典型	

<표 4-10>에서 볼 수 있다시피 ‘盖、修’ 등 동사와 관련되고 연결되는 명사들은 대부분 유형적, 공간적 물체인 건물, 도로, 교량, 다리 혹은 학교, 병원, 공장 등이다. ‘成立、办’ 등 뒤에 나온 것들은 유형적 물체를 건설하는 것보다 무형의 단체나 집단이 성립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树立’ 뒤에 나타나는 맨명사는 더 추상적인 것이기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李临定(1983:31)에서는 ‘造, 盖’ 등의 목적어는 ‘결과’ 목적어라고 주장하였으며 范晓(2003:4)에서는 ‘挖, 造’ 등의 목적어를 ‘결과’ 목적어로 보았다. 또한, 范晓(2003:4)에서는 ‘Result’를 ‘成事’로 지칭하였으며 동작의 결과나 성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작 발생 후 나타나는 실체라고 정의하였다. 袁毓林(2002:16)은 ‘Result’를 ‘结果’로 번역하였으며 ‘변화성, 수동성, 점진성(渐成性)(incremental)’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점진성(渐成性)’은 사물이 동사가 의미하는 사건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도 이 분류의 명사들을 ‘피위자 의미역 위계’로 분류되는 결과(result)로 보고자 한다.

4.2.2.6. 破·裂류

破·裂류 동사가 ‘VN了’ 형식의 은현문에 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는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출현하는 일반 형식의 破·裂류 예문들을 분석할 것이다. 破·裂류 목적어 유형은 주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A 류는 ‘구멍, 금’ 등의 생채기 명사이고 B 류는 ‘흙, 기름’ 등의 더러움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표4-11〉 破·裂류 동사의 논항 정리

A	踩, 划, 扯, 炸, 摔, 磕, 叮, 碰, 踏, 登, 掐, 捅, 磨, 凿 등	窟窿, 口子, 缺口, 洞, 坑, 缝/缝子, 眼儿, 裂痕, 细纹, 纹, 道子, 包, 泡, 疙瘩
B	沾, 蘸, 淋 등	油漆, 泥点子, 土, 脏东西, 油, 黑

破·裂류의 ‘踩, 划, 扯, 炸, 摔, 磕, 叮, 碰, 踏, 登, 掐, 捅, 磨, 凿’ 등과 관련된 실체들은 동작이 생성된 후에야 점차 나타나며 ‘변화성, 수동성, 점진성(渐成性)(incremental)’ 등의 의미 특징을 모두 지니기에 결과로 볼 수 있다. 袁毓林(2002:16)도 ‘他把窗户纸捅了一个窟窿(그는 창호지를 찢러 구멍을 냈다)’의 ‘窟窿(구멍)’은 결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6) a. 衣服上淋上油了。
 옷에 기름을 쏟았다.
- b. 杯子上炸口子了。
 컵에 금이 갔다.

또한, ‘결과’와 ‘피위자’ 모두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하며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피위자’는 예문(6a)의 ‘油’와 같이 동작 발생 시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고, ‘결과’는 예문(6b)의 ‘口子’와 같이 동작 발생 후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建·拆류의 ‘拆’, 破·裂류의 ‘蘸, 淋’ 등의 논항은 원래 존재하던 실체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피위자’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4-12〉 ‘피위자’와 ‘결과’의 차이점

	수동성	변화성	자립성	점진성
피위자	+	+	+	-
결과	+	+	-	+

范晓(2003:4)는 ‘把字문’의 ‘把’자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建·拆류는 ‘把字문’으로 바꿀 수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있는 반면에 破·裂류는 ‘把자문’과 결합이 불가능하다. ‘炸口子了, 裂缝了’는 ‘*把口子炸了, 把缝裂了’로 전환할 수 없다.

- | | | | | |
|-----|----|-----------------------|-----|-----------------|
| (7) | a. | 修路了。
길을 냈다. | b. | 把路修了。
길을 냈다. |
| (8) | a. | 炸口子了。
폭파하여 구멍이 났다. | a'. | *把口子炸了。 |
| | b. | 裂缝了。
금이 갔다. | b'. | *把缝裂了。 |

马庆株(2005:90)은 ‘결과 목적어’에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⁸⁾ 긍정적인 명사는 동작이 달성해야 할 목적을 나타낸다. 그 실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자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동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이 결과물이 이루어진다. 이런 목적어와 공기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자주 동사이고 그 뒤에 보어 ‘成’을 추가할 수도 있고 ‘把자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반면, 부정적인 목적어가 나타내는 결과는 보통 의식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이기에 ‘把자문’으로 바꾸기가 힘들다. 또한, 계획하고 행동하지 않기에 破·裂류의 ‘VN了’ 은현문들은 ‘NV了’ 형식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만약에 ‘把자문’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 | | | |
|-----|----|---|
| (9) | a. | 把杯子炸了一个 <u>口子</u> (결과).
컵을 깨뜨려 구멍을 냈다. |
| | b. | 把墙炸了一道 <u>缝</u> (결과).
담벼락을 깨뜨려 금이 갔다. |
| | c. | *把墙裂了一道缝。 |

38) 马庆株(2005:90)에서는 ‘결과 목적어’에 긍정적인 명사, 부정적인 명사, 상태 결과 목적어, 동량 결과 목적어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고는 4.1.2 에서 은현문의 동사들이 대부분 ‘능력-절대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N 은 동사의 앞과 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10) a. *洞破了。
b. *缝裂了。
c. *口子炸了。

그러나 破·裂류 동사의 논항들은 동사 앞에 이동 후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동사의 관련 실체가 비계획적인 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동사 앞으로 이동하면 부자연스럽다.

4.2.2.7. 기타

기타류에 속하는 동사는 ‘切除, 发现, 沉, 漏’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切除, 发现’는 타동사이고 ‘沉, 漏’는 자동사에 속한다.

- | | |
|----------------|---------------|
| (11) a. 切除肿瘤了。 | a'. 把肿瘤切除了。 |
| b. 发现重金属了。 | b'. ?把重金属发现了。 |
| c. 沉船了。 | c'. ?把船沉了。 |
| d. 漏水了。 | d'. *把水漏了。 |

‘切除’는 타동사로서 두 가지 논항을 가지고 있다. ‘肿瘤’는 이러한 동작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성’, ‘수동성’, ‘정태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피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发现’의 논항 ‘重金属’는 ‘변화성’, ‘정태성’을 지닌다. ‘船, 房子, 水’ 등은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하지 않고, ‘행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하는 대상자로 볼 수 있다. ‘把자문’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예문(11)에서 볼 수 있듯이 (11b-d)는 ‘把자문’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 (12) a. 腹腔里切除肿瘤了。 a'. *腹腔里把肿瘤切除了。
 b. 水井里发现重金属了。 c'. *水井里把重金属发现了。
 c. 东海沉船了。 d'. *东海把船沉了。
 d. 房顶漏水了。 f. *房顶把水漏了。

그러나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N이 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고 ‘把자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경우인데도 은현문에 쓰이게 되면 ‘把자문’으로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장소 문두성분이 없으면 ‘切除肿瘤了’와 같은 문장은 은현문인지 일반 주-술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반면, 문두에 장소 성분이 출현할 경우 동사 ‘切除’와 관련된 행위자의 출현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위자는 은현문에 출현할 수 없다.

4.2.3. N의 유형별 의미적 차이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은현문에 출현하는 N의 어휘적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의미역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1) 生·死류, 来·走류, 下(雨)류, 增·减류, 破·裂류 등 일부 동사와 관련된 논항은 ‘행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한다. 이 경우 N이 해당 부류가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위자의 의미적 특징을 거의 가지지 않기에 전형적인 행위자가 아닌 대상자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이 보여주듯이 논항의 행위자 원형성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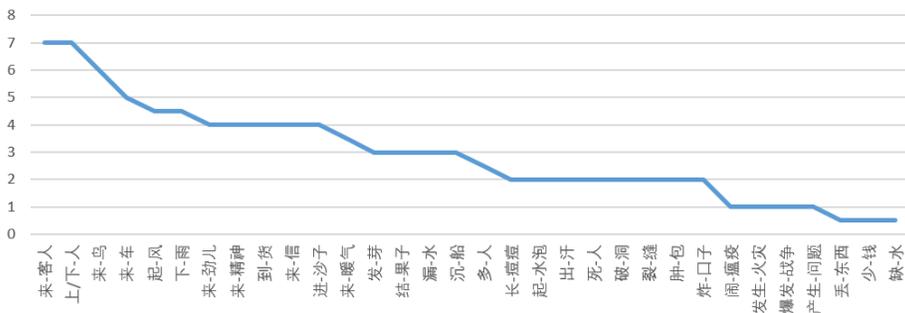
〈표4-13〉 ‘행위자 의미역 위계’를 보여주는 논항의 의미적 특성

부류	예문	변화성 变化性	이동성 移动性	구체성 具体性	유생성 生命性	자주성 自主性	이성 理性	자립성 自立性
来走	来-客人	+	+	+	+	+	+	+
	来-鸟	+	+	+	+	+	-	+
	来-车	+	+	+	±	±	-	+
	来-信	+	+	+	-	-	-	+
	来-暖气	+	+	+	-	-	-	±
	来-劲儿	+	+	-	±	+	±	-
	来-精神	+	+	-	±	+	±	-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上/下-人	+	+	+	+	+	+	+
	进-沙子	+	+	+	-	-	-	+
	到-货	+	+	+	-	-	-	+
下 (雨)	下-雨	+	+	+	±	+	-	-
	起-风	+	+	+	±	+	-	-
生 死	发-芽	+	-	+	+	-	-	-
	结-果子	+	-	+	+	-	-	-
	长-痘痘	+	-	+	-	-	-	-
	起-水泡	+	-	+	-	-	-	-
	出-汗	+	-	+	-	-	-	-
	闹-瘟疫	+	-	-	-	-	-	-
	发生-火灾	+	-	-	-	-	-	-
	爆发-战争	+	-	-	-	-	-	-
	产生-问题	+	-	-	-	-	-	-
死-人	+	-	+	-	-	-	+	
增 减	丢-东西	-	-	±	-	-	-	-
	少-钱	-	-	±	-	-	-	-
	缺-水	-	-	±	-	-	-	-
	多-人	-	-	±	+	-	+	-
破 裂	破-洞	+		+	-	-	-	-
	裂-缝	+		+	-	-	-	-
	肿-包	+		+	-	-	-	-
	炸-口子	+		+	-	-	-	-
기 타	漏-水	+	-	+	-	-	-	+
	沉-船	+	-	+	-	-	-	+

이러한 의미적 특징의 정도 차이를 수량화하면 다음과 같다.³⁹⁾



〈그림4-3〉 논항의 행위자 원형성 정도 차이

39) <표 4-13>에서 ‘+’는 1, ‘-’는 0, ‘±’는 0.5 로 수량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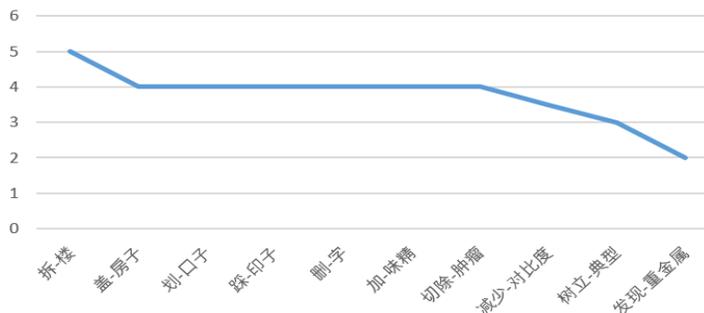
위의 그림을 보면 N의 의미적 특징이 ‘VN了’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분석이 필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N의 의미적 특징이 ‘VN了’ 은현문에 반영되는 언어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4.2.4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2) 建·拆류, 增·減류, 破·裂류, 기타류 일부 동사와 관련된 논항은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한다. 또한, 이들이 내포하는 의미적 특징에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4-14〉 ‘피위자 의미역 위계’를 보여주는 논항의 의미적 특성

		변화성	수동성	접진성	자립성	구체성
建·拆류	拆-楼	+	+	+	+	+
	盖-房子	+	+	+	-	+
	树立-典型	+	+	+	-	-
破·裂류	划-口子	+	+	+	-	+
	踩-印子	+	+	+	-	+
增·減류	删-字	+	+	-	+	+
	加-味精	+	+	-	+	+
	减少-对比度	+	+	-	+	±
기타	切除-肿瘤	+	+	-	+	+
	发现-重金属	-	-	-	+	+

이러한 의미적 특징의 정도 차이를 수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4〉 논항의 피위자 원형성 정도 차이(40)

4.2.4. N의 의미적 제약

N의 의미적 특성이 ‘VN了’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N의 의미적 자질이 ‘VN了’ 은현문에 반영되는 언어도 존재한다. 아래는 다이족(傣族)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다.

刀洁(2002:110)에 따르면 표준중국어 ‘VN了’에 속하는 문장들은 다이어(傣语)에서 ‘有 NV了’, ‘NV了’, ‘VN了’ 세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来客了’, ‘来人了’, ‘来亲戚了’는 다이어에서 모두 ‘VN了’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각각 ‘有 NV了’ 형식인 ‘有客来了’, ‘有人来了’, ‘有亲戚来了’로 표현된다. ‘来水了’, ‘来电了’ 역시 ‘VN了’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각각 ‘NV了’ 형식인 ‘水来了’, ‘电来了’로 표현한다. 그리고 ‘VN了’ 은현문에 속하는 ‘死人了’는 다이어에서 ‘有人死了’로 말할 수 있다. ‘下雨了, 下冰雹了, 打雷了, 出太阳了’ 등 下(雨)류 ‘VN了’ 문장들은 ‘NV了’ 형식으로 표현된다. 또한 ‘出水了, 出血了, 发芽了, 结果了’는 다이어에서 표준중국어와 같은 형식인 ‘VN了’로 표현된다.

<표4-15> 표준중국어와 다이어의 은현문 비교

표준중국어	다이어(傣语)		
VN了	VN了	有 NV了	NV了
来客了		有客来了	
来人了		有人来了	
来亲戚了		有亲戚来了	
来信了		有信来了	
来包裹了		有包裹了	
来车了		有车来了	
来电了			电来了
来水了			水来了
死人了		有人死了	
下雨了			天下雨了
下冰雹了			冰雹落了

40) <표 4-14>에서 ‘+’는 1, ‘-’는 0, ‘±’는 0.5로 수량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打雷了			天震响了
闪电了			天闪亮光了
出太阳了			阳光出了
出水了	出水了		
出血了	出血了		
发芽了	发芽了		
结果了	结果了		

표준중국어와 다이어는 서로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모두 한장(汉藏)언어이며 어순 유형도 동일하다. 그러나 표준중국어에서 ‘VN了’ 은현문에 속하는 문장들은 다이어에서 ‘VN了’, ‘有 NV了’, ‘NV了’의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된다. 아래는 표준중국어의 ‘VN了’ 은현문을 ‘有 NV了’의 형식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 (13) a. 来客了。→ a'.有客来了。
 b. 死人了。→ b'.有人死了。
 c. 来水了。→ c'.*有水来了。
 d. 下雨了。→ d'.*有雨下了。
 e. 出血了。→ e'.*有血出了。

다음으로 N에 따라 문장의 형식도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有 NV了’에 출현하는 N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자. 刀洁(2002:111)에 따르면 다이어족 사람에게 ‘人, 客, 亲戚, 信, 包裹’ 등은 ‘통제 가능성(可控义)’이 더 강하고, ‘电, 水’ 등은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여기서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의미적 특징 중의 ‘자주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人, 客, 亲戚’ 등은 ‘유생’인 사람이며,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 자발적으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死人了’의 ‘人’만 제외하면 ‘来 N了’의 ‘人, 客, 亲戚’ 등은 모두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车, 船’ 등 교통수단은 ‘유생성’을 갖지 않지만 사람의 조작 하에 움직이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信, 包裹’ 등 명사 역시 ‘유생성’을

갖지 않으며 ‘사람’의 통제를 받아 이동하므로 위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人, 客, 亲戚, 车, 船, 信, 包裹’ 등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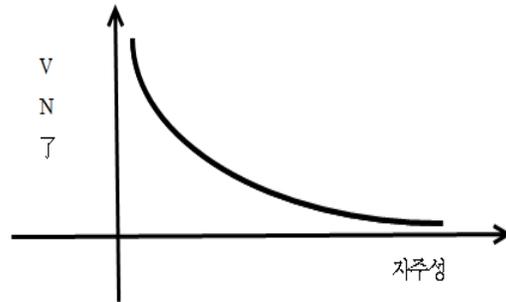
‘VN了’ 형식으로 표현하는 문장의 N은 ‘水, 血, 果, 芽’ 등이 있다. ‘水, 血, 果, 芽’ 등은 ‘자립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할 수 없기에 모두 자주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주성’, ‘사동성’, ‘지각성’ 등의 특징이 없는 N은 원형-행위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명사들이 목적어에 위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맥락으로 ‘人, 客, 亲戚’ 등은 원형-행위자와 좀 더 가깝기에 ‘VN了’에 ‘有’를 부가하여 ‘有 NV了’의 형식을 택하였다고 판단된다.

‘NV了’ 형식을 가지고 있는 N은 ‘水, 电, 太阳, 冰雹’ 등이 있는데 다시 ‘기상’과 ‘동력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상과 관련된 문장 중 ‘来太阳了’, ‘下冰雹了’는 다이어에서 ‘NV了’ 형식인 ‘阳光来了’, ‘冰雹落了’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下雨了’, ‘闪电了’, ‘打雷了’는 각각 ‘天’이 앞에 부가되어 ‘天下雨了’, ‘天闪亮光了’, ‘天震响了’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下雨’, ‘闪电’, ‘打雷’는 다이어에서 한 동사로 여겨지기에 문장 앞에 따로 ‘天’이 부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雨, 雷, 闪电, 太阳, 冰雹’ 등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한 자연현상이다. 그렇다면 자연현상도 어느 정도 자연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주성이 있는데 왜 ‘有 NV了’로 표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본고는 그 이유를 N이 자주성이 있어도 특정한 자연현상으로서 인지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본다.

‘水, 电’과 같은 에너지 동력은 어느 정도 자연의 자연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통제하에 어느 정도 은밀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중국어의 ‘来水了’, ‘来电了’는 다이어에서 ‘有 NV了’ 형식도 아니고 ‘VN了’ 형식도 아닌 下(雨)류와 같은 ‘NV了’ 형식으로 표현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된다.



〈그림4-5〉 ‘VN了’ 은현문과 논항의 ‘자주성’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표준중국어의 ‘VN了’ 은현문이 다이어로 전환할 때 명사의 자주성이 높을수록, 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형-행위자에 더 가까울수록 ‘有 NV了’와 ‘NV了’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명사의 자주성이 낮을수록, 원형-행위자에 더 멀어질수록 ‘VN了’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⁴¹⁾

陈平(2017:5)에 따르면 주어의 측면에서 왼쪽의 의미적 역할이 오른쪽의 역할보다 우선적이지만, 목적어의 측면에서는 반대로 오른쪽의 역할이 왼쪽의 역할보다 우선적이다.

행위자>경험자(感事)>도구>관계자(系事)>장소>대상(对象)>피위자⁴²⁾

41) 소수민족 ‘VN了’ 은현문의 어순이 표준중국어의 어순과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储泽祥(2010:28)에서는 ‘落叶了(苗)—落叶了(汉); 落雨了(炯奈)—落雨了(汉); 下雨了(毛难)—下雨了(汉); 天天落雨(莫)—天天下雨(汉); 落雨了(仝佬)—下雨了(汉)’ 등과 같은 소수민족 언어의 예문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소수민족 언어에서는 ‘VN了’ 은현문의 어순이 표준중국어의 어순과 일치한다.

42) 陈平(2017:5)에서 언급하는 ‘感事(경험자)’, ‘对象(대상)’, ‘系事(관계자)’는 각각 다음과 같다.

- a. 小李(感事)很喜欢这种样式(对象)(소리가 이런 양식을 좋아한다).
- b. 这事(系事)老张有办法(이 일은 장씨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 위계는 ‘VN了’ 은현문을 다이어로 표현하는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血, 芽’ 등 명사는 ‘客人’ 등 명사보다 원형-행위자와 더 멀어지기에 동사 뒤의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雨, 电’ 등은 ‘血, 芽’ 등보다 원형-행위자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동사 앞의 주어 위치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4.3. 소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은현문에 출현하는 동사를 주로 자동사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며, 자동사 내부의 상이한 성질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동사와 관련된 논항에 대해서는 주로 행위자인지, 피위자인지만을 논의하였을 뿐, 논항 내부의 의미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VN了’ 은현문의 동사와 명사를 의미적으로 세분화하고 전반적인 양상을 제시하였다. 본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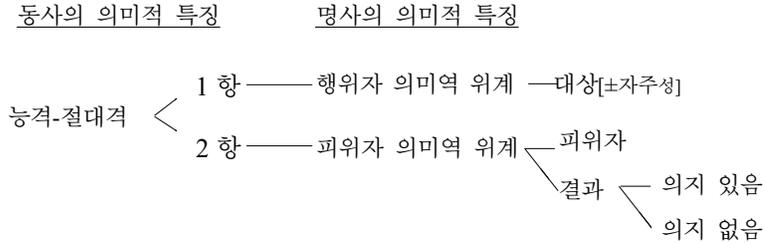
첫째, 분석을 통해 ‘VN了’ 은현문 동사의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능력-절대격성’을 갖는 자동사, 비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타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사가 등장하는 은현문은 문두 장소 성분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타동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문두 장소 성분이 있어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문두 장소 성분이 없으면 일반적인 주술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사와 관련된 논항 집합은 일반적으로 ‘행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하며, 타동사와 관련된 논항 집합은 일반적으로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한다. <표 4-13>, <4-14>를 통해 이러한 전반적인 일치성 가운데 명사 간의 미미한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유형론적으로 보면 이런 미세한 의미적 차이는 ‘VN了’ 형식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 다이어에서는 명사의 자주성이 낮을수록, 원형-행위자에 더 멀어질수록 ‘VN了’ 형식을

4. ‘VN了’ 은현문의 의미적 특성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표4-16〉 ‘VN了’ 은현문 N과 V의 의미적 특징



셋째, 다양한 의미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명사와 동사가 은현문에 선택되어 들어가면 동사는 단지 ‘은현 동사’, 명사는 단지 ‘은현 실체’가 되어 은현문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자주성을 가진 동사의 실체도 은현문에 들어가면 자주성이 없어진다.

〈표4-17〉 동사 측면과 은현문 측면에서 본 N과 V의 특징

동 사 측 면	대상(theme) : 客人 [+자주성] 대상(theme) : 痘痘 [-자주성] 결과(result) : 缝儿 피위자(patient) : 肿瘤	→ 家里来客人了。 → 身上长痘痘了。 → 窗框上裂缝儿了。 → 腹腔里切除肿瘤了。	은 현 문 측 면
------------------	--	---	-----------------------

‘来客人了’와 ‘客人来了’ 이 대표적인 예문의 쌍 또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故意, 主动, 只好’ 등과 같은 강력한 의지성, 자주성을 가진 단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 (14) a. 客人来了。
손님은 왔다.
b. 客人故意来了。
손님이 일부러 왔다.
c. 客人只好来了。
손님이 어쩔 수 없이 왔다.
d. 客人主动来了。
손님이 자발적으로 왔다.
- (15) a.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b. *故意来客人了。
c. *只好来客人了。
d. *主动来客人了。

예문(14), (15)에서 볼 수 있듯이 ‘NV了’ 형식인 ‘客人来了’는 ‘故意, 主动, 只好’가 동사 ‘来’의 앞에 삽입이 가능한 반면, ‘VN了’ 형식인 ‘来客人了’는 ‘故意, 主动, 只好’가 동사 ‘来’의 앞에 삽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NV了’의 N이 내포하는 자주성은 ‘VN了’에서는 소멸되기에 ‘来’는 단지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客人’은 단지 출현하는 실체일 뿐이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5.1. V의 인지적 특성 및 제약

정보구조는 형식과 인지가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 장에서는 ‘VN了’ 형식이 성립되지 않는 예문들을 정리하여 V가 ‘VN了’에 쓰일 때 어떤 인지적인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1. ‘VN了’의 부류별 동사의 제약

(1) 生·死류

生·死류의 해당하는 ‘长痘痘了, 生冻疮了, 起水泡了’ 등은 ‘痘痘, 冻疮, 水泡’가 출현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痘痘, 冻疮, 水泡’ 등이 소멸할 시에는 ‘*消痘痘了, *消冻疮了, *消水泡了’ 등과 같은 ‘VN了’ 은현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5-1〉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生·死류)

VN了출현	VN了소실	NV了
出牙了。이가 났다.	掉牙了。이가 빠졌다.	牙掉了。이가 빠졌다.
长痘痘了。여드름이 났다.	*消痘痘了。	痘痘消了/痘痘下去了。여드름이 사라졌다.
起水泡了。물집이 잡혔다.	*退水泡了。	水泡退了/水泡下去了。물집이 가라앉았다.
生冻疮了。동상이 걸렸다.	*消冻疮了。	冻疮消了/冻疮好了。동상이 가라앉았다.
发洪水了。홍수가 났다.	*退洪水了。	洪水退了/洪水下去了。홍수가

闹瘟疫了. 역병이 났다. 发生战争了. 전쟁이 났다. 爆发内战了. 내전이 발발했다. *出现彩虹了. 무지개가 나타났다. 出现问题了. 문제가 생겼다.	?结束战争了. 44) ?结束内战了. *消失彩虹了. *消失问题了. ?死牛了. 死人了. 누가 죽었다.	그쳤다. 瘟疫控制住了. 43) 역병이 진정되었다. 战争结束了. 전쟁이 끝났다. 内战结束了. 내전이 끝났다. 彩虹消失了. 무지개가 사라졌다. 问题消失了/问题解决了. 문제가 없어졌다./문제가 해결되었다. 牛死了. 소가 죽었다. 人死了. 사람이 죽었다.
--	---	--

‘出牙了’와 ‘掉牙了’는 모두 가능하다. ‘掉’는 이동 동사이기 때문에 来·走류에 속한다. ‘结束战争了’와 ‘结束内战了’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의 행위자 주어를 생략하면 은현문에 속하는지 일반 주-술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또한 ‘死’가 ‘死牛了’로 쓰이면 어색하지만 ‘死人了’는 가능하다.

(2) 来·走류

코퍼스를 검색한 결과 来·走류의 ‘跑N了, 飞N了, 逃N了’ 등에 해당하는 예문은 거의 없지만 ‘走人了, 跑人了’라는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a. 就这样, 小刘只好走人了。(网络)
그러자 소류는 어쩔 수 없이 떠나버렸다.
- b. 结果是, 这个员工辞职走人了。(名家对话职场)
결국, 이 직원은 사직하고 떠났다. (新华社 2001-03)
- c. 大家以为我圈钱跑人了。(微博)
모두들 내가 돈을 갖고 도망간 줄 알았다.

43) ‘瘟疫控制住了(역병이 진정되었다)’라는 예문은 코퍼스에서 검색된 것이 아닌 인터넷의 《医女倾城: 盛宠王妃》라는 소설에서 나온 구절이다.

44) 코퍼스에서 ‘结束战争’이라는 예문이 있지만 ‘장소 문두성분+VN了’ 형식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로 표시하였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汉典》에서는 ‘走人’을 ‘(구어)떠나다’라고 해석하고 ‘走人’을 단어로 보았다. 예문들의 통사구조를 살펴보면 ‘小刘, 这个员工, 我’는 문장의 행위자이며 주어이고, ‘走人了, 跑人了’는 서술어이다. 이 ‘走’와 ‘人’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되지 못하므로 서로 긴밀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VN了’ 은현문은 V와 N의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으며, 아울러 ‘VN了’ 앞에 ‘小刘, 这个员工, 我’와 같은 행위자가 올 수 없다. 따라서 예문(1a-c)와 같은 문장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논외로 분류할 것이다.

여기서 ‘走人’은 본래 은현문인데 어휘화의 과정을 거쳐 혹시 단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诗经·大雅·緜》에 ‘来朝走马’라는 구절이 있는데, ‘VN 유생’ 형식인 ‘走马’를 ‘驰马’로 해석할 수 있고, 《战国策·魏策四》에서는 ‘VN 유생’ 형식인 ‘走人’이 나타나는데 이는 ‘使(人)疾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走’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春秋列国志传》 등 문헌에도 ‘走人’이 기록되었는데 그 의미가 이미 ‘떠나다, 도망갔다’로 확장되었다.⁴⁵⁾ 예문 해석을 통해 보았을 때 이 ‘走人’은 ‘VN了’ 은현문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走’ 역시 ‘跑, 飞, 逃’ 등과 같이 ‘VN了’ 은현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코퍼스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VN了’ 은현문 来·走류의 동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来客人了’ 등과 같은 ‘VN了’ 형식의 은현문은 사람이나 사물의 출현을 표현한다. 반면에 이동을 통해서 소실을 나타내는 ‘走, 跑, 飞, 逃’ 등의 동사들은 ‘VN了’ 형식 은현문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단지 ‘NV了’ 형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소실을 표현한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客人走了’는 ‘*走客人了’로 바뀔 수 없고, ‘贪官逃了’ 역시 ‘*逃贪官了’로 바뀔 수 없다.

45) 武侯然之曰：“待吴起入朝，擒而杀之。”吴起闻知，是夜单骑走人于楚。(《春秋列国志传》)

- (2) a. 客人走了, 丘灵松口气。(亦舒《幽灵吉普赛》)
손님이 가니 구영송이 한숨을 돌린다.
- a' *走客人了, 丘灵松口气.
- b. 贪官逃了, 太邪恶了。(微博)
탐관이 도망쳤으니 너무 사악하다.
- b'. *逃贪官了, 太邪恶了.

두 번째 특징은 ‘来客人了-*走客人了’, ‘进水了-出水了’, ‘上人了-下人了’는 모두 쌍으로 대립하는 예문이지만 오로지 ‘来客人了’의 대립절인 ‘走客人了’만이 성립하지 못하고, ‘出水了, 下人了’ 등은 모두 성립된다는 것이다.

- (3) a. 刚过河, 忽然“咚”地一声异响, 小船勐一颤抖, 旋即打了个转。“糟了, 进水了。”(报刊精选 1994)
넛가를 건널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작은 배가 느닷없이 흔들리면서 들었다. “망했어. 물이 들어왔어.”
- b. 井筒里突然传出了李华的叫声：“出水了!”“出水了!”井上的人也突然叫唤起来。人们疯狂地叫着、跑着, 向村里跑去。(人民日报 1959-09-16)
우물 안에서 갑자기 이화가 “물이 나온다.”라고 외쳤다. “물이 나왔다!” 우물 위의 사람들도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울고, 뛰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 c. 居然, 又唰唰上人了。(微博)
찰나에 사람이 쓱쓱 올라갔다.
- d. 前门下人了。(百度贴吧)
버스 앞에서 사람이 내렸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走, 跑, 飞, 逃’ 등은 ‘VN了’ 은현문에 쓰이지 못하는 반면 ‘出, 下’ 등은 ‘VN了’ 은현문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进水了-出水了’, ‘上人了-下人了’를 ‘출현-소실’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자의 시점에 따라 ‘出水了, 下人了’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도 사물이나 사람의 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5-2〉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来·走류)

출현VN了	소실VN了	NV了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走客人了。 *跑牛了。 *飞鸟了。 *逃犯人了。	客人走了。 손님은 갔다. 牛跑了。 소가 도망갔다. 鸟飞了。 새가 날아갔다. 犯人逃了。 범인이 도주했다.
到货了。 물건이 도착했다.		货到了。 물건이 도착했다.
进水了。 물이 들어갔다. 出水了。 물이 나왔다. 上人了。 사람이 탔다. 下人了。 사람이 내렸다.		*水出了。 *人下了。

(3) 下(雨)류

来·走류와 유사하게 ‘下雨了, 刮风了, 起雾了, 打雷了, 出太阳’ 등과 같은 문장은 기상 현상이 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반면 기상 현상의 소실이나 소멸 때는 흔히 ‘雨停了, 风住/停了, 雾散了, 雷声停了, 太阳不见了’ 등과 같이 ‘NV了’ 형식으로 표현하고, ‘VN了’ 형식을 거의 택하지 않는다. 예문을 검색하면 ‘停雨, 停雪, 停风’ 등이 모두 나타나지만 각각 내포하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어떤 예문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지와 어떤 예문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각각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할 것이다.

① ‘停雨’는 고대 시문에서 등장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 a. 芰荷叶上难停雨, 松桧枝间自有风。(唐·方干《赠式上人》)
연꽃과 연잎에 빗물을 남기기가 어려웠고, 높고 큰 송백 사이에 바람이 불었다.

《释名·释言语》에서는 ‘停, 定也, 定于所在也(머물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雨落荷叶珠难停’이라는 시구도 있는데 ‘연잎 표면과 친하지 않아서 빗물이 연잎 위에 떨어져 그 표면에 머물기 어렵다’라는 뜻이다. ‘珠难停’과 ‘难停雨’의 구조를 살펴보면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停雨’는 ‘비가 그치다’라는 뜻이 아닌 ‘빗방울이 연잎에 멈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시문에 기록된 ‘停雨’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은현문에 속하지 않는다.

② ‘停风, 停电’ 등도 많이 나타나지만 역시 본고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 (5) a. 停产不停电。(新华社 2002-8)
생산을 중단해도 단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 b. 初步调查结果显示, 这起瓦斯爆炸事故的直接原因系停电停风所致。
(新华社 2002-8)
예비 조사 결과: 이 가스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전으로 바람의 공급의 중단에 의한 것이다.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의하면 ‘停水, 停电’의 ‘水, 电’은 타동사의 대상자가 아닌 사역(致使)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停水, 停电’의 경우 ‘停止供水, 停止供电(급수를 중단하다, 전기 공급을 중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停风’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停止供风’으로 해석되었다.

③ ‘停雨了’, ‘停雪了’ 등의 예문은 CCL 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BCC 에서는 몇 개를 발견할 수 있다.

- (6) a. “爸爸, 东京也停雨了吧?” “雨嘛, 在东京站乘车时还下着……”
“镰仓也一直在下, 刚才停止的。雨停后, 姐姐才出门去的。”(川端康成《山之音》)
“아빠, 도쿄도 비가 그쳤지?” “도쿄역에서 승차할 때는 아직 내리고 있었는데…” “가마쿠라에서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방금 멈췄어. 비가 그치고 나서야 누나는 외출했어.”
- b. 这边还在下雨, 汕头居然停雨了.....看来汕头暂时安全了。(微博)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여긴 아직 비가 오는데 산두는 비가 멎었다니... 보아하니 산두는 당분간 안전할 것 같다.

c. 一下车, 下雨了, 一到宿舍, 停雨了。(微博)

차에서 내리자 비가 오더니 기숙사에 도착하자 비가 그쳤다.

예문에 나타나는 ‘停雨了, 停雪了’는 ‘VN了’ 은현문에 속하지만, 필자가 원어민을 대상(22명)으로 조사한 결과 단 2명의 원어민만이 ‘停雨了’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6명은 둘 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停雨了’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4명의 원어민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방언대사전(方言大词典)》의 기록에 따르면 산동교료(山东胶辽) 지역에서는 ‘停雨了’를 말하는 습관이 있다. ‘停雨了, 停雪了’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던 두 원어민의 고향은 한 명은 산동교료이고, 다른 한 명은 호남(湖南)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나타나는 ‘停雨了’의 수용 정도는 방언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고는 대부분 원어민의 어감에 따라 ‘停雨了’를 ‘*’로 표시할 것이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下(雨)류의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를 통해서 ‘VN了’ 은현문이 기상의 변화에서 기상의 출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소실을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3〉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下[雨]류)

출현 VN了		소실 VN了	NV了	
下雨了。	비가 내린다.	*停雨了。	雨停了。	비가 그쳤다.
降雪了。	눈이 내린다.	*停雪了。	雪停了。	눈이 그쳤다.
刮风了。	바람이 분다.	*停风了。	风停了。	바람이 그쳤다.
打雷了。	번개가 친다.	*住风了。	风住了。	바람이 그쳤다.
起雾了。	안개가 꺾다.	*停雷了。	雷声停了。	번개가 그쳤다.
出太阳了。	태양이 떴다.	*散雾了。	雾散了。	안개가 걷혔다.
		*不见太阳了。	太阳不见了。	태양이 사라졌다.

(4) 增·減류

增·減류 동사들은 대부분 맨명사와 결합하고 ‘VN了’에 사용할 수 있다.

〈표5-4〉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增·減류)

출현	소실
证券账户里多钱了。 증권 계좌에 돈이 늘어났다.	微信红包少钱了。 위챗 홍바오에서 돈이 적어졌다.
这一桌添菜了。 이 테이블에 반찬이 추가되었다. 辅食里添加橄榄油了。 아기의 음식에 올리브유를 넣었다. 水里加红糖了。 물에 흑설탕을 넣었다. 车间里增加车床了。 작업장에 선반을 늘렸다. 米里换沙子了。 쌀에 모래를 섞었다. 仓库补货了。 창고에 화물을 보충했다. 公司补充人手了。 회사에서 일손을 보충했다.	仓库减少库存了。 창고의 재고를 줄였다. 照片这里减饱和度了。 사진의 이 부분에 채도를 줄였다. 战场上撤人了。 전장에서 사람이 철수하였다.
	这一行落字儿了。 이 줄에는 글자가 빠졌다. 这一行掉字儿了。 이 줄에는 글자가 빠졌다. 这一行漏字儿了。 이 줄에는 글자가 빠졌다. 家里丢东西了。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身体严重缺水了! 몸에 심하게 수분이 부족하다! ATM机缺少现金了。 ATM 기계에 현금이 부족하다.

‘減, 減少’ 등 관련 문장들은 수량사를 뺀 뒤 어감 조사를 거친 결과 81% 이상의 조사 대상 원어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这里減了两排椅子(여기 의자가 두 줄이나 빠졌다)’, ‘屋里減少了好多东西(방에 뭐가 많이 빠졌다)’와 같은 예문은 수량사를 뺀 뒤 ‘어색하다’라는 조사 의견이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있었고 ‘仓库减少库存了(창고의 재고를 줄였다)’, ‘照片这里减饱和度了(사진의 이 부분에 채도를 줄였다)’와 같은 문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 建·拆류

建·拆류 동사들도 대부분 맨명사와 결합하고 ‘VN了’에 쓸 수 있다.

〈표5-5〉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建·拆류)

출현		소실
山里修公路了。	산속의 도로를 정비하였다.	老村拆房子了。 오래된 마을의 집을 철거하였다. 院里拆花坛了。 정원의 화단을 헐었다. 前面塌房了。 앞집이 무너졌다.
路边盖高楼了。	길 양쪽에 고층건물을 세웠다.	
马路中间挖沟了。	도로 중간에 개천을 팠다.	
院里掘井了。	정원에 우물을 팠다.	
院里砌花池了。	정원에 꽃밭을 심었다.	
路边起楼了。	길가에 건물을 세웠다.	
操场上安秋千了。	운동장에 그네를 설치하였다.	
江上架桥了。	강에 다리를 건설하였다.	
河上搭桥了。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였다.	
上游打大坝了。	상류에 댐을 지었다.	
后墙开窗口了。	집 뒷면에 창문을 뚫었다.	
郊区办酒厂了。	교외 지역에 양조장을 세웠다.	
岛上建筑飞机场了。	섬에 공항을 건설했다.	
草原上建设发电厂了。	초원 위에 발전소를 지었다.	
村里建立合作社了。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黄村成立剧团了。	황촌에 극단을 창립하였다.	
山西树立典型了。	산서에서 대표 인물을 선출했다.	

사전에 등장한 예문들은 수량사를 빼 뒤 어감 조사를 거쳐 원어민 대상자가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것들이다.

(6) 破·裂류

破·裂류는 ‘裂缝了, 炸口子了, 破洞了’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맨명사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登, 踢, 踏, 掐, 踩, 扯, 捅’ 등 동사는 일반적으로 결과보어 ‘出’가 동사 뒤에, ‘淋, 蘸, 沾’ 등 동사는 일반적으로 결과보어 ‘上’이 동사 뒤에 위치해야 맨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다.⁴⁶⁾

〈표5-6〉 ‘VN了’ 은현문 예문 정리(破·裂류)

출현	
杯子炸口子了。	컵에 금이 갔다.
墙上裂缝了。	벽에 금이 갔다.
衣服上破洞了。	옷에 구멍이 났다.
? 脚上磨泡了。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다.
? 窗户缺玻璃了。	창문에 유리가 없어졌다.
? 木板上打眼儿了。	나무판을 뚫어서 구멍이 났다.
? 墙上凿洞了。	벽을 두드려서 구멍이 났다.
? 身上划口子了。	몸이 긁혀서 상처가 났다.
* 长筒袜上踩口子了。	스타킹이 긁혀서 줄이 나갔다.
* 裤脚扯口子了。	바지가 찢겨서 구멍이 났다.
* 窗户纸上捅洞了。	창호지를 뚫어서 몇 개의 구멍이 났다.
* 天花板上穿窟窿了。	천장이 뚫려서 구멍이 났다.
* 木头上钻窟窿了。	나무를 뚫어서 구멍이 났다.
* 桌子上登脚印了。	책상을 밟은 후 발자국이 생겼다.
* 桌子上踏脚印了。	책상을 밟은 후 발자국이 생겼다.
* 腿上肿包了。	다리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 身上叮疙瘩了。	몸이 물려서 두드러기가 생겼다.
* 脑袋上磕包了。	머리를 부딪쳐서 혹이 났다.
* 脑袋上碰包了。	머리를 부딪쳐서 혹이 났다.
* 腿上踢包了。	다리가 차여서 혹이 났다.
* 脑袋上摔包了。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났다.
* 脑袋上掐红印了。	머리를 꼬집어서 빨간 반점이 생겼다.
? 衣服淋油了。	옷에 기름을 쏟았다.
? 面包上蘸果酱了。	빵에 잼을 발랐다.
? 馒头上沾土了。	호빵에 흙이 묻었다.

또한 기타류의 ‘切除’ 등 동사들은 4.2.2.7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맨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VN了’ 은현문의 동사류에 따른 특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6) V+上 : 衣服淋(上)油了, 面包上蘸(上)果酱了, 馒头上沾(上)土了.

V+出 : 脚上磨(出)泡了, 脑袋上摔(出)包了, 腿上踢(出)包了, 脑袋上磕(出)包了.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표5-7〉 ‘VN了’ 은현문의 출현동사의 제약

VN了	출현		소실	
	출현가능	출현불가	출현 가능	출현불가
生·死	长(zhǎng), 起, 结, 生, 出 ₅ (发出; 发 ₃ 产生, 发生), 闹 ₃ (发生灾害或不好的事), 爆发, 发生, 产生, 出 ₄ (出产; 产生; 发生), 出现		死	消失
来·走	来, 进, 出 ₁ (从里面到外面), 上 ₁ (由低到高), 下 ₁ (由高处到低处), 到(到达), 掉 ₁ ·1(落),			走, 跑, 飞, 逃
下(雨)	打 ₂ (雷), 下 ₂ (雨), 起 ₅ (风), 刮 ₂ (风), 出 ₁ (太阳)②, 滴 ₂ (雨点儿), 降 ₁ (雨), 掉 ₁ ·1(雨点儿)②, 落(雨)			停 退 散 住
增·减	多, 补, 补充, 加 ₂ , 增加, 添, 搀, 上 ₆ (添补; 增加)		少 ₁ (不够原有或应有的数目), 少 ₂ (丢失; 遗失), 差, 缺 ₁ , 落 _{1a} , 漏 ₂ (遗漏), 掉 ₁ ·2(遗失; 遗漏), 脱 ₄ (漏掉文字), 丢, 删, 撤 ₁ (除去), 减, 减少	抹
建·拆	修, 盖 ₄ (建筑[房屋]), 挖, 掘, 砌, 架, 树立, 起 ₇ (建立), 搭, 打 ₅ (建造, 修筑), 开 ₂ (打通, 开辟), 办, 开辟, 建筑, 建立, 建设, 成立		拆, 塌	
破·裂	炸, 裂, 破	钻, 扎, 凿, 扯, 打 ₁₁ (揭, 凿), 捅, 掏, 划, 掐, 碰, 磕, 踩, 踏, 登, 踢, 叮, 蘸, 沾, 淋, 摔 ₂ (很快地往下落), 穿 ₁ (破, 透), 缺 ₂ (残破, 残缺), 肿, 磨		
기타	漏, 发现		切除, 沉,	

5.1.2. V의 관련 지시체의 심적 표상

앞의 분석을 통해 生·死, 来·走, 下(雨)류 ‘VN了’에서 대부분의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生·死, 来·走, 下(雨)류의 V가 받는 제약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增·減류, 建·拆류 ‘VN了’에서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에 따라 은현문에 속하는 소실류 동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소실₁류: ‘VN了’ 은현문에 들어가지 못함 - 生·死류, 来·走류, 下(雨)류
- ②소실₂류: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음 - 增·減류, 建·拆류, 기타

본 절에서는 소실류 동사를 분류하여 동사들이 은현문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제약을 초래한 인지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2.1. V_{소실1}류 동사

‘손님이 왔다’와 ‘손님이 갔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각각 ‘VN了’ 은현문 형식과 ‘NV了’ 형식을 선택한다. 下(雨)류에서 ‘下雨了, 下雪了, 刮风了, 起雾了, 打雷了, 出太阳了’ 등은 모두 기상 현상의 출현을 나타낸다. 기상 현상이 그쳤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보통 ‘雨停了, 风住了, 雾散了, 雷声停了, 洪水退了’와 같이 ‘NV了’ 형식을 택하며 ‘VN了’ 형식인 은현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바람이 분다’, ‘안개가 꺾다’, ‘번개가 친다’, ‘태양이 떴다’ 등의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VN了’ 형식을 사용하는 반면 ‘비가 그치다’, ‘눈이 그치다’, ‘바람이 그치다’, ‘안개가 걷히다’, ‘번개가 그치다’, ‘태양이 사라졌다/가려졌다’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NV了’ 형식을 택한다. 生·死류의 예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来人了, 下雨了, 长痘痘了, 出太阳了’ 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走人了, 停雨了, 消痘痘了, 消失太阳了’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동사들의 공통점을 알아야만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먼저 이러한 동사들이 어떤 어휘 의미구조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실체의 활성화 상태에 어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시작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해당 동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로써 소실류 동사의 의미구조와 활성화 상태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VN了’ 형식으로 来·走류, 生·死류, 下(雨)류에 분류되지 않는 동사들의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5-8〉 소실₁류 동사의 의미항목

停：	停止。멈추다.	发生—发展—停止
住：	停住。멈추다.	발생—발전—멈춤
散：	由聚集而分离。모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되다.	聚集—发展—分离 모여 있음—발전—분리
消：	消失。사라지다.	生长—发展—消退
退：	减退，下降。감퇴，하강하다.	성장—발전—감퇴
消失：	[事物]逐渐减少以致没有。[사물]이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다.	出现—发展—消失 출현—발전—소실
走：	离开。떠나다.	出现—持续—离开
跑：	逃走。도망가다.	출현—지속—떠남
逃：	逃跑，逃走。도망가다.	
飞：	飞走。47)날아가다.	

이런 동사들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의미구조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停’과 ‘住’는 모두 사물의 상태나 행동의 정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散’은 어떤 사물의 상태가 수렴에서 분리가 됨을 나타낼 수 있고, ‘消, 消失’ 등은 어떤 현상의 사라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실체는 중지·분리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이미 발생, 성장, 지속, 발전 등의 단계를 거쳤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走’는 ‘걷다’라는 이동 방식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떠나

47) 비록 ‘飞’는 사전에 ‘离开(떠나다)’라는 의미항목이 없지만, 의미 확장의 과정에서 의미구조 안에서는 ‘떠나다’라는 의미요소가 생겨난다.

다’를 의미한다. ‘跑’도 ‘달리다’라는 이동 방식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逃’와 마찬가지로 ‘도망가다’를 의미한다. ‘飞’도 마찬가지로 ‘날다’라는 동작을 통해 떠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실체가 떠나거나 도망가기 전 이미 출현하여 지속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停, 住’ 등의 의미구조에는 ‘발생→발전→정지’의 과정이 담겨 있고, ‘散, 消, 退, 消失’ 등에는 ‘출현→발전→소실’의 과정이 담겨 있으며, ‘走, 跑, 飞, 逃’ 등 동사는 ‘출현→존재→떠남’의 과정을 내포한다. 이를 통해 이런 동사의 실체들은 모두 발생, 발전, 종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앞선 두 단계를 이미 거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론에 대한 근거는 아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5-9〉 ‘下, 起, 停, 散’의 예문 분석

출현		소실	
下	起	停	散
外面下雨了。 밖에 비가 왔다.	外面起雾了。 밖에 안개가 끼었다.	*外面停雨了。	*外面散雾了
*外面的雨下了。	*外面的雾起了。	外面的雨停了。 밖에 비가 그쳤다.	外面的雾散了。 밖에 안개가 걸렸다.

‘外面下雨了, 外面起雾了’는 일반 주어-서술어문인 ‘外面的雨下了, 外面的雾起了’로 전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外面停雨了, 外面散雾了’는 일반 주어-서술어문인 ‘外面的雨停了, 外面的雾散了’로 모두 전환할 수 있다.⁴⁸⁾

48) 백은희(2007:383)의 견해에 따르면 ‘비가 그쳤다’라는 발화는 비가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가 청자의 인식 속에 활성화 상태이리라는 화자의 가정하에 발화되므로 SV의 문장구조를 이루고 있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표5-10〉 ‘长, 结, 消’의 예문 분석

출현		소실
长	结	消
身上长痘痘了。 몸에 여드름이 났다.	房檐下结冰凌了。 처마 밑에 얼음이 얼었다.	*身上消痘痘了。
*身上的痘痘长了。	*房檐下的冰凌结了。	身上的痘痘消了。 몸의 여드름이 가라앉았다.

마찬가지로 은현문 ‘身上长痘痘了, 房檐下结冰凌了’도 일반 ‘주어-서술어문’인 ‘身上的痘痘长了, 房檐下的冰凌结了’로 전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身上消痘痘了’는 일반 ‘주어-서술어문’으로 전환하면 ‘身上的痘痘消了’로 성립된다.

〈표5-11〉 ‘来, 走, 跑, 飞’의 예문 분석

출현	소실		
来	走	跑	飞
店里来客人了。 가게에 손님이 왔다.	*店里走客人了。	*牢里跑犯人了。	*树上飞鸟了。
*店里的客人来了。	店里的客人走了。 가게의 손님이 갔다.	牢里的犯人跑了。 감옥의 범인이 도망갔다.	树上的鸟飞了。 나무 위의 새가 날아갔다.

또한 ‘店里来客人了’는 일반 ‘주어-서술어문’으로 전환하면 ‘店里的客人来了’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店里走客人了, 牢里跑犯人了, 树上飞鸟了’는 일반 ‘주어-서술어문’으로 전환하면 ‘店里的客人走了, 牢里的犯人跑了, 树上的鸟飞了’로 모두 성립된다. 즉 출현을 나타내는 ‘来’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어-서술어문’으로 변환 불가하지만 소실을 나타내는 ‘走, 跑, 飞’가 사용된 문장은 ‘주어-서술어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는 N의 활성화 상태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 가게는 손님이 도착하는 장소인데, 손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店里的客人’과 ‘来’의 의미구조에 속하는 실체의 활성화 상태가 서로 모순되어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店里的客人’과 ‘走’, ‘牢里的犯人’과 ‘跑’, ‘树上的鸟’와 ‘飞’는 서로 모순되지 않기에 조합할 수 있다. 이는 문두의 N인 ‘가게 손님’, ‘감옥 속의 범

인’의 활성화 상태와 V 인 ‘떠나다’, ‘도망가다’의 의미구조에 있는 실체의 활성화 상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상 은현문의 범위 내에서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지닌 동사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출현·소실’의 대립의 개념을 ‘취득·해소(取得·消除)’, ‘접수·배품(接受·施予)’, 그리고 ‘내향동사·외향동사(向内动词·向外动词)’ 등과 같은 대립 개념과 같이 살펴보면 이들이 특정한 보편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任鷹(2005:48)에서는 취득·해소(取得·消除)류 동사의 의미구조에서 뚜렷이 상반된 경향성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他捡了钱包(그는 지갑을 주웠다)’, ‘他扔了钱包(그는 지갑을 버렸다)’와 ‘他买了汽车(그는 자동차를 샀다)’, ‘他卖了汽车(그는 자동차를 팔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만약 발화자가 자동차를 판다면, 이 자동차는 발화자가 알고 있는 어떤 차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화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지갑 역시 발화자가 알고 있던 지갑을 말하는 것이다. ‘지갑, 자동차’ 등의 실체는 ‘捡, 买’ 등의 ‘획득하다(取得)’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와 결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정적이지 않다. 반면에 ‘扔, 卖’ 등의 ‘소실되다(丧失)’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와 결합했을 때는 없어지는 실체가 일반적으로 한정적이다. 왜냐하면 소실이 되려면 먼저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반된 경향성은 ‘출현·소실’의 대립적인 특성과 유사하다. 陆俭明(2005:110)에서도 ‘취득’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취득자(得者)에 대한 세 가지 의미 특징을 지정하였는데 “취득자·상실자도 출현자·소실자와 서로 대응된다.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이고 해소자가 활성화 상태이다.”라고 하였다.⁴⁹⁾

49) 陆俭明(2005:111)에서는 ‘취득(取得)’의 의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다. (a)存在着得者和失者双方(취득자와 상실자 쌍방이 존재한다); (b)存在着从失者一方向得者转移的事物(상실자로부터 취득자로 전이되는 사물이 존재한다); (c)得者能动地从失者一方获取那被转移的事物(취득자는 상실자로부터 전이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李英哲(2019)에서는 접수(接受)류 동사와 배품(施予)류 동사의 속성을 논의할 때 내향동사와 외향동사를 분석하였고 “일반 동작 동사는 모두 내향과 외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사에도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贴’는 내향동사에 속하고 ‘撕’는 외향동사에 속한다.

陈俊光(2007)에서는 邓守信(1975)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향동사와 내향동사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외향동사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즉 있음에서 없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소유권이 사라진다. 반면 내향동사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즉 없음에서 있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집을 사면, 매입자는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p>내향동사 없음→있음 买</p>	<p>외향동사 있음→없음 卖</p>
------------------------------------	------------------------------------

Wu(1998:110~111)에서는 타동사를 대용적 동사(anaphoric verbs)와 비대용적 동사(non-anaphoric verbs)라는 두 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였다. 대용적 동사의 의미구조에는 어떤 특정한 지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이런 동사는 특정 실체와 관련된 행동을 묘사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비 대용적 동사는 그러한 가정적 전제를 지니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擦’는 전자에 속하며 ‘写’는 후자에 속한다. 무언가를 닦으려면 반드시 이 물건의 존재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쓸 것이라고 하면 아직 이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논의에서 용어는 상이하지만 동사의 분류기준과 동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일치한다. 그리고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도

되는 사물을 능동적으로 획득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Wu(1998:110~111)의 의견에 따르면 ‘死, 跑’는 ‘擦’처럼 실체가 행동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없어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죽은 누군가가 또는 도망가는 누군가가 이미 존재함을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来’는 ‘写’처럼 실체가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출현이나 생성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언급했던 ‘死, 跑, 来’ 등 동사가 모두 본고의 연구 대상 ‘VN了’ 은현문의 동사에 속한다.

또한 내향동사와 외향동사의 보어를 살펴보면 관련된 방증도 제시할 수 있다. 李英哲(2019)에서는 내향동사는 ‘出, 到, 上’과 같은 특정 보어와 쉽게 결합하는 반면, 외향동사는 보통 ‘下, 走, 掉, 死’와 같은 보어와 자주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는 ‘出, 到, 上’ 등이 내향동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下, 走, 掉, 死’ 등이 외향동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논의를 통해 ‘출현·소실’뿐만 아니라 ‘취득·해소’(任鷹), ‘취득·상실’(陆剑明), ‘접수·베품’(李英哲) 등의 대립적인 동사도 이러한 ‘있음→없음’, ‘없음→있음’과 같은 상반된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来·走와 같은 은현문 동사들도 내향적 속성과 외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5-12〉 ‘내향동사’와 ‘외향동사’

<p>내향동사 취득(取得) / 접수(接受) / 출현(出现) 없음→있음 写 帖 买 捡 来</p>	<p>외향동사 해소(消除) / 베품(施予) / 소실(消失) 있음→없음 擦 撕 卖 扔 跑</p>
--	--

‘来’와 같은 동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이하고, ‘跑’와 같은 동사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한다. 전자의 경우는 변화하는 실체가 행위 과정

중에 출현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비활성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전이하는 실체가 과정 중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V_{소실1}’의 동사들은 모두 ‘VN了’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V了一个N’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走, 跑, 飞, 逃’ 등은 이동을 통해 사물이 없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동사들은 직접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명사 앞에 수량사가 붙으면서 문장이 성립하게 된다. 이에 관련된 분석은 5.2.3 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5.1.2.2. V_{소실2}류 동사

앞서 ‘V_{소실1}’류 동사의 의미구조 분석, ‘V_{소실1}N了’로의 형식 변형 분석, 그리고 외향·내향 동사에 속하는 다른 동사와의 비교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V_{소실1}’류 동사에 관련된 실체가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된다는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V_{소실2}’류 동사의 특성을 분석하겠다.

- (7) a. 怪呀, 怎么少了个人?
 이상하네, 왜 사람이 줄었어?
 a'. *怪呀, 怎么少了人?
 b. 怪呀, 怎么少人了?
 이상하네, 왜 사람이 줄었어?

李临定(1986)에서는 ‘多, 少, 缺’ 등은 행위자 주어가 없는 구문에 속한다고 하였고, 또한 동사 뒤의 성분이 맨명사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怪呀, 怎么少了个人’에서 ‘个’가 없으면 예문(7a) ‘*怪呀, 怎么少了人’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怎么少了个人’이 ‘怎么少人了’로 바뀌면 문장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8) a. 这房间少了一张床。
이 방에 침대 하나가 적어졌다./ 하나가 부족하다.
b. ?这房间少了床。

古川裕(1997:20)에서도 예문(8a)가 보여준 것과 같이 은현문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수사+양사+명사’ 형식을 띠는데 지시대명사 ‘这/那+양사+명사’, 그리고 맨명사 형식으로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 (9) a. 这间房少床了。
이 방에 침대가 적어졌다.
b. 这间房少了床, 怎么跟老板交代啊?
이 방에 침대가 적어졌는데, 사장님께 뭐라고 설명해?

그러나 예문(8b)가 맨명사 형식인 ‘床’을 유지하고, ‘了₂’만 ‘了₁’로 바꾸면 예문(9a)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예문(8b)가 어색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了₁’를 씌으로써 문장의 끝맺음이 없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예문(9b)와 같이 후행 구절을 보완한다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 (10) a. ?我理了₁发。
b. ?我喝了₁茶。

Li & Thompson(1989:208)에서는 양화되지 않은 (10a)의 ‘发’와 (10b)의 ‘茶’처럼 명사만 쓰인 직접 목적어와 ‘了₁’이 같이 쓰인 문장은 종종 어색하고 미완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양화되지 않은 (10a)의 ‘发’와 (10b)의 ‘茶’와 같이 명사만 쓰인 직접 목적어는 대개 비한정적이고 비지시적이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직접 목적어를 가진 단순동사구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은 뒤에 절이 오거나 현재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문말조사 ‘了₂’를 부가함으로써 제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본고는 코퍼스에서 ‘少’류 동사가 ‘VN了’에 들어가는 예문을 검색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V_{소실1}의 동사들은 맨명사와 결합하고 은현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少N了’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소실류 동사 ‘少’가 속하는 V_{소실2}의 동사들끼리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먼저 V_{소실2}에 해당하는 동사들의 의미항목을 살펴보겠다.

〈표5-13〉 소실₂류 동사의 의미항목

少 ₁	不够原有或应有的数目	본래의 수 혹은 있어야 할 수에 못 미 치다 부족하다.	缺乏
缺 ₁	缺乏, 短少	부족하다. 모자라다.	부족함
差 ₃	缺欠	부족하다. 모자라다.	
丢	遗失	유실되다. 분실되다. 잃다.	
少 ₂	丢, 遗失	유실되다. 분실되다. 잃다.	遗失, 遗漏
掉 _{1·2}	遗失, 遗漏	분실되다. 누락되다.	분실하다.
落 _{1à}	遗漏	분실되다. 누락되다.	누락되다.
漏 ₂	遗漏	누락되다.	
脱 ₄	漏掉文字	[글자]누락되다.	
删	去掉	제거하다	
抹 ₃	勾掉, 去除, 不计在内	지우다. 제거하다. 계산에 넣지 않다.	删减
撤 ₁	取掉, 抽出	빼다.	제거하다.
减 ₂	由原有数量中去掉一部分	원래 수량에서 일부를 빼다.	빼주다.
减少	减去一部分	일부를 빼다.	

위에 열거한 동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少’류 동사는 다시 ‘누락(遗漏)’, ‘부족(缺乏)’, ‘삭감(删减)’ 세 분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들은 수량·정도의 감소, 또는 수량·정도의 부족함 등을 가리킨다.

(1) V_{소실2·1} ‘遗漏’류: ‘遗漏’류 동사를 먼저 보자. 아래 예문의 각 문장은 어떤 곳에서 어떤 물건이 누락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 (11) a. 哎呀, 太粗心了, 这一行漏字儿了。/掉字儿了。/落字儿了。
아이고, 너무 부주의해서 이 줄에서 글자가 빠졌다.
- b. 家里丢东西了!
집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
- c. 微信红包少钱了!
위챗 홍bao에 돈이 적어졌다!

‘漏, 落, 掉, 丢, 少_{2(丢, 遗失)}’의 의미구조에도 다른 소실류 동사와 마찬가지로 ‘있음→없음’의 전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丢, 少_{2(丢, 遗失)}’와 관련된 실체들은 원래 존재했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진 것이다. ‘掉, 落, 漏’ 등의 동사와 관련된 실체는 원래 있어야 하지만 소홀해서 빠뜨린 부분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의 경우 모두 화자가 의식하지 않았다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에 없어지거나 빠뜨린 실체는 머릿속에서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될 수 없다.

(2) V 소실 2.2 ‘缺乏’류: ‘缺乏’류의 ‘少_{1(不够原有或应有的数目)}, 缺, 缺少, 差’ 등 동사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동사들은 아래 예문처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수량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낸다.

- (12) a. 教室里少椅子。
교실에 의자가 부족하다.
- b. ATM机里缺少现金。
ATM 기계에 현금이 부족하다.
- c. 他家缺劳动力。
그의 집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 d. 这儿差椅子。
여기 의자가 모자라다.

‘少₁, 缺, 缺少, 差’ 뒤에 맨명사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아래 예문과 같이 성립할 수 있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 (13) a. 教室里少一把椅子。
교실에 의자가 하나 없어졌다.
교실에 의자가 하나 부족하다.
- b. ATM机里缺少十万现金。
ATM 기계에 현금 10 만원이 부족하다.
- c. 他家缺两个劳动力。
그의 집에는 두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 d. 这儿差两把椅子。
여기 의자 두 개가 모자라다.

만약에 예문 끝에 ‘了₂’를 붙이면 문장은 여전히 성립될 수 있는데, 이때 문장은 우리의 연구 대상인 ‘VN了’ 형식인 은현문이 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BCC에서 검색한 ‘差’가 나타나는 예문들은 거의 다 ‘就, 只’와 같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就, 只’가 없으면 ‘差 N 了’의 수용도는 많이 떨어진다.

- (14) a. 教室里少椅子了。
교실에 의자가 부족했다.
- b. ATM机里缺少现金了。
ATM 기계의 현금이 부족했다.
- c. 他家缺劳动力了。
그의 집은 노동력이 부족했다.
- d. 这儿(就)差椅子了。
여기는 의자만 모자라다.

다시 요약하면 ‘少, 缺少, 缺, 差’ 등 동사들의 의미구조에서는 사건의 ‘발생→발전→소멸’, 혹은 사람이나 사물의 ‘출현→존재→소실’이라는 과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了’가 없으면 단순히 뭐가 부족한 상태의 존재를 나타낼 뿐이고 ‘了’가 있으면 ‘뭔가 부족해졌다’라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런 동사들은 실체의 활성화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 (3) V 소실 2.3 ‘减少’류: ‘删, 减少’ 등은 ‘增加, 添’ 등과 같이 수량의 증

가와 감소를 표현한다. 이런 동사들은 ‘建·拆’류의 ‘拆’, 기타류의 ‘切除’와 같이 직접적으로 소실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 지시체의 사라짐을 표현하기에 은현문이 받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5. 1. 3. V소실과 은현문의 모순 및 일치성

알다시피 은현문의 통사구조는 ‘장소/시간+동사+출현·소실한 사람/사물’이다. 즉 출현·소실이 발생하는 장소나 시간은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출현·소실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은현 장소, 은현 동사, 은현 실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을 텐데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인지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구조의 끝에 위치하는 N은 어떠한 활성화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장소는 왜 문두에 위치하고 N은 문말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戴浩一(1990:27)(1991:25)에서는 공간을 표현하는 성분의 선형적 배열에 있어서 중국어는 전체나 포용 공간을 부분이나 포용물의 앞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공간 관계에 관련된 인지 방식은 은현문의 장소가 왜 문두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즉 포용 공간은 포용 실체보다 먼저 사람에게 감지되기에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포용 공간 > 포용물
전체 > 부분

은현문의 예문을 살펴다 보면 문두가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발화했을 때 대화자가 바로 현장에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때는 ‘장소’가 없어도 대화자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발화 현장에는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장소가 어디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때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문두가 없어도 시간 혹은 공간의 정보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언어로 교류하는 과정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교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부터 모르는 정보까지의 순서로 대화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문두성분이 포용 공간으로서 먼저 사람들에게 감지되기에 문장 맨 앞에 위치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미 대화자의 머릿속에 활성화된 장소 성분은 문장의 주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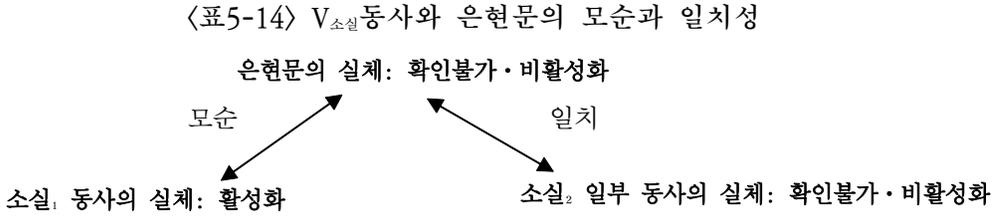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포용 공간 > 포용물’ 원칙에 근거해서 보면 포용물이 포용 공간보다 뒤에 있는 것은 늦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용물이 장소 뒤에 위치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동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정보 → 모르는 정보’가 일반적인 무표적 정보 전달의 원칙이고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량이 더 많은 성분이 문말에 위치하는 것인데 왜 은현문의 포용물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인가.

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통사 성분을 배열할 때 일반적으로 일부 개념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즉 그 배열순서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실제 상태나 사건 발생의 앞뒤 순서에 대응되는 도상적인 것이다.

그럼 이러한 배열에 위치하는 N의 심적 상태는 무엇인가? 은현문의 문말에 위치한 사람·사물들은 특정 공간 틀에 출현, 소실하는 실체로서 문장의 자연 초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현문의 실체는 일반적으로 확인불가능한 상태 혹은 비활성화 상태이다.⁵⁰⁾ 활성화되고 정보성이 거의 없는 명사구가 문두에 위치하고, 새로운 것과 정보성이 굉장히 높은 명사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해석은 사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고

50) 고유명사가 은현문 실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원래 지식에 있는 정보도 그 문맥에서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然后小丫头就来相请，说别的厢房中又来了那一位客人。谭意哥万分抱歉地告罪暂时失陪，让客人坐一会儿，她过去打个招呼就过来。”라는 예문이 있는데 ‘那一位客人’은 지시대명사 ‘那’로 포장되었지만 이 발화 환경에서는 비활성화 상태로 보아야 한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사 의미구조에 내포된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VN了’ 은현문의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일치한다면 동사는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동사는 은현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지시체의 심적 표상적 모순과 일치성’이라는 해석은 유일한 원칙이나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VN了’ 은현문과 실체가 양립하지 못하는 요인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표5-15〉 ‘V_{소실}N了’와 ‘NV_{소실}了’의 비교

	VN了	NV了
停	-	+
消失	-	+
走	-	+
跑	-	+
死	±	+
少	+	+
丢	+	+
拆	+	+
切除	+	+

소실₁류에 속하는 동사들에 후행하는 N은 이미 활성화 상태가 된 정보로 은현문의 N과 일치하지 않아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 소실_{2.1}류에 속하는 동사에 후행하는 N은 은현문의 N과 활성화 상태가 일치하고 제약을 받지 않아서 은현문에 들어가게 된다. V_{소실 2.2}에 속하는 ‘少, 缺少, 缺, 差’ 등

동사들의 의미구조에서는 사건의 ‘발생→발전→소실’, 혹은 사람이나 사물의 ‘출현→존재→소실’이라는 과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동사들은 관련된 지시체의 활성화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V 소실 2.3 동사들은 전형적인 은현문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도 엄격하게 받지 않는다.

5.2. N의 심적 표상

5.2.1. N의 확인가능성

이 부분에서는 ‘VN了’에서 N의 심적 표상을 설명하기 위해 ‘NV了’에서의 N의 심적 표상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동사의 기본 어휘 의미에 의해 제한되어 어떤 N의 종류는 풍부하고, 어떤 N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단출하다. 우선 ‘VN了’에 나타나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맨명사의 유형이 가장 풍부한 ‘來N了’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5.2.1.1. 유정 명사

(1) 관계명사: 客人, 亲戚, 老乡, 朋友...

‘관계명사’는 ‘일가(一价)명사’라고도 한다. 이러한 명사는 특정 실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실체와의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아빠, 엄마, 여동생’ 등 친족 관계명사에 내재된 관계는 단일 방향인데 ‘친구, 동료’ 등 관계명사에 내재된 관계는 쌍방향이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客人’부터 분석하겠다. 한 가족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갑자기 손님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來客人了’라고 말할 수 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대화 참여자의 머릿속에 손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은 확인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심적 상태에 대한 형식적 표현의 경우에는 강세화(accentuation)와 완전한 어휘적

기호화를 함의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杨菊花’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来客人了’라고 말했는데 ‘客人来了’로 바꿀 수 없다.

- (15) a. 九月十日上午九时许, 四十三岁的杨菊花从井边挑着一担水回家, 看门前架着一辆崭新的凤凰牌自行车, 寻思: 来客人了! (*客人来了) 往大厅一瞧, 却没有有人在。正迟疑间, 忽听房中衣柜有响声, 她神情紧张起来了, 便放下水桶, 快步向屋里走去。
- 9월 10일 오전 9시쯤, 마흔세 살이 된 양국화가 우물가에서 물 한 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앞에 생소한 봉황표 자전거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손님이 왔다!”라고 생각하여 흠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망설이다가 방 안의 옷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녀는 긴장한 채로 물통을 내려놓고 재빨리 집안으로 걸어갔다.

반면 사전에 손님과 약속을 미리 정하고 그 손님이 왔다고 가정하면 ‘客人来了’라고 말할 수 있고, ‘他们来了’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화시 이미 활성화된 지시체들을 기호화하면 대명사가 제일 전형적인 표현이다. 대명사적 표현뿐만 아니라 약화된 발음으로도 지시체의 활성화적 심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는 발화시의 장소를 집과 같은 장소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는데 이번에는 발화시의 장소를 식당, 호텔 등과 같은 공공장소로 가정하고 분석해보겠다. 이런 장소에서 발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적 표상에 따라 ‘来客人了’나 ‘客人来了’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집과 같은 장소에 올 수 있는 사람으로는 집주인을 기준으로 가족, 손님, 배달원, 경비 아저씨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호텔, 식당’과 같은 장소는 주인의 기준으로 오는 사람의 부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과 같은 장소는 활성화적 상태에 접근가능성을 제공한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 (16) 앞부분 “……仁民等一下就会到这里来。”…这时候她(佩珠)忽然想起了那篇未完的文章,就对德华说:“你就在这里玩一会儿吧,我要去写完那篇文章。”……佩珠刚移动脚步,就看见林舍动着两只小脚一偏一跛地走进来,在她的后面跟着仁民。
 “…인민은 이따가 여기로 올 거예요.” …이때 그녀는 문득 그 미완의 글이 떠올라 덕화에게 “여기서 좀 놀고 있어, 난 그 글을 끝내고 와야겠어.”라고 말했다. …패주가 걸음을 옮기자 립사가 두 발로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그녀의 뒤를 인민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 은현문 “佩珠, 客人来了。”林舍的脸上堆着笑,她张开大嘴说话。(巴金《雾雨电》)
 “패주, 손님이 왔어요.” 립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했다.

접근가능성은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텍스트 외적 세계에 상응하는 상황적으로 접근가능한 범주, 텍스트 내적 세계에 상응하는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한 범주 외에도 중립적인 추론으로 접근가능한 범주가 있다. 다음 두 예문을 보자. 예문(16)에서 화자가 발화할 때 청자는 손님이 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지만, 앞에 ‘인민이는 이따가 여기로 올 거예요’라는 문장을 통해 내적 세계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민’이라는 친구가 이미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외적 세계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 (17) 앞부분 同这两位朋友初次见面之后过了几天……我又敲了敲门,刚才那声音又喊道:“进来吧,是谁呀?”我走进空荡荡的小前室…“啊!”他庄重地说,仍坐着不动。…
 이 두 친구를 처음 만난 지 며칠이 지났다…내가 다시 문을 두드리자 방금 그 음성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누구세요?”라고 외쳤다. 나는 텅 빈 작은 전실로 들어갔는데…“아!” 그는 점잖게 말하고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 은현문 他又提高嗓门喊道:“季洪·伊万内奇,上这儿来。客人来了。”(伊凡·谢尔盖耶维奇·屠格涅夫《猎人笔记》)
 그는 다시 “지홍·이바네치, 이리 와요. 손님이 오셨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예문(17)에서도 화자가 발화할 때 청자는 손님이 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다. 손님 ‘我’가 이미 현장에 도착했기에 외적 세계로 접근이 가능하다.

- (18) a. “我真忙啊！父亲因事出门去了，母亲病了在床上卧着，所以我不能不做事。一边做事，一边读着文法。今日的文法很难呢，无论怎样记，也记不牢。——父亲说过，七点钟会来付钱的哩。”他又向运货的人说。货车走了。“请进来！”可莱谛说。我进了店里，店屋广阔，满堆着木柴，木柴旁边挂着秤。“今天是一个忙日，真的！一直没有空闲过。写作着，客人来了(*他们来了)。”
- “정말 바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외출하셨고 어머니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 계셔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문법책을 읽었는데 오늘 문법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7시에 돈을 지불할 사람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는 또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트럭이 떠났다. “들어오세요!” 가래채는 말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넓고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장작 옆에 저울이 달려 있었다. “바쁜 날이야. 하루 종일 한가한 적이 없어. 글을 쓰는데 손님이 왔어.”

접근가능한 지시체는 도식(schema)과 관련 있다.⁵¹⁾ 도식은 틀이라고도 불린다. 예문(18)은 한 가족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병이 나서 누워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일이 있어서 외출하였을 때 화자인 ‘我’가 혼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손님’은 화자의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활성화 상태가 된 누군가는 아니지만 ‘가게’라는 틀에서 활성화

51) Lambrecht(1994:98)에서는 Chafe(1987:29)의 도식에 대한 정의와 예를 인용하였다. 도식은 서로 관련된 가능한 것들의 덩어리로서 유용하게 간주된다. 도식이 이야기에서 환기되면 그것을 구성하는 가능한 것들 중 모두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아마도 준-활성적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것들은 비활성적 개념으로 있을 때보다 생각해내는 데에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다. Chafe는 대학원 교실의 전형적인 도식과 관련된 가능한 것들을 언급한다. 대학원 교실의 전형적인 도식은 학생, 교수, 조교, 교실,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는 그것들 중의 하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일반적인 교실의 도식이 조명됨에 따라 접근 가능하게 되고, 기호화될 수 있다.

상태에서 접근가능하게 되었다.

- (19) a. 我们正在诧异, 李嫂笑着打起卧房的布帘子, 说: “太太! 客人来了。”S从屋里笑盈盈的走了出来, 身上穿着红丝绒的长衣……(冰心《冰心文集》)
- 우리가 경악하자 이씨 아주머니는 웃으며 침실 커튼을 치며 말했다. “부인, 손님이 왔어요.” S는 방 안에서 웃으며 나왔는데 붉은 벨벳의 긴 옷을 입고…
- b. 按照地址, 我轻轻地叩响一个单元楼房的门。开门的是个小姑娘, 四、五岁的样子, 圆圆的脸庞, 一双大眼睛。“爷爷, 来客人了。”清脆的童音, 使我心头一热, 哦, 老人不是孤独的。(人民日报 1980-5-14)
- 주소에 따라 나는 아파트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문을 연 소녀는 네, 다섯 살의 모습으로, 둥그란 얼굴에 커다란 눈을 가졌다.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맑고 맑은 동음이 내 가슴을 몽클하게 한다. 오, 노인은 혼자가 아니다.

다른 접근가능한 상황도 살펴보자. 집사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는 예문 (19a)에서 보듯 ‘NV了’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주인에게 집에 온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집사의 일이며 ‘客人’은 접근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예문(19b)처럼 ‘VN了’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을 연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손님이 오셨어요’라고 보고할 때 ‘客人’이 비활성화돼 있기에 ‘来客人了’라고 하였다.

- (20) a. 家里来客人了, 奶奶就让我“敬茶”。(人民日报 2003)
- 집에 손님이 오면 할머니는 나에게 손님에게 차를 내어주라고 했다.
- b. 他们一般不喝奶茶, 更没有花茶、红茶。客人来了, 喝马奶酒和酸奶。(人民日报 1995-4-29)
- 그들은 보통 밀크티를 마시지 않으며, 화차와 홍차도 없다. 손님이 오면 말젖술과 요구르트를 마신다.

이제 예문(20)도 살펴보자. 위의 두 가정문에서 ‘客人’은 모두 어떤 특정

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21) a. 我不咋喝, 啥时候来朋友了, 给朋友喝。(百度)
나는 별로 마시지 않아서, 언제 친구가 오면, 친구에게 줄 거야.
- b. 把屋子好好收拾一下, 朋友来了, 也好坐下喝杯茶。(老舍《鼓书艺人》)
방을 잘 정리해라. 친구가 오면 앉아서 차 한 잔 할 수 있게.
- c. 家里来朋友了, 女朋友不知道, 穿个睡衣就出来了!(百度)
집에 친구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모르고, 잠옷 입고 나왔어!
- d. 一次, 他请朋友来寓所吃饭, 而他自己却埋头在实验室里。朋友来了, 佣人将饭菜摆上餐桌, 可是牛顿仍迟迟不归。(人民日报 1996-12-8)
한 번은, 그가 친구에게 숙소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오히려 실험실에서 몰두했다. 친구가 오자 하인이 음식을 식탁에 차려 놓았지만 뉴턴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亲戚, 老乡, 朋友...’ 등과 같은 관계명사도 ‘VN了’와 ‘NV了’ 형식이 모두 가능하며 다양한 심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가정문 (21a)와 (21b)에서 ‘朋友’는 ‘VN了’ 형식이든 ‘NV了’ 형식이든 모두 확인불가능한 상태이다. 가정문이 아닐 경우 예문(21c)의 ‘朋友’도 확인불가능한 상태이다. 예문(21d)에 ‘朋友’의 심적 상태는 활성적이다. 친구가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친구를 초대했다고 앞의 단락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 (22) a. *来同桌了。
b. *来同屋了。
c. ?来同事了。
d. ?来同学了。

관계명사 중 ‘同桌(짜꿍), 同屋(룸메이트), 同事(동료)’ 등은 ‘친구’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아주 작은 집합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대화 참여자의 의식의 초점이 되어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2) 직업 명사 : 警察, 医生, 护士, 消防员, 老师, ...

먼저 ‘警察’와 같은 직업 명사를 살펴보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는 ‘来警察了’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VN了’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警察’가 인식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3) a. 来警察了。

경찰이 왔다.

b. 警察来了。

b.' 他/他们来了。

경찰이 왔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전화를 건 후 차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차주들은 ‘警察来了’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警察’는 이미 인식 속에 조명되고 있는 실체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예문(23b)‘警察来了’를 (23b) ‘他/他们来了’로도 대체할 수 있다.

다음 장면도 살펴보자. ‘老炮儿(노포아)’라는 중국영화에서 주인공이 문 앞에서 한가로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몇 명의 불량배들이 앞으로 뛰어가면서 ‘警察来了, 警察来了!’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警察来了’는 ‘他们来了’로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 현장이라는 틀에서 경찰은 준-활성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불법 범의자가 아니라 단지 일반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警察来了’ 또는 ‘来警察了’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哦, 警察/来了一个警察’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来消防员了’가 아니라 ‘消

防员来了’이다. 화재 현장은 지시체가 접근가능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来消防员了’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화재 현장이라는 틀을 다른 장소로 대체해 보자.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鸿星尔克来消防员了(홍성이극에 소방관이 왔다)!’라는 틱톡 동영상의 제목을 발견했다. ‘홍성이극’이라는 운동복가게에서 직원이 소방제복을 입은 소방관의 등장에 깜짝 놀라 ‘VN了’형식으로 제목을 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警察、消防员’ 등 직업에 관련된 명사는 ‘VN了’ 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老师’는 ‘VN了’ 형식으로 등장하는 예문을 코퍼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웹페이지에서 ‘来老师了’로 검색하여 나오는 예문은 모두 ‘老师来了’이다.⁵²⁾ ‘선생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보통 학교라는 ‘틀’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老师’는 쉽게 대화 참여자의 단기 기억에 환기되어 활성화 상태가 된다. 경찰서에서 ‘来警察了’를, 소방서에서 ‘来消防员了’를 말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혹시 ‘老师’가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활성화되기 쉬운 틀에서 벗어나 ‘VN了’ 형식을 취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특별한 제복을 입지 않기에 학교가 아닌 환경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VN了’ 형식이 쓰일 수 있는 문맥을 찾기가 어렵다. 반면에 ‘NV了’ 형식에 사용된 ‘老师’의 심적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24) a. 天赐怕也不是，不怕也不是，一会儿以为老师是怪物，一会儿想起扣老师的工钱。小马褂又穿上了，等着拜老师，天赐象闪后等着雷似的，脸上红一阵白一阵。老师来了(他来了)! 四虎子报告的时候，声音都 有点岔批儿。(老舍《牛天赐传》)

천사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괴물 같기도 하고, 선생님의 월급을 깎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는 조랑말 저고리를 다시 입고 선생님을 뵈기를 기다렸는데, 번개 후 천둥이 치기를 기다리는 듯 얼굴이 붉고 하얗게 질렸다. 선생님

52) 14 명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1 명은 ‘来老师了’가 어색하다고 하였고, 3 명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이 오셨다! 사호자가 알릴 때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 b. 果然，那7名学生在河里的小船上慌作一团。他来不及脱衣，就跳进浑浊的激流中，边游边喊：“不要怕，老师来了(我来了)！”(报刊精选 1994)

역시 그 7명의 학생은 강에서 보트를 타고 허둥댔다. 그는 옷을 벗을 겨를도 없이 탁한 격류에 뛰어들어 수영하면서 “겁내지 마, 선생님이 왔어!”라고 소리쳤다.

- c. 聊天聊的很开心，突然经理走过来，我习惯性说了一句：别说了，老师来了(*他来了)。(微博)

(동료와)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다가와서 습관적으로 “그만 말해, 선생님이 오셨어.”라고 하였다.

- d. 小时候，妈妈吓唬我说“狼来了”，上学时，同学吓唬我说“老师来了(*他来了)”，结婚后，同事吓唬我说“老婆来了”。(微博)

어렸을 때는 엄마가 “늑대가 온다.”고, 학교 다닐 때는 동학이 “선생님이 오신다.”고, 결혼 후에는 동료가 “아내가 온다.”고 놀렸었다.

예문(24a)에서 ‘天賜’라는 사람은 어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속 이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실체는 이미 ‘天賜’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활성화된 상태이다. 이때 ‘老师来了’ 대신 ‘他来了’라고도 말할 수 있다. (24b)에서는 선생님이 본인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我来了’로도 말할 수 있으며 지시체가 쉽게 활성화되었다. (24c)에서 화자가 동료와 같이 얘기할 때는 사장님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해당 문장은 화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학교에 다닐 때처럼 습관적으로 ‘老师来了’로 사장님을 선생님으로 지칭하여 동료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때의 ‘老师’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他来了’로 대체할 수 없다. (24d)에서 ‘老师’는 특정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확인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 (25) a. “不过受了一些些伤。可怜！那孩子正担心着吧。”老人说，又说医生立刻就来。恰巧门铃响了，他老妻说“医生来了(他来了)”，前去开门。(艾德蒙多·德·亚米契斯《爱的教育》)

“그러나 조금 다쳤어. 불쌍해! 그 애가 걱정하고 있어.” 노인은 또 의사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리자 그의 아내는 “의사가 왔다.”라며 문을 열어 갔다.

- b. 她不动弹，不摇头，只用她一双睁大了的眼睛向四处望，神情愉快，不再说话了。那姆姆把她的床帷重行放下，希望她可以稍稍睡一会。七点多钟，医生来了(*他来了)。屋子里寂静无声，他以为芳汀睡着了，他轻轻走进来，踮着脚尖走近床边。(维克多·雨果《悲惨世界》)
-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젓지도 않고, 크게 뜬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며, 즐거운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모모’는 침대 커튼을 다시 치고 그녀가 좀 잘 수 있게 했다. 7시가 넘어서 의사가 왔다. 방안이 조용하다. 그는 ‘방정’이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까치발로 들어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 c. 我是从入了正式的学校起，就选定了医生这个职业，主要的原因是我的母亲体弱多病，我和医生接触得较多，医生来了(*他来了)，我在庭前阶下迎接，进屋来我就递茶倒水，伺候他洗手，仔细地看他诊脉，看他开方。(冰心《冰心全集·第七卷》)
- 나는 정식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주된 원인은 나의 어머니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와 접촉이 비교적 많았다. 의사가 오면 나는 정원의 앞 계단에서 맞이하고, 집에 들어오면 차를 건네주고, 물을 따라서 그가 손을 씻도록 도왔고, 그가 진맥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의 처방을 보았다.

코퍼스에서 ‘NV了’ 형식인 ‘医生来了, 护士来了’의 예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문(25a)의 화자가 의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의사는 화자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된 상태이다. (25b)의 의사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병원 환경에서는 의사가 병원이라는 틀 안에 위치하기에 준 활성화된 상태이다. (25c)의 의사는 특정 의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 연속체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문맥에서 의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병원, 병실 등의 틀에서 나타나지 않은 의사의 상황이면 비활성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医生来了, 护士来了’의 예문은 많이 찾을 수 있었던 반면에 ‘来护士了’는 찾을 수 없었고 ‘来医生了’는 한 문장밖에 못 찾았다.⁵³⁾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유니폼으로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특정 장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소인 병원, 병실 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되기 쉬운 실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두(baidu)에서 ‘手机版罪恶都市竟然来医生了(휴대폰용 범죄도시에 의사가 등장했다)’라는 문장을 찾았는데 이는 병원에서 의사가 등장한 것이 아닌 ‘범죄도시’라는 게임상에서 의사 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来医生了’는 찾기 어렵지만 ‘来大白了’라는 문장이 있었다. 건강완보(钱江晚报 2022-1-20-14:44)에 실린 인터넷 기사에서 ‘来大白了, 不要慌, 今天下午2点到5点半, 杭州这个街道正在全员核酸检测演练(의사가 왔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항저우 이 거리에서 전원 코로나 검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VN了’ 형식인 ‘来大白了’가 출현한다. 여기서 ‘大白’는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을 호칭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닌 예상치 못한 아파트 근처에서 등장하여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일반 인물 명사: 小偷, 贼, 鬼, 妖怪, 强盗, 外星人, 敌人...

이런 종류의 명사는 전체적으로 ‘VN了’ 형식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난 ‘小偷/贼’를 예로 들어 분석하자.

- (26) a. “来小偷了…还开着那个一辆汽车, 在北山沟…”(刘君《反贪局在行动》)
“도둑이 들었어… 그 차를 몰고 북산골에 있어요.”
- b. 昨晚我家来小偷了, 我姐的钱被偷了, 手机也没了, 还好我出去玩了。(微博)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누나의 돈을 도둑맞았고, 핸드폰도 없어졌으나 다행히 나는 나가서 놀고 있었다.
- c. (要是)家里来小偷了, 我怎么办啊?(百度)
집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53) 원어민은 대부분 두 문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자주 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예문(26)의 ‘来小偷了’의 지시체 ‘小偷’는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 심적 상태이다. ‘来小偷了’예문들은 대부분 ‘장소+VN了’ 형식이며 발화 현장에서 출현할 경우 (26a)처럼 ‘VN了’ 형식을 택하였다.

- (27) a. 嘘, 小偷来了。(警察蹲点儿)
쉴, 도둑이 왔다.
- b. 小偷来了! 请如东沿街商铺店主留心!(微博)
도둑이 왔어요! 동쪽 골목 상점 주인들은 조심하십시오!
- c. 笑声中(他)已伸手打向秋大娘头额, 喝道:“小偷来了!”“在哪里? 小偷在哪里?”秋大娘从床铺上蹦坐起来, 慌张抓着手饰, 两眼惊骇四处张望。(李凉《神偷小千》)
그가 웃으면서 추씨의 이마를 때리며 “도둑이 왔다!”라고 소리쳤다. “어디야? 도둑이 어딤어?” 추씨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장신구를 움켜쥐고 두 눈을 부릅뜨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 d. 晚上吃饭上网敷面膜, 小偷来了, 吓死你!(微博)
저녁밥 먹고, 인터넷을 하며 마스크팩 할 때 도둑이 오면, 깜짝 놀랄 거야.

‘VN了’ 형식인 ‘小偷来了’에서 ‘小偷’의 심적 상태는 예문(27)에서 보여준 것과 같다. 경찰이 어딘가에서 도둑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밤에 도둑을 잡으려고 잠복하고 있다면 예문(27a)에서 보듯 도둑은 활성화 상태이다. 이때 도둑을 생략하거나 ‘他们’으로 대신 쓸 수도 있다. (27b), (27c)의 ‘小偷来了’는 경고로 쓰였고, (27d)의 ‘小偷来了’는 가정문에 쓰였는데 이때 지시체 ‘小偷’는 확인불가의 심적 상태로 볼 수 있다.

- (28) a. 贼来了, 见灯亮着, 就没进去。(卡尔维诺《黑羊》)
도둑이 와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

위의 예문(28)에 나타나는 도둑은 접근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예문은 《黑羊(Black Sheep)》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설은 모든 시

민이 다 도둑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매일 밤 시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다른 집 물건을 훔치는데 어느 날 어떤 성실한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밤에 도둑질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⁵⁴⁾ 이때 ‘贼来了, 见灯亮着, 就没进去(도둑이 왔다가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贼’는 앞쪽의 ‘从前有个国家, 里面人人是贼(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도둑이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기에 접근가능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9) a. 不知道什么时候开始, 吓唬小孩的台词由“警察来了”, “鬼子来了”, “废佬来了”, “警车来了”变为“姐姐来了”……(微博)

54) 《黑羊/Black Sheep》: 从前有个国家, 里面人人是贼。一到傍晚, 他们手持万能钥匙和遮光灯笼出门, 走到邻居家里行窃。破晓时分, 他们提着偷来的东西回到家里, 总能发现自己家也失窃了。他们就这样幸福地居住在一起。没有不幸的人, 因为每个人都从别人家里偷东西, 别人又再从别人家里偷, 依次下去, 直到最后一个人去第一个窃贼家行窃。该国贸易也就不可避免地是买方和卖方的双向欺骗。该国政府也是个向臣民行窃的犯罪机构, 而臣民也仅对欺骗政府感兴趣。所以日子倒也平稳, 没有富人和穷人。有一天——到底是怎么回事没人知道——总之是有个诚实人到了该国定居。到了晚上, 他没有携带提灯出门去偷, 而是呆在家里抽烟读小说。贼来了, 见灯亮着, 就没有进去。(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이었다. 저녁이 되면 마스터키와 가림막을 들고 집을 나서 이웃 집으로 도둑질을 하러간다. 새벽녘에 훔친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자신의 집도 도둑맞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다. 불행한 사람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집에서 훔치고, 마지막 사람이 첫 번째 도둑의 집에 도둑질할 때까지 차례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도 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쌍방향 사기일 수밖에 없다. 이 나라의 정부도 신민에게 도둑질을 하는 범죄 기관이며 신민도 정부를 속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평온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정직한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정착했다. 저녁이 되면 랜턴을 들고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담배를 피우며 소설을 읽었는데. 도둑이 왔다가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겁주는 대사는 “경찰이 왔다.”, “일본 병사가 왔다.”, “사이코패스가 왔다.”, “경찰차가 왔다.”에서 “누나가 왔다.”로 바뀌었다.

앞서 언급한 명사가 등장할 때 은현문은 경고의 의미를 띠고 ‘NV了’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예문(29)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경고성 어투에 대해서는 5.3.1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4) 人

‘人’의 활성화 상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아래의 예문(30a)는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인기척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문장으로, 사람이 오기 전까지 화자와 청자가 모두 몰랐던 경우이다. 예문(30b)는 주선자와 같이 소개팅할 사람을 기다리다 소개팅을 할 상대방이 왔을 때 주선자가 옆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며 ‘人’은 이미 활성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他/她来了’로 대체해서 말할 수 있다. 화자는 ‘人’이라는 실체가 현재 담화 참여자의 인식 속에 이미 환기되었다고 가정할 것이다.

(30) a. 来人了。

사람이 왔다.

b. 人来了。

사람이 왔다.

b'. 他/他们来了。

그가 왔다.

하지만 ‘경찰, 손님’ 등과 달리 ‘人’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 ‘人来了’는 찾기가 어렵다. 즉, 일단 ‘人来了’에 들어가면 ‘人’은 반드시 활성화가 된 심리적 상태여서 ‘他/他们来了’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 영화 작품에서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인식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人来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了’라고 말할 수 있다. 《곰이 출몰하다(熊出没)》라는 중국 애니메이션에서 ‘熊大’라는 곰이 ‘熊二’이라는 곰에게 ‘人来了’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人’은 구체적으로 어떤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과 같이 ‘인간’이라는 한 부류를 가리킨다.

또한 《연지구(胭脂扣)》라는 소설에서도 귀신이 사람에게 ‘谢谢你, 人(고마워요, 인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人’은 인간이라는 부류를 가리킨다. 이 소설에는 ‘人来了’라는 문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귀신 한 명이 다른 귀신에게 일깨우거나 경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人来了’라는 문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화, 귀신 등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뜻으로 쓰이는 ‘人’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도 ‘人来了’ 형식으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人’은 ‘NV了’에서 활성화 상태가 되고 ‘VN了’에서는 확인불가능한 상태나 비활성화 심적 상태이다.

- (31) a. 我扣扣好友里少人了。(微博)
나의 QQ 친구가 줄어들었다.
- b. 三人走在山城的大街上, 夜里人少了, 他们就为所欲为地横横竖竖地走。(王旭烽《茶人三部曲》)
세 사람은 산성의 큰길을 걷다가 밤에 사람이 적어지자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거닐었다.

이제 다른 ‘V人了’의 예문을 보자. 위의 ‘VN了’ 형식인 예문(31a)에서는 나의 ‘QQ 친구’ 중 친구의 수가 적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누가 없어졌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NV了’ 형식인 예문 (31b)의 ‘人’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아직 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32) a. 他们一边奔跑一边大声喊叫着：“快快快，快快快，老师家死人了!”
(莫言《四十一炮》)
그들은 달리면서 “빨리, 빨리, 선생님 댁에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 b. 当真是船伙之一，……远远的就大声说道：“老板，快回去，死人了。”他无目的的说：“死了么？”那人就同样无目的的说：“完全死了。”他听到死了人，也不问是谁死，为什么死去。(沈从文《石子船》)
뱃사공 중 한 사람이 멀리서 “사장님, 돌아가세요, 누가 죽었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목적 없이 “죽었니?”라고 말했다. 뱃사공도 똑같이 목적 없이 “완전히 죽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도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위의 예문(32a), (32b)의 ‘人’은 확인불가능한 상태이다. 예문(32b)의 지시체의 심적 상태는 ‘他听到死了人，也不问是谁死，为什么死去(그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도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묻지 않았다)’라는 후속 절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 (33) a. 余校长说：“人死了，你还敢与他开玩笑，这也怪老村长当初太宠你。(刘醒龙《天行者》)
여 교장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감히 농담을 하다니 늙은 촌장이 너무 충애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b. 石热闹说：“刘高兴，人死了，会不会就变了鬼？”(贾平凹《高兴》)
석열요가 “유가흥,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예문(33a)의 ‘人’은 이미 세상을 떠난 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활성화돼 있는 지시체이다. 왜냐하면 ‘死人了’의 후속 절에 대명사 ‘他’, 명사 ‘老村长’이 ‘人’의 대응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문(33b)의 ‘人’은 누군가를 꼭 집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므로 확인불가 상태이다.

- (34) a. 死人了。
b. *死客人了。
c. *死警察了。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앞서 동사가 내포하는 지시체의 심리적 표상을 분석했을 때, 소설류 동사는 맨명사와 결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死人了’이라는 문장이다.

이는 동사 ‘死’와 맨명사 ‘人’과 관련이 있다. ‘死’는 고빈도로 쓰이는 단어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지인의 죽음, 또는 모르는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해당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상이한 담화 환경에 따라 부호화하는 언어 형식도 다르게 표현된다.

(5) 동물 명사: 鸟, 驴, 老鼠

동물류 명사가 ‘VN了’에 들어간 예문은 BCC, CCL 등의 코퍼스에서 몇 개만 발견할 수 있었다.

- (35) a. 澳网郑洁的比赛来鸟了。(微博)
호주 테니스 경기 대회 때 정길(이름)의 경기장에 새가 왔다.
- b. 有人喊：“坏了，死驴了！”队伍一哄而散，跑向宿营地，想看看是谁的驴遭了枪子儿，连奉命看守父亲的刘长水、田生谷也忘了使命，提着大枪跟着人群跑走。(莫言《红高粱家族》)
누군가가 “망했어, 당나귀가 죽었어!”라고 소리쳤다. 대열은 와르르 흩어지고 숙영지로 달려가 누구의 당나귀가 총에 맞았는지 보려고 했다. 아버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류장수와 전생곡마저 사명을 잊은 채 큰 총을 들고 인파를 따라 달려갔다.
- c. 我妈以为来老鼠了呢！(对话)
우리 엄마는 쥐가 온 줄 알았어!

여기서 새, 쥐와 당나귀는 담화 속에서 담화 참여자에게 모두 확인불가능하다. 확인불가능하기에 예문(35b)에서 ‘당나귀가 죽었어’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누구의 당나귀가 총에 맞았는지 보려고 당나귀가 죽은 현장으로 뛰어간다.

바이두(baidu)에 검색하면 ‘家里+进/来+老鼠/蛇/蟑螂/小强/蚂蚁/蜈蚣了(집안으로 쥐/뱀/바퀴벌레/개미/지네가 들어왔다)’ 형식의 예문들을 찾을 수

있다.⁵⁵⁾ 이런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 상태인 지시체로 볼 수 있다.

(6) 사람과 관련된 명사: 精神, 兴趣, 灵感, 脾气, 压力

‘정신, 취미, 영감, 성질, 스트레스’ 등 정신과 관련된 명사가 ‘VN了’와 ‘NV了’에 출현할 때 인물 명사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 (36) a. 刚才还头晕, 一个电话, 来精神了!(微博)
아까는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전화 한 통으로 정신이 들었다!
- b. 嘿!吃了药, 洗个头, 精神来了!(微博)
약을 먹고, 머리를 감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

예문(36)에서 서술하는 행동은 각기 다르지만, 두 예문 모두 화자가 정신을 다시 차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来精神了’와 ‘精神来了’에 나타나는 명사 ‘精神’의 활성화 상태는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아래 <표 5-16>의 각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심적 명사는 ‘VN了’, ‘NV了’로 서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6> ‘来N了’와 ‘N来了’의 예문 비교(심적 명사)

	来N了	N来了
精神	王充来精神了。 왕충이 정신을 차렸다.	邓小姐精神来了。 등아가씨가 기운이 났다.
压力	温州高速警察接了这案子, 来压力了。 윈주 고속 경찰이 이 사건을 맡아서 스	姐姐毕业实习完, 压力来了。 언니가 졸업 실습을 마치고 스트레스가

55) 哔哩哔哩(bilibili 2021-07-22-22:53:34)에 ‘家里进小强了’라는 동영상에 있다. 여기서 ‘小强’은 바퀴벌레를 지칭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이것은 영화 《唐伯虎点秋香(1993)》에서 따온 말이다. 영화에서 주연 주성치(周星驰)가 죽은 바퀴벌레를 향해 ‘小强’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코믹하게 나오자 인터넷에서는 바퀴벌레를 ‘小强’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바퀴벌레는 생명력이 강해 박멸이 쉽지 않기에 ‘죽지 않는 소강(打不死的小强)’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나서 번번이 궁지에 몰리지만 생명력이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트레스가 생겼다. 第一个情人节, 来压力了.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 이기에 스트레스가 생겼다.	생겼다. 老妈问我怎么不带女朋友让她高兴高兴, 压力来了. 엄마가 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즐겁게 해주지 않냐고 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脾气	我真是来脾气了。 나는 정말 화가 났다. 村长一听不同意, 说瞎子胡说八道, 瞎子也来脾气了。 촌장이 듣자 동의하지 않고 장님이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장님도 화가 났다.	我真的是脾气来了。 나는 정말 화가 났다. 跛子今天脾气来了。 절름발이는 오늘 성질이 났다.
兴趣	真那么好看? 马上来兴趣了! 정말 그렇게 예뻐? 바로 관심을 보였다. 一同学报告: “我学过跆拳道...”, 教官来兴趣了。 한 학생이 “태권도를 배웠는데...”라고 보고하자 교관이 관심을 보였다.	啊, 兴趣来了, 挡不住啊。 아, 관심이 생겨서 못 막겠다. 听到都是自己熟悉的人物, 小燕子兴趣来了。 모두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에 ‘제비’는 관심이 생겼다.
灵感	半夜三更来灵感了。 한밤중에 영감이 떠올랐다. 看见港口的船只, 突然就来灵感了。 항구에 있는 배를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有时半夜醒来, 灵感来了, 提笔就来。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면 영감이 떠올라 펜을 들고 바로 쓴다. 回家的路上, 突然, 灵感来了。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두 형식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다. BCC 에 나온 예문들을 통계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심적 명사는 ‘NV了’가 ‘VN了’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심적 명사는 사람의 인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어 ‘NV了’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표5-17〉 ‘来N_{심적 명사}了’와 ‘N_{심적 명사}来了’의 출현빈도

VN了	NV了
来精神了(64)	精神来了(95)
来灵感了(17)	灵感来了(106)
来兴趣了(13)	兴趣来了(152)
来脾气了(8)	脾气来了(57)
来压力了(3)	压力来了(44)

이러한 부류의 명사가 존재하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문두성분은 일반적으로 인물과 관련된 명사이다. 이때 소유와 장소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거나 또는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例假, 月经, 大姨妈, 事儿, 奶’ 등 신체와 관련된 명사도 ‘VN了’에 들어갈 수 있다. ‘来奶了’는 아이를 낳은 후 여성의 모유가 나오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例假, 月经, 大姨妈, 事儿’ 등은 ‘VN了’ 형식으로 사용했을 때 여성의 생리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事儿’를 제외한 다른 명사들은 모두 ‘NV了’에 들어갈 수 있다. ‘例假, 月经, 大姨妈’는 모두 ‘VN了’와 ‘NV了’에 사용할 수 있지만 경향성이 좀 다르다. ‘例假, 月经’은 ‘NV了’로 사용되는 빈도가 각각 20 회로 낮다. 그러나 ‘VN了’로 사용되는 빈도는 각각 182 회, 60 회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리의 출현은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이며, 지시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심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大姨妈’은 ‘NV了’에 들어가는 빈도가 더 높고 (679 번) 이는 ‘VN了’의 사용 빈도의 거의 3 배에 달한다(219 번).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가? ‘大姨妈来了’라는 표현은 역사적 전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친척 큰 이모의 도래’라는 사건으로 여성 생리의 도래를 모호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전고에 나타날 때는 ‘姨母至’의 형식이었는데 발전하는 과정에서 ‘大姨妈来了’로 바뀌었다. 이 문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VN了’ 형식인 ‘来例假了, 来月经了’ 등 다른 표현의 영향을 받아 ‘来大姨妈了’라는 표현이 생겼다. 이 때문에 ‘NV了’형식의 사용 빈도가 ‘VN了’보다 더 높은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이러한 명사는 돌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VN了’ 형식으로 선택하여 N의 비활성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모두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뚜렷한 이동 경로가 없다. 따라서 ‘VN了’와 ‘NV了’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고, ‘NV了’로 비교적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5.2.1.2. 부정 명사

(1) 교통수단: 车, 船, 救护车, 警车, 囚车…

‘车’와 같은 명사는 인물 명사처럼 ‘VN了’와 ‘NV了’에 다 쓰일 수 있는데 활성화 상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다리고 있던 차가 도착한 경우, 아래 예문(37b)처럼 ‘车来了’라고 말할 것이다. 발화자 ‘他’는 ‘车’가 이미 수신자 ‘她’의 의식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提醒’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만약 화자 ‘他’가 다가오는 차가 청자 ‘她’의 의식의 중심에 있지 않고 비활성 상태라고 가정하면 예문(37a)의 ‘来车了’처럼 말할 것이다.

- (37) a. “来车了, 小心”。他轻轻拽了一下她的袖子。
 “차 온다, 조심해.” 그는 그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 b. “车来了”。他提醒她, 然后先她一步上了车。
 “차가 왔어요.” 그가 그녀를 깨운 후에 그녀가 먼저 차에 올라탔다.
- c. 走的那天, 在九溪镇等公共汽车时, 碰见了清晨出来跑步的王眉。她和几个女孩沿江走过来, 看到我就站住了。当时, 太阳正在冉冉升起, 霞光万道, 我看不清她的眼睛, 但我有一种预感, 她有话要对我说。她仿佛立刻要走过来, 对我说一句很重要的话。后来, 车来了, 我上了车。(王朔《空中小姐》)
 떠나던 그 날, 구계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새벽에 달리기를 하러 나온 왕미와 마주쳤다. 그녀와 몇 명의 여자 아이가 강을 따라 걸어 왔는데, 나를 보고 멈추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비쳐 그녀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바로 다가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것만 같았다. 후에 차가 와서 나는 차에 올랐다.

예문(37c)에서 ‘车来了’가 나오기 전 화자 의식의 중심에는 ‘她’, 즉 ‘왕미’라는 여자가 있다. 문장의 서술을 거슬러 올라가면 화자가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 화자의 의식 중심에 존재하는 실체의 전환으로 인해 ‘车’는 의식 중심에서 벗어났다.

‘车来了’의 ‘车’는 앞에 언급했던 버스 정류장의 틀에 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 틀에 존재하는 ‘车’가 조명되어 접근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 단락에서 ‘车’가 초기의 활성화 상태인 ‘在九溪镇等公共汽车(구계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로부터 담화에 서 탈 활성화된 경우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문(37c)의 ‘车’는 활성화 상태가 아닌 준-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통신: 电话, 信, 短信, 贺电, 通知, 信息, 信号...

‘电话’와 같은 통신에 관련된 명사가 ‘VN了’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이고 ‘NV了’에 들어가면 다양한 심적 상태가 반영된다. Lambrecht(1994:99)에서도 이런 상황을 언급하였다. 화자가 친구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청자가 현재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쉽게 접근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벽에 걸린 어떤 사진에 관해 ‘Those pictures sure are ugly’라고 말할 수 있다. 직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5-18〉 ‘来电话了’와 ‘电话来了’의 예문 비교

来电话了	电话来了
铃……, 来电话了。吉林省桦甸县无线电器材厂党支部副书记陈玉起拿起话筒, 原来是车间向他请示工作。电话 来了。길림성 화현 무선기자재공장 당지부 진옥기 부서기가 수화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작업장에서 그에게 업무 지시를 요청하는 전화였다.	这时电话来了。“是位小姐的声音, 一位漂亮小姐的声音。”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의 목소리, 예쁜 아가씨의 목소리였어요.”
	“师娘——电话来了。”我去接过电话。 “사모님,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으러 갔다.
	战士们围在电话机旁, 焦急地等待平陆的答复。三点一刻, 电话来了, 话筒里传出县委书记郝世山的声音。 병사들은 전화기 옆에 둘러앉아 평육의 대답을 에 타게 기다렸다. 3시 15분, 전화가 왔다. 수화기에서 학세산 현 당서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위의 예문 ‘师娘——电话来了’의 ‘电话’는 발화 전 의식에 저장되지 않

았지만 외적 세계로 인해 접근가능하게 되어 ‘NV了’형식을 선택하였다.

(3) 에너지: 电, 暖气, 地热, 水

‘水’와 같은 명사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水来了’와 ‘来水了’는 활성화 상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항목의 차이도 존재한다. BCC 에서 ‘来水了’에는 ‘水’가 강물, 수도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水来了’에는 강물, 수도물 외에 식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표5-19〉 ‘来水了’와 ‘水来了’의 예문 비교

의미	来水了	水来了
강수	塔河来水了。 탑강에 물이 나왔다.	寂静的东拉河重新又响起了哗哗的水声!... “水来了! 水来了!” 고요했던 동라강에 다시 쿵쿵 물소리가 울렸다!...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수돗물	9点左右, 来水了, 立马冲进去洗澡。 9시쯤 물이 나와서 바로 샤워를 했다. 自来水管里传来哗哗的水声。“来水了, 来水了, 终于来水了!” 수도관에서 쿵쿵 물소리가 들려 온다.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어, 드디어 물이 나왔다!”	傍晚时分, 水来了, 家家都拿桶去接。 저녁 무렵에 물이 나와서 집집마다 통을 가지고 갔다. “水来了, 水来了!”拧开水龙头, 清甜井水哗哗流进家家户户。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수도꼭지를 틀자 맑은 우물물이 집집마다 쿵쿵 흘러나왔다.
식수	×	“水来了, 你小心点儿喝。” “물이 나왔어, 조심해서 마셔라.” 他抱着一箱矿泉水走来, “水来了”。 그는 생수 상자를 안고 왔다. “물이 왔다.”

‘来水了’와 ‘水来了’는 모두 ‘단수되었던 물이 돌아왔다’, ‘수돗물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둘은 심적 상태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앞서 분석했듯이 단수된 후에 사람들은 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식 속에 물이 존재하여 ‘水来了’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물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来水了’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출

현하므로 ‘来水了’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표5-20〉 ‘来暖气了’와 ‘暖气来了’의 예문 비교

来暖气了	暖气来了
平安到家, 意外惊喜, 来暖气了。 무사히 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난방이 들어왔네.	洗的衣服晾一晚就干了。原来是暖气来了。 빨래가 밤새 다 말랐다. 난방이 들어왔구나.
	来到学校, 没顾得上喝一口热水, 与抢修的师傅们一干就10多个小时。暖气来了, 他却昏倒在楼梯上。 학교에 오니 따듯한 물을 마실 겨를도 없이 서둘러 수리하는 사람들과 10시간 넘게 일했다. 난방은 들어왔지만 그는 계단에서 기절했다.

‘暖气’ 등 다른 명사는 전에 분석한 명사의 심적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4) 기상 명사: 冷空气, 风, 暴风雨, 流星雨, 龙卷风...

‘风’과 같은 기상에 관련된 명사가 ‘VN了’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이고 ‘NV了’에 들어가면 다양한 심적 상태를 표현한다.

〈표5-21〉 ‘来风了’와 ‘风来了’의 예문 비교

来风了	风来了
现在哈尔滨-19度, 来风了, 确实吹的我脸疼。 지금 하얼빈은 영하19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확실히 내 얼굴이 아프다.	最惬意的莫过于在没有烦恼的夏夜, 吹吹风~, 就是这样, 风来了~ 고민 없는 여름밤, 바람이 부는 것이 제일 쾌적하다. 바로 지금처럼 바람이 불어왔다. “风来了! 风来了!” 稿纸都叫了。 “바람이 왔다! 바람이 왔다!” 원고지가 소리쳤다.

‘现在哈尔滨-19度, 来风了, 确实吹的我脸疼’의 지시체 ‘风’은 비활성화 상태로 볼 수 있다. ‘最惬意的莫过于在没有烦恼的夏夜, 吹吹风, 就是这样, 风来了’에서는 바람이 온다고 하기 전에 ‘风’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이 지시체 ‘风’은 활성화 상태이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5) 추상명사: 福利, 活儿, 生意, 问题, 好运, 机会…

마찬가지로 ‘生意’와 같은 추상명사는 ‘VN了’에 들어가면 비활성화 상태가 되고 ‘NV了’에 들어가면 다양한 심적 상태를 표현한다.⁵⁶⁾

〈표5-22〉 ‘来生意了’와 ‘生意来了’의 예문 비교

来生意了	生意来了
“大老板, 来生意了, 我给你拉来百多号客人。”曲飞说。 “사장님, 장사가 됩니다. 100 명 이상 손님을 모셔 왔습니다.” 곡비가 말했다.(비활성화)	“周五后降温, 啧啧, 生意来了”, “啥生意?” “금요일 이후 기온이 내려가, ‘허허, 장사가 되겠어.’ “무슨 장사가 돼?”
	眼看从老母亲那借5000元钱批发来的卫生纸堆得卧室、厨房、卫生间到处都是, 根本卖不动, 沈玉筋急了, 扯下口罩和纱巾, 叫卖起来。这一吆喝还真行, 生意来了! 어머니에게서 빌려온 5,000위안으로 산 화장지가 안방, 주방, 화장실에 가득 차 팔리지 않자 심옥방은 다급해져서 마스크와 스카프를 벗고 소리치며 팔기 시작했다. 이런 고함치는 것이 정말 좋다, 장사가 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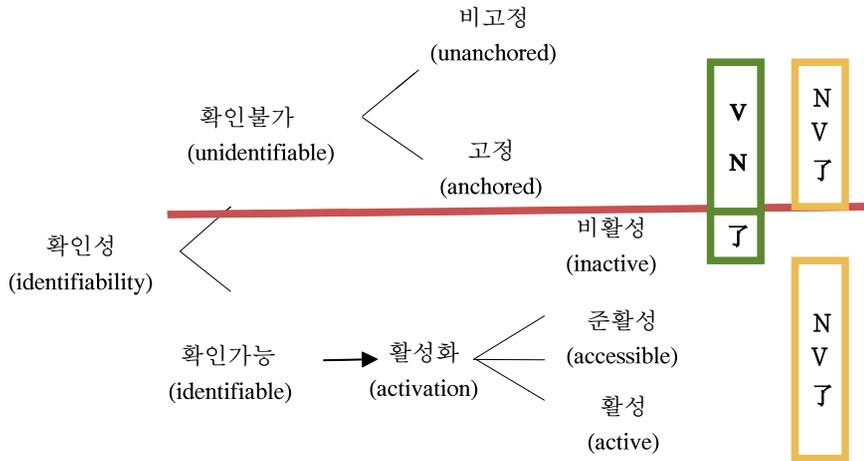
빈도로 살펴보면 ‘V+추상명사+了’의 출현빈도는 ‘추상명사+V+了’의 출현빈도보다 훨씬 낮다.

〈표5-23〉 ‘V_{추상명사}N了’와 ‘NV_{추상명사}了’의 출현빈도

VN了	NV了
来生意了(7)	生意来了(42)
来福利了(6)	福利来了(29)
来好运了(4)	好运来了(52)
来问题了(3)	问题来了(274)
来活儿了(2)	活儿来了(0)
来机会了(1)	机会来了(873)
来任务了(1)	任务来了(31)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VN了’와 ‘NV了’의 심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56) 추상명사 안에 사건명사(事件名词)도 있다. 사건 명사의 내부에는 시간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림5-1〉 N의 심적 상태

가정문과 같이 지시체를 식별 불가능한 경우이면 N을 ‘VN了’와 ‘VN了’에서는 다 확인불가로 본다. 지시체를 식별 가능한 경우이면 ‘VN了’는 주로 비활성화된 상태이며 ‘NV了’는 주로 활성화, 준 활성화 심적 상태이다.

5.2.2. N의 인지적 제약

앞서 V의 인지적 특징을 분석했을 때 은현문의 N은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된 심적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쉽게 확인하여 활성화되는 지시체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VN了’에서 제외된다.

- (38) a. *来张三了。
 b. 张三来了。
 장삼이 왔다.

예문에서 보여줬듯이 ‘张三’과 같은 고유명사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사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존재하는 확인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시체들은 담화 참여자 기억 속에 영구히 저장되어 있고 적절한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담화 맥락이 주어지면 특정 순간에 어려움 없이 즉시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래서 (39a) ‘家里进小偷了’는 가능하지만 (39b) ‘*家里进张三了’는 비문이다.

- (39) a. 家里进小偷了。
집에 도둑이 들었다.
b. *家里进张三了。

고유명사는 ‘VN了’의 N의 인지적 특성과 서로 모순되어 ‘VN了’에 쓰일 수 있는 명사의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 (40) a. *来爸爸了。
b. 爸爸来了。
아빠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 등과 같은 친족 명사일 때는 ‘NV了’만 사용할 수 있고 ‘VN了’는 사용할 수 없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앞에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없지만 듣는 이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화자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최소 집합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친족 명사는 확인가능하며 활성화 상태이다. 따라서 친족 명사 역시 고유명사처럼 N의 인지적 특성과 모순되며 ‘VN了’에 쓰이기 어렵다.

- (41) a. *来新娘了。
b. 新娘来了。
신부가 왔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인 신부를 봤을 때 ‘新娘来了’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예식장에

서 초면인 신부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来新娘了’라고 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新娘’도 친족 명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2) a. ?来老师了。
b. 老师来了。
선생님이 오셨다.

‘老师’는 고유명사도 아니고 친족 명사도 아닌데, 왜 ‘VN了’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않은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보통 선생님이 등장하는 환경은 학교이기에 학교라는 ‘틀’에서 선생님의 출현은 학생의 머릿속에서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NV了’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자가 특별한 지시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Lambrecht(1994:88)에서는 “가장 분명한 경우에는, 담화자나 발화 공동체의 담화 세계에서 명사구에 의해 적절하게 지칭될 수 있는 지시체가 오직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명사구의 지시체가 확인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유일하게 두드러진 지시체를 가진 그런 명사구로 Lambrecht 는 ‘mom, John’ 등과 같은 예시를 열거하였다. 위의 분석을 통해 ‘VN了’에 쓰일 수 없는 이유, 즉 N이 제약을 받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활성화 됨 B. 최소 집합

A와 B는 서로 독립적이고 병행하는 두 가지 제약이 아니라 서로 인과적이고 연결되어 있다. N은 고유명사이거나 친족 명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집합만 가지고 있다. 또한 최소 집합의 존재로 인해 발화 순간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시체에 쉽게 대응시켜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이때 N은 ‘VN了’가 요구하는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 심적 상태에 반하여 제약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을 받아 ‘VN了’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제 3 장에서 ‘VN了’의 문두성분에 시간, 장소, 소유자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혹시 이런 성분들도 N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래 예문(43a), (43b)를 살펴보자. ‘남자, 여자’와 같은 명사는 작은 집합이 함축되어 있지 않지만 왜 ‘来男人了/来女人了’라고 말할 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까?

- (43) a. ?来男人了。
- b. ?来女人了。

문두 위치에 시간 성분을 보완해도 ‘男人, 女人’을 확인가능한 인지 상태로 만들지 못하여 문장이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다.

- (44) a. ?昨天来男人了。
- b. ?昨天来女人了。

그러나 문두에 장소 성분을 추가하면 위의 예문(43a), (43b)는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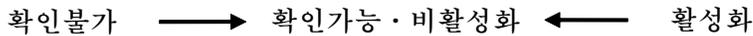
- (45) a. 寡妇村来男人了。
 과부촌에 남자가 왔다.
- b. 纺织厂来男人了。
 방직공장에 남자가 왔다.
- c. 项下村来女人了。
 항하촌에 여자가 왔다.
- d. 工地来女人了。
 공사장에 여자가 왔다.

과부촌, 방직공장, 항하촌, 공사장이 다리 역할을 하여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합리적인 공간으로 도입해 그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남

자, 여자는 일정한 집합을 갖게 되어 확인가능한 심적 상태가 된다. 앞서 틀, 혹은 도식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장소 명사들은 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확인불가능한 담화 지시체가 틀에 닿을 내려 확인가능하게 되었다.

- (46) a. 教导所来老师了。
교도소에 선생님이 오셨다.

부자연스러운 ‘来老师了’의 문두 위치에도 적당한 공간 ‘교도소’를 추가하면 합리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앞의 예들과는 반대로 매우 쉽게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끌려가는 것이다. 전자는 지시체가 나타나는 합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후자는 지시체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N을 ‘VN了’와 일치하는 심적 상태 영역으로 도입하게 된다.



Wu(1998)에서는 “‘P+VN了’(P: 소유자)와 같은 문장을 ‘소유문(Possessive Subject Sentence)’”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문(47a)는 성립되고, 예문(47b)가 성립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 최소 집합, 활성화 상태’ 등으로 귀납할 수 있다.

- (47) a. 他来亲戚/朋友/同事了。
그의 친척/친구/동료가 왔다.
- b. *他来父亲/叔叔/哥哥了。

그러나 예문(48b)에서 문두의 소유자 ‘他’를 제거해도 (48b)처럼 문장이

여전히 성립되지 않는다.

- (48) a. 他来亲戚/朋友/同事了。 a'. 来亲戚/朋友/同事了。
 그의 친척/친구/동료가 왔다. 친척/친구/동료가 왔다.
 b. *他来父亲/叔叔/哥哥了。 b'. *来父亲/叔叔/哥哥了。

이로써 ‘他来父亲/叔叔/哥哥了’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他’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N의 특성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父亲/叔叔/哥哥’는 활성화된 상태로 인해 ‘P+VN了’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VN了’로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었다. P가 N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려면 ‘VN了’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P+VN了’에는 들어갈 수 없는 N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문두 소유자가 N에 미치는 제약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外国人’이다. ‘来外国人了’는 성립 가능하지만 ‘他来外国人了’는 성립할 수 없기에 그 이유가 N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他’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명사(Relational NPs)’가 아닌 ‘外国人’이 소유자 ‘他’와 소속 관계(Possessor-Possessed Relationship)를 맺지 않기 때문에 ‘P+VN了’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VN了’ 문두에 위치하는 시간 성분은 N의 확인불가능이나 비활성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소 성분은 N을 확인불가능이나 비활성 상태로 이끌며, 소유자는 관계명사에 대한 요구로 인해 N이 제약을 받게 한다.

5.2.3. 인지적 제약의 해소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일부 소실류 동사와 관련된 N, 그리고 고유명사, 친족 명사 등은 ‘VN了’ 은현문이 요구하는 N의 인지적 특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VN了’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미 활성화 상태가 된 지시

체들은 어떻게 다시 비활성화나 확인불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단 ‘*VN了’에 해당하는 각 문장들의 N의 앞에 수량사 ‘一个’를 부가해볼 수 있다. ‘VN了’의 V와 N 사이에 ‘一个’와 같은 수량사 추가를 통해 N의 집합이 커지기도 하고 확인불가능한 상태나 비활성화 상태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장소에 이를 도입함으로써 집합이 커질 수도 있다.

명사가 인지적 제약을 받아 ‘VN了’에 들어갈 수 없는 예문들을 먼저 살펴보자. ‘爸爸’가 쉽게 활성화된 심적 상태가 되어 ‘*来爸爸了’는 비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爸爸’ 앞에 ‘一个’를 삽입하면 ‘爸爸’는 특정한 누구의 아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들의 집합 중 한 명이라는 뜻이 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설정해보자.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수공 취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빠 한 명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 이때는 ‘来了一个爸爸’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가 인지 상태의 제약을 받는 비문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다. ‘一个’가 V와 N의 사이에 삽입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⁷⁾

〈표5-24〉 ‘V了一个N’의 예문

	소 실		
	VN了	V了XN	NV了/기타
来			
走	*走客人了。	走了一个客人。	客人走了。
跑	*跑犯人了。	跑了一个犯人。	犯人跑了。

57) 출현을 표현하는 ‘VN了’ 형식의 예문 중 ‘出太阳了’만 ‘V了XN’형식(出了一个太阳)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出了一个太阳’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문법적 원인이 아닌 문장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후예사일(后裔射日)’이라는 중국 고대 신화 속이라면 ‘出了十个太阳(태양 열 개가 떴다)’도 가능하고, ‘出了一个太阳(태양 한 개가 떴다)’도 가능하다.

후예사일(后裔射日): 옛날 옛날에 하늘에 열 개의 태양이 번갈아 가며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췄는데 같이 놀러 가면서 대지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때 ‘후예’라는 젊은 영웅이 등장하여 활로 아홉 개의 태양들을 무찌르고 마지막 태양에게 명을 하여, 아침에 바다에서 떠서 저녁에 산속으로 저물게 하였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逃犯人了。	逃了一个犯人。	犯人逃了。
	*飞鸟了。	飞了一只鸟。	鸟飞了。
下 (雨) 류	*停雨了。	*停了一场雨。	雨停了。
	*停雪了。	*停了一场雪。	雪停了。
	*住/停风了。	*住/停了一阵风。	风住/停了。
	*散雾了。	*散了一团雾。	雾散了。
	*退洪水了。	*退了一场洪水。	洪水退了。/洪水下去了。
生 死 류	*消痘痘了。	?消了一颗痘痘。	痘痘消了。/痘痘下去了。
	*消冻疮了。	?消了一个冻疮。	冻疮消了。/冻疮下去了。
	*消失彩虹了。	*消失了一道彩虹。	彩虹消失了。
	?死牛了。	死了一头牛。	人死了。
	死人了。	死了一个人。	牛死了。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走/跑/逃/飞+수량사+명사’ 형식 은현문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停/散/消/退/消失+수량사+명사’ 형식 은현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走, 跑, 飞’ 등 동사와 연관된 지시체는 맨명사라면 쉽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 일반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초점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형식적으로 ‘一个’가 더해지면 활성화 상태가 되지 않으며, 이때 ‘客人’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손님을 지칭하지 않고 한 집합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그림5-2〉 ‘客人’과 ‘彩虹’의 집합

하지만 모든 ‘*VN了’가 수량구를 추가했을 때 반드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문(49a)에는 수량사를 추가해도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⁵⁸⁾ ‘消失’와 ‘走’는 모두 ‘VN了’ 형식인 은현문에 들어갈 수 없는 소실류 동사인데 왜 ‘V+了+수량사+N’에 들어간 후 결과가 바뀌는 것인가? 무지개는

58) 노래 ‘Gone The Rainbow’의 중국어 이름은 ‘消失彩虹了’가 아니라 ‘彩虹消失了’이다.

자연현상으로, 형식적으로 수량사를 추가해도 집합을 넓히거나 비활성 상태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49) a. *天边消失了一道彩虹。
 b. 天边消失了一片白帆。
 하늘가에 하나의 흰 돛단배가 사라졌다.

한편 코퍼스에서 예문(49b)와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 ‘天边消失了一道彩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반면에 ‘天边消失了一片白帆’이라고는 할 수 있다. ‘하늘가에 흰 돛단배 하나가 사라졌다’에서 언급된 흰 돛단배는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기 때문에 수량사의 추가를 통해 큰 집합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고 흰 돛단배의 비활성 상태도 확정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5-25〉 ‘VN了’ 은현문의 심적 특징 및 제약

NV了		VN了의 인지적 제약	V了一个N
彩虹消失了 雨停了 犯人逃了 爸爸来了 狼来了	⇒	*消失彩虹了(V와 N의 인지적 제약) *停雨了(V와 N의 인지적 제약) *逃犯人了(V의 인지적 제약) *来爸爸了(N의 인지적 제약) *来狼了(?)	*消失了一道彩虹 *停了一场雨 逃了一个犯人 来了一个爸爸 来了一只狼
*太阳出了(?)	⇐	出太阳了	*出了一个太阳
客人来了 다양한 심적 상태	⇔	来客人了 (확인불가, 비활성화)	来了一个客人 (확인불가, 비활성화)

‘NV了’의 지시체는 주로 활성화 상태이지만 다양한 심적 상태도 나타낸다. 반면에 ‘VN了’ 은현문은 출현하거나 소실된 지시체에 대해 강한 비활성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V와 N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한다. ‘走, 跑, 飞, 逃, 消失’ 등 동사, 그리고 최소 집합을 가지고 있는 친척, 고유명사 등은 모두 ‘VN了’ 은현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형식적인 수량사를 추가한

후 일부 제약이 해소될 수 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5.3. 개별 예문 분석

<표 5-25>를 살펴보면 아직 지시체의 심적 상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狼来了’와 ‘来狼了’, ‘*太阳出了’와 ‘出太阳了’이 두 쌍의 예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5.3.1. ‘*来狼了’와 ‘狼来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다. 앞서 <표 5-25>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어로 표현하면 ‘VN了’ 형식인 ‘来狼了’가 아니라 ‘NV了’ 형식인 ‘狼来了’이다. 화자가 늑대가 온다는 것을 모르면 늑대라는 실체는 화자의 의식 속에 비활성화 상태인데 왜 ‘VN了’ 형식인 ‘来狼了’로 표현할 수 없을까?

5.3.1.1. 소극적인 의미에 근거한 분석

吴为善(2016:187)에서는 ‘*来狼了, *来鬼子了(일본 군사가 왔다)⁵⁹⁾’와 같은 문장이 왜 성립될 수 없는지 설명한 바 있다. 그는 ‘*来狼了, *来鬼子了’의 ‘狼, 鬼子’는 모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동물, 사람이기에 이런 문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50) a. “下雨了, 天都黑了, 是来妖怪了吗?”
“不, 是我来了。”(对话)

59) ‘鬼子’는 ‘日本鬼子’의 약칭으로 전쟁 시대 일본에 대한 멸칭. 전쟁이나 역사에 관한 드라마와 책에서 이 용어를 볼 수 있다.

“비가 오고 어두워졌는데 요괴가 온 건가요?”

“아니, 내가 왔어.”

- b. 现在他们家里来强盗了, 我决不能看着。(人民日报 1950-11-25)
지금 그들 집에 강도가 와서 나는 결코 지켜볼 수만은 없다.
- c. 吓死我了, 刚刚用钥匙开门发现开不了, 还以为家里来贼了。(微博)
깜짝 놀랐어요. 방금 열쇠로 문을 열려고했는데 열리지 않네요. 집에 도둑이 온 줄 알았어요.
- d. 他重新揩了一把额头上的汗水, 接着喘着粗气说: “来小偷了 ……还开着那个一辆汽车。”(刘君《反贪局在行动》)
그는 다시 이마의 땀을 닦고 이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하길 “도둑이 왔는데…그 차를 운전하고 있어.”
- e. 来坏蛋了! (IQIYI 爱奇艺·儿童动画片大全 2019-11-13)
나쁜 놈이 왔다!

그러나 BCC, 바이두 등에서 ‘来强盗了, 来妖怪了, 来坏蛋了, 来小偷了, 来贼了’ 등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명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소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인 의미가 ‘来狼了’가 성립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5.3.1.2. 유생성에 근거한 분석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물 명사가 ‘VN了’ 은현문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동물류 명사가 ‘VN了’에 출현하는 예문은 BCC, CCL 등 코퍼스에서 몇 개만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5-35) a. 澳网郑洁的比赛来鸟了。(微博)
호주 테니스 경기 대회 때 ‘정길(운동선수 이름)’의 경기장에 새가 왔다.
- b. 有人喊: “坏了, 死驴了!”队伍一哄而散, 跑向宿营地, 想看看是谁的驴遭了枪子儿, 连奉命看守父亲的刘长水、田生谷也忘了使命, 提着大枪跟着人群跑走。(莫言《红高粱家族》)
누군가가 “큰일이다, 당나귀가 죽었어!”라고 소리쳤다. 대열은 와르르 흩어지고 숙영지로 달려가 누구의 당나귀가 총에 맞았는지 보려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고 했다. 아버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류장수와 전생곡마저 사명을 잊은 채 큰 총을 들고 인파를 따라 달려갔다.

c. 我妈以为来老鼠了呢!(对话)

우리 엄마는 쥐가 온 줄 알았어!

그럼 혹시 ‘사람 > 동물 > 식물 > 사물’이라는 유생성 위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유생성은 원래 생물학적 관점에서 명사를 분류하는 것인데 유형론적 관점의 언어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학적 개념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보다 유생성이 더 낮은 사물이 ‘VN了’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来车了, 来信了, 来电了’ 등의 N은 유생성 위계에서 맨 끝에 위치한다. 따라서 유생성 역시 이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3.1.3. 통시적 관점에 근거한 분석

앞서 ‘来狼了’가 왜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 N의 의미적, 인지적, 유생성의 위계로 분석을 하였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통시적 접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1) 갑골문헌

갑골 문헌에서 ‘来N’의 형식을 찾으면 N에 등장하는 것에는 ‘犬(개), 白马(백마), 象(코끼리), 兕(코뿔소)’ 등이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은현문의 ‘장소+来+출현물’이라는 구조와 아주 유사해 보인다. 혹시 이런 문장들을 최초의 은현문으로 볼 수 있을까? 李樟花(2014)를 참고하여 ‘来’가 갑골문에 쓰인 의미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26〉 ‘來’의 의미항목(갑골문)

갑골문사전 (甲骨文字典)	갑골문·금문사전 (甲骨金文字典)	간명갑골문사전 (简明甲骨文词典)	갑골문동사연구 (甲骨动词词汇研究)
-返也, 还也(돌아오다)	-往来, 来去(갔다 오다)	-往来(갔다 오다)	
-至也(도착하다)	-来至(도착하다)	-由彼至此, 由远及近 (저쪽에서 여기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다)	-到来, 回来(도착 하다, 돌아오다)
-将至也(곧 도착하다)	-未来(미래)	-今后几天(지금으로부터 며칠 뒤)	-未来, 将来(미래)
-贡纳也(공납하다)(𠄎) 𠄎(𠄎不其来舟)	-贡纳(공납하다) (贞: 古来犬)	-贡纳(공납하다)	-来奉, 贡纳(공납 하다)
-地名(지역 이름)	-国族名(국명, 족명)	-人名(사람의 이름)	

예문(51a)의 ‘고(古)’는 ‘족명(族名)’으로 이들은 왕실의 귀족이나 관원에 속하며 상왕(商王)에게 물품을 공납할 의무가 있다. 이 문장은 ‘고(古)’라는 씨족(氏族)이 개를 상나라 왕에게 공납할지 여부를 점치(占卜)는 복사(卜辭)이다. 예문(51b), (51c)의 ‘奚’와 ‘夔’는 지역의 이름이고 여기서 복사는 ‘奚’지역과 ‘夔’지역이 백마와 코뿔소를 공납할지 여부에 대해 점치고 있다.

- (51) a. 贞: 古来犬, 古不其来犬。H945 正
점을 쳤다. “고족이 개를 공납할까? 고족이 개를 공납 안 할까?”
- b. 甲辰卜, 殷贞: 奚不其来白马五。H09177 正
갑진날에 殷이 점을 쳤다. “시(奚)지역은 백마를 공납 안 할까?”
- c. 癸未卜, 亘贞: 夔来兕。H09172 正
계미날에 亘이 점을 쳤다. “夔지역은 코뿔소를 공납할까?”
- d. 贞: 不其来象。H9173
점을 쳤다. “왕에게 코끼리를 공납 안 할까?”

따라서 이런 문장의 ‘來’는 자동사로 ‘나타나다, 출현하다, 오다’를 나타낸 것이 아닌 타동사로 ‘공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문두성분은 공납자를 나타내며 ‘犬, 白马, 象, 兕’ 등은 공납 물품을 나타낸다. 즉 이런

동물명사는 은현문의 N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춘추~위진시대의 문헌⁶⁰⁾

춘추시대의 《시경》부터 남북조시대의 문헌까지 ‘來 N’을 검색했는데 ‘來 遠人, 來外盜’와 같은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 (52) a.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論語·季氏》)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화와 도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하다.
- b. 而後可以殿邦國、同福祿、來遠人, 所謂樂也。 (《左傳·襄公》)
 그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복록을 함께 누리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이 기쁨이다.
- c. 予為正卿, 而來外盜。 (《左傳·襄公》)
 당신이 정경이지만 바깥의 도적들을 들어오게 한다.

여기서 ‘來 N’의 ‘來’는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다(使從彼處到此處)’라는 사동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은현문의 ‘來 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53) a. 河出圖, 洛出書。 (《周易·系辭上》)
 황하에서 하도가 나왔고, 낙하에서 낙서가 나왔다.
- b. 山下出泉。 (《周易·象傳上》)
 산 아래에서 샘물이 나온다.
- c. 師之所在, 比生荊楚。 (《呂氏春秋·應同》)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밭은 황폐해질 것이다.

60) 春秋戰國：《詩經》，《尚書》，《論語》，《孟子》，《韓非子》，《左傳》，《戰國策》，《周易》；
 秦漢：《呂氏春秋》《史記》《論衡》；北魏：《洛陽伽藍記》；晉：《抱朴子內篇》，《新校搜神記》，《道行般若經》，《佛說兜沙經》，《三國志》；南北朝：《顏氏家訓》，《世說新語》。

그러나 이 시기에 은현문 형식인 ‘出 N’, ‘生 N’ 등이 이미 등장했다. 예문(53a)의 ‘河出图, 洛出书’, (53b)의 ‘山下出泉’, (53c)의 ‘比生荆楚’라는 구절들이 모두 ‘장소+出 N’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당~청대의 문헌

당-오대의 은현문의 출현빈도는 높지 않지만 기상, 사람, 식물, 사물, 추상 등 출현하는 명사의 유형은 비교적 다양하다.

- (54) a. 从何来雨从何起云从何出雾。(《敦煌变文》)
어디선가 비가 오고 어디선가 구름이 나오고 어디선가 안개가 낀다.
- b. 师见禾山来僧。(《祖堂集》)
스승은 화산에서 승려가 오는 것을 보았다.
- c. 西来密旨。(《祖堂集》)
서쪽에서 밀지가 왔다.
- d. 我也不敢十分信的及。来大官员。(《关汉卿戏曲集》)
나도 고관이 오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 없다.
- e. 师问僧曰：“夜来好风?”曰：“夜来好风!”(《五灯会元(卷第三)》)
스승이 승려에게 “밤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나요?”라고 묻자, “밤에 좋은 바람이 불니다!”라고 하였다.

예문(54a)의 ‘来雨, 起云, 出雾’는 현대중국어의 下(雨)류 은현문과 같은 형식을 띤다. ‘来’ 뒤에 나타나는 명사는 자연현상, 사람, 물건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송-원시대에도 ‘来 N’의 용례가 많아졌으며 그 예로는 ‘来大官员, 来风’ 등이 있다.

- (55) a. 对面来了一只船。(《儒林外史·第十二回》)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왔다.
- b. 来了三顶小轿, 狄周媳妇也跟了下来。(《醒世姻缘·第一百回》)
작은 가마 세 개가 오자, 적주의 아내도 따라왔다.
- c. 胡同口来了一辆车, 内中坐了两个女人, 一个孩子。(《歧路灯·第六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十七回》)

골목 입구에 수레 한 대가 왔는데 안에 여자 두 명, 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명, 청대에는 용례가 더 많아지고 교통수단에 관련된 명사 ‘船, 轿子’ 등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표5-27〉 명-청시대 ‘来N’의 정리

시대	출처	‘来N’에 출현하는 명사구
명	西游记	斋僧, 一个妖邪, 一个全真, 一个妖精, 一个和尚, 一个雷公嘴毛脸的和尚
	水浒传	一个僧人, 一个好汉, 大事, 雨
	金瓶梅	大事, 雨
	醒世姻缘	八个鼓手, 一个撞席的, 一个作孽之种, 一大伙子, 八名, 十二名皂隶, 四个书办, 四个门子, 一个, 叁顶小轿
청	儒林外史	几个人, 一个敝友, 五六船(人), 一把黄伞, 两对红黑帽, 一柄遮阳, 一顶, 一隻船
	红楼梦	一僧一道, 一个, 一个和尚, 一个人, 一个跛足道人, 一个亲戚, 一个癩头和尙, 一个薛宝钗, 十来对(太监), 一个神仙似的妹妹, 刘姥姥, 一群驮子, 几个女人
	岐路灯	这个人, 一个人物头儿, 一个瞎医生, 两家妓女, 一个亲族, 一个礼房, 一个夏鼎, 一个张正心, 这个讨吃鬼, 两口儿, 一班戏子, 一个戏主, 一位堂客, 盛、夏二位, 娄、孔、程叁位, 老门役, 两名皂役, 七八个大汉, 一辆车

은현문의 N 을 39 개 문헌에서 검색하여 ‘来’의 논항을 정리한 결과, 동물 명사는 자연현상, 사람, 교통수단보다 늦게 출현하였고 ‘VN’형식으로 쓰이는 예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3.1.4. 인간 중심적 관점에 근거한 분석

통시적으로 예문들을 찾기 어렵다면 다시 현대중국어의 예문을 살펴보자. 앞서 코퍼스 검색에서는 동물류 명사를 많이 찾을 수 없었지만 바이두에서 ‘家里进/来+老鼠/蛇/蟑螂/小强/蚂蚁/蜈蚣了’ 형식의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소호(sohu)신문에서 ‘来狼了’ 예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뉴스의 제목은 ‘内蒙古这个地方来狼了(내몽골의 이 지역에 늑대가 나타났다)’이며

‘장소+VN了’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 본문에서 ‘来狼了’ 형식은 ‘狼来了’로 바뀌었고, “今日, 义隆永镇政府办公室发出一条紧急通知——狼来了(오늘, 의룽 영진 정부 사무실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긴급 통보를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内蒙古这个地方来狼了, 他们该咋整?

2018-01-28 13:32



近日, 义隆永镇政府办公室发出一条紧急通知——狼来了!



@所有人

紧急通知:

各村请注意, 据说镇区内发现一只狼, 在叫来河沿岸村屯对家畜已造成伤害, 请各村抓紧宣传, 避免伤到人。

义隆永镇政府办公室

2018年1月24日

收起

〈그림5-3〉 ‘장소성분+来狼了’ 형식인 뉴스의 제목

소호(sohu)와 바이두(baidu)에 나타나는 예문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소성분+VN了’의 형식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家里, 村里, 内蒙古’ 등은 모두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집, 마을’ 이런 장소에 ‘老鼠/蛇/蟑螂/蚂蚁/蜈蚣/小强’ 등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동물이 출현하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장소 문두성분+VN了’ 은현문으로 쓰일 수 있다. 중국 내몽골에는 넓은 초원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목축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늑대의 출현이다.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소 문두성분+来狼了’로 표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양치기 소년》에서는 왜 이 구절을 쓰지 않는 것인가?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늑대’의 심적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우화에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세 번 외쳤다. 앞의 두 번은 일부러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고, 마지막은 실제 늑대를 보고 외쳤던 말이다. 늑대의 출현이 예측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앞의 문맥에서 등장했다. 둘째, 양치기 소년의 책임은 양떼를 늑대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속에 늑대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계심을 유지한다. 따라서 ‘狼来了’라고 외칠 때 ‘늑대’는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고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 때문에 《양치기 소년》에서 ‘狼’이 쉽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NV了’ 형식을 선택한 것이다.

〈표5-28〉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첫번째	세번째
《狼来了》(중국어)	狼来了! 狼来了! 救命啊!	狼来了! 狼来了! 快救命呀! 狼真的来了!
《양치기 소년》(한국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オオカミと少年》(일본어)	たいへんだ! オオカミだ! オオカミだ!	オオカミが来た! オオカミが来た! 本当にオオカミが来たんだよ!
《wolf is coming》(영어)	①wolf! wolf! ②wolf! wolf! wolf is coming!	①help! help! The wolf is here! ②wolf!wolf!wolf is coming!

또한 ‘狼来了’는 소년이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음을 경고 어투로 보고하며 하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가’를 쓰는 것과, 일본어에서 ‘ga’를 쓰는 것은 보고문으로 쓰였다는 증거이다. 늑대는 이 사건에 포함된 실체이기에 활성화 상태라도 생략 불가능할 것이다. 영어에서 “wolf! wolf!”로 말하는 것도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경고하는 상황에서는 ‘NV了’형식이 쓰이는 것일까? 제2장에서 언급한 고양이에 대한 세 가지 예문을 다시 보자.

- (2-4) a. Here comes the CAT.
여기 고양이가 왔어.
b. Here he COMES.
여기 그것(고양이)이 왔어.
c. And here the cat COMES!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왔군!

예문(2-4a)은 화자가 누군가의 고양이가 발화 장면에서 지금 도착했다는 사실로 청자의 주의를 끌려고 할 때 말하는 문장이다. 이 경우는 중국말로 ‘来猫了’라고 말하지 않고 ‘来了一只猫!’ 아니면 ‘猫!’로 번역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표현할 때 ‘VN了’ 은현문 형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 (56) a. 小老鼠，上灯台，偷油吃，下不来，喵喵喵，猫来了，叽里咕噜滚下来。(百度·童谣)
생쥐, 등대 위에 올라가서 기름을 훔쳐 먹어, 못 내려와, 야옹야옹, 고양이가 와서 생쥐가 데굴데굴 굴러 내려와.
b. 孩子们一起呐喊：“猫来了！猫来捉耗子了！”(孙犁《猫鼠的故事》)
아이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 “고양이 왔어요! 고양이가 쥐 잡으러 왔어요!”

만약에 쥐가 나오는 환경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 이때는 위의 예문(56)과 같이 일반적으로 ‘NV了’ 형식인 ‘猫来了’라고 말한다.

- (57) a. 做父母的也不要恐吓小孩，像有些父母，当小孩子哭的时候，常常说什么强盗来了，猫来了，狗来了……(科技文献)
부모로서도 아이를 겁주지 마세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 항상 “강도가 온다, 고양이가 온다, 개가 온다…”라고 말한다.
b. 有的家长用动物吓唬哭闹的孩子，说什么：“老虎来了，熊来了…”(科技文献)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어떤 학부모는 동물로 우는 아이에게 겁주며 “호랑이 온다, 곰이 온다…”라고 한다.

‘猫来了’가 예문(57a)처럼 경고하는 어투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겁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猫来了’외에 예문(57a)의 ‘强盗来了, 狗来了’, 예문(57b)의 ‘老虎来了, 熊来了’ 등 ‘NV了’ 형식인 문장들도 이러한 경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⁶¹⁾

본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VN_{동물}了’ 형식인 은현문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이 고빈도로 출현하는 경우 ‘家里来蝙蝠了/家里进老鼠了/内蒙古这个地方来狼了/郑洁的网球场来鸟了’ 등 예문처럼 ‘장소+VN了’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박쥐, 바퀴벌레, 쥐, 벌레’ 등이 사람의 주거에 미치는 불편함의 빈도는 ‘늑대, 새’보다 훨씬 높기에 이런 문장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来狼了’와 ‘来鸟了’는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을 찾기 어렵다.

발화 현장에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출현에 대해 청자에게 경고의 의도로 말할 경우에는 ‘NV了’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양치기 소년》에서도 긴급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서 ‘NV了’를 채택하여 ‘狼来了’를 사용하였다.

5.3.2.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

吕叔湘(1989:160)에서는 같은 명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예문의 쌍들을 열거하였다. 그중에 예문(58), (59), (60)이 있는데 (59a)와 (59b)

61) 유명한 소설 《수호전(水浒传)》에 ‘무송타호(武松打虎)(무송이 호랑이를 때려잡다.)’라는 일화가 있다. 소설에 ‘老虎来了’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산시(陕西) 지방 희곡 진강(秦腔)의 무대 연주에서 이 문장이 등장했다. 무송(武松)은 혼자 경양강(景阳冈)에 도착해 호랑이를 보지 못했지만 ‘후훗’이라는 소리와 바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자 “老虎来了!”라고 말했다. 이는 이 장면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도 있다.

는 자연스럽게 전환되지만 (58a)가 (58b)로, (60a)가 (60b)로 전환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 (58) a. 出太阳了。
b. *太阳出了。
c. *出来太阳了。
d. 太阳出来了。
- (59) a. 来客人了。
b. 客人来了。
c. *出来客人了。
d. 客人出来了。
- (60) a. 下雨了。
b. *雨下了。
c. *下来雨了。
d. *雨下来了。

吕叔湘(1989:160)에서 언급했던 이 몇 가지 연구할 만한 예문이 바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VN了’ 은현문이다. 이 예문들은 ‘NV了’가 ‘VN了’로 전환될 때만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VN了’가 ‘NV了’로 전환될 때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58)에는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 ① 왜 ‘出太阳了’는 ‘太阳出了’로 전환할 수 없는가?
- ② 왜 ‘太阳出来了’는 가능하지만 ‘出来太阳了’는 가능하지 않은가?
- ③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는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太阳出了’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명사 ‘太阳’ 때문인가, 아니면 동사 ‘出了’ 때문인가?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 현대중국어에서 ‘N出了’ 형

식을 띠는 예문은 없지만, 고대 중국어에서는 아래 예문들과 같이 ‘N 出’ 형식을 띠고 있는 예문이 매우 흔한 것을 알 수 있다.

- (61) a. 三子者出。((《论语·先进》)
 그 세 사람은 나갔다.
 b. 因招樊哙出。((《史记·鸿门宴》)
 번쾌를 불러 나오도록 하였다.
 c. 其良人出, 则必厌酒肉而后反。((《孟子·离娄下》)
 남편은 외출하고 나면 언제나 술에 취해 고기를 배불리 먹고 돌아온다.

N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명사일 수도 있다. 《礼记》, 《左传》 등에서 ‘N 出’가 나타났고 《朱子语类》에서는 ‘N 出’가 나타났다.⁶²⁾ ‘N 出’의 ‘出’는 ‘동작(出)’과 ‘방향(来/去)’, 그리고 ‘동작’과 ‘방향(出)’을 담고 있다. 즉 고대 중국어 ‘N 出’의 ‘出’는 현대중국어의 ‘出来/出去’, ‘V 出(보어)’ 등에 해당한다. ‘出’와 ‘来’는 자주 같이 사용되고, 둘 사이에 단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하나의 단어로 합성되었다. 복합어 ‘出来/出去’는 ‘出’보다 늦게 등장하였는데, 당대 《敦煌变文集·八相座押文》, 《祖堂集·卷一》 등의 문헌에서 ‘愿平善孩儿早出来’, ‘善贤出来’ 등과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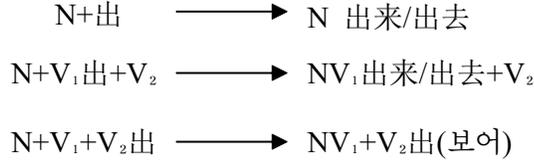
다음절에서 다음절 단어로의 발전 추세, 방향 보어로의 발전 추세 등의 영향을 받아 당대의 ‘出’는 ‘出来/出去’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용범위가 줄어들고 점차 쇠퇴하였다. 원·명·청 시대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었던 ‘N 出’의 ‘出’과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쓰였던 ‘出’이 거의 모두 ‘N

62) a. 朝奠日出, 夕奠速日。((《礼记·檀弓》)

b. 火出, 于夏为三月, 于商为四月, 于周为五月。((《左传·昭公十七年》)

c. 须是细嚼教烂, 则滋味自出, 方始识得这个是甜是苦是甘是辛, 始为知味。((《朱子语类·学四》)

出来/出去’로 대체되었다. 연동문의 두 번째 동사 위치의 ‘出’은 동사의 보어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N出来了’ 형식인 ‘太阳出来了’는 성립 가능하지만 ‘N出了’ 형식인 ‘太阳出了’는 통사적으로 제약을 받아 비문이 된다. ‘雨下了’가 어색한 원인도 방향동사의 다음절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⁶³⁾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出来太阳了’는 왜 성립될 수 없는가이다.

- (62) a. 怎么这和尚要晴就晴, 顷刻间杲杲日出, 万里就无云也? (《西游记》)
 어찌하여 이 스님이 하늘을 맑게 하려 하니, 하늘이 맑아지고, 순식간에 밝은 해가 뜨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지는가?
- b. 其雨其雨, 杲杲出日。 (《诗经·伯兮》)
 비가 올 것 같은데, 밝은 태양이 나타났다.

통사적으로 ‘出来’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주로 명사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중국어에서도 ‘出来+N’의 예문은 몇 가지 밖에 없다.⁶⁴⁾ 반면에 ‘出’는 명사 뒤에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명사 앞에 있

63) ‘雨下了’는 BCC에서 주로 ‘雨下了一天一夜’와 같은 ‘雨下了+시간성분’ 형식과 ‘雨下了起来’와 같은 형식으로 출현하다. ‘雨下了’가 단독으로 출현할 경우 주로 ‘雪没下, 雨下了(微博)’, ‘天凉了, 雨下了, 你走了(微博)’와 같이 대비되는 복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매우 드물다.

64) a. 郭祥在一旁叫道：“营长!你瞧村西出来人了!”(곽상이 옆에서 “대장님! 좀 보세요! 마을 서쪽에서 사람이 나왔어요!”라고 말했다)(巍巍《东方》)

5. ‘VN了’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

는 경우도 존재한다. ‘出来’와 ‘出’에 통사적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出来太阳了’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出来客人了’라는 표현도 없다.

지금까지 ‘*太阳出了’, ‘*雨下了’와 ‘*出来太阳了, *出来客人了’가 왜 비문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는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太阳’은 모두 고유명사이기에 한정 명사로 볼 수 있다. 한정어 관점에서만 본다면 태양의 다양한 담화 속에서의 다양한 심적 상태를 간과할 수 있다. 태양은 우리의 지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시체이기에 확인가능한 심적 표상이다. 그러나 확인가능한 지시체 중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좀 더 접근하면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태양의 심적 표상의 단계도 달라진다.

바다 옆에서 해돋이를 기다리다가 해수면 위의 작은 붉은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강세를 ‘出来了’에 놓으며 ‘太阳出来了’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태양은 지식 창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식의 중심에도 위치한다. 이럴 때는 ‘太阳’을 생략하고 ‘出来了’로만 표현할 수 있다.

만일 일기예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비가 오고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맑아진 경우라면 ‘出太阳了’라고 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해가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화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太阳出来了’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 b. PPS 有直播~等了十几分钟终于出来画面了。(PPS 라이브가 있어~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화면이 나오네요.)(微博)

〈표5-29〉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1)

太阳出来了	出太阳了
<p>太阳出来了, 照亮了森林中的八营士兵, 他们挂着军刀, 背着弹药盒, 长枪上好了刺刀, 准备进攻。(维克多·雨果《九三年》)</p> <p>해가 떴다. 숲속의 제 팔 부대 병사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군도를 달고 탄창을 메고 장총에 총검을 갖추고 공격을 준비했다.</p> <p>太阳出来了。太阳是慢慢出来的。当太阳从荒地东北边缘上刚刚冒出一线红边时, 我的双腿自动地弹跳了一下。(莫言《食草家族》)</p> <p>해가 떴다. 태양은 천천히 나왔다. 태양이 황무지의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막 한 가닥 붉은 테두리가 솟아올랐을 때, 나의 두 다리는 자동으로 한번 튀어 올랐다.</p> <p>太阳出来了, 隔岸的高山青得出烟, 湖水在我们脚下百多尺, 闪闪的像珧琅一样。(朱自清《欧游杂记》)</p> <p>해가 떴다. 강 건너 높은 산이 푸르게 피어오르고, 호수는 우리 발밑에서 백여 척이나 되는 범랑처럼 반짝인다.</p>	<p>外头居然出太阳了, 还是挺明媚的那种。(微博)</p> <p>밖에 해가 떴는데 그것도 화사하고 아름다운 해이다.</p>

예문들을 살펴보면 문학작품에서 ‘太阳出来了’가 더 많이 등장하고, 주로 사건이 발생한 배경 환경을 설명한다. 아래 표에서는 ‘太阳出来了’가 나타난 후, ‘太阳’이 영 형식, 명사 형식 등의 구조로 후속 절에서 이어진다. 또한 예문들에서 ‘太阳’에 관련된 경치를 묘사하고 나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표5-30〉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2)

太阳出来了	出太阳了
<p>下午两点太阳出来了, 从那时起就愉快得很。(冰心《冰心全集·第六卷》)</p> <p>오후 2시에 해가 떴는데 그때부터 매우 즐거워졌다.</p>	<p>宝坠拍了一下它的屁股, 说: “出太阳了, 到外面玩去吧。”(迟子建《雾月牛栏》)</p> <p>보추는 소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해가 떴다,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말했다.</p> <p>陈大伯, 今天出太阳了, 你到阳台上晒晒, 对身体有好处的。(母碧芳《惑之年》)</p> <p>아저씨, 오늘 햇볕이 쨍쨍 내리쬐네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 몸에 좋을 거예요.</p>

예문을 보면 ‘出太阳了’가 나온 후에 사람들이 이에 관련된 행동을 하거

나 어떠한 상태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太阳出来了’의 후속 절이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표5-31〉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의 예문 비교(3)

太阳出来了	出太阳了
像对待叛徒那样对待了他几十年！...难道还让他像重见天日似的高唱“太阳出来了”？(张洁《无字》) 배신자처럼 수십 년을 대했는데!...설마 그가 다시 하늘을 본 사람처럼 “태양이 떴다!”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	/
昨天是不寻常的一天，因为我看见：太阳从西边出来了！（百度文库） 어제는 심상치 않은 날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해가 서쪽에서 뜬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那儿的老会计大瞪着眼，以为是西边出太阳了……(读者·1987) 그곳의 늙은 회계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쪽에서 해가 뜬 줄 알았다...

‘出太阳了’와 ‘太阳出来了’는 모두 ‘수사(修辭) 기능’을 가지고 있다. ‘太阳出来了’는 ‘밝은 세상, 공정한 세상이 왔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出太阳了’가 이런 뜻으로 쓰인 예문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해가 서쪽에서 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이 속담은 ‘太阳从西边出来了’로 많이 표현되고, ‘西边出太阳了’로는 잘 쓰이지 않으며 코퍼스에서도 하나의 예문만 찾을 수 있었다.

5.4. 소결

선행연구에서 동사 앞에 위치하는 주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므로 한정성을 가지고, 동사 후치 논항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므로 비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정성은 불연속적인 문법적 범주이기에 문장형식과 기능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계가 있다. 본고는 ‘확인가능성’의 개념을 가지고 ‘VN了’와 유사한 구문 ‘NV了’를 비교하면서

논항의 다양한 심적 표상과 제약을 논의하였다.

첫째, 은현문의 맨 끝에 있는 사람·사물들은 특정 공간 틀에 출현이나 소실하는 실체로서 확인불가능한 상태 혹은 비활성화 상태이다. 문두에 위치하는 성분은 정보력이 낮은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본다. 은현문의 배열순서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실제 상태나 사건 발생의 앞뒤 순서에 대응되는 도상적인 것이다.

둘째, ‘VN了’ 은현문은 N의 심적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V와 N에 제약을 가한다. 우선 동사 의미구조에 내포된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VN了’ 은현문의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일치한다면 동사는 은현문에 출현할 수 있으며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동사는 은현문에 출현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N이 최소 집합을 가지고 있는 친척, 고유명사이면 ‘VN了’ 은현문에 출현하기 어렵다.

셋째, 제약을 받는 비문들을 성립시키는 방법은 N을 확인불가한 상태나 비활성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VN了’ 문두에 특정한 장소 성분을 추가함으로써 N을 확인불가한 상태나 비활성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N의 앞에 수량사를 추가함으로써 N을 은현문의 지시체를 요구하는 심적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넷째, ‘VN了’와 유사한 형식인 ‘NV了’의 지시체는 주로 활성화, 준-활성화 상태인데 가정문일 경우는 확인불가능한 심적 상태도 가능하다. 경고로 쓸 때 앞의 문맥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인지상 지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N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고성 어투일 경우 ‘NV了’ 형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다섯째, ‘VN了’ 은현문과 실체가 양립하지 못하는 요인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기에 ‘*来狼了’, ‘*太阳出了’와 같은 예문은 ‘지시체의 심적 상태’라는 측면 외에 ‘인간 중심’, 통시적 측면에서도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확인 가능성과 활성화는 대화 참여자의 기억과 의식의 범주와 관련된 개념이다. 주제와 초점은 화용적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관계적인 범주이다. 이 장에서는 ‘VN了’의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논리적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ambrecht 는 다음과 같이 주제(topic)를 정의하였다.

주제: 지시체는, 주어진 상황에서 명제가 그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즉 그 지시체에 적절한 정보와 그 지시체에 대한 수신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 그 명제의 주제로 해석된다.

Lambrecht(1994:131)

이 정의에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데 바로 ‘대하여성(aboutness)’이다. 주제는 담화 속에 담화 참여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논의하는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대하여성’은 주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학자들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도 흔히 언급하는 특징이 ‘대하여성’이다. 徐炯烈·刘丹青(1998:28~32)에서는 주제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할 때 ‘대하여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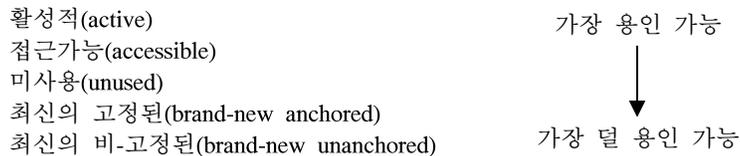
〈표6-1〉 주제의 특징(徐炯烈·刘丹青 1998)

주제의 특징	
의미	①평언(comment)과 대하여성(aboutness)을 가짐
	②VP의 행위자, 피행위자 등 다양한 의미 역할에 해당함(시간, 장소 포함)
통사	①문두에 위치함
	②평언 앞에 위치함
	③생략할 수 있음

	④뒤에 휴지가 가능함
	⑤주제 표지가 부착 가능
	⑥자연 악센트를 가진 성분이 아님
	⑦여러 문장이나 전 단락의 주제로 될 수 있음
	⑧시간, 장소 명사구도 가능함
화용	①한정 성분을 가짐
	②알고 있는 정보를 가짐
	③화자와 청자가 모두 공유하는 정보(shared information)
	④활성화 상태인 정보를 가짐
	⑤화자는 청자의 주의를 끄는 중심임
	⑥초점이 아님

이 표를 살펴보면 가장 쉽게 주제로 처리되는 지시체는 담화에서 활성화된 심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Lambrecht(1994:165)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The Topic Acceptability Scale)’을 제시하였다.

〈표6-2〉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



이 표는 일반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주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쉽게 주제가 되는 지시체는 활성화된 상태이고, 주제로 잘 해석되지 않는 지시체는 접근가능한 심적 상태이다. 만약에 지시체가 청자에게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된 상태이면 이 지시체는 비 주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 가능성의 단계와 주제 관계 사이의 관련성을 꼭 일대일 관계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화용적 범주는 ‘초점’이다. 초점 또한 주제처럼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제와 관계된 것이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초

점과 주제의 관계는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점의 개념은 Lambrecht(1994:274)에서는 Halliday의 정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보 초점은 일종의 강조인데, 그것으로 화자는, 정보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바라는 전언의 (전체일 수도 있는) 일부를 표시한다. 초점적인 것은 ‘새로운’ 정보이다. 이전에 언급되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종종 그렇기는 하지만, 화자가 그것을 이전의 담화에서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제안된 것처럼, 전언의 초점은, 화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텍스트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유도될 수 없는 정보로 표상되는 것이다. Halliday(1976:204f)

이 정의를 요약하면 전에 알고 있는 담화의 내용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초점이다. 즉 앞의 담화로 돌아가도 단서를 찾지 못하여 이 정보를 회복할 수 없다. ‘來人了’라고 하면 ‘人’에 관련 정보는 거슬러 올라가도 찾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주제는 일반적으로 앞 맥락을 통해 정보를 회복할 수 있다. 화자가 주제가 무엇인지 결정해 놓고 그 후에 이 주제에 대해 진술하기 때문이다. ‘他來了’라고 하면 이 명제의 전제는 누가 온다는 것이다. 온 사람인 ‘他’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담화 참여자는 이전 발화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언어마다 명제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음성적, 통사적, 어휘적 등 다양한 방식이 쓰인다. 이 장에서는 학자들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VN了’의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논리적 판단유형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언급한 각종 확인 수단도 함께 활용할 것이다.

6.1. ‘문두성분+VN了’의 초점구조

6.1.1. 문두성분과 주제성

시간 명사구와 장소 명사구(Time and Locative Phrase)는 과연 주제로 볼 수 있는가? 徐炯烈·刘丹青(1998:28~32)에서는 문두에 있는 시간, 장소 명사구도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Li & Thompson(1981:120)은 또한 시간, 장소 명사구는 주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1) a. 昨天雪下得很紧。
어제 눈이 썰 새 없이 내렸다.
b. 牆上爬着很多爬山虎。
벽에 많은 도마뱀이 기어 다니고 있다.

이러한 시간 명사구와 장소 명사구는 모두 주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간, 장소 명사구는 그 안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시간 및 공간성의 틀을 설정하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장소나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 3 장에서 ‘VN了’의 문두성분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를 토대로 문두성분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소

장소 성분은 형식적으로 ‘방위사, 명사+방위사, 전치사+명사, 명사, 대명사, 복합구조’ 등이 있다고 제 3 장에서 정리한 바 있다.

- (2) a. 薛协华告诉那位村民应怎样说。第二天, 派出所来人了。(人民日报 2002)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설협화는 그 마을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 주었다. 다음 날 파출소에서 사람이 왔다.

- b. 演出中间, 场子里出事了: 有一面墙倒下来了。(契诃夫《集市》)
광장에서 벽 하나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 c. 队伍中少人了, 小哥竟然没有发现, 他感觉自己很逊。(百度《网球王子》2020-12-7)
팀에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형은 뜻밖에도 발견하지 못해서, 자신이 매우 못한다고 느꼈다.

예문(2a)에서는 ‘VN了’ 은현문 ‘派出所来人了’가 등장하기 전에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관련자가 파출소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문맥을 통해 ‘派出所来人了’가 서술어초점구조인 정보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2b)는 소설 《集市(장터)》에서 나온 장면이다. ‘VN了’가 등장하기 전까지 장터 공연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서술했으므로 ‘场子’도 이미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문(2c)도 마찬가지로 ‘队伍中少人了’라는 문장이 출현하기 전에 테니스 경기와 테니스팀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문두성분 뒤에 모두 ‘呢/啊’를 부가할 수 있다.⁶⁵⁾ 이러한 ‘장소+VN了’는 주제-평언문, 즉 서술어초점구조로 볼 수 있다.

장소topic+[VN了]focus

장소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 다음과 같은 예문도 존재한다.

- (3) a. 大西滩的第一眼水井终于在 106 米深处出水了。当甘甜的泉水从马

65) 徐烈炯·刘丹青(2003)에서는 주제와 초점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할 때 ‘呢/啊’ 등 표지를 언급하였다. 김종호(2004)에서도 중국어에서 어순은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주제를 표현하는 요소가 어순만은 아니며 ‘啊, 嘛, 呢, 哪’, ‘关于, 至于’, ‘连...也/都’ 등을 사용하여 각종 담화상황에 맞는 주제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达轰鸣的水管喷出, 注入龟裂的土地时, 大西滩沸腾了。(人民日报 1992-1-3)

대서탄의 첫 우물의 106 미터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물이 나왔다. 달콤한 샘물이 모터의 포효하는 수도관으로 뿜어져 나와 갈라진 땅으로 주입했을 때, 대서탄은 들끓었다.

- b. “没事吧? 怎么回事啊?”
“隧洞太黑, 又滑, 岔路口突然前后来车了。”(对话)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터널이 너무 어둡고 미끄러워요. 게다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앞, 뒤로 다 차가 왔어요.”

예문(3a)는 장소 1 ‘大西滩的第一眼水井’을 주제로 보고 ‘在 106 米深处出水了’는 전체적인 문장의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예문(3b)는 장소 1 ‘岔路口’를 주제로 보고 ‘前后来车了’는 전체적인 문장의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다.

장소₁topic+[장소₂+VN了]focus

예문(3a)의 장소₁ ‘大西滩的第一眼水井’과 장소₂ ‘在 106 米深处’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두 장소 성분 사이에 ‘终于’가 위치하고 있다.

- (4) 앞부분 大西滩上又一次竖起了井架。别的地方打井用机器钻, 这里是手工作业。为了省钱, 农民们轮流进入直径不到 1 米的井口, 半跪着用 小铁镐一点一点往下凿, 再用水桶一桶桶地吊上来。隔三差五, 赵福成总要来看一看, 捋起袖子与大家一起去干。大西滩的第一眼水井终于在 106 米深处出水了。

대서탄에 우물들이 다시 세워졌다. 다른 곳은 우물을 파는데 기계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수동이다. 농민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직경 1m 도 안 되는 우물에 번갈아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작은 곡괭이로 조금씩 내리친 뒤 물통을 한 통씩 매달았다. 조복성씨는 늘 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 같이 했다. 대서탄의 첫 우물의 106 미터 깊숙한 곳에 마침내 물이 나왔다.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大西滩的第一眼水井终于在 106 米深处出水了’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서탄(大西滩)의 우물을 파고 있는 장면과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따라서 ‘대서탄 우물 작업장’이라는 장소는 이미 담화 참여자의 의식 중심에 위치하여 주제가 된다. ‘106 미터 깊숙한 곳’이라는 장소는 앞 맥락에 돌아가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물이 나왔다’와 함께 묶어 하나의 사건으로 청자에게 전달한다. 예문(3b)의 장소 성분 1 ‘岔路口’와 장소 성분 2 ‘前后’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두 장소 성분 사이에 ‘突然’이 삽입되었다. ‘前后来车了’는 주제 ‘岔路口’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3a), (3b)의 첫 번째 장소 성분 뒤에는 (5a), (5b)와 같이 ‘呢/啊’ 등도 쓰일 수 있다.

- (5) a. 大西滩的第一眼水井呢/啊, 终于在 106 米深处出水了。
대서탄의 첫 우물의 106 미터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물이 나왔다.
- b. 岔路口呢/啊, 突然前后来车了。
사거리에서 갑자기 앞, 뒤로 다 차가 왔어요.

Lambrecht 에 의하면 강세가 부가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점에 부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성화되지 않는 주제에 부가하는 것이다. 활성화 상태가 되는 것이 주제로 될 때는 강세가 필요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주제가 되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세가 필요하다. 즉 주제인데 활성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강세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만약에 ‘终于, 突然’이 ‘VN了’ 앞에 위치하면 강세가 있는 ‘106 米深处’와 ‘前后’가 주제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大西滩的第一眼水井在 106 米深处’, ‘岔路口前后’가 복수의 연쇄 주제 형태로도 출현할 수 있다. 장소 성분은 다음과 같이 다시 ‘도착한 지점’과 ‘출발한 지점’으로 나눌 수 있다. ‘来客人了’의 장소 문두성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3〉 장소 문두성분의 분류

도착 지점	집	家里65 我家4, 你家3, 我们家2, 我们家里1, 你家里1, 你的家里1, 我这儿1, 隔壁家1, 鲍十家1, 姥姥家1,	93%
	기타	营地1	1.2%
출발 지점		从新加坡1, 老家河南1, 福州1, 上边1, 上级1	5.8%

도착한 지점을 표현하는 장소 문두성분 중에는 집과 관련된 ‘家里/我家/我们家/我们家里/我这儿’, ‘你家/你家里/你的家里’ 등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이러한 성분들은 화자와 청자의 지식에 저장된 정보이며 의식 중심에 존재하기에 쉽게 활성화 상태에 도달하므로 주제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 (a)에서는 ‘鲍十家来客人了’가 출현하기 전에 ‘鲍十’에 대해 이미 많이 서술했기 때문에 ‘鲍十家’는 앞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이며 ‘来客人了’에 대하여성을 갖고 있다.

- (6) 앞부분 小晨对鲍十是直言不讳的。小晨说：“这是一个机会。设分公司是一个机会。”小晨认为，章振文对他还是客气的。每次喝酒，都忘不了介绍介绍，都说：“这是我妹妹的男朋友，大学生，”小晨有时候挺自豪。
- 소천은 포십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좋은 기회야. 지사 설립은 좋은 기회야.” 소천은 장진문이 그에게 여전히 공손하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실 때마다 까먹지 않고 “내 여동생의 남자 친구, 대학생이야.”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소천은 때때로 매우 자랑스러웠다.
- 은현문 有一天，鲍十家来客人了，是鲍十爱人的外地同学，是母子俩。
- 어느 날, 포십의 집에 손님이 왔다. 아내의 외지 동창인데 모자 사이인 두 명이였다.
- 뒤부분 鲍十没地方住，吃了晚饭，就到艺校来了。他想，正好可以见见小晨。(黄蓓佳《追你到天涯》)
- 포십은 살 곳이 없어서 저녁을 먹고 예술학교에 왔다. 그는 마침 소천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문(7)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의 통

지를 받을 때, ‘복주(福州)’라는 도시가 아이들의 지식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확인가능하더라도 인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 (7) 앞부분 8月16日, 暑假里一个普普通通的早晨, 在与江西接壤的建宁县最边远的甘家隘小村庄, 孩子们早早地起来了。
8월 16일, 여름 방학 중 어느 평범한 아침, 장서와 접한 건녕현의 가장 먼 감가에 마을에서 아이들이 일찍 일어났다.
은현문 他们接到老师的通知: 福州来客人了。
그들은 선생님의 통지를 받았다: 복주에서 손님이 오셨다.
- 뒤부분 二十几年前曾经在这里插队劳动过的知识青年们带着他们的子女回乡, 举办城乡孩子“手拉手”活动来了。(福建日报 1994-9-24)
20여년 전 이곳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시와 농촌 아이들의 ‘손에 손잡고’라는 행사를 참여하러 고향으로 돌아왔다.

만약 ‘복주(福州)’를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 ‘보계(宝鸡)’로 바꾸면 이 도시가 청자의 지식 속에 있는 고유명사인지 아닌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⁶⁶⁾

(2) 시간

아래 예문(8a)에서 화자는 누군가가 찾아온 것을 보고 ‘这时候’라고 말했다. 예문 (8b)에서는 ‘正好我在这时’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문(8c)에서는 ‘今天观礼’라는 일에 대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66) 필자는 다른 원어민 화자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다. 필자가 ‘보계(宝鸡)에 유명한 피영(皮影) 희곡가가 오셨다!’라고 하자 상대방은 굉장히 막막해 하며 ‘보계는 무슨 뜻이야?’라고 물었다. 보계는 산시성(陕西省)의 도시로 북서쪽에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는 매우 낯선 도시이다. 그렇다면 ‘宝鸡来客人了’라고 발화했을 때 비록 화자가 ‘보계’를 주제로 설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청자의 퀘도에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다. 이와 같은 ‘시간+VN了’도 주제-평언문, 즉 서술어초점구조로 볼 수 있다.

- (8) a. 准备吃饭, 这时候来人了, 说要找英儿。(顾城《英儿》)
밥을 먹으려는데 이때 사람이 와서 영아를 찾겠다고 한다.
- b. 他当然看不懂这些东西, 只觉得事情有点蹊跷. 为何正好我在这儿时墙壁裂缝了呢?(余秋雨《道士塔》)
그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일이 좀 수상쩍다고만 생각했다. 왜 마침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벽에 금이 갔을까?
- c. “爸爸, 你的衣服湿了。”
“唔, 今天观礼时下雨了。”(毕淑敏《送你一条红地毯》)
“아빠, 옷이 젖었어요.” “어. 오늘 경축 퍼레이드 때 비가 왔어.”

예문(8c)의 시간 성분을 다시 관찰해보자.

- (9) 앞부분 甘平觉得自己变成一个只有几岁的小女孩。那时的父亲是什么容貌, 她已经记不清了, 但她认识这套衣服, 这个英姿勃勃的形象, 只能属于她的爸爸。
감평은 자신이 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되었다고 느꼈다. 당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녀는 이 옷을 알고 있었다. 그 씩씩한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다.
은현문 “爸爸, 你的衣服湿了。” “唔, 今天观礼时下雨了。告诉我, 刚才下雨时, 你在哪呢?” “在楼顶上面。我想看看爸爸……”
“아빠, 옷이 젖었어요.” “어. 오늘 경축 퍼레이드 때 비가 왔어. 아까 비 올 때 어디 있었어?” “옥상 위에 있었어요.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 뒤부분 遥远的对话从记忆的深谷中传出。那是哪一年的国庆? 五六年还是五七年? 大典遇雨, 那似乎是仅有的一次。多么古怪呀!(毕淑敏《送你一条红地毯》)
아득한 대화가 기억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은 몇 년도의 국경절일까? 오십육 년인가 오십칠 년인가? 대형 경축 퍼레이드 진행 시 비가 내린 것은 단 한 번뿐이었던 것 같다. 얼마나 이상한가!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시간 성분 ‘今天’은 청자에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이고 ‘观礼时’도 문맥을 통해 청자에게 활성화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자가 아빠는 국경일에 경축 퍼레이드를 관람하러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今天观礼时下雨了’의 뒷부분 ‘그것은 몇 년도의 국경절일까?대형 경축 퍼레이드 진행 시 비가 내린 것은 단 한 번뿐이었던 것 같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즉 ‘观礼时’는 문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시간+VN了’ 형식인 은현문도 ‘장소+VN了’처럼 주로 ‘시간 topic+[VN了]focus’라는 정보구조로 나타난다.

(3) 원인

‘원인+VN了’ 형식인 은현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제 3 장에서 언급한 예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0) a. 谣言一下子传遍了鲁南，说西鲁村的“非典”死人了。(文汇报 2003-5-20)

시루 마을에 사스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문이 짹 퍼졌다.

이 문장의 앞의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사스에 관련된 내용이며, ‘시루 마을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 (11) 앞부분 一是科学知识普及讲到位，消除了乡亲们的极度恐慌心理，使乡亲明白了“非典”能防也能治；二是以党员为骨干，落实了外出务工人员返村后的防治措施。最重要的是思想工作优势，让群众增强信心，积极参与防治“非典”的斗争。在防治非典中加强党建。就在这时，西鲁村一位老人因突发脑溢血去世。

첫째, 과학 지식의 대중화가 정착되어 마을 사람들의 극심한 공황 심리를 없애고 마을 사람들이 ‘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둘째, 당원들은 외출한 노동자가 마을로 돌아온 후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가장 중

요한 것은 사상교육에 관련 작업으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사스’ 예방 및 통제 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스 예방 및 치료 과정에서 당 건설을 강화했다. 바로 그때 시루 마을의 한 노인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은현문 谣言一下子传遍了鲁南, 说西鲁村的“非典”死人了。
시루 마을에 사스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문이 짹 퍼졌다.

뒤부분 西鲁村的人去赶集, 集市上有人跑着喊, “非典”出来了, 集市上的人一哄而散。西鲁的人不敢出村, 又有人说西鲁村被封了。

시루 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는데 장터에서 누군가가 뛰어와 “사스가 나왔다.”라고 외쳤고 장터 사람들은 와르르 흩어졌다. 시루 사람들은 감히 마을을 나서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루 마을이 폐쇄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西鲁村的非典死人了’라고 말하면 문두성분 ‘西鲁村的非典’은 바로 청자의 의식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인+VN了’ 형식인 예문도 서술어초점구조, 즉 주제-평언문으로 볼 수 있다.

원인topic+[VN了]focus

(4) 소유자

‘소유자+VN了’일 경우는 은현문에 속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은현문과 공통점을 가지기에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다. ‘VN了’ 앞에 있는 소유자는 주로 대명사이다.

- (12) a. 雁冬取出钥匙开了大门。走进院里, 她就冲西屋叫道: “望婆婆, 我来客人了!”。(谌容《梦中的河》)

안동이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서옥을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나에게 손님이 왔어요!”

- b. 你来亲戚了吧。(对话)

친척분이 오셨죠?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 c. 他们来人了, 叫我回县文教局。 (教材)

그들에게 사람이 와서 나를 현의 문화 교육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예문(12a)의 ‘我’, (12b)의 ‘你’와 (12c)의 ‘他们’은 모두 인칭대명사이므로 이미 청자의 의식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앞 맥락을 통해 회복 가능한 대상이다. 따라서 ‘소유자+VN了’ 형식인 예문도 서술어초점구조, 즉 주제-평언문으로 볼 수 있다.

소유자topic+[VN了]focus

(5) 여러 문두성분

여러 문두성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 3 장에서 ‘시간+장소, 장소+시간, 소유자+장소, 소유자+시간, 시간+소유자, 소유자+시간+장소’ 등으로 형식을 정리한 바 있다.

- (13) a. 后来就把他评成了全国优秀人民警察。两个月后, 国家公安部来人了, 要看他现场的业务表演。 (张宇《软弱》)

후에 그를 전국 우수 인민 경찰대표로 선정했다. 두 달 후, 국가 공안부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현장 업무 시연을 보려고 한다.

- b. 今天金蝶公司终于来人了, 讨论得很欢。 (微博)

오늘 금접회사에서 드디어 사람이 와서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

예문(13a), (13b)의 문두성분 ‘两个月后+国家公安部’와 ‘今天+金蝶公司’는 모두 ‘시간+소유자’ 형식이며 시간과 장소가 함께 주제가 된다. ‘VN了’ 형식과 ‘来人了’에는 시간과 공간 성분 사이의 상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은현문의 화용적 관계는 서술어초점, 즉 주제-평언 관계이다.

[시간+장소]topic+[VN了]focus

그러나 아래 예문(14a)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장소 성분 ‘他们办事处’ 뒤, 시간 성분 ‘第二次’ 뒤에 각각 ‘啊/呢’가 추가되면 (14a')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지만 (14a'')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다.

- (14) a. 罗佳, 他们办事处已经是第二次来人了。(罪与罚《陀思妥耶夫斯基》)
라가, 그들의 사무실에 벌써 두 번째 사람이 왔다.
a'. 他们办事处啊/呢, 已经是第二次来人了。
a''. ? 他们办事处已经是第二次啊/呢, 来人了。

따라서 (14a)에서 ‘他们办事处+第二次’는 ‘장소+시간’ 형식인 문두성분인데 앞에 위치하는 장소 ‘他们办事处’는 주제이고 뒤에 위치하는 시간적 성분 ‘第二次’는 ‘VN了’와 함께 초점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장소topic+[시간+VN了]focus

아래 예문(15a-c)의 문두성분 ‘你+脑子’는 ‘소유자+장소’ 형식이고, (d)의 문두성분 ‘你的脑袋’는 단지 장소이다.

- (15) a. 哎呀, 燕青, 你难道脑子进水了吗? (雪乃纱衣《彩云国物语》)
아이고, 연청아, 너 설마 머리에 물 들어간 건 아니겠지?
b. 你是不是脑子进水了? (百度·快脚步慢生活)
너 머리에 물 들어갔어?
c. 你脑子是不是进水了? (百度·快脚步慢生活)
너 머리에 물 들어갔어?
d. 你的脑袋进水了吗? (百度·一个人的读书声)
너의 머리에 물 들어갔어?

‘脑子进水了’는 다른 사람을 풍자하고 비판할 때 흔히 쓰이는 속담으로, 당신의 머리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15a), (15b)의 ‘你’ 뒤에 각각 ‘难

道’, ‘是不是’가 삽입되어 ‘脑子进水了’가 초점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흥미로운 점은 예문(15b)와 (15c)가 같은 블로그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是不是’가 블로그 제목에서는 장소 성분과 ‘VN了’ 사이에 삽입되어 있었고, 본문 내용에서는 문두성분 1 과 문두성분 2 사이에 삽입되어 있었다. ‘是不是’의 위치에 따라 ‘你脑子进水了’의 화용적 관계도 달라진다.

예문(16a)의 ‘姐+最近’는 ‘소유자+시간’ 형식, 예문(16b)의 ‘现在+人家’는 ‘시간+소유자’ 형식, 예문(16c)의 ‘我+下午+家里’는 ‘소유자+시간+장소’ 형식인데 모든 문두성분을 주제로 볼 수 있으며 각각 ‘VN了’ 은현문 ‘长痘痘了, 死人了, 来人了’에 대하여성을 가진다.

- (16) a. 姐最近长痘痘了, 烦死了。(微博)
언니가 최근에 여드름이 나서 짜증 나 죽겠어.
- b. “嘿嘿, 我下午家里来人了, 没给你说声。”(对话)
“헤헤, 오후에 집에 사람이 와서 너한테 말 안 했어.”
- c. 人家过寿是送礼祝贺, 现在人家死人了, 仍是送礼祝贺。(人民日报 1948-8-6)
생신은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선물을 주고 축하해 준다.

또한 소유자가 다른 문두성분과 같이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성분보다 더욱 뚜렷하며 후행절에서 대응이 이루어진다. 예문(16a)의 ‘姐’, (16b)의 ‘我’는 각각 후행절에서 영 형식으로 대응되어 주제가 된다. 예문(16c)의 ‘人家’는 후행절에서 영 형식 대응으로 참여자가 된다.

6. 1. 2. 문두성분과 초점성

활성화 상태와 주제는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쉽게 활성화된 문두성분은 초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제 2 장의 예문(6)에서 살펴보았듯이 Lambrecht 는 ‘what-, who-, how-’

등의 의문문을 설정하여 문장의 정보구조의 유형을 파악한다. Sasse(1987)에서도 ‘What about N’, ‘Why are you so happy?’⁶⁷⁾ 등의 의문문을 통해 문장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 袁毓林(2012:8)에서도 답문 중 특정 의문문의 의문 대명사에 대응하는 부분은 초점이라고 하였다. 즉 의문사가 놓인 위치에 대응되는 답문의 부분은 초점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초점구조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도 같은 ‘문두+VN了’ 형식을 지닌 문장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의문 대명사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6-4>와 같다.

<표6-4> ‘문두+VN了’에 관한 의문문

VN了		문두+怎么了? 문두+무슨 일이야?	怎么了? 무슨 일이야? 怎么这么高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怎么不高兴? 왜 기분이 안 좋아?	哪儿+VN了? 어디에/에서+VN了?
生死 류	长疱疹了	A: 背上怎么了? 등에 무슨 일이야?	A: 怎么不高兴? 왜 기분이 안 좋아?	A: 哪儿长疱疹了? 어디에 포진이 생겼어?
		B: 背上长疱疹了。 등에 포진이 생겼어.	B: 背上长疱疹了。 등에 포진이 생겼어.	B: 背上长疱疹了。 등에 포진이 생겼어.
来走 류	来客人了	A: 家里怎么了? 집에 무슨 일이야?	A: 怎么这么高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B: 家里来客人了。 집에 손님이 왔어.	B: 家里来客人了。 집에 손님이 왔어.	
下 (雨) 류	下雨了	A: 福州怎么了? 복주는 무슨 일이야?	A: 怎么了? 무슨 일이야?	A: 哪儿下雨了? 어디에 비가 내렸어?
		B: 福州下雨了。 복주에 비가 내렸어.	B: 福州下雨了。 복주에 비가 내렸어.	B: 福州下雨了。 복주에 비가 내렸어.

67) Sasse(1987:525~526)

(23) A: What about the tap? B: It's still leaking.

(24) A: Why are you so happy? B: My CACTus flowered.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增 減 류	少钱了	A: 微信红包怎么了? 위챗 홍bao에 무슨 일이야?	A: 怎么不高兴? 왜 기분이 안 좋아?	A: 哪儿少钱了? 어디에 돈이 적어졌어?
		B: 微信红包少钱了。 위챗 홍bao에 돈이 적어졌어.	B: 微信红包少钱了。 위챗 홍bao에 돈이 적어졌어.	B: 微信红包少钱了。 위챗 홍bao에 돈이 적어졌어.
破 裂 류	裂缝了	A: 墙上怎么了? 벽에 무슨 일이야?	A: 怎么了? 무슨 일이야?	A: 哪儿裂缝了? 어디에 금이 갔어?
		B: 墙上裂缝了。 벽에 금이 갔어.	B: 墙上裂缝了。 벽에 금이 갔어.	B: 墙上裂缝了。 벽에 금이 갔어.
建 拆 류	修路了	A: 村里怎么了? 마을에 무슨 일이야?	A: 怎么这么高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A: 哪儿修路了? 어디에 도로가 만들어졌어?
		B: 村里修路了。 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졌어.	B: 村里修路了。 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졌어.	B: 村里修路了。 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졌어.
기 타	漏水了	A: 屋顶怎么了? 천장에 무슨 일이야?	A: 怎么了? 무슨 일이야?	A: 哪儿漏水了? 어디에 물이 새?
		B: 屋顶漏水了。 천장에서 물이 새.	B: 屋顶漏水了。 천장에서 물이 새.	B: 屋顶漏水了。 천장에서 물이 새.

‘哪儿+VN了’로 질문할 경우 ‘문두+VN了’가 논항초점구조이다. 이론적으로는 문두성분도 초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화 상황은 우리가 설정하는 상황보다 훨씬 복잡하다. 만약에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의 고인 물을 본 뒤 ‘哪儿漏水了(어디에 물이 새)’라고 물은 뒤 먼저 고개를 들어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고 ‘不是屋顶(천장이 아니야)’이라고 할 때 이 문장은 확인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문장형식을 유지하며 그대로 대답하면 확인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N이 ‘客人’과 같은 명사일 경우 ‘哪儿+VN了’로 질문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来客人了’에서 해당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발화자가 손님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시체 ‘손님’이 활성화된 상태이면 ‘손님’은 동사 앞으로 이동하여 ‘NV了’ 형식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哪儿+来客人了’으로 질문하기 어렵다. ‘손님이 어디에서

왔어요?’라는 문장은 ‘是……的’ 구조를 사용하여 ‘客人是从哪儿来的’로 표현해야 한다.⁶⁸⁾

문장초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what happened?’로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怎么了?’로 질문할 경우 ‘문두성분+VN了’는 문장 초점구조로만 볼 수 있을까? ‘怎么了’에 대해서 ‘背上长疱疹了(등에 포진이 생겼다)’로 답하기 전에 만약에 담화 참여자가 요즘 등이 이상하다고 언급했으면 ‘등’이 이미 단기 기억에 저장된 지시체로 주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화자가 친구의 손에 포진약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포진에 걸렸다고 추측한 뒤 친구에게 ‘怎么了’라고 질문한 경우, ‘背上长疱疹了’라는 대답은 확인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만나자마자 화자가 친구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냥 ‘怎么了’라고 질문한다면 ‘背上长疱疹了’라는 대답은 문장초점으로 볼 수 있다. ‘怎么了’에 대해서는 문장초점으로 대답할 수도, 주제-평언문으로 대답할 수도, 확인문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따라서 ‘怎么了’로 문장초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문두+VN了’ 전체가 초점이 되는 문장은 대부분 단문, 특히 감탄류 단문이다.

- (17) a. 突然后胡同一个男人粗声一吼：“谁唱的？派出所来人啦！”歌声好像被刀“咔嚓”切断，整个世界没声音了。
갑자기 골목에서 한 남자가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누가 불렀어요? 파출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노랫소리가 칼에 의해 ‘뚝’ 끊긴 것 같다. 온 세상이 소리 없이 조용하다.
- b. “快下去！背后来车了！”徐秘书大喊了一声。(莫应丰《将军吟》)
“빨리 내려! 뒤에 차 왔어!” 서 비서가 소리를 질렀다.

68) 앞서 4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주성이 더 낮은 논항은 ‘VN了’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주성이 낮은 논항이 출현하는 ‘VN了’의 형식이 더 쉽게 어휘화된다. 반면, 자주성이 높은 논항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그 위치는 활성화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7a)의 ‘과출소’는 앞의 맥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과출소에서 사람이 왔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발화자가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17a)는 문장초점이다. (17b)에서는 ‘来车了’가 문두 성분 ‘背后’에 대한 서술이 아니며 ‘背后来车了’가 전체적으로 문장초점이 된다.

코퍼스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하인이 당황해서 큰 소리로 ‘주순(朱顺)’이라는 집사를 불렀고, ‘주순’이 화내며 ‘什么叫’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什么叫’는 왜 소리 질렀냐고 물어보는 것이며 ‘why/怎么了/무슨 일이야?’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앞 문맥에서 ‘别院’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에 하인의 ‘别院来人了’라는 대답은 전체적으로 초점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18) a. 一个男人突然惊慌失措的跑了进来, 大声叫道:“朱管家, 朱管家!”
 “什么叫?”朱顺勃然大怒:“叫丧吗? 老子还没死呢!”那下人连忙说道:“朱管家, 是别院来人了。”(玄黄真人《大夏皇朝》)
 갑자기 한 남자가 당황하며 달려와서는 “주집사님, 주집사님!”이라고 소리쳤다. “왜 소리 질러?” 주순이 발끈하며 “누가 죽었나? 이 몸은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인은 황급히 말했다. “주집사님, 별당에 사람이 왔어요.”

또한 이 하인은 ‘别院来人了’의 앞에 ‘是’를 추가하였는데, ‘是’가 초점구조를 표지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는 ‘문두+VN了’ 형식인 ‘别院来人了’의 정보구조가 문장초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현대중국어에서 ‘是’가 가장 전형적인 어휘 수단, 즉 초점 표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악센트가 있는 ‘是’와 악센트가 없는 ‘是’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으며, 악센트가 있는 ‘是’에 대한 견해도 학자마다 차이점이 있다.

〈표6-5〉 악센트가 있는 ‘是’와 악센트가 없는 ‘是’(祁峰 2014)

	악센트가 있는 ‘是’	악센트가 없는 ‘是’
范开泰(1985)	확인이라는 어투가 나타난다. 이 어감이 바로 문장의 신정보이다.	- ‘是’: 초점 표지 - ‘是’의 뒤에 성분: 초점
方梅(1995)	확인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이다. 초점 표지가 아니다.	
石毓智(2005)	악센트로 ‘是’를 구분하지 않는다.	
刘丹青(2008)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확인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祁峰(2014)	악센트가 있는 ‘是’는 악센트가 없는 ‘是’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이 두 가지 ‘是’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方梅(1995:281)에서는 초점 표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점 표지로 그 자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악센트를 가질 수 없다. 둘째, 초점 표지는 그 뒤에 있는 성분을 초점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초점 표지 뒤에 나타나는 성분이 음성적으로 두드러지게 될 성분이다. 마지막으로, 초점 표지는 문장 선형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며 생략된 문장은 여전히 성립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方梅는 악센트가 없는 ‘是’는 초점 표지이고, 악센트가 있는 ‘是’는 초점 표지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본고는 초점을 판단할 때 악센트가 없는 ‘是’를 사용할 것이다.

예문(18)은 초점 표지 ‘是’를 통해 ‘문두+VN了’ 형식인 ‘别院来人了’와 명제 사이의 초점적 관계를 전달하게 되었다. 초점 표지가 아니라도 ‘终于(드디어), 已经(이미), 居然(뜻밖에)’ 등과 같은 부사는 어느 정도 초점임을 확인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偶家居然来暖气了(우리 집에 난방이 들어오네요)[微博]”⁶⁹⁾, “宿舍已经来暖气了, 好舒服(기숙사에 이미 난방이 들어와서 아주 편안해요)[百度贴吧]” 등 문장에서 ‘终于, 已经, 居然’은 뒤에 나오는 ‘VN了’의 초점적 신분을 암시한다.

주제 표지도 존재하는데, 徐炯烈·刘丹青(2003:7~24)에서는 ‘啊/呀, 吧,

69) 여기서 ‘偶家’는 ‘我家(우리집)’이라는 뜻이다. ‘偶家’는 방언 발음으로 귀엽게 말하는 것이다.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嘛, 呢’ 등과 같은 휴지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Li & Thompson (1981:120)에서는 ‘昨天雪下得很紧(어제 눈이 설 새 없이 내렸다)’와 ‘墙上爬着很多爬山虎(벽에 많은 도마뱀이 기어 다니고 있다)’를 언급할 때 ‘昨天, 墙上’ 뒤에 휴지사가 올 수 있기에 주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휴지사가 없지만 장소 성분 뒤에 첨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예로 “井, 终于出水了(우물에서 드디어 물이 나왔다)[人民日报]”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아래 예문처럼 ‘是否/是不是’와 같은 의문문, 부정문 등의 방식을 통해 ‘문두+VN了’와 명제 사이의 초점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 (19) a. 今天老家是否来人了? (刘震云《一地鸡毛》)
 오늘 고향에서 사람이 오셨나요?
 b. 家里是不是来暖气了? (微博)
 집에 난방이 들어오나요?

다음으로 또 다른 문두성분이 초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 (20) a. 建设部来人了, 他必须设晚宴接待。 (胡小胡《太阳雪》)
 건설부에서 사람이 왔으니, 그에게 반드시 만찬 접대를 해야 한다.
 b. 从新加坡来客人了, 多准备一双筷子。 (微博)
 싱가포르에서 손님이 오셨으니 젓가락 한 벌 더 준비해 줘.

유수경(2012:245)에 의하면 대다수의 ‘Np1+来(了)+Np2’에서 ‘Np1’이 종점이고 기점 성분인 경우는 비교적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점 성분은 전치사 ‘从’과 공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 3 장에서 언급했던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예문(20a)는 문맥이 없으면 전치사와 공기하지 않은 ‘건설부’에서 중의성이 존재한다. ‘건설부’가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종점이 될 수도 있다. (20b)의 ‘싱가포르’는 전치사 ‘从’과 공기하기에 중의성이 사

라진다. 이를 통해 ‘从’이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화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21) 앞부분 室友把用不上的电磁炉带回国了, 用箱子装着的, 封好了放在行李箱里面, 结果到家了, 他爸爸打开箱子, 跑出一只很大的蟑螂...还用手抓出来吓他们,
룸메이트는 사용하지 않는 인덕션을 가지고 귀국했다. 상자에 넣어 밀봉하여 캐리어에 넣었다. 결국 집에 도착했다. 그의 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아주 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뛰쳐 나왔다... 손으로 잡아 그들을 놀라게 했다.
- 은현문 说从新加坡来客人了, 多准备一双筷子。
싱가포르에서 손님이 오셨으니 젓가락을 하나 더 준비하라고 말했다.
- 뒷부분 过安检怎么没发现呢? 可能安检的时候蟑螂紧张了。
보안 검사를 했는데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검사할 때 바퀴벌레가 긴장했나 보다.

예문(20b)의 담화맥락 예문(21)을 살펴보면 화자의 룸메이트가 고향과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의미를 전달하려면 전치사 ‘从’이 출현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초점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从’이 쓰이게 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담화맥락, 의문문, 휴지사, 주제 표지, 초점 표지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문두+VN了’의 초점구조를 정리하였다. ‘문두+VN了’는 하나의 형식인데 두 가지 이상 화용적 기능을 동반할 수 있다.

무표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제란 알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문장 앞쪽에 놓인다. 문말에 위치하는 지시체는 문두에 위치하는 장소, 시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보와 경쟁하면 더 쉽게 초점이 된다. 따라서 ‘문두+VN了’가 주제-평언구조, 즉 서술어초점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술어초점구조 내에도 여러 변이 형식이 존재하고 이를 더 세분화할 수 있다.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문두성분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즉 문두성분의 화용적 기능은 문장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지시체여도 주제 표현이 될 수도, 초점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표6-6〉 ‘문두+VN了’의 정보구조

	초점구조의 유형	‘문두+VN了’의 정보구조
1	서술어초점구조	[문두]topic+[VN了]focus
		[문두1]topic+[문두2+VN了]focus
		[문두1]topic ₁ + [문두2]topic ₂ + [VN了]focus
2	문장초점구조	[문두+VN了]focus
3	논항초점구조	[문두]focus+[VN了]

6.2. ‘VN了’의 초점구조

이 부분에서는 ‘VN了’와 ‘NV了’를 비교하면서 각각 어떤 정보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6.2.1. 서술어초점구조

N의 화용적 기능을 확인하려면 문장성분 간의 관계를 통해 이를 찾아야 한다. ‘VN了’에서 N은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 상태이고 문말에 위치한다. ‘VN了’에는 이 N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N이 문장의 주제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VN了’는 서술어초점구조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문장 끝에 위치하는 지시체는 무표적인 상황에서 쉽게 초점이 될 수 있다.

반면 ‘NV了’는 주제-평언문 및 서술어초점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가, 은/는’과 같은 표지가 없는 언어에서는 ‘주어+술어’ 형식을 먼저 주제-평언문으로 인식한다. 화자가 ‘NV了’로 말할 때의 의도는 N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22) a. A: 客人来了吗?
B: 客人来了.
A: 손님 오셨어요?
B: 손님이 오셨어요.
- b. A: 12月了, 好冷, 暖气还没来吗?
B: 暖气来了.
A: 12월인데 추워요. 난방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B: 난방이 들어왔어요.
- c. A: 外边还下雨吗?
B: 雨停了.
A: 밖에 아직도 비가 오나요?
B: 비가 그쳤어요.

위의 ‘客人来了吗?’라는 질문에는 ‘客人来了’ 혹은 ‘他/他们来了’, ‘来了’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하다. ‘他/他们’이나 영 형식은 ‘주제 인상’이라는 기능도 하는데, 서술어 ‘来了’는 ‘客人’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자 문장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2月了, 好冷, 暖气还没来吗?’라는 질문에는 ‘暖气来了’로 대답할 수 있다. 여기서 서술어 ‘来了’는 ‘暖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이는 수신자가 가장 알고 싶은 정보이다. 또 다른 예로 ‘外边还下雨吗?’라는 질문에는 ‘雨停了’로 대답할 수 있다. 화자가 수신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서술어 ‘停了’로 ‘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즉 서술어초점구조에서 단언의 목적은 이미 확립된 담화 지시체의 어떤 특성을 화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서술어초점구조 및 주제-평언문의 문장구조와 연관된 논리적 판단은 정언적(categorical) 판단이다. 어순은 논리적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통사적 수단이다. Sasse 에 의하면 SV 구조를 기본적 구조로 사용하는 러시아어, 헝가리어, 중국어 등의 SV 구조는 정언적 판단이고 도치 구조는 단정적(thetic) 판단이다. 따라서 ‘NV了’는 정언적 판단에 속하고 ‘VN了’는 단정

적 판단에 속한다. 정언적 판단은 실체를 확정하는 인지 행위와 그 실체에 대하여 진술하는 두 가지의 상이한 인지 행위를 포함하는 이중판단이다. 즉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어떤 지시체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 그 지시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A. 실체를 확정함(客人, 暖气, 雨……)

B. 실체에 대해 진술함(来了, 停了……)

‘增·減류’의 ‘VN了’형식인 ‘少钱了’는 ‘NV了’형식으로 말하면 ‘钱少了’이다. ‘钱少了’는 우선 ‘钱’이라는 실체를 확정하고, 그 후에 이 실체 ‘钱’에 대해서 ‘少了’라는 진술이 부가된다. 그런데 ‘少钱了’는 확정할 수 있는 실체와 이 실체에 대한 진술이 없어서 정언적 판단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만약에 ‘少钱了’의 문장 앞에 장소 문두성분이 있다면 서술어초점구조가 되어 이중 논리적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生·死류의 하위 동사 부류 ‘성장’류의 동사들은 ‘NV了’ 형식으로 서술어초점구조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술어초점구조를 표현하려면 서술어 동사 뒤에 반드시 다른 성분을 추가하여 서술어의 정보량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痘痘(여드름)’이 동사 앞으로 이동하여 화제가 되려면 ‘*痘痘长了’의 서술어의 정보량을 ‘痘痘长了一脸(여드름이 온 얼굴에 났다)_[微博]’처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립성’이 없는 낱어는 동사 앞에 나타나며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동사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와 비슷하게 기상류도 ‘NV了’형식으로 나타날 때 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NV了’ 뒤에 다른 성분을 부가하는 것으로 ‘雨下了一天一夜(비가 밤낮으로 내렸다)’, ‘雨下了起来(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와 같은 경우이다. ‘NV了’ 뒤에 다른 성분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는 ‘雨下了’가 주로 ‘雪没下, 雨下了(눈이 안 오고, 비가 내렸다)_[微博]’, ‘天凉了, 雨下了, 你走了(날씨가 선선해졌어, 비가 내렸어, 당신은 떠났다)

[微博]’와 같이 대비적인 복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은 매우 드물다. 다른 기상류 동사도 마찬가지이다. ‘风刮了’가 주제-평언문으로 나타나려면 ‘风刮了一晚上(바람이 밤새 불었다)’처럼 ‘NV了’ 뒤에 다른 성분을 부가해야 한다. 또한 ‘风刮了, 雷打了, 咋还这么热呢(바람도 불고 벼락도 쳤는데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더워) [山西晚报·2017-7-13]’와 같은 상황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NV了’가 주제-평언문이 될 수 있지만 내부 부류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6. 2. 2. 문장초점구조

‘VN了’ 은현문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문두성분이 없는 경우에는 문장초점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문장들은 지시체 N의 어떤 특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Lambrecht(2000:618)에서는 ‘존재적 구성(existential sentence)’, ‘장소 도치문(Locative Inversion)’ 등이 쉽게 문장초점구조가 된다고 하였다. ‘장소 도치문(Locative Inversion)’은 현대중국어의 은현문의 형식과 비슷하다.

그리고 ‘VN了’ 은현문은 논리적 표상으로 구분하면 이중판단이 아닌 단일판단이다. 따라서 ‘VN了’는 앞에 확정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에 논리적으로 ‘A이다’라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Sasse는 쉽게 단일적 판단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답’,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 ‘날씨 표현’ 등의 특징은 ‘VN了’ 은현문 역시 가지고 있다.

1. 존재적 진술(existential statements)
2. 무슨 일이 생겼는지(what happened?)에 대한 설명(explanations)
3.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surprising or unexpected events)
4. 일반 진술(general statements)
5. 배경 설명(background descriptions)
6. 날씨 표현(weather expressions)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7. 신체 부위와 관련된 진술(statements relating to body parts)

Sasse(1987:566)

혹시 ‘NV了’를 단일판단으로 볼 수 있을까? Lambrecht(2000:618)는 문장초점구조를 논의할 때 ‘Her HUSBAND is sick’라는 문장을 언급하였다. 주어 명사 ‘그녀의 남편’은 비-주제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그녀의 남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이면 ‘그녀의 남편’은 사건의 관련자로서 청자에게 사건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초점구조를 가진 문장의 화용적 기능은 바로 ‘사건-보고’이고 논리적 판단의 유형은 단일판단이다.

또한 Lambrecht(2000:619)에서는 주-술문이 문장초점구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문장초점구조의 중요한 제약은 주어 논항이 어휘로 코딩되어야 한다는 것(be coded lexically)이라고 제시하였다.

- (23) a. Her HUSBAND is sick. (SF or AF)
 그녀의 남편은 병이 들었다.
- b. HE is sick. (*SF, AF)
 그는 병이 들었다.

예문(23a)의 주어 논항은 어휘로 코딩된 ‘Her HUSBAND’이기에 논항초점구조(AF)도 될 수 있고, 문장초점구조(SF)도 될 수 있다. 예문(23b)의 주어는 대명사이기에 문장초점구조로 표현할 수 없다. 대명사는 반드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NV了’ 형식인 ‘警察来了’도 주어 논항은 어휘로 코딩되며 ‘警察’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는 단일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老炮儿(노포)’라는 영화에서 불량배들이 ‘警察来了!’라고 소리칠 때는 ‘他来了’로 대체할 수 없다. 여기서 ‘警察来了’는 ‘警察’에 관한 사건을 보고하는 기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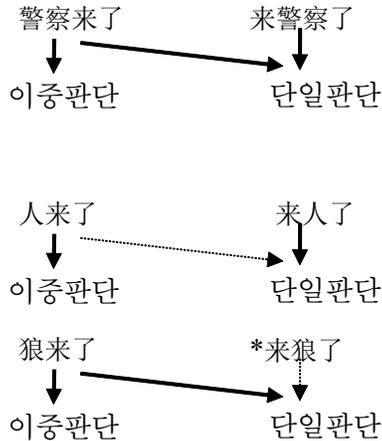
- (24) a. 警察来了。(SF or AF)
경찰이 왔다.
b. 他来了。(*SF, AF)
그가 왔다.

따라서 동일한 통사구조이지만 ‘警察来了’는 상이한 논리판단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他来了’는 서술어초점구조가 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발화상황의 복잡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명사 ‘他’와 관련된 한 가지 예외상황을 살펴보자. 영국 소설가 아가사·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포아로(Poirot)’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A가 방에 들어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B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B는 주방 식탁 밑에 누워 있는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他死了’라고 하였다. A는 이 대답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에 대응되는 답인 ‘他死了’를 혹시 문장초점, 즉 사건-보고문으로 볼 수 있을까? ‘他’는 대명사인데 이를 비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⁷⁰⁾ 화자가 청자의 심적 표상에 의해 발화의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화문을 보면 화자의 가정이 청자의 심적 표상과 매칭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VN了’는 문장초점구조이고, ‘NV了’는 서술어초점일 수도 있고 문장초점일 수도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70) 아가사·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The Murder of Roger Ackroyd》라는 소설에서는 1인칭-어떤 의사의 시각으로 살인 사건을 진술하였다. 이 의사는 탐정 포아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추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서술자 ‘我’이다. 청자는 서술자에 대한 신뢰(믿음)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소설을 보는 독자를 발화의 청자, 소설의 서술자는 발화의 화자로 가정하자. 이 소설의 서술 함정처럼 발화시 청자와 화자 사이의 믿음의 함정도 있을 수 있다. 청자는 의식 속에서 대명사 ‘我-서술자’에 관한 지시체가 이미 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화자와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6-7〉 ‘警察来了·来警察了’, ‘人来了·来人了’, ‘狼来了·*来狼了’의 논리판단⁷¹⁾



제 5 장에서 N의 다양한 심적 상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항의 심적 상태의 차이는 문장형식과 초점구조에도 반영된다. 동화 등의 문학작품을 제외하면 ‘人’이 비활성이거나 준 활성화 상태인 ‘人来了’는 찾기가 어렵다. 일단 ‘人来了’에 들어가면 ‘人’은 반드시 활성화되는 심적 상태이기에 ‘人来了’는 문장초점구조, 즉 단일적 논리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狼来了’도 서술어초점, 문장초점이 다 될 수 있는데, ‘*来狼了’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기에 다양한 화용적 기능이 모두 ‘狼来了’에게로 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치기 소년》에 출현하는 ‘NV了’ 형식인 ‘狼来了’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를 쓴다. ‘가’가 쓰이는 것은 ‘狼来了’가 단일판단으로 등장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²⁾

71) 실선 화살표로 표시될 경우는 해당 논리판단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점선 화살표로 표시될 경우는 해당 논리판단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72) 김아영(2008)에서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용례를 중심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주제와 주어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어 주제 또는 주어를 변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표시가 없는 중국어 문장 ‘太阳出来了’는 ‘해가 떴다’로 번역되면 사건-보고문이고 ‘해는 떴다’로 번역되면 주제-평언문이다.

일반명사뿐만 아니라 제 5 장에서 작은 집합을 가진 ‘张三, 爸爸’ 등과 같은 고유명사와 친적명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런 명사는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기에 ‘VN了’ 형식으로 쓰이지 않고 ‘NV了’ 형식으로만 쓰인다고 하였다. 모두가 아빠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밖에서 아빠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爸爸来了’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은 서술어구조로 쓰인 것이다. 집에서 몰래 TV 를 보다가 갑자기 아빠가 집에 오는 발소리가 들려 ‘爸爸来了’라고 말하면 이 문장은 문장초점구조로 쓰인 것이다.

〈표6-8〉 ‘来N了’와 ‘N来了’의 초점구조와 논리판단

		단일판단		이중판단
		문장초점		서술어초점
		来N了	N来了	N来了
일반명사	客人	+	+	+
	警察	+	+	+
	人	+	-	+
	狼	-	+	+
고유명사	张三	-	+	+
친족명사	爸爸	-	+	+

따라서 ‘VN了’는 문장초점구조이고, ‘NV了’는 서술어초점일 수도 있고 문장초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휘로 코딩된 ‘客人, 警察, 人狼, 张三, 爸爸’ 등은 심적 상태에 따라 문장형식과 초점구조, 논리판단유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6. 2. 3. 논항초점구조

논항초점 및 확인문의 유형에서 단언의 목적은 논항과 이전에 환기된 열린 명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문’이라고 불린 까닭은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Lambrecht 는 (2-6)c “(Who went to school?)The CHILDREN went to school.”을 확인문으로 본다. ‘The CHILDREN’은 다른 후보와 집합이 형성

되었고 열린 명제 ‘X went to school’에서 가장 나은 후보이다.

- (25) A: 谁来了? 怎么这么高兴?
 누가 왔어요? 왜 이렇게 기뻐요?
 B: 朋友来了。(AF, *SF)
 친구가 왔어요.

예문(25)에서는 A가 ‘谁来了?’이라고 물어보자 B가 ‘朋友来了’라고 답한 상황이다. 질문한 사람은 누군가 온 것은 아는데 온 사람이 누구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다. ‘朋友’는 다른 후보와 집합이 형성되었고 열린 명제 ‘X来了’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여기서 ‘朋友’는 비활성화 상태인 정보이고 ‘来了’는 이미 활성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朋友’는 주제가 아니라 논항초점이다. ‘朋友来了’는 ‘누구’라는 물음에 따라 나오는 지시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 문장은 이미 ‘누군가가 왔다’라는 명제를 전제하고 그 ‘누군가’가 바로 친구라고 단언한다.

‘VN了’도 확인문으로 볼 수 있을까? ‘VN了’를 확인문으로 인정하려면, 우선 ‘来什么人来了/来 X 了吗’ 등과 같은 질문을 설정해야 한다.

- (26) a. A: 你们小两口怎么买这么多菜, 家里来人了?
 B: 亲戚来了/来亲戚了。
 A: 당신 부부는 왜 이렇게 많은 채소를 사나요, 집에 누가 왔나요?
 B: 친척이 왔어요.
- b. A: 今天裕彤体育馆怎么敲锣打鼓的? 来了什么重要人物?
 B: CBA的冠军球员们来了。(*来 CBA的冠军球员们了。)
 A: 오늘 유동체육관에서 왜 이렇게 징과 북을 쳤어요? 무슨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B: CBA 챔피언들이 왔어요.
- c. A: 这时天麻麻亮了, 豹子精又困又累要睡觉了, 一股生气扑入鼻孔, 它放下从大莲家抢来的东西, 满腹狐疑地对小狗说, “咱家来了什么人吗?”(陕西民间故事集)
 B: 来了一个小姑娘。(?来小姑娘了。)

- A: 이때 하늘이 밝아오고, 표범은 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사람의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대련의 집에서 빼앗은 물건을 내려놓고 의심 가득하게 강아지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 B: 어린 아가씨가 왔어요.

예문(26a)에서는 ‘家里来人了?’에 대한 대답으로 ‘亲戚来了’와 ‘来亲戚了’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문(26b)은 ‘来了什么重要人物’로 질문하고 ‘NV了’ 형식으로 답하였다. ‘CBA 챔피언들’이 활성화 상태에 있어 ‘VN了’ 은현문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예문(26c) 질문의 대답은 ‘VN了’ 형식을 택하지 않고 ‘V了一个N’ 형식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VN了’는 확인문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확인문으로 쓰이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6.2.4. 부사절의 정보구조

Lambrecht의 의견에 따르면 배경-설정(scene-setting) 유형에서 화용적으로 전제된 명제는, 그 자체가 나머지 세 유형 중의 어느 하나일 수 있는 다른 명제를 위한 장면-설정의 주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when, after, before, because, since, although’ 등과 같은 부사적 접속사를 포함하는 부사절(adverbial clause)은 화용적으로 전제된 명제를 표현한다. ‘(John was very busy that morning.) After the children went to school, he had to clean the house and go shopping for the party.’의 ‘After the children went to school’은 주절에 표현된 명제에 대한 일시적인 배경을 제공한다(Background-providing). 예문(27b)의 ‘before-종속절’은 담화할 때 담화 참여자에게 공유된 지식으로 추정된다.

- (27) a. What did you do before you sat down to eat?
너는 식사하려고 앉기 전에 무엇을 했어?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b. Before I sat down to eat I washed my hands.

나는 식사하려고 앉기 전에 손을 씻었어.

方梅(2005:169), 屈承熹(2006:168) 등 학자들은 Hopper(1979, 1980)를 참고하여 전경(Foreground)과 후경(Background)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학자들의 관련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9〉 전경과 후경

후경	전경
사건의 줄거리에 있지 않음	사건의 줄거리를 전달함.
서술의 진행을 추진하지 않음	서술의 진행을 추진함
시간순서대로 배열할 필요가 없음	시간순서대로 배열함
사건 과정 이외의 요인	사건의 과정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구절 간의 배열순서는 일반적으로 후경에서 전경으로 진행됨. 이 무표적인 배열은 BEP(Background-to-Foreground) 원칙이라고 함.	

Lambrecht 의 ‘배경제공(Background-providing)’과 Hopper(1979, 1980)의 ‘전경(Foreground), 후경(Background)’이라는 개념은 유사성을 지닌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VN了’ 은현문 복문들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자.

- (28) A: 哎呀, 脸上长痘痘了!
아이고,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
B: 既然长痘痘了, 就别化妆了。
여드름이 났으니 화장하지 마세요.

예문(28)B의 응답에서 ‘既然-종속절’은 담화 참여자에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라는 사실이 공유된 지식으로 추정되어 활용적으로 전제된 것으로 본다.

- (29) A: 店里来客人了。
가게에 손님이 오셨네요.

B: 既然来客人了, 那我就先走了, 以后再聊。
손님이 오셨으니 내가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예문(29)도 마찬가지로 B의 응답에서 ‘손님이 오셨다’라는 명제는 ‘既然-종속절’의 형태로 나타나며 모두 생략될 수 있고 배경이 되었다. 이런 문장의 배열순서는 BEP 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부사절을 배경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30) A: 你今天怎么不化妆?
너 오늘 왜 화장 안 해?
B: 因为脸上长痘痘了。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

예문(30)에서는 A가 B에게 왜 화장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B가 ‘因为-종속절’로 대답하였다. 여기서는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라는 절이 생략될 수 없다.

(31) A: 怎么, 现在就走吗?
왜, 지금 바로 가요?
B: (因为)你店里来客人了, 那我就先走了, 以后再聊。
손님이 오셨으니 내가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예문(31)도 마찬가지로 화자 A는 B가 왜 바로 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B에게 ‘怎么(왜)’로 질문하였고, B는 ‘因为-종속절’로 A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였다.

‘因为-종속절’과 ‘既然-종속절’은 주절 사이의 관계가 모두 인과 관계이지만 정보구조로 보면 서로 다르다. ‘既然-종속절’에 표현된 내용에서는 추론을 하여 주절에 표현된 결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既然-종속절’의 내용은 담화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다. ‘因为-종속절’에 전달된 정보

6. ‘VN了’ 은현문의 초점구조

는 수신자가 모르는 정보이다. 따라서 ‘因为-종속절’ 자체가 문장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因为-종속절’은 단언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지만 ‘既然-종속절’은 그럴 수 없다.

- (32) a. 要是客人来了, 就赶快沏茶。
손님이 오면 차를 빨리 준비해라.
b. 要是来客人了, 就赶快沏茶。
손님이 오면 차를 빨리 준비해라.

‘VN了’와 ‘NV了’는 모두 부사절 형태로 나타나고 배경-설정이라는 담화 기능을 가진다. 예문(32)에서 ‘要是-절’의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청자의 인식 속에 새로운 지시체 ‘客人’을 담화에 도입하는 문장도 아니며 ‘客人’에 대해 논의하는 문장도 아니다.

- (33) a. 家里永远没有茶叶, 客人来了, 就只好倒白开水, 美姿美其名为‘白茶’。(琼瑶《六个梦》)
집에 항상 차가 없어서 손님이 오면 끓인 물을 따를 수밖에 없다.
좀 듣기 좋게 ‘백차’라고 불린다.
b. 那时候条件很差, 来客人了, 桌椅板凳都不够, 只能找邻居借。(人民日报 2017-3-23)
그때는 상황이 매우 나빠서 손님이 오면, 책상과 의자 모두 모자라서 이웃을 찾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장에서 ‘VN了’와 ‘NV了’의 차이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예문(33a)와 (33b)는 각각 ‘NV了’, ‘VN了’ 형식을 사용하지만 문맥은 매우 유사하다.

- (34) a. 家里永远没有茶叶, 来客人了, 就只好倒白开水, 美姿美其名为‘白茶’。[13 명:12 명√(자연스러움), 1 명:?(어색함)]
b. 家里永远没有茶叶, 客人来了, 就只好倒白开水, 美姿美其名为‘白

茶’。[13 명:√(자연스러움)]

- (35) a. 那时候条件很差, 来客人了, 桌椅板凳都不够, 只能找邻居借。
[13 명:12 명√(자연스러움), 1 명:?(어색함)]
- b. 那时候条件很差, 客人来了, 桌椅板凳都不够, 只能找邻居借。
[13 명:√(자연스러움)]

필자가 예문(34), (35)를 같이 어감 조사한 결과 (34a)와 (34b), (35a)와 (35b)가 다 쓰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 92% 이상이다.

앞서 분석한 대로 위치에 따라 성질과 활성화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VN了’와 ‘NV了’가 가정문과 같은 문장에 쓰일 때 맨명사의 성질이 일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VN了’는 주로 문장 초점구조로 나타나지만, ‘NV了’는 하나의 형식이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동반할 수 있다. 한 언어에서 형태적, 통사적 재료는 유한한 것인데 의사소통의 차이, 심적 표상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무한하다. 결국, 인지적 다양성이 문장의 형식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표 6-9>를 통해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 있는 ‘VN了’와 ‘NV了’도 각각의 화용적 기능은 일대일의 관계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10> ‘VN了’와 ‘NV了’의 정보구조

화용적 정보구조			문장형식	
논리적 판단	초점 관계	주제 관계	VN了	NV了
이중판단	서술어초점구조	주제-평언문	-	+
단일판단	문장초점구조	제시문 /사건-보고문	+	+
	논항초점구조	확인문	?	+
		배경-설정문	+	+

일반적으로 무표적인 것은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한다. ‘NV了’는 다양한 화용적 상황에서 쓰일 수 있고 ‘VN了’는 주로 하나의 화용적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더 적은 상황에서 쓰이는 ‘VN了’가 더 유표적이고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

‘문두-주제, 문말-초점’은 가장 무표적인 것이기에 ‘NV了’는 주제-평언문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NV了’가 다른 화용적 기능을 다루고자 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순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수단으로 인지적 차이점을 표현하는가?

6.2.5. 화용적 관계의 표현방식

앞서 ‘NV了’와 ‘VN了’의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등을 분석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숨어 있다. 위의 <표 6-9>을 다시 살펴보자.

- ① 세로로 보면, ‘NV了’는 다양한 화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형식, 상이한 정보구조를 가진 경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② 가로로 보면, ‘NV了’와 ‘VN了’가 모두 문장초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NV了’는 논항초점, 서술어초점, 문장초점 이 세 가지 초점구조가 모두 가능한데 이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문장초점과 서술어초점구조를 구분하기 위해 여러 언어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Lambrecht(1994:13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음성적, 통사적, 형태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표6-11> 문장초점과 서술어초점의 예시

언어	방식	문장초점	서술어초점
영어	강세	A: What's the matter?	B: How's your neck?
		a. My NECK hurts. 목이 아파.	a. My neck HURTS. 목은 아파.
이탈리어	어순	b. Mi fa male il COLLO.	b. Il collo mi fa MALE.

프랑스어	분열문	c. j'ai mon COU qui me fait MAL.	c. Mon cou il me fait MAL.
일본어	표지	d. KUBI ga ITAI.	d. Kubi wa ITAI. ⁷³⁾

‘NV了’는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화용적 관계를 표현하여 어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표지와 강세에 대해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 표지

한국어, 일본어는 표지 ‘이/가, 은/는’, ‘wa/ga’를 통해 서술어초점구조와 문장초점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이/가, 은/는, wa/ga’와 같은 표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是不是, 是, 呢’ 등으로 ‘NV了’의 다양한 화용적 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표6-12> ‘是, 是不是, 呢/啊’가 부가된 ‘NV了’

NV了		문장초점구조	서술어초점구조	논항초점
客人来了	是	是客人来了	客人是来了	是客人来了
	是不是	是不是客人来了	客人是不是来了	是不是客人来了
	呢/啊		客人呢/啊, 来了	
客人走了	是	是客人走了	客人是走了	是客人走了
	是不是	是不是客人走了	客人是不是走了	是不是客人走了
	呢/啊		客人呢/啊, 走了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是不是, 是, 呢/啊’ 등이 부가되어 문장초점구조와 서술어초점구조를 구분할 수 있지만 문장초점과 논항초점을 구별해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생략을 통해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73) Lambrecht(1994:191)Kuroda 는 일본어에서 ‘ga’로 표시된 명사구는 영어의 비한정 명사구나 한정 명사구 어느 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반면에 ‘wa’로 표시된 명사구는 영어의 한정(혹은 총칭적 비한정) 명사구로만 대응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표6-13〉 ‘NV了’의 생략

NV了	문장초점구조	서술어초점구조	논항초점
	N(V생략?)	V了(N생략)	N(V생략)
客人来了	客人 _(발화 현장)	来了	客人
警察来了	警察 _(발화 현장)	来了	警察
人来了	*人	来了	*人(동화제외)
爸爸来了	爸爸 _(발화 현장)	来了	爸爸
老虎来了	老虎 _(발화 현장)	来了	老虎
车来了	车 _(발화 현장)	来了	车
花坛修了	*花坛	修了	花坛
钱多了	*钱	多了	钱
客人走了	*客人	走了	客人
警察走了	*警察	走了	警察
人走了	*人	走了	*人(동화제외)
爸爸走了	*爸爸	走了	爸爸
老虎走了	*老虎	走了	老虎
车走了	*车	走了	车
花坛拆了	*花坛	拆了	花坛
钱少了	*钱	少了	钱

여전히 문장초점구조와 서술어초점구조는 구분할 수 있으나 문장초점, 논항초점은 구분하기 어렵다. <표 6-13>을 통해 문장초점구조를 가진 ‘NV了_{소실류}’는 ‘N’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문장의 초점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NV了’의 동사가 ‘来’이면 발화 현장에서 생략 가능하나, 다른 동사이면 생략이 불가능하다.

(2) 강세

표지, 생략, 어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혹시 강세로 해결할 수 있을까?

- (36) a. TRUman’s DIED.
트루먼이 죽었다.
杜鲁门死了。
- b. JOHNson’s died.

존슨이 죽었다.
约翰逊死了。

Schmerling(1976:90)에서는 두 가지 예문을 언급하였다. 이 두 가지 예문은 모두 사람의 죽음이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36a)의 경우는 사람들이 트루먼의 건강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트루먼의 죽음을 예상한 경우이다. (36b)의 경우는 청자가 존슨의 사망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다.

〈표6-14〉 Schmerling(1976:90)의 예시

TRUman's DIED. 예상됨(expected) INSIDE the expected information V에 강세 있음	JOHNson's died. 예상치 않음(unexpected) OUTSIDE the expected information N에 강세 있음
---	--

트루먼은 예상된 정보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INSIDE the information), 존슨은 예상된 정보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OUTSIDE the expected information). 문장초점 구조를 지닌 예문(36b)는 강세가 주어에 놓이는데, 서술어초점구조를 지닌 예문(36a)는 강세가 술어에 놓인다. 단일판단과 이중판단 사이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청자가 이 정보를 예상할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관련이 있다. 강세도 이 가정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 (37) a. The CHICKen's burnt.
통닭이 탔다.
b. The CHICKen's BURNT.
통닭이 탔다.

Sasse(1987:529)에서도 예문(37)을 제시하였다. 누군가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코를 찌르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는 ‘What the hell is this stench?’라고 말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예문(37a)와 같이

‘통닭이 됐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접시에 예상하는 통닭이 아닌 햄버거가 올려져 있다. 아내가 예문(37b)와 같이 ‘통닭이 됐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예문(37a)의 경우 그는 아내가 통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 (38) a. “水"来了! 水来了! 这下我的 2 亩多的秧田再也不愁用水了。”(福建日报 2008-3-25)
 “물이 왔다! 물이 왔다!! 이제 2 묘가 넘는 모판에 물 걱정이 없어졌다.”
- b. 就在此时远方传来滚滚的车轮声, 很快轰隆隆地响声换成了凄惨的高呼: “水来了! 水来了!” 嫂子还没听清呼喊什么。我当即反应过来“快! 快起来!” 小宝, 秀玲一时蒙住了。“决提了! 快! 嫂子把我的救生衣给小宝穿上。”(林可行《幻象大限》)
 바로 그때 멀리서 바퀴가 굴러오더니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처참한 소리로 바뀌었다. “물이 온다! 물이 온다!”라고 외치는 것을 형수는 아직 잘 알아듣지 못했다. “빨리! 일어나!” 아기와 수령이 잠시 얼떨떨해졌다. “제방이 터졌어! 어서! 형수가 내 구명조끼를 아기에게 입혀 줘!”

코퍼스에서도 예문(38)을 찾을 수 있었다. 예문(38a)에서 강세가 슬어 ‘来了’에 있는 이유는 ‘水来了’가 등장하기 전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할 때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문(38b)에서는 뒤에 있는 강세가 앞으로 이동하여 물에 대해 예상치 않은 정보를 표현하게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화용적 관계는 강세의 이동을 통해 판별할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상이한 화용적 관계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앞서 언급했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보자.

- (2-1) a. My car broke DOWN. (서술어초점구조)
 b. My CAR broke down. (논항초점구조)
 c. My CAR broke down. (문장초점구조)

서술어초점구조 (2-1a)는 강세가 초점의 마지막 성분 ‘DOWN’에 놓이고, 논항초점구조 (2-1b)는 논항 ‘CAR’에 놓이고, 문장초점구조 (2-1c)도 ‘CAR’에 놓인다.

<표6-15>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초점에 있는 논항	초점에 있는 서술어
서술어초점	-	+
논항초점	+	-
문장초점	+	+

<표6-16> 세 가지 초점구조의 강세의 위치

	초점에 있는 논항	초점에 있는 서술어
서술어초점의 강세	-	+
논항초점의 강세	+	-
문장초점의 강세	+	-

<표 6-15>와 <6-16>을 비교해 보면 문장초점의 서술어는 초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놓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정보구조 이론에 의하면 강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점 강세이고 다른 하나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놓은 강세이다. 즉 강세가 초점에 놓일 수 있으나 모든 초점 위치에 다 강세가 놓이는 것은 아니다.

강세가 맨 뒤쪽에 놓이는 기본적인 규칙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율적인 도상성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까? Lambrecht(1994:313)에서는 운율적인 두드러짐은 활성화 상태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비활성화되는 성분에 강세가 놓인다. 왜냐하면 강세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모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장초점의 경우에는 실체의 문장초점 영역은 전체이지만 강세가 주어에만 있다. 문장초점일 때 ‘NV了’ 전체에 악센트가 놓이지 않고 ‘N’에만 놓이는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다른 언어에서도 영어처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My car broke down’이라는 예문을 가지고 여러 언어에서 강세가 어떻게

게 이동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표6-17〉 ‘My car broke down’의 예문 분석⁷⁴⁾

	서술어초점 주제-평언문	논항초점 확인문	문장초점 사건-보고문/제시문			
영어	My car broke DOWN .	My CAR broke down.	My CAR broke down.			
한국어	차는 고장 이 났다.(13)	차가 고장 이 났다.(13)	차가 고장 이 났다.			
			차 (2)	고장 (2)	났다 (1)	차, 고장 (8)
중국어	车坏了.(17)	车坏了.(17)	车坏了			
			车(14)	坏了.(1)	车坏.(2)	
일본어	車は 故障 した.	車が 故障 した.	車が 故障 した			
스페인어	El auto se averió .	El auto se averió.	El auto se averió.			

한국어에서는 일단 1 차로 표지 ‘은/는, 이/가’로 서술어초점구조와 논항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를 구분한다. 2 차로 운율적 도상 원리에 따라 논항초점과 문장초점을 판별한다. 위의 표에서는 문장 전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이기에 ‘차’와 ‘고장’에 모두 강세가 놓일 수 있다.⁷⁵⁾

중국어에서는 서술어초점구조인 ‘车坏了’는 강세가 서술어 ‘坏了’에 놓이고, 논항초점구조 ‘车坏了’에서는 논항 ‘车’에 놓인다. 문장 초점구조 ‘车坏了’일 경우 ‘车坏了’의 ‘车’, ‘坏了’와 ‘车坏了’에 모두 강세를 넣는 원어민이 있기는 하지만 ‘车’에만 강세가 놓이는 경향이 있다.⁷⁶⁾ 웹 페이지에서

74) 스페인어에 관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와 스페인 유학생에게, 일본어는 대전 ‘중도일보’ 외국인 기자단 선생님과 토론하여 수집한 것이다.

75) 필자는 3 개의 대화를 설정하여 13 명의 한국인 원어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①A : 차는? B : 차는 고장이 났어. ②A :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 B : 아니, 차가 고장이 났어. ③A : 무슨 일이야?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B : 차가 고장이 났어.) ①과 ②의 답은 일치하며 각각 ‘고장’과 ‘차’에 강세가 놓인다. ③의 답은 일치하지 않지만 강세가 전체 문장에 놓이는 경향성을 보인다. (2 명: 났다. 2 명: 고장. 1 명: 났다. 8 명: 차가 고장이 났다.)

76) 필자는 3 개의 대화를 설정하여 17 명의 중국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여러 동화책의 음성 서류를 찾아본 결과, ‘VN了’ 형식인 《车来了》라는 동화책의 녹음에서 사건-보고로 말할 때 강세가 ‘车’에 놓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⁷⁷⁾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하게 먼저 ‘は(wa)’와 ‘が(ga)’로 서술어초점과 논항초점, 문장초점을 구별하고, 운율적 도상적으로 논항초점과 문장초점을 판별한다. 일본 원어민 화자는 이 세 가지 경우 강세의 위치가 각각 ‘故障’, ‘車’, ‘車が故障した’에 있다고 하였다.⁷⁸⁾

스페인어 원어민 화자는 중국어처럼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같은 형식으로 대답하였다. 스페인어 원어민 화자 두 명은 이 세 가지 경우 강세의 위치가 각각 ‘averió(고장이 났다)’, ‘El auto(차)’, ‘El auto(차)’에 있다고 하였는데 한 명은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⁷⁹⁾

‘客人来了’에 대해서도 중국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술어초점구조로 쓰인 예문(39a)와 논항초점구조로 쓰인 예문(39c)의 논항의 강세에 대해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

진행했다. (①A: 车怎么了? B: 车坏了。②A: 摩托车坏了? B: 车坏了。③A: 发生什么事了? 怎么垂头丧气的? B: 车坏了。) ①과 ②의 답은 아주 일치하며 각각 ‘坏了’와 ‘车’에 강세가 놓인다. ③의 답은 일치하지 않지만 강세가 ‘车’에 놓이는 경향성을 보인다. (1 명: 坏了。2 명: 车坏了。14 명: 车坏了。)

77) 有声绘本—噼里啪啦系列 - 《车来了》(xiaohongshu.com[小红书])

78) 일본어에 대한 설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한 결과 세 가지 상황을 일본어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A: 車は? B: 車は故障した。②A: オートバイ故障した? B: 車が故障した③A: どうした? 気分が悪いようだけど...B: 車が故障した。Sasse(1987:514)에서도 ‘wa’와 ‘ga’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79) 스페인어에 대한 설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스페인 유학생 GONZALEZ LINEO ARIADNA, LOPEZ ROSELL MARIA VICTORIA, OSUNA QUEROL SILVI 와 같이 토론했다. ①A: ¿Y el auto? B: El auto se averió.②A: ¿Se rompió la moto? B: No, El auto se averió.③A: ¿Qué está pasando? B: El auto se averió.

- (39) a. 客人"来了。(서술어초점 구조)
 b. "客人来了.(문장초점 구조)
 b'. ?"客人"来了.(문장초점 구조)
 c. "客人来了.(논항초점 구조)

문장초점일 경우는 3 명이 ‘客人’과 ‘来了’에 다 강세가 놓인다고 하였고 14 명은 ‘客人’에만 강세가 놓인다고 응답하였다. ‘客人’과 ‘来了’에 다 강세가 놓이는 원인은 화제와 활성화라는 책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예문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귀납법(归纳法), 귀류법(归谬法)이라는 논증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⁰⁾

· 귀납적 추론: 한국어, 일본어처럼 표기가 있는 언어는 표기를 통해서 서술어초점과 논항초점, 문장초점구조를 구분하고, 동시에 운율적인 도상성 원리에 따라 문장초점과 논항초점구조를 구별한다. 영어, 중국어와 같은 언어는 강세의 이동만을 통해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상이한 화용적 관계를 구별한다.

더 기본적인 문장은 무표적인 것이고 제약을 더 많이 받는 문장은 유표적인 것이다. 서술어초점은 논항초점, 문장초점과 비교하면 더 무표적이고, 논항초점, 문장초점은 더 유표적이다. 그렇다면 무표적인 주제적 정보구조와 유표적인 비 주제적 정보구조의 대립 관계에서 강세이동의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세를 앞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무표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강세를 뒤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유표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⁸¹⁾ 즉 주제-평언문과 구분되기 위해 비

80) ‘귀납법(归纳法)’은 일반적으로 ‘귀납적 추론’을 말하며 개별적인 사례나 견해로부터 이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더 넓은 범위의 견해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 원칙과 원칙의 해석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귀류법(归谬法)’은 어떤 명제 A가 참임을 증명하려면 먼저 이 명제와 반대로, 즉 부정적으로 명제 B가 거짓임을 가정한다. 명제 B로부터 추론한 결론이 성립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명제 A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81) Lambrecht(2000:626)에서 탈주제화(detopicalization)에 대해 여러 수단을 제시하였

주제-평언문 문장초점의 악센트는 무조건 서술어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 귀류적 추론: 만약 영어, 중국어가 한국어처럼 강세가 서술어, 논항에 모두 놓여서 완전한 운율적 도상성을 반영하려 한다면 문장초점과 서술어 초점구조를 같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표6-18〉 귀류법으로 본 강세의 이동 원리

	부분적 운율 도상성		완전한 운율 도상성
서술어초점	My car broke DOWN . 车坏了	→	My car broke DOWN . 车坏了
문장초점	My CAR broke down. 车坏了	→	My CAR broke DOWN . 车坏了
서술어초점	내 차는 고장 이 났다.	←	내 차는 고장 이 났다.
문장초점	내 차 가 고장이 났다.	←	내 차 가 고장 이 났다.

만약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처럼 강세가 논항에만 놓이는 부분적 운율 도상성을 반영하려면 논항초점과 문장초점구조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원래 강세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아도 표기를 통해 이 두 문장구조를 잘 구분할 수 있기에 강세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것이다.

‘VN了’와 ‘NV了’는 기본적으로는 운율적 도상성 등을 가지고 문장성분에 강세를 준다. ‘NV了’의 경우, 일단 강세가 서술어에 놓이느냐 안 놓이느냐에 따라 일차적으로 무표적, 유표적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점과 악센트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문장 전체가 문장초점 구조를 가지더라도 모든 문장성분에 강세가 놓일 수 없다. 이때 도상적이면서도 도상적인 못한 것은 무표적인 문장과 유표적인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율적 도상성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운율이 두드러짐’이다. 즉 주어 논항에 악센트가 부가 되는 것이다(subject-accented).

6.3. 소결

이 장에서는 ‘VN了’ 은현문의 화용적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논리적 판단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기존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두성분을 주제로 본다. 그러나 본 장의 연구를 통해 ‘문두+VN了’가 다양한 초점구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두+VN了’ 은현문은 서술어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문두+VN了’는 논항초점구조로도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문두성분이 없는 ‘VN了’는 주로 문장초점으로 출현하는 반면, ‘NV了’는 주제-평언문/서술어초점, 사건-보고문/문장초점, 확인문/논항초점으로 모두 가능하다. 다양한 표지, 운율적 도치, 통사적 도치 등의 방식을 통해 유효적, 무표적인 정보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셋째, 본 장의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N了’와 ‘NV了’는 모두 문장초점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문장초점 관계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련하여 앞서 제 5 장에서 지시체의 심적 상태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음 장에서는 담화 기능 측면에서 이 두 구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7.1. ‘VN了’ 은현문 부류별 담화 기능 분석

제 2 장에서 Lambrecht(1994)는 (1a), (1b)와 같은 제시문의 담화 기능은 청자의 주의(attention)를 어떤 새 지시체(new entity)에게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a)의 명사구 ‘a wizard’가 앞의 문장에서 어휘적으로 표현되었고, 두 번째 문장의 앞부분에서 대명사로 나타난 것이 이런 담화 기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Lambrecht 는 (1b)와 같은 문장의 후행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 (1) a. Once there was a wizard. He was very wise, rich, and was married to a beautiful witch.
옛날에 한 마술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고 부유했으며, 아름다운 마녀와 결혼했다.
- b. John arrived.
존이 도착했다.

본고는 (1b)처럼 문맥이 없는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1a)와 같은 전체적인 담화맥락에서도 ‘VN了’ 은현문을 살펴볼 것이다. ‘N’이 후행절에 쉽게 대응(anaphora)성분으로 나타나 화제가 될 경우, 본고는 ‘화제-도입’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N’은 다음 문장의 화제가 되지 않고, 후행절에서 ‘VN了’로 인해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사건-도입’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한 ‘N’이 단지 배경이나 우연히 나타나는 정보로 후속 맥락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타’

로 분류할 것이다.⁸²⁾

담화맥락에서 어떤 성분이 담화에 도입된 후 뒤의 단락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담화에 다시 언급될 때 그 성분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형식 또는 영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이 두 성분의 관계는 대응 관계이다. 대응은 일반적으로 크게 영 형식(zero anaphora/ZA), 대명사 형식(nominal anaphora/NA), 명사 형식(pronominal anaphora/PA)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담화 기능을 논의할 때는 대응과 관련된 용어 또한 사용할 것이다.

7.1.1. 生·死류

生·死류에 속하는 ‘长’과 ‘死’가 나타나는 예문을 먼저 살펴보자.

- (2) a. 脸上长痘痘了!而且还是多个进行!(微博)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 그리고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어!
- b. 鼻子上长痘痘了!好烦!你的那个什么膏借我用一下呗!(微博)
코에 여드름이 났어! 너무 짜증나! 너의 그 연고 나에게 좀 빌려줘!

예문(2a)는 화자가 먼저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라고 말하고 후행절에서 영 형식 대응으로 ‘여드름’에 대해 추가 설명하였기에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문(2b)는 ‘코에 여드름이 났어’라고 말하고 후행절에서 ‘여드름’에 대해 계속 설명이나 묘사를 추가하지 않고 ‘너무 짜증나’라고 하였다. 이는 ‘长痘痘了’로 인한 사건이나 사태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계를 통해 예문(2a)와 같은 화제-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문장을 19.8%,

82) Lambrecht(1994:181)에서 “새로 도입된 지시체는 어떤 행동, 사건 혹은 상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술되기보다는 단지 수신자의 의식에 떠오르게 됨으로써 후행절에서의 서술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서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데 바로 ‘화제-도입’과 ‘사건-도입’이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예문을 분석할 것이다.

예문(2b)와 같은 사건-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문장을 80.2%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死人了’에 관련 예문도 살펴보자.

- (3) a. 李占奇喘着气跑过来：“快，死人了！”杨百顺脑袋烧得还有些迷糊：“啥？谁死了？”李占奇：“王家庄的老王死了！”(刘震云《一句顶一万句》)
- 이점기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빨리, 사람이 죽었어요!” 양백순의 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누가 죽었어요?” 이점기가 “왕가장의 왕씨가 죽었어요!”

예문(3a)에서는 ‘死人了’가 나타난 다음에 청자가 ‘누가 죽었어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화자 이점기가 ‘왕가장의 왕씨가 죽었어요’라고 한마디로 설명하였다. 화자가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청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자는 죽은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死人了’가 전형적인 사건-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4) a. 去年1月10日，下午4时50分，车站南二楼二区突然一阵骚乱。随即有人喊：“楼上死人了，死人了！”朱莲香冲了上去，她找来有关同志做完死亡记录和遗物登记后，又掏钱雇人将死者抬入哈尔滨铁路医院太平间。她连气都没喘一口，又去打电话拍电报寻找死者家属。(人民日报 1990-11-8)
-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50분 역 남쪽 2층 2구역에서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누군가 “위층에서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 주련향이 달려들었고, 그녀는 관계 동지를 불러 사망 기록과 유품 등록을 마친 뒤, 돈을 내고 사람을 고용해 하얼빈 철도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어 유족을 찾았다.
- b. 所里的小张一脸惊慌地进来了，进门就喊：所长，朝阳街死人了。杨清民一惊，一嘴白沫差点喷到小张脸上。(《作家文摘》1997)
- 경찰서 안에 있던 소장은 당황하여 들어오더니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장님, 조양거리에서 누가 죽었어요.”라고 소리쳤다. 양청민은 놀라서 흰 거품 한 입을 하마터면 소장의 얼굴에 뿌릴 뻔했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예문(4a)에서 ‘死人了’가 발생한 후에 ‘주련향’이라는 사람이 ‘冲上去, 登记, 雇人, 打电话’ 등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 문두성분 ‘楼上’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을 제시하기도 하고 앞 단락의 ‘车站南二楼’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예문(4b)에서 양청민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에 대응해 놀라는 행동을 취하였다.

‘死人了’는 실질적으로 누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수사(修辞)적으로 쓰인 경우도 존재한다.

- (5) a. 杜英豪迫不及待地抱起她, 摇摇晃晃地进了屋子, 往床上一放, 王月华娇笑一声。“死人了, 那有这急的? 先把房门关了。”(司马紫烟《大英雄》)
- 두영호는 지체 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휘청휘청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왕월화는 교태를 부렸다. “사람이 죽었나? 뭐가 그렇게 급해? 먼저 방문을 닫아.”
- b. “我有急事!” “什么急事? 你们家死人了吗?”(中国传统相声)
- “나 급한 일이 있어!” “무슨 급한 일? 너희 집에 사람이 죽었어?”

예문(5a), (5b)는 화자가 상대방이 너무 급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집안에 누가 죽었냐는 것처럼 불만을 전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死人了’는 화제-도입 기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사건-도입 기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혹은 수사(修辞)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7.1.2. 来·走류

‘来·走’류에 속하는 ‘来人了’, ‘来车了’, ‘来电了’ 등 예문을 정리한 결과 약간의 상이한 차이점이 있지만 화제-도입 기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지속성이 약하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6) a. 阿格劳拉女士从篱墙那侧探出身来, 挥动着她那双没有血色的瘦胳膊, 朝他喊道: “回来! 快, 快回来! 来人了! 真的, 是蚂蚁人!” (卡尔维诺《阿根廷蚂蚁》)
 아그롤라 여사는 울타리 너머로 몸을 내밀어 핏기가 없는 그녀의 마른 팔을 흔들며 그에게 소리쳤다. “돌아와! 빨리, 빨리 돌아와! 누가 왔어요! 정말, 개미 사람이야!”
- b. 此时, 门口来人了, 于是他跑上楼去, 她神情恍惚地走回车间。(戴维·赫伯特·劳伦斯《儿子与情人》)
 이때 입구에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는 위층으로 뛰어갔고, 그녀는 황홀하게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 c. “你从哪儿弄来这么漂亮的小轿车?” 小王用手指了指办公大楼, 说: “我哪有福气开这样的车? 省里来人了呗。”姚佩佩抬腕看了看表, 今天迟到了足足二十分钟。待会儿, 钱大钧大概又要罗嗦个不停了。(格非《江南三部曲》)
 “당신은 어디에서 이렇게 예쁜 승용차를 얻었어요? 소왕은 사무실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에서 사람이 온 거지요.” 요패패가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오늘은 무려 20 분이나 늦었다. 잠시 후, 전대군은 아마 또 잔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문(6a)에서는 ‘来人了’가 나타난 다음 ‘人’에 대해 영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 ‘来人了’는 전체의 36.67%이다. (6b)에서는 ‘于是’를 통해 ‘来人了’로 인해 일어난 다른 사건을 도입한다. (6c)의 ‘来人了’는 앞의 문장에 대한 설명이며 뒤에 화제나 사건을 도입하지 않는다.

아래 ‘来车了’가 출현하는 (7a)와 (7b)는 각각 화제-도입, 사건-도입을 반영하는 예문이다.

- (7) a. “喂。来车了! 是那个家伙吗?” “不知道, 看看再说。”探员们屏气凝神, 注视着那辆从对面黑暗中驶来的汽车。这是一辆小型卡车。卡车的加速器被控制着, 顺着堤坝顶上的道路缓缓驶来, 然后, 在紧靠探员埋伏的草丛前停了下来。(森村诚一《野性的证明》)
 “어이, 차 왔어! 그 사람인가?” “나도 몰라, 좀 더 보고.” 요원들은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숨을 죽이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맞은편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차를 주시했다. 이것은 작은 트럭이었다. 트럭의 액셀러레이터가 통제되어 제방 꼭대기의 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온 후, 요원들이 매복한 풀숲 앞에서 멈춰 섰다.

- b. “娘的, 来车了。”乌龙也慌了手脚。(《读者文摘》1994)
 “아이구, 차가 왔네.” 오룡도 당황했다.

예문(7a)에서는 ‘来车了’가 등장한 후 차의 유형, 모양, 이동하는 모습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였다. 예문(7b)는 ‘来车了’로 인한 또 다른 사건을 담화맥락에 도입하였다. ‘来车了’의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 예문은 19.04%이고, 대부분의 ‘来车了’는 사건-도입 기능을 가진다. ‘来暖气了’의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 예문은 전체의 22.87%인데 ‘来电了’의 예문에서는 사건-도입 기능만 확인 가능하였다.

- (8) a. 厂长急得团团转。不知谁到宿舍一吆喝：来电了。当班的，不当班的，退休病休的，一起往车间跑。不到半小时，到了₂ 34人，纺机全部开动。(人民日报 1990-11-12)
 공장의 사장님은 급해서 찼찼했다. 누가 기숙사에 와서 “전기가 들어왔어요!”라고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근무 중인 사람, 근무하지 않는 사람, 퇴직한 사람, 병으로 휴식한 사람, 함께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30분도 안 되어 234 명이 도착하여 방적기가 모두 가동되었다.
- b. “嗨！终于来电了！”加莉娅高兴地扬起手，笑眯眯地与熟人打招呼。(人民日报海外版 2005-5-27)
 “안녕!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어요!” 갈리아는 기뻐하며 손을 들어 빙그레 웃으며 지인에게 인사를 했다.

예문(8a)에서는 ‘来电了’가 등장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작업장으로 뛰어간 일이 발생했다. 예문(8b)에서는 ‘来电了’가 발생한 후에 ‘갈리아’라는 사람이 기뻐하며 다른 지인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來·走에 속하는 ‘进水了’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 (9) a. 屋里进水了。大舅家也进水了。大舅帶了我妈妈一家三口，还有许多人家，都帶些铺的、盖的、吃的，住到附近山上去。
방안에 물이 들어왔다. 큰 외삼촌 댁에도 물이 들어왔다. 큰 외삼촌이 우리 엄마 가족 세 식구를 데려갔고, 또 많은 이들이 깔 것, 덮을 것, 먹을 것을 지니고 근처 산으로 올라갔다.

‘进水了’의 후행절 중에 ‘水’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은 거의 없고, 반면에 예문(9a)와 같이 사건-도입 기능이 반영된 예문은 상대적으로 많다. 예문(9a)는 큰 외삼촌 댁에 물이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 큰 외삼촌이 우리 엄마 가족 세 식구를 데리고 근처 산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두성분 ‘大舅家’는 화제이고 ‘进水了’는 서술어 초점으로 볼 수 있다. ‘大舅’는 앞의 단락에 등장하지 않은 정보이지만 ‘지식백과’처럼 이미 담화 참여자의 지식 창고에 저장되어 활성화된 성분이다. 따라서 앞의 담화맥락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도 특정한 공간 틀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大舅家’는 뒤의 단락에 대응성분인 ‘大舅’가 있다. 예문(9)는 문두성분의 연결(link)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7. 1. 3. 下(雨)류

‘下雨了’는 아래 예문(10)과 같이 화제-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문장을 21.43% 발견하였고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 (10) a. 下雨了。最初，雨点落得很慢，不慌不忙、一滴一滴的。但很快，六滴就变成了六十滴；然后是六百滴，再后就汇集成为瓢泼大雨。仿佛凝为一体的整个天空像个丰沛的喷泉，一泻而下。(弗吉尼亚·伍尔夫《奥兰多》)
비가 왔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매우 느리게 떨어졌고, 느긋하게, 한 방울씩 떨어졌다. 하지만 곧, 여섯 방울은 육십 방울로 변했다. 후에 육백 개의 방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억수 같은 비로 모이게 되었다. 마치 하나로 뭉친 듯한 하늘 전체가 흘러넘치는 분수처럼 쏟아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져 내린다.

- b. 下午，下雨了。细密的雨丝刷子似的从灰蓝的天幕渐次而下，待流淌到地上，已被工业区特有的烟尘，污得混浊而粘稠。(毕淑敏《看家护院》)

오후에 비가 왔어요. 촘촘한 빗솔처럼 회청색 천막에서 점차 내려와 땅으로 흘러내려 공업 구역 특유의 연기와 먼지로 더러워져 탁하고 끈적끈적해져요.

예문(10)에는 ‘下雨了’가 등장한 다음에 비의 모습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문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묘사는 소설 주인공의 심리적 행동과 관련된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 (11) a. “你不要急呀，对不起。…讨厌，下雨了。”K伸手在脸上抹一把，又仰脸试一到底有没有雨。(茅盾《腐蚀》)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싫어, 비가 왔어.” K는 손을 뻗어 얼굴에 한 번 바르고, 다시 얼굴을 씻히고 비가 오는지 시험해 보았다.

또한 ‘下雨了’의 사건-도입 기능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문(11)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로 인해 주인공 ‘K’가 얼굴을 씻히고 비가 오는지 시험해 보는 행동을 한다. 이 맥락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 (12) a. 下雨了。瓦斯科夫抱起丽达，吃力地向林子深处走去。“热妮亚牺牲了！”醒过来的丽达第一句话就问热妮亚。瓦斯科夫点点头：“我们什么都没了，枪没了，子弹没了，现在连热妮亚也没了。”“一下子……就死了？”“一下子。”瓦斯科夫神情极度沮丧，他不知道该往哪儿走，也不知道该干什么去，只是不停地走着，走着。绵绵细雨，飘飘散散，落在瓦斯科夫身上。

비가 왔어요. 바스코프는 리다를 안고 숲 깊은 곳으로 힘겹게 걸어 갔다. “제니아가 희생했어!” 깨어난 리다의 첫 번째 말은 제니아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바스코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총도 없어, 총알도 없어, 지금은 제니아도 없어.”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바스코프는 매우 우울해 보였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 보슬비가 흩날리며 바스코프에게로 떨어졌다.

대부분 경우 ‘下雨了’는 예문(12)와 같이 단지 이야기가 일어나는 배경 환경을 제공하거나 묘사하는 것이다. ‘보슬비가 흩날리며 바스코프에게로 떨어졌다’라는 묘사는 주인공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7.1.4. 增·減류

增·減류의 예문들은 바이두, 소호, 구글 등 웹 페이지에서 검색하면 ‘VN了’ 형식 ‘少钱了’, ‘漏字了’, ‘缺劳力了’ 등이 주로 복문의 시작절에 나타난다.

- (13) a. 余额宝里突然少钱了, 怎么办? (百度·投资理财)⁸³
위어바오에 갑자기 돈이 적어졌어, 어떡해?
b. 书法作品中漏字了, 该怎么补救? (百度·小二读书)
서예 작품에 글자가 빠졌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이러한 복문에서는 ‘少钱了’、‘漏字了’가 출현한 다음에 N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주로 ‘少钱了’、‘漏字了’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위의 문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 예문(14)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 (14) a. 余额宝里突然少钱了, 赶紧查询交易记录呀!
위어바오에 갑자기 돈이 적어졌으니, 빨리 거래 기록을 조회하세요!
b. 书法作品中漏字了, 处理的方式一般是重写作品, 或者直接在左侧补上这个字。

83) 위어바오(余额宝)는 쇼핑, 결제 등에 사용하는 온라인 현금 관리 도구이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서예 작품에서 글자가 빠진다면 보통 새로 쓰거나 왼쪽에 이 글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이 사건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15a)에서 ‘他家缺劳力了’로 인해 ‘你还得上门义务劳动’라는 사건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예문(15b)에서 ‘柜员机也缺钱了’가 사건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居然拿不出钱’은 단지 앞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 (15) a. 他家缺劳力了, 你还得上门义务劳动。
그의 집에 노동력이 부족하면 당신은 의무적으로 일하러 가야 해요.
- b. 年底到了, 柜员机也缺钱了, 居然拿不出钱。
연말이 되니, 현금인출기에 돈이 모자라, 뜻밖에도 돈을 찾지 못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生·死, 来·走, 기상 등 부류에서는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의 사용 빈도가 소멸을 나타내는 동사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增·减류는 위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출현을 나타내는 ‘多N了’ 관련 예문이 아주 드물다. 검색 결과 단 두 문장만 찾을 수 있었는데 하나는 노래 제목인 ‘多钱了’^[酷狗网-酷狗音乐]이고, 다른 하나는 ‘现在多钱了’^[百度贴吧-周村吧]이다. 따라서 후행절을 통해 ‘多钱了’의 담화 기능을 관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7.1.5. 建·拆류

앞서 언급했듯이 建·拆류의 예문들은 모두 사전에 나온 문장을 바탕으로 가공한 것이다. 이 분류의 문장들은 코퍼스에서는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 바이두와 같은 웹 페이지에서 검색하면 ‘VN了’ 형식인 ‘修路了’가 주로 뉴스 제목으로 나타난다.

- (16) a. 修路了! 修路了! 永清这个村修路了! (永清简讯 22-5-20)
도로가 건설되었다! 도로가 건설되었다! 영청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졌다!
- b. 修路了。解放路修路了。(腾讯视频 00:22)
도로가 만들어졌다. 해방로에 도로가 만들어졌다.
- c. 你家门口修路了吗? (百度新闻 21-3-12)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졌나요?
- d. 家门口修路了, 村民们开心了。(六安新周报 22-3-14-20:00)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문두 위치에 ‘해방로, 영청마을’과 ‘집 앞’이라는 장소 성분이 있기에 도로를 짓는 행위자의 출현이 억제되었다. 예문(16d)에서는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졌다’라는 사건으로 인해 ‘마을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는 사건이 나타났다. 따라서 ‘VN了’ 은현문 ‘家门口修路了’는 ‘사건-도입’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7.3.6. 破·裂류

제 4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破·裂류에 속하는 은현문들은 ‘裂縫了’, ‘炸口子了’ 등 몇 개의 예문을 제외하고는 ‘VN了’ 형식으로 쓰이기 어렵다.

- (17) a. 手心炸口子了, 买啥药啊? (百度)
손바닥에 금이 갔어, 무슨 약을 사야 되지?
- b. 脚底炸口子了, 怎么办?(百度)
발바닥에 금이 갔는데, 어떡하죠?

예문(17a), (17b)에서 모두 ‘炸口子’의 후행절에는 ‘口子’에 대한 서술이 없고 단지 그로 인한 행동에 대한 서술만이 있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 (18) a. 女子中学地下室的墙裂缝了, 所以他们叫我赶快去看看。(契诃夫《市民》)
 여자 중학교 지하실 벽에 금이 가서 빨리 가보라고 했어요.
- b. 蜡纸印乏了, 拆卸下来叫它休息休息; 版面裂缝了, 糊个补钉。(李英儒《野火春风斗古城》)
 원지 인쇄가 안 된다면 분해하여 좀 쉬고, 지면에 금이 가면 형질 조각을 덧붙여.

‘裂缝了’가 출현하는 경우 예문(18)과 같이 ‘사건-도입’의 기능도 많이 나타낸다. ‘裂缝’, ‘炸口子’ 등은 동사와 명사가 서로 매우 밀접하여 어휘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缝’, ‘口子’에 대해 서술하는 후행절이 거의 없다.

- (19) a. 天长日久, 风吹雨打, 房屋的避潮层损坏了, 砖墙裂缝了, 屋架腐烂霉坏了。(文汇报 2002-1-11)
 오랫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에 집의 습기 차단층이 손상되고, 벽돌 벽에 금이 가고, 프레임이 썩고 곰팡이가 슬었다.

그리고 예문(19a)처럼 ‘裂缝了’가 몇 개의 구절과 병렬하여 함께 집에 대해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7-1〉 ‘VN了’의 담화 기능

		화제-도입	사건-도입	기타
生·死류	长痘痘了	19.8%	80.2%	0
	死人了	8%	51%	41%
来·走류	进水了	10%	90%	0
	来客人了	27.1%	64.4%	8.5%
下(雨)류	下雨了	21.4%	17.9%	60.7%
增·减류	少钱了			
建·拆류	修路了			
破·裂류	裂缝了	0	64.5%	35.5%

‘VN了’ 은현문은 존현문에 속하지만, 존현문의 전형적인 담화 기능 ‘화

제를 담화 속에 도입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사건을 도입하는 기능은 매우 뚜렷하다. 기상류는 사건-도입보다 담화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增·減, 建·拆 등 부류에 관한 예문 ‘少钱了’, ‘修路了’의 수량은 많지 않기에 통계 처리하기 어렵지만 검색한 모든 예문을 분석한 결과 제목으로 출현하거나 후속 사건을 끌어내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도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주성이 떨어질수록 후속 글에서 화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사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기상현상에 관련된 ‘VN了’는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환경을 제공하거나 묘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JOHN arrived’, ‘JOHN called’와 ‘The PHONE’s ringing’을 다시 살펴보자. Lambrecht 에 의하면 ‘JOHN arrived’, ‘John called’는 화자가 담화에 지시체 ‘John’을 도입하는 제시문이고 ‘The PHONE’s ringing!’은 전화기를 담화에 지시체로 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보고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건-보고문은 사건 중심적 단정문이고 제시문은 실체-중심적 단정문이다. 즉 실체 출현인지 혹은 사건 출현인지에 따라 단정문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 (20) a. John arrived.
约翰到了。
존이 도착했다.
- a'. 约翰到了, 他一点儿也没有变啊, 还是那么年轻。
존이 도착했어요.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젊어 보여요.
- a". 约翰到了, 我们赶紧出发吧, 排队, 登记, 填申请书, 还有好多事儿呢。
존이 도착했어요. 우리 빨리 출발해요. 줄을 서고,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예문(20a) ‘John arrived’ 뒤에 후행절을 추가하면 (20a'), (20a")와 같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20a)의 후행절에는 대명사 형식으로 'John'에 대응되는 성분이 존재한다. (20a")의 후행절에는 'John'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존이 도착했다'로 인한 일련의 행동을 서술한다.

- (21) a. John called.
约翰打电话了。
존이 전화했다.
- a'. 约翰打电话了, 但是神秘秘的, 说了什么一句也不告诉我们。
존이 전화를 걸었지만, 비밀스럽게도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 a". 约翰打电话了, 女朋友这下应该会消气了吧?
존이 전화를 했으니 여자친구가 이제 화가 풀렸겠지?

예문(21a)의 'John called' 뒤에 후행절을 추가하면 (21a'), (21a")와 같다. (21a")의 후행절에는 'John'이 등장하지 않는다.

- (22) a. The Phone's ringing!
电话响了/来电话了!
전화가 울리고 있어요!/전화 온다!
- a'. 电话响了。铃声在整个楼道里回荡, 刺耳, 响亮。
전화가 울렸다.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서 귀에 거슬리고 우렁찼다.
- a". 电话响了。怎么没一个人接电话?! 还得我这个老人家去啊?!
전화가 울렸어.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 나 같은 노인이 가야 돼?!

예문(22a) 'The Phone's ringing!' 뒤에 후행절을 추가하면 (a')처럼 전화기 소리에 대해 계속 진술할 수도, (a")처럼 다른 사건을 도입할 수도 있다.

문장의 담화 기능을 판단할 때 과연 논항과 동사의 의미적 특성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위의 몇 가지 예문을 통해 논항과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 동사의 자동성과 타동성 외에도 담화맥락의 양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2. ‘来客人了’와 유사구문의 담화 기능 비교

Li & Thompson(1989:117)에서는 “(23a), (23b)와 같은 문장은 담화 중에 비한정 명사구를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23) a. 进来了一个人。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b. 下雨了。
비가 온다.

따라서 Li & Thompson 은 ‘수량사 + 명사’와 맨명사의 형식인 은현문은 같은 담화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을 잘 파악하려면, 전형적인 은현문인 ‘V了 XN’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VN了’ 은현문의 상위구조의 기능을 충분히 알아야 ‘VN了’ 은현문이 어느 정도 그에 근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예문 ‘来客人了, 客人来了, 来了 X客人’의 기능을 비교하여 연구할 것이다.⁸⁴⁾

7.2.1. ‘来了X客人’의 예문 분석

앞서 ‘Once there was a wizard. He was very wise, rich, and was married to a beautiful witch.’라는 문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문장의 앞절의

84) ‘来了 X客人’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아주 방대하기에 주로 ‘V了+수량사+客人’ 형식을 가진 예문을 살펴볼 것이다.

명사와 뒷절의 대명사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Once there was a ~'는 일단 어떤 지시체를 올려놓고, 다음 절에서 이 지시체에 대해 서술하게 한다. '来了 X 客人'도 'Once there was a ~'처럼 먼저 지시체를 초점으로 제시한 다음에 뒷절이 주제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1) 화제-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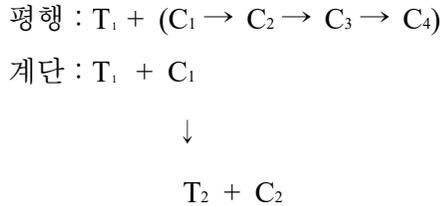
① 영 형식 대응: 영 형식 대응은 높은 화제성을 지닌 형식이다. 예문 (24) '来了 X 客人' 형식으로 도입된 정보인 '七八个人'은 후속 맥락에서 영 형식 대응을 선택한다.

(24) a. 其实你要什么都没有, 除了已经快穷病了的人之外, 谁也不会来这里吃饭。奇怪的是, 今天这里却来了七八位客人。看来非但不穷, 而且都很有气派。七八个人都好象是约了的一样, 一到中午, 就从四面八方赶来了, 赶路却很急, 可是彼此间却又偏偏全不认得。七八个人坐在一间东倒西歪的破屋子里、几张东倒西歪的破凳子上……(古龙《拳头》)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곧 가난에 허덕여 죽어가는 사람을 빼고는 그 누구도 여기에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곳에 일곱, 여덟 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을뿐더러 모두 매우 품위가 있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약속을 한 듯이 점심이 되자 사방팔방에서 한 곳으로 모였으며 길을 재촉하고 매우 급해 보였으나,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일곱, 여덟 명이 곧 무너질 듯한 작고 낡은 집에 모여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후진 결상 위에 걸터앉아 있다...

영 형식 대응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빈도가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방금 청자에게 소개된 새로운 정보 성분은 쉽게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여 화제가 된다. 청자는 일반적으로 그 성분에 대한 추가 서술이나 묘사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화제 확장하는 방식은 '계단식 확장'이다. 陈平(1987:151)에서는 Sgall et al.(1986:58)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평행

(平行)과 계단(层继) 두 가지 화제 확장형식을 언급했다.



〈그림7-1〉 화제의 확장 방식

평행 확장은 확립된 주제를 놓고 계속 진술하는 것이고, 계단 확장은 이전 문장의 초점 정보 성분을 새로운 화제로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위의 예문의 화제 확장하는 방식이 계단적인 것이다($T_1 \rightarrow C_1 \rightarrow T_2 \dots$).

② 명사 형식 대응 : 명사 형식 대응 역시 도입하는 실체의 높은 화제성을 반영한다. 명사 형식 대응은 ‘来了 X 客人’의 대응형식이 20.4%를 차지하며, 영 형식 대응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간 낮다.

(25) a. 2001年12月12日, 风雨交加, 寒气袭人。江西省南昌县麻丘镇瑶湖畔来了一批特殊的客人——南昌市人大代表南昌县第二小组的代表。寒冬腊月, 代表们来到瑶湖干什么呢? 代表们正在开展一季度一次的市人大代表小组活动。(人民日报 2002)

2001년 12월 12일, 바람이 불고 차가운 기운이 사람을 덮치는 그 날이었다. 강서성 남창현 마구전 요호 호반 주변에 어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바로 남창시 인민대표인 남창현 제 2 대표 팀의 팀원들이었다. 엄동설한인 선달에 인민대표들이 이곳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보니 인민대표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시 인민대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번 분기는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예문(25) 앞절의 ‘一批特殊的客人——南昌市人大代表南昌县第二小组的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代表’와 뒷절의 ‘代表们’은 모두 명사 형식으로 같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문과 같이 은현문에 도입된 정보인 ‘X 客人’이 바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문장이나 몇 마디 후 앞의 은현 실체와 멀리서 서로 호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26) a. 浦江小学二年级3班班主任徐敏家里,昨天来了位小客人——15岁的孤儿咪咪。中午,热气腾腾的菜肴端上桌子,徐老师还悄悄地从房间里捧出一盒大蛋糕:“10月29日是咪咪15岁生日,今天我们全家一起提前给她过生日!”面对这真情一幕,毫无心理准备的咪咪一下子惊讶得张大了嘴巴,继而,泪水扑簌簌夺眶而出。多少年了,早已忘记了自己生日的咪咪,重又感受到家的温馨。咪咪出生两个月,母亲便离家出走,相依为命的父亲身体不好又无一技之长……(文汇报 2004-10-3)

포강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서민의 집으로 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15살인 고아 미미였다. 점심이 되자 식탁 위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고 서선생님은 조용히 안방에서 큰 케이크를 안고 나왔다. “10월 29일은 미미 학생이 15살이 되는 날이다. 오늘 우리 가족이 이 자리를 빌려 미리 미미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복 속에 마음의 준비가 안된 미미는 놀라움을 머금지 못하고 입을 짹 벌리고 있다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생일을 잊어버린 미미는 다시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의 따뜻함을 되찾게 되었다. 미미가 태어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엄마가 집을 떠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었다.....

예문(26)에서 ‘来了位小客人’이 나온 후에 ‘小客人’이 바로 다음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고 장소 성분에서 나타나는 ‘徐老师’가 먼저 후행절의 화제가 된다. ‘客人-咪咪’는 다음 맥락에서 확장되었다. 이런 ‘VN了’ 은현문의 화제-도입의 방식은 T₁→C₁ T₂…… T₃과 같다.

- ③ 대명사 형식 대응 : 대명사 형식 대응은 ‘来了 X 客人’의 대응형식의

15%를 차지하며, 영 형식 대응, 명사 형식 대응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대명사 대응에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대응도 포함되어 있다. 예문(27)의 인칭대명사 ‘他们’은 ‘三位客人’을 가리키고, 예문의 지시대명사 ‘这’는 ‘一位特殊的客人’을 가리킨다.

- (27) a. 在云云和雨雨离开S市不久, 东建公司来了三位客人。他们从北京来的, 是国家审计署驻华兴审计局。(胡小胡《太阳雪》)
운운과 우우가 S시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건회사에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북경에서 왔고 국가회계감사기구소속인 화흥심사국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 b. 今天, 大运会新闻中心里来了一位特殊的客人——一只活泼可爱的小“松鼠”, 路过的人纷纷与之合影。这是二零零五年澳门东亚运动会吉祥物——“柏柏”。(人民日报 2001-9-1)
오늘 대운회 신문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바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람쥐였다. 지나가는 손님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람쥐와 기념사진을 찍기에 정신이 없었다. 이 다람쥐가 바로 2005년 마카오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인 ‘버버’였다.

화제 확장하는 방식은 예문(28)과 같은 경우도 있다.

- (28) a. 清华大学胡鑫尧教授家中来了一位特殊的客人——吉林市城市客运管理处处长窦焕财。他用到北京出差的机会专程赴教授家中致谢, 并将近年来吉林市出租车行业加强精神文明建设所取得的成绩向教授一一汇报。一个北京的教授, 何以与东北边城的出租车行业有如此的“上下级”关系? 事情还得从3年前说起。(人民日报 1996-4-15)
청화대학교 호흠요교수님의 집에 어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길림성 도시 운수 관리책임자 두환재였다. 그는 북경으로 출장간 김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교수님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길림시 택시운수업계가 정신문명건설에서 얻은 성과를 교수님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북경의 교수가 어떻게 동북 태두리 도시의 택시운수업계랑 이러한 상, 하 계급 관계를 이루었을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3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은현문 ‘来了 X 客人’은 ‘一位特殊的客人’라는 화제를 도입하지만, 몇 마디 후에 ‘胡鑫尧教授’가 다시 화제가 되고 ‘一位特殊的客人’이 사건 참가자가 되었다. 즉 이 은현문의 장소 문두성분 ‘清华大学胡鑫尧教授家中’에 출현하는 ‘胡鑫尧教授’가 후행절의 화제가 된다. ‘来了 X 客人’가 화제를 도입하고 확장하는 방식은 $T_1 \rightarrow C_1 \quad T_2 \dots T_3 \dots$ 형식과 같다. 사실 $T_1 \rightarrow C_1 \quad T_2 \dots T_3 \dots$ 형식과 $T_1 \rightarrow C_1 \quad T_2 \dots T_3 \dots$ 형식은 모두 평행식과 계단식 두 가지 형식에서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文汇报 2004-10-9
 标题: 刘翔 : 去欧洲分享黄金 제목: 류상, 유럽에 가서 황금을 나누다.
 ■实习生王星: 昨天是国庆长假后的第一天, 也是各大高校重新开学的日子。一大早, 上海体育学院里就来了3位特殊客人——雅典奥运会男子110米栏冠军刘翔、教练孙海平以及雅典首金获得者杜丽的教练王跃舫。雅典归来后各方活动不断的刘翔, 昨日踏入大学校园和同龄人面对面。……
 실습생 왕성: 어제는 국경절 연휴의 첫날이자 여러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다. 아침에 상하이체육대학에 3명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바로 아테네 올림픽 허들 남자 110미터 세계챔피언 류상, 그리고 코치 손해평 및 아테네 첫 금메달을 따낸 두리의 코치 왕약방이었다. 아테네에서 돌아온 류상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냈다. 어제는 대학으로 가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文汇报: 2004-5-28
 标题: 党和政府惦记你们 제목: 당과 정부가 여러분을 염려하고 있다.
 副题: 温家宝在沪看望劳模侧记 부제목: 원가보께서 상하이 근로 모범자를 방문
 ■记者贺劲松: “5月24日傍晚, 我们家来了一位特殊的客人—— 国务院总理温家宝。他和我说了好多贴心话, 还送了我一束漂亮的鲜花。” ……
 기자 하경송: “5월24일 저녁 무렵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국무원 총리 원가보였다. 그는 나에게 아주 많은 따뜻한 말을 건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쁜 꽃다발도 선물해주었다. ……

흥미로운 것은 ‘来了 X 客人’의 화제-도입 기능은 뉴스, 특히 짧은 뉴스(简讯)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23 개의 뉴스에 나온 예문을 정리한 결과: 화제-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예문은 83 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사의 첫 번째 문장은 은현문 ‘来

了 X 客人’이다. ‘来了 X 客人’은 ‘三位特殊客人’, ‘一位特殊客人’을 도입하고 새로운 담화의 화제가 된다.

(2) 사건-도입

은현문이지만 전체적으로 화제-도입 기능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29)에서 ‘一位重要的客人’는 후행절의 화제가 되지 않는다.

- (29) a. 猴脑宴呼家堡来了一位重要的客人。早上，当得知客人要来的准确消息时，呼伯沉吟了一会儿，吩咐说：“让国庆来一趟，替我陪陪客人，这对他有好处。”可是，根宝打了很长时间的电话，却一直没有跟呼国庆联系上，呼国庆的手机关了。呼伯听了徐根宝的汇报后，摇了摇头，什么也没有说。显然，老头心里不大高兴。于是，根宝忙说：“我再跟他联系。”然而，一直等到中午，客人都到了，还是没有跟呼国庆联系上。(李佩甫《羊的门》)

후뇌연호가보에 어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른 아침, 손님이 도착할 시간을 알아내고 호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래 사람에게 말했다. “국경더러 오라고 하거라, 나 대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그에게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근보가 호국경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호국경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호백이 서근보의 보고를 듣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어르신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근보가 급하게 말했다. “제가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점심이 되어서 손님이 모두 도착했는데도 호국경을 찾지 못했다.

‘来了 X 客人’라는 사건의 출현으로 인해 ‘让国庆来一趟，替我陪陪客人’, 그리고 ‘根宝打了很长时间电话’ 등 일련의 사건이 생겼다. ‘一位重要的客人’은 후속 맥락에서 담화의 새로운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참여자 신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 확장 방식은 $T_i \rightarrow C_i$ 사건1 사건2 과 같다.

(3) 기타

아래 예문(30)에서는 ‘店里来了许多客人’를 통해 새로운 화제나 사건을

도입하지 않는다.

- (30) a. 下午茶时间将近, 店里来了许多客人。祥子和彩面对面坐在靠近窗的位置上, 一面俯视着街上的人潮, 一面交谈。“很抱歉把你叫了出来。”彩轻轻摇头表示不介意。(龙居由佳里《等你说爱我》)
 오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상자와 채는 서로 마주보며 창가에 위치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창밖에 오가는 인파를 살펴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미안하네요. 이렇게 당신을 불러내서.” 채는 머리를 살금살금 저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店里来了许多客人’은 단지 주인공 ‘祥子’와 ‘彩’가 담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이다. 이런 은현문은 이야기 분위기에 어느 정도 렌더링이 되지만 연극 무대의 배경-장면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줄거리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客人’는 단지 주인공의 담화공간에 우연히 출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方梅(2005:168)에서는 ‘우연히 나타나는 정보(偶现信息)’라고 하였다.

- (31) a. 前总督显然十分富有, 为邦德和他的情人服务的仆人就有一大群。客厅里已先来了二十多位客人。隔壁是一间宽敞的起居室, 透过巨大的凸形窗可俯瞰极尽奢华的花园。(雷蒙德·本森《末日危机》)
 전임총독은 분명히 부자였다. 왜냐하면 방덕과 그의 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이미 이십여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옆방은 널찍한 침실이고 거대한 ‘凸’자형 창문을 통해 화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위의 예문(31)에서 ‘来了 X 客人’도 화제-도입 혹은 사건-도입하는 기능이 아니라 단지 발화 현장의 배경 공간을 묘사하는 것이다.

〈표7-2〉 ‘来了X客人’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来了X客人				
화제-도입			사건-도입	기타
영 형식 대응	명사 대응	대명사 대응	38.2%	1.4%
25%	20.4%	15%		
60.4%			39.6%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맥락 속의 한 문장은 사건의 진행, 인물의 활동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사건을 배열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来了X客人’의 ‘X客人’은 후속 맥락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은현문 ‘来了X客人’은 연극에서 주인공을 끌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도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담화 환경이나 우연히 나타나는 정보도 제공할 수도 있다.

7.2.2. ‘来客人了’의 예문 분석

(1) 화제-도입

‘来客人了’는 은현문으로, 은현문의 기능을 이어받아 화제-도입 기능을 반영하는 문장이 27.1% 발견되었다.

- (32) a. “棠珍！下楼来！家里来客人了！是你了洲大哥，还有一位咱们宜兴同乡徐先生！”(潘宁东《回首碧雪情》)
 “당진! 내려와! 집에 손님이 왔어! 요주오빠, 그리고 우리 의흥의 동향 서선생이야!”
- b. 27日我推开他的门，才发现原来他家真的来客人了。这小子，我想，倒底孩子气。客人是个十分魁梧的男人，满脸是刺猬似胡子，裹着旧军大衣，脚上穿着一双高帮套鞋，一副流浪画家的打扮，倨傲地坐在用一块木板充当的茶几旁边。”(商略《幸福的鸭子》)
 27일에 내가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집에 정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손님은 몸이 건장한 남자였다. 온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였고 큰 군인용 잠바로 몸을 감싸며 발에는 한 켤레의 고팡토(高帮套) 신발을 신었다. 얼핏 보아도 방랑자 치장이었지만 거만한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자세로 나무판자로 만든 차탁 옆에 앉아 있었다.

예문(32a)에서 ‘客人’은 후속 맥락에서 영 형식 대응으로 화제가 되었다. 예문(32b)에서 ‘客人’은 후속 맥락에서 명사 대응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총 6 개의 절이 ‘客人’에 대해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 이 설명의 방식은 앞서 언급했던 $T_1 \rightarrow C_1 \text{ --- } T_2 \dots$ 형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来客人了’는 화제-도입 기능이 ‘来了 X 客人’처럼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客人’에 대해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제-도입 기능이 나타나는 예문들은 모두 1~2 개 문장 끝맺음 후에 ‘손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33) a. 有一天, 鲍十家来客人了, 是鲍十爱人的外地同学, 是母子俩。鲍十没地方住, 吃了晚饭, 就到艺校来了。他想, 正好可以见见小晨。(黄蓓佳《追你到天涯》)
- 어느 날 포십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다. 바로 포십 와이프의 외지 동창이고, 모자였다. 포십은 머무를 자리가 없어서 저녁을 먹고 예술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마침 이 기회에 소천을 만나볼 생각이었다.
- b. “你走的那天晚上, 家里来客人了。就是跟你照相的那位王先生, 你外婆托他给你带了好多东西, 还有给我的呢。(湛容《梦中的河》)
- 당신이 떠난 그날 밤에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당신과 사진을 찍었던 왕선생님이었어요. 외할머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라고 많은 물건을 보내오셨지요. 물론 그 물건 중에 저에게 주는 물건도 있었어요.

예문(33a)는 담화의 중심에서 빠르게 옮겨갔고, 예문(32b)는 사건의 참여자로 남아 있다. 이런 형식은 $T_1 \rightarrow C_1 \text{ --- } T_2 \dots \text{ --- } T_3 \dots$ 이다.

때때로 새로운 화제의 도입은 한 사람의 서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문(34a), (34b)의 대화에는 ‘谁’, ‘什么客人’, ‘哪个’ 등 의문사를 통하여 화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 (34) a. “你赶快回到你的房间去, 换上一身新衣服。我们家里来客人了!”
 “什么客人?”
 “舅母娜达里雅·彼得罗芙娜刚刚坐火车来了。”
 “哪个娜达里雅·彼得罗芙娜?”
 “就是我舅舅谢敏·费多雷奇的妻子。你不认识她。她是个十分善良的好女人。” (契诃夫《香槟无赖汉的故事》)
 “빨리 네 방으로 돌아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 집에 손님
 왔어.” “어떤 손님이에요?” “외숙모 나다리야·페트로브나가 방금 기
 차를 타고 왔어.” “어느 나다리야 페트로브나요?” “바로 내 외삼촌
 세민·페도레치의 아내야. 너는 그녀를 모르지만 매우 착하고 좋은
 여자야.”
- b. “爸, 家里来客人了, 妈妈叫您回去。”
 “客人? 谁?”
 “……嗯, 嗯, 辣椒店家的叔叔呀, 张宣他爸。”
 (金河仁《再见妈妈》)
 “아빠,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엄마가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손님?
 누구?” “…… 음, 음, 고추 가게 아저씨, 장선의 아버지예요.”
- c. 老徐道: “家里来客人了。”
 “什么客人? 谁找我?”
 “还会是谁呢!”……
 老徐告诉他, 白小嫻吃中饭的时候就来了, 进不了门……
 (格非《江南三部曲》)
 서씨는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했다. “어떤 손님? 누가 나를 찾아
 왔지?” “또 누가 있겠어!” 서씨는 백소현이 점심을 먹을 때 와서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예문(34a)의 대화에서는 발화자 A가 ‘来客人了’를 말했지만 ‘손님’에 대해 바로 소개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상대방 B의 질문 ‘누구, 어떤 손님’이라는 질문을 통해 ‘손님’에 대한 서술을 이끌어 낸다. 즉,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것과 이 실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A, B 두 대화자의 대화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런 형식은 $T_1 \rightarrow G \leftarrow T_2 \dots$ 형식과 같다.

- (35) a. “来客人了?”看到千加子回来了, 直子问道。
 “是和服店的。给惠子姐送外出用的和服来的。”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川德康成《风中之路》)

츠카코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오코가 물었다, “손님이 오셨어요?”
“기모노 옷가게에서 사람이 왔어요. 게이코언니에게 외출 때 입을 기모노를 배달하러 왔어요.”

‘谁, 什么, 哪个’ 등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화자 A가 질문으로 ‘손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B가 손님을 소개하며 ‘손님’도 화제가 된다. 예문(35a)에서 화자 A는 ‘손님이 오셨어요?’라고 말했고, B는 영 형식 대응으로 ‘손님’에 대해 소개했다.

- (36) a. 3月中旬的一天下午, 驻榕某部二连战士汪涛刚从训练场归来, 就听通信员说:“老家河南来客人了。”他欣喜不已, 进屋一看, 原来是老同学李某。小汪与李某系同村人。从小学到初中, 他俩又是同班同桌, 彼此以兄弟相称, 感情甚笃。(福建日报 1992-4-23)
3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 주영 어떤 군대 2연 전사인 왕도가 훈련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통신원이 “고향 하남에서 손님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뻐서 집에 들어가 보니 옛 동창 이씨였다. 왕씨와 이씨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두 사람은 같은 반 짝꿍이자 서로 형제로 어울리며 매우 돈독했다.
- b. “啊, 又来客人了。”女主人说着到饭厅去。和女主人脚前脚后走进客厅的你猜是谁? 原来是列位熟识的越智东风。(夏目漱石《我是猫》)
“아, 또 손님이 왔어요.” 안주인은 거실에 가자고 말했다. 안주인과 앞발을 딛고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될까?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월지동풍이었다.

새롭게 도입된 ‘客人’에 대해 소개할 때 후행절에 ‘原来是...’가 자주 등장한다. 예문(36a), (36b)에서는 ‘原来是...’를 통해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강조하였다.

- (3-26) a. 有一天, 鲍十家来客人了, 是鲍十爱人的外地同学, 是母子俩。(黄蓓佳《追你到天涯》)
어느 날, 포십집에 손님이 왔는데, 포십 아내의 외지 동창이었고,

모자였다.

- b. 来客人了, 有七个人。(余华《许三观卖血记》
손님이 왔어요. 일곱 명이에요.

위의 예문들을 통해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 ‘来客人了’는 주로 문학작품에 나온 복문의 시작하는 부분과 대화문에 나온 단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장에서 刘月华(2001:866)의 병렬복문의 하위부류 ‘분-합 관계(分合关系)’복문, 그리고 黄伯荣·李炜(2016:100)의 ‘해석-설명’이라는 복문을 언급하였다. (3-26)과 같은 화제-도입 기능을 가진 ‘来客人了’가 복문 시작 위치에 나타날 때 대부분 ‘분-합 관계’ 복문이나 ‘해석-설명’ 복문에 속한다.

(2) 사건-도입

‘来客人了’는 ‘비 화제-도입’ 기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런 예문은 전체의 72.9%를 차지하며 경향성이 분명하고 유형도 다양하다.

- (37) a. 正说着, 来客人了, 谷秀花赶忙起身招呼。(人民日报 2003)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곡수화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손님을 맞이했다.
b. 家里来客人了, 快准备饭菜。(韩涛《花溪沉铃录》)
집에 손님이 왔으니 빨리 음식을 준비해.

예문(37a)의 ‘来客人了’의 후행절에서 ‘客人’은 누구인지,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来客人了’라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谷秀花赶忙起身招呼’라는 사건이 나타났다. 예문(37b)에도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사건으로 인해 ‘요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나타났다.

- (38) a. 我家来客人了, 妈妈叫我给他们表演个节目!(哔哩哔哩[bilibili]·王一博)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그들에게 연주를 보여 드리라고 하셨다!

- b. 家里来客人了, 金毛表演各种节目逗他们开心。(好看视频)
 집에 손님이 오자 강아지는 각종 묘기를 부려서 그들을 즐겁게 했다.

흥미롭게도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의 제목에서도 이런 형식을 가진 문장이 많이 사용된다. 예문(38a), (38b)는 이런 기능을 매우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 (39) a. 平日准备着, 来客人了, 切一盘子皮冻, 现成的一个凉菜, 既方便又实惠。(陆步轩《屠夫看世界》)
 평일에 준비할 때, 손님이 오면, 피동(음식 이름) 한 접시를 썰고, 기성품 냉채 하나를 써는 데 편리하고 저렴하다.
- b. 如果你的家里来客人了, 不妨先点上些淡淡的香薰, 但千万别用化学香料, 会适得其反。(微博)
 만약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선 디퓨저를 놓아 은은한 향을 내는 편이 좋다. 화학성 향료는 손님이 싫어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 c. 譬如来客人了, 点名要喝的茶叶偏偏没有了, 情急之下, 无论是换一种茶叶, 或者其他饮料, 还是上街去买, 反正调用各种手法, 只有一个目的——遂客人的愿。(人民日报 1998)
 예를 들어 손님이 왔는데 하필 손님이 마시고 싶은 차잎이 떨어졌을 때, 급히 다른 차잎이나 다른 음료로 바꾸든 아니면 거리로 나가 사든지 어쨌든 각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위해서이다.

‘如果...’, ‘譬如...’ 등과 같은 가정적 복문(39a), (39b)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진 ‘来客人了’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정문 외에 예문(40a), (40b)와 같은 조건복문, 예문(40c)와 같은 양보복문 등에도 ‘来客人了’가 등장한다.

- (40) a. 我家只有来客人了, 我才勉强收拾一下。(对话)
 우리 집에 손님이 와야 겨우 치울 수 있어요

- b. 在农村, 只要家里来客人了, 一定盛情款待, 即使条件不好也要让客人吃好! (百度·萌萌玩具 1-17 23:10)
시골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꼭 잘 대접하고, 여건이 안 좋더라도 잘 먹이도록 해요!
- c. 赶紧动手学起来吧, 以后就算家里只剩下鸡蛋, 即使是家里来客人了, 你也不用担心。(百度·好酒云观察 2021-08-12 16:59)
빨리 배우기 시작해요. 앞으로 집에 달걀만 남아도, 집에 손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이든 조건이든 양보이든 N 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이런 명사는 제 6 장에서 확인불가한 심적 표상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来客人了’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끌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자는 손님이라는 신분만 알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 (41) a. 完了, 就赖了下床, 家里来客人了, 我怎么可以经过客厅去卫生间又不被他们看到啊。(微博)
망했어, 침대에 조금 누웠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 내가 어떻게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가면서 그들이 나를 못 보게 해?
- b. 旁边, 看她一边护理拉尔一边亲昵地和它拉家常: “瞧你那赖样儿, 来客人了, 端庄点行不行?”(人民日报 1997)
옆에서 그녀가 라엘을 간호하면서 친근하게 일상생활에 관하여 얘기했다. “저 꼴 좀 보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좀 단정하게 하면 안 되나요?”
- c. 蛋糕啊, 蛋塔, 批萨之类的, 材料你多留点, 下次家里来客人了, 就直接可以进烤箱了, 很方便的。(对话)
케이크, 에그타르트, 피자 등 재료를 많이 남겨두면, 다음에 집에 손님이 올 때 바로 오븐에 넣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해요.
- d. 华亮的办公室里还有一张床, 有时上边来客人了, 就当客房。(南强《幸运》)
화량의 사무실에는 침대 하나가 있는데, 가끔 손님이 오면 객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来客人了’가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예문 (41a~d)에서는 ‘来客人了’가 나타남으로 인해 다른 사건이나 상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客人’이 서술의 중심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 부분에 등장했던 ‘我’, ‘你’, ‘蛋糕啊, 蛋塔, 批萨之类的’, ‘华亮的办公室’ 등이 서술의 중심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来客人了’는 담화맥락의 주요 서술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복문은 크게 보면 평행식으로 화제를 확장하는 것이다.

(3) 기타

‘客人’는 후속 맥락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고 사건의 중요하지 않은 참여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42) a. 而在 41 名聋哑选手的房间里，主办方则为他们装上了特制的声光门铃。只要一按门铃，放在电视机上的彩色圆形转球就会不停地闪动，提醒选手“来客人了”。周日，记者在上海市职业培训指导中心比赛现场看到，所有的座位都根据残疾人各自不同的身高作了调整。
- 41 명의 청각 장애인 선수의 방에는 주최자 측에서 특별하게 소리빛 감지 벨을 설치했다. 누군가 벨을 누르기만 하면 TV 위에 놓여있는 칼라 원형구가 끊임없이 반짝이기 시작하여 선수들에게 “손님이 왔어요.”라고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일요일에 기자는 상해시 직업 연수 지도센터의 경기현장에서 모든 좌석에도 이미 장애인의 신장에 맞게 적당한 높이 조절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b. 叩开倪越家的门，5 个孩子不约而同地迎上来，先是好奇地问“你找谁”，尔后回头对着厨房直嚷嚷：“妈妈，妈妈，来客人了！”正忙着做晚饭的这 5 个孩子，其实只有那个叫琪坤的是她亲生的，其余 4 人都是失去双亲的两对孤儿。去年年底，39 岁的倪越专程到山东省济南农村，捐款 10 万元资助当地特困学生。当她得知还有两对孤儿因失去双亲而被寄养在单位时，萌生了将他们接到上海抚养的念头。
- 예월집의 문이 열렸다. 다섯 명의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달려나와 “누구를 찾으세요?”라고 묻고 나서 주방을 향해 “엄마, 엄마, 손님이 왔어요!”라고 소리를 쳤다. 저녁을 만들고 있었던 그녀의 다섯 명 아이 중 사실 오직 한 명만이 그녀가 직접 낳은 아이였다. 나머지 네 명은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작년 말에 39 살이었던 예

월은 일부러 산동성 제남의 어떤 농촌으로 찾아가 십만 원을 기부하여 그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다. 그때 아직 두 명의 고아가 부모를 잃고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먹고 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상해로 돌아갈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예문(42)에 나온 ‘来客人了’는 단지 ‘우연히 나타나는 정보’이다. 예문(42a)의 담화 화제는 41 명의 청각 장애인 선수이며, 예문(42b)의 담화 화제는 다섯 명의 아이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来客人了’의 예문 중 비 화제-도입 기능을 나타내는 예문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화제-도입 기능을 나타내는 예문의 빈도는 27.1%였다. 화제-도입 기능이 나타나는 경우 대명사 대응은 없고 영 형식 대응이 8.46%, 명사 대응은 18.64%를 차지했다.

〈표7-3〉 ‘来客人了’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来客人了				
화제-도입			사건-도입	기타
영 형식 대응	명사 대응	대명사 대응	64.4%	8.5%
8.46%	18.64%	0		
27.1%			72.9%	

‘来客人了’는 ‘来了 X 客人’처럼 연극에서 주인공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도입할 수도 있고, 단지 배경에 나타나는 엑스트라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건을 도입하는 기능이 더 많이 등장한다.

7.2.3. ‘客人来了’의 예문 분석

(1) 화제-도입

‘客人来了’의 후행절 중에 손님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客人来了’가 ‘화제-도입’이라는 기능을 거의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43) a. 客人来了。一个穿着风衣的，身材魁伟的叔叔，悄悄地来到了园子里。孩子们都认识，这是爸爸最受欢迎的客人，是爸爸的老战友。(人民日报 1957-8-22)
- 손님이 왔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덩치 큰 아저씨가 조용하게 정원에 왔다. 아이들은 모두 이 아저씨가 아버지가 가장 환영하는 손님이자 아버지의 옛 전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b. 在他吃饱饭后约半个小时，客人来了。就是比毕典菲尔特小三岁的僚友奈特哈特·缪拉一级上将。“哟！来得正好，缪拉提督。有没有帮我带来打奥贝斯坦的棍棒啊？”“很遗憾——”缪拉只有苦笑。(田中方树《银河英雄传》)
- 그가 배불리 먹은 지 약 30 분 후에 손님이 왔다. 그는 피디펠트보다 세 살 어린 동료 네이트·뮤라 일급 장군이었다. “요! 마침 잘 왔네, 뮤라제독, 오베스탄을 치는 몽둥이를 가져다 줄 수 있겠나?” “안타깝네요——” 뮤라는 쓴웃음만 지었다.

예문(43a)에서는 ‘客人来了’가 나타난 후에 명사대응형식 ‘一个穿着风衣的，身材魁伟的叔叔’로, 지시대명사 대응형식 ‘这’로 손님에 대해 진술했다. 예문(b)에서는 영 형식으로 ‘客人’을 대응했다.

(2) 사건-도입

예문(44a), (44b)의 ‘客人来了’의 후행절에서는 ‘客人’이 누구인지,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지 않는다. (44a)에서는 ‘客人来了’라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엄마가 그에게 예의 바르게 손님에게 인사하라고 하셨다는 일이 일어났다. (44b)에서는 손님이 온다는 사건이 나타나자 식당 안이 시끌벅적하게 되었다.

- (44) a. 客人来了，妈妈让他有礼貌地招呼客人，他就是不理不睬。(科技文献)
- 손님이 왔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손님에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 b. 客人来了，小餐馆里热闹起来了。(白帆《寂寞的太太们》)
- 손님이 오자 식당 안이 시끌벅적하게 되었다.

다음에 복문 중간 위치에 있는 ‘客人来了’의 관련 예문을 보자.

- (3-35) a. 咪咪还有点“人来疯”，它特别喜欢客人，客人来了，它总在桌上的茶杯和点心之间走来走去。(冰心《冰心全集(第八卷)》)
미미는 사람이 오면 더 흥분한다. 그는 손님이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손님이 오면 항상 테이블 위의 찻잔과 과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 b. 他是芦湖上的渔夫，客人来了，就放下钓船，或者在湖上赏花。(辻井乔《父亲的肖像》)
그는 노호의 어부로 손님이 오면 낚싯배를 내려놓거나 호수에서 꽃 구경을 한다.

여기서 ‘客人’은 복문의 화제가 아닌 단지 화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나 사태 중 하나이다.

- (45) a. 他又提高嗓门喊道：“季洪-伊万内奇，上这儿来。客人来了。”(伊凡·谢尔盖耶维奇·屠格涅夫《猎人笔记》)
그는 다시 “지홍·이바네치, 이리 와. 손님이 오셨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 a'. 客人来了，上这儿来。
손님이 오셨어, 이리 와.

시작 위치, 중간 위치뿐만 아니라 끝의 위치에 있는 ‘客人来了’도 사건-도입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문이 있는데 ‘客人来了’는 뒤에 있고 그로 인한 관련 사건은 앞에 놓여있다. 비록 사건 1 과 사건 2 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 도입으로 볼 수 있다. (45a')처럼 이 두 가지 구절의 순서를 바꿔도 자연스럽다.

(3) 기타

‘客人来了’의 예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존재한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 (46) a. 她发觉小郭侦探社像所心理医生治疗所。客人来了，坐下，诉苦，一个走了，轮到下一个，排队似的。(亦舒《寻芳记》)
 그녀는 소곽의 탐정사가 정신과 의사 치료소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님이 와서 앉아서 하소연하고,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오고, 마치 모두 줄을 서는 것 같다.
- b. 客人来了，拜过寿后，只吃碗寿面。(冰心《冰心全集·第七卷》)
 손님이 와서 생신을 축하하고 단지 장수면만 먹는다.

‘来了’는 ‘客人’이 진행하는 일련의 행동의 시작이고, ‘客人’은 이 일련의 행동을 통솔한다. 이런 ‘客人来了’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화제 ‘客人’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46a~b)와 같은 예문은 ‘来客人了’로 변용하지 못할 것이다.

〈표7-4〉 ‘客人来了’의 담화 기능 및 대응형식

客人来了				
화제-도입			사건-도입	기타
영 형식 대응	명사 대응	대명사 대응	84%	6%
3%	2%	5%		
10%			90%	

전체적으로 보면 ‘客人来了’의 사건-도입 기능이 나타나는 예문의 빈도가 가장 높고 이는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화제-도입 기능이 나타나는 예문의 빈도는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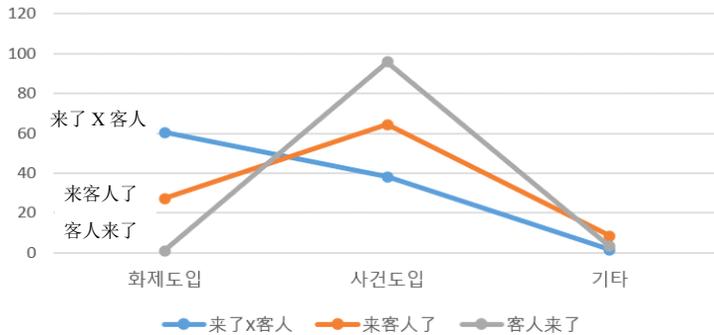
7.2.4. 세 가지 예문의 담화 기능 비교

이 부분에서는 위의 통계 결과와 설명을 정리하여 ‘来客人了, 来了 X 客人, 客人来了’의 담화 기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1) 화제의 출현빈도

전체적으로 보면 화제-도입, 사건-도입 기능이 이 세 문장에 반영될 때

빈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2〉 ‘来了X客人’, ‘来客人了’, ‘客人来了’의 화제-도입 기능

‘来了X客人’의 화제-도입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来客人了’의 화제-도입 기능은 전체의 1/4 을 차지하며 출현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서 문학류의 빈도가 가장 높다. 문학류의 예문만 살펴보면 화제-도입 기능을 나타내는 예문은 전체의 1/3 을 차지한다.⁸⁵⁾ ‘来了X客人’은 전형적인 은현문으로, 은현문의 주요 기능인 화제-도입을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모두 문장초점 구조이지만, ‘来客人了’는 은현문 문형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화제-도입 기능을 나타낸다.

(2) 화제의 지속성

지속성 특징을 살펴보면 ‘来了X客人’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한 후, 화제의 확장성이 상당히 강하며 화제 지속성은 모두 매우 길고, 대응 횟수도 매우 많다. 즉 ‘来了X客人’이 도입된 화제가 높은 지속성을 지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85) 报刊(18:3), 微博(33:2), 文学(42:13)

- (47) a. 今天这里来了七八位客人。
 (ZA)看来非但不穷, 而且都很有气派。
 (NA)七八个人都好象是约了的一样,
 (ZA)一到中午, 就从四面八方赶来了,
 (ZA)赶路却很急, 可是彼此间却又偏偏全不认得。
 (NA)七八个人坐在一间东倒西歪的破屋子里、几张东倒西歪的破凳子上,
 (ZA)你瞪着我, 我瞪着你,
 (ZA)身上都佩着刀剑,
 (ZA)眼睛里都带着敌意。
 (NA)七八个人每个人都要了一碗肉丝面, 半斤黄酒, 因为除了这两样外, 这地方根本没有别的。
 (ZA)可是谁也没有举杯, 更没有动筷子。
 (间隔 3 句)
 (PA)这些人为什么要到这里来?
 (间隔 1 句)
 (NA)午时已过去, 七八个人脸上都露出焦急之色,
 (ZA)却还是动也不动地坐着。
 (NA)忽然间, 马蹄声响, 响得很急, 七八个人都伸长脖子往外,
 (间隔 1 句)
 (PA)他们显然是在等人, 等的却不是这个人。

 오늘 여기에 일곱, 여덟 명 손님이 왔다.
 (ZA)보아 하니 가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기품이 있다.
 (NA)일곱, 여덟 명 모두 약속이 있는 것 같다.
 (ZA)정오가 되자, 사방에서 달려왔다.
 (ZA)급하게 왔는데 서로 전혀 몰라본다.
 (NA)일곱, 여덟 명이 낡고 너털너털한 방에 낡고 너털너털한 걸상에 앉아 있다.
 (ZA)너는 나를 노려보고 나는 너를 노려본다.
 (ZA)몸에 칼을 차고,
 (ZA)눈에는 적의가 서려 있다.
 (NA)일곱, 여덟 명 손님이 다 육수 국수와 황주 반 근을 주문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곳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ZA)그러나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고, 젓가락을 건드리지 않았다.
 (3 문장 간격)
 (PA)이 사람들은 왜 여기 왔을까?

(1 문장 간격)

(NA)오시가 이미 지났고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ZA)그러나 모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NA)갑자기 말 우는 소리가 매우 급하게 울려서, 손님들은 모두 목을 길게 빼고 밖으로 나갔다.

(1 문장 간격)

(PA)분명히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예문(47)에서 영 형식 대응, 명사 형식 대응, 대명사 형식 대응 등 형식을 통해 ‘客人’에 대한 서술이 16 번 확장되었다. ‘七八位客人’은 거의 전체 장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통계한 결과 ‘来了 X 客人’의 후속 맥락에서 ‘손님’에 대해 대응한 횟수는 평균 7 회이다.

(48) a. “棠珍！下楼来！家里来客人了！”

是你了洲大哥，

还有一位咱们宜兴同乡徐先生！”(潘宁东《回首碧雪情》)

“당진! 내려와! 집에 손님이 왔어!

(ZA)요주오빠,

(ZA)그리고 우리 의홍(지명)동향 서선생이야!”

b. 鲍十家来客人了,

(ZA)是鲍十爱人的外地同学，

(ZA)是母子俩。

포십 집에 손님이 왔는데，

(ZA)포십 아내의 외지 동창이었고，

(ZA)모자였다.

c. 他家真的来客人了。.....

(NA)客人是个十分魁梧的男人，

(ZA)满脸是刺猬似胡子，

(ZA)裹着旧军大衣，

(ZA)脚上穿着一双高帮套鞋，

(ZA)一副流浪画家的打扮，

(ZA)倨傲地坐在用一块木板充当的茶几旁边。

그 집에 정말 손님이 찾아왔네.

(NA)손님은 몸이 긴장한 남자였다.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ZA)온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였고 큰 군인용 잠바로 몸을 감싸며 발에는 한 켤레의 고향토 신발을 신었다.

(ZA)얼핏 보아도 방랑자인 치장이었지만 거만한 자세로 나무판자로 만든 차탁 옆에 앉아 있었다.

‘来客人了’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한 후 ‘来了 X 客人’처럼 긴 확장되는 경우가 없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48a), (48b)와 같이 손님에 대한 소개는 일반적으로 두세 가지 문장 안에 끝나며 가장 긴 확장은 예문(48c)와 같다. 전반적으로 통계 처리한 결과 ‘来客人了’의 후속 문장에서 ‘손님’에 대한 대응 횟수는 평균 2.8 회이다.

(49) a. 客人来了。

(NA)一个穿着风衣的, 身材魁伟的叔叔悄悄地来到了园子里。

孩子们都认识,

(PA)这是爸爸最受欢迎的客人,

(ZA)是爸爸的老战友。(人民日报 1957-8-22)

손님이 왔다.

(NA)트렌치코트를 입은 덩치 큰 아저씨가 조용히 정원에 왔다.

(PA)아버지가 가장 환영하는 손님이다.

(ZA)아버지의 옛 전우이다.

b. 客人来了。

(ZA)就是比毕典菲尔特小三岁的僚友奈特哈特·缪拉一级上将。

손님이 왔다.

(ZA)그는 피디펠트보다 세 살 어린 동료 네이트·뮤라 일급 장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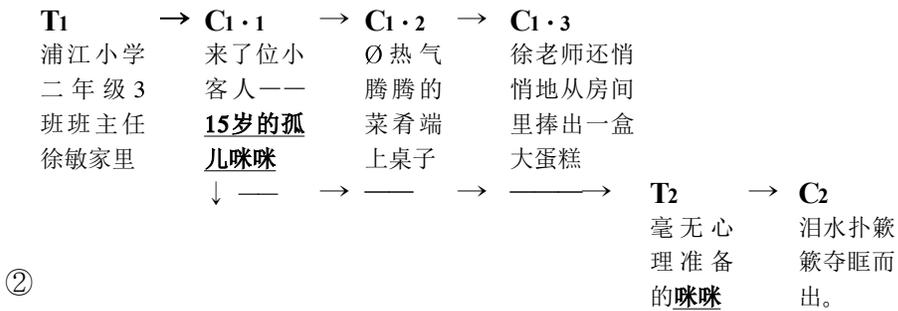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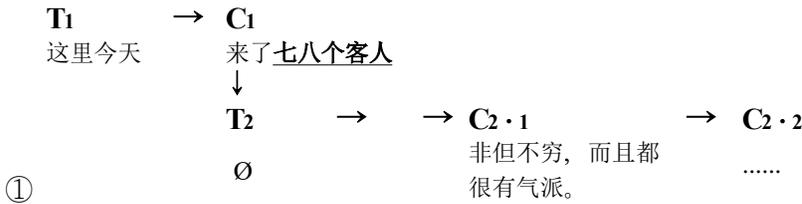
‘客人来了’의 예문 중에 비교적 긴 경우는 예문(49a)와 같다. 명사 형식, 대명사 형식, 영 형식 대응으로 3 개 문장을 확장하고 있다. 예문(49b)는 영 형식 대응을 통해 ‘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마디로 소개하고 있다. 예문(48)처럼, 후행절에서 영 형식 대응으로 ‘客人’에 대해 묘사, 평가, 신분 소개하는 ‘客人来了’는 거의 없다. (49b)는 한 마디로만 ‘客人’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속성을 살펴보면 ‘来了 X 客人’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한 후, 화제의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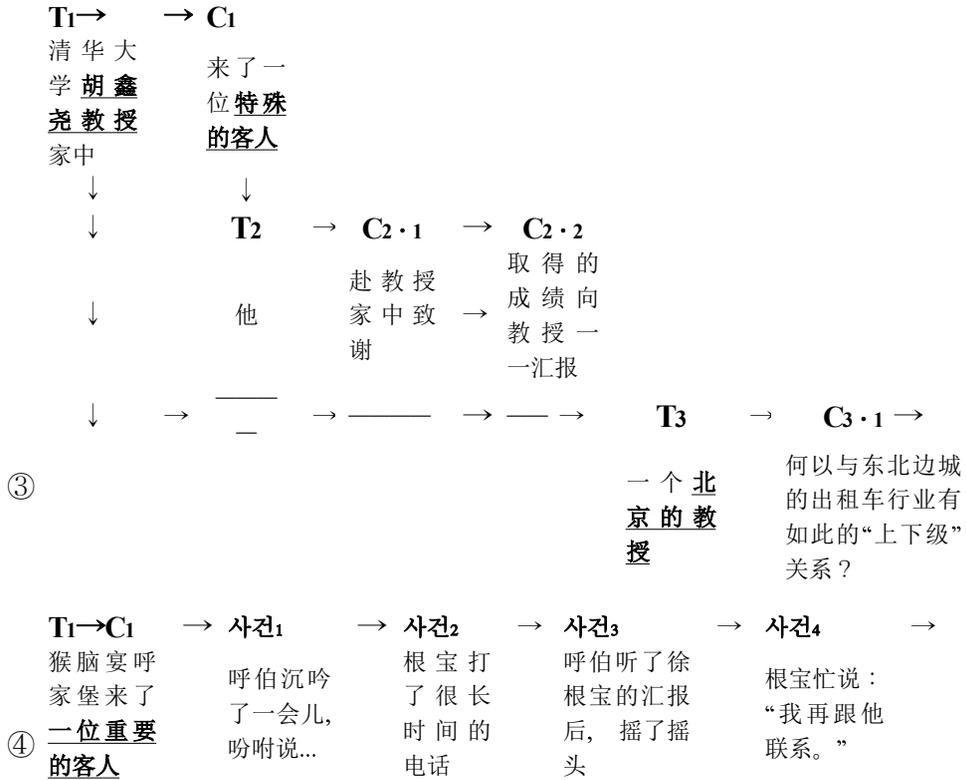
장성이 상당히 강하며 화제의 연결 사슬이 모두 매우 길고, 대응 횟수도 매우 많다. ‘来客人了’는 ‘客人’에 대해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제-도입 기능이 나타나는 예문들은 모두 1~2 개 문장 뒤에 끝난 뒤 ‘客人’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담화의 중심에서 빠르게 옮겨지거나 사건의 참여자로 남는다.

(3) 화제의 확장 방식

앞서 화제의 확장 방식은 크게 평행식과 계단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来了 X 客人’의 화제 확장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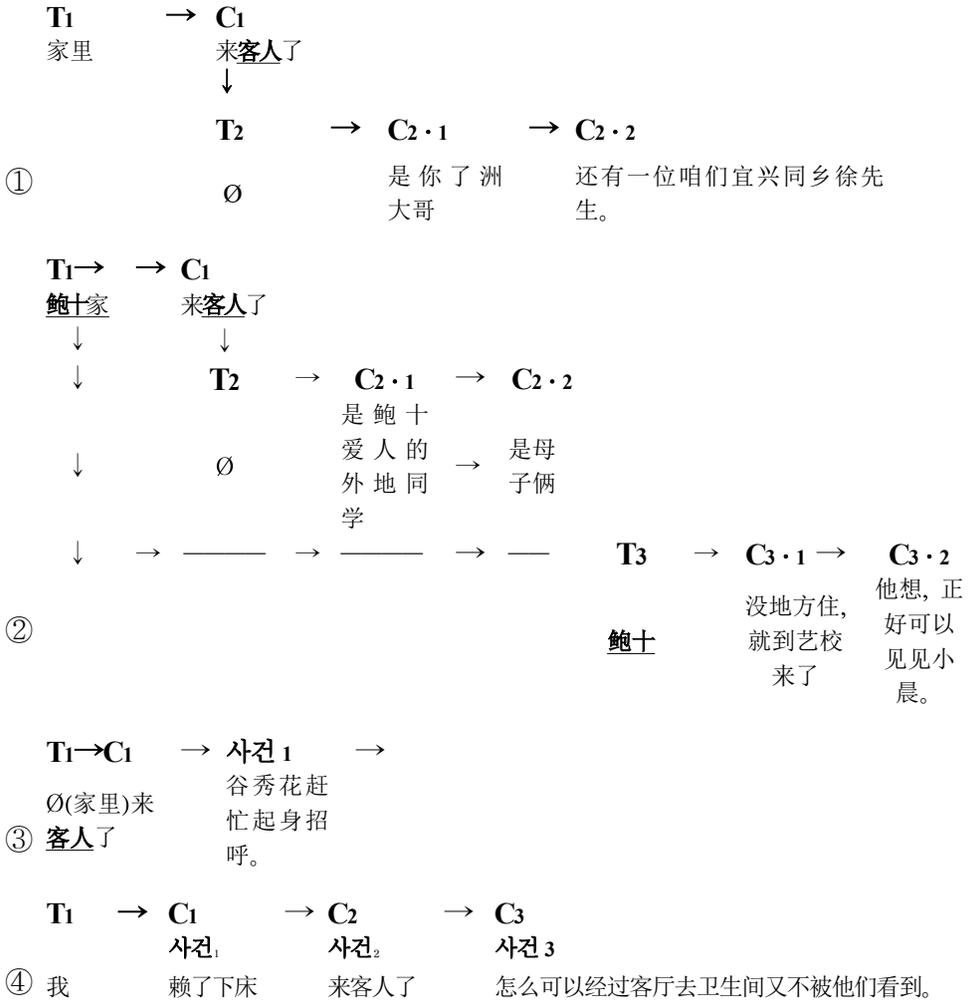
7.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그림7-3〉 ‘来了X客人’의 화제 확장 방식

‘来了 X 客人’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화제 확장 방식은 ①과 같은 계단식 방식이다. Lambrecht가 언급했던 ‘Once there was a wizard. He was very wise, rich, and was married to a beautiful witch.’가 바로 전형적으로 이러한 존현문 화제 확장 방식이다. 때에는 ‘X 客人’의 문두성분이 먼저 후행절의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②에서 보듯이 더 멀리 떨어진 후행 단락에서는 여전히 ‘X 客人’이 화제가 되고 있다. ③은 ②와 달리 먼저 계단식으로 확장한 후 문두성분이 화제가 된다. ‘X 客人’이 후행 단락의 화제가 되지 않고 사건의 참여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④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예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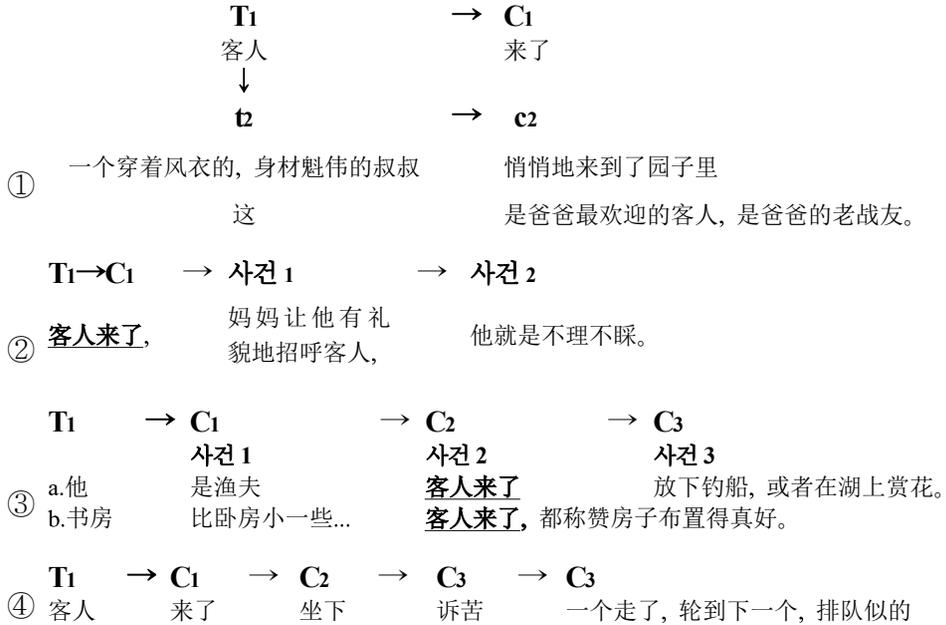
‘来客人了’의 화제 확장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7-4〉 ‘来客人了’의 화제 확장 방식

‘来了 X 客人’과 달리 ‘来客人了’는 ①과 같은 전형적인 화제 확장 방식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빈도가 높지 않고 지속성도 강하지 않다. ‘来客人了’의 ‘客人’뿐만 아니라 문두성분도 ②처럼 후행 단락의 화제가 될 수 있다. ‘客人’이 후행 단락의 화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来客人了’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③, ④와 같은 형식이 모두 존재한다. ④는 ‘来客人了’가 다른 화제에 대한 일어난 사건 중 하나가 되는 경우이다.

‘客人来了’의 화제 확장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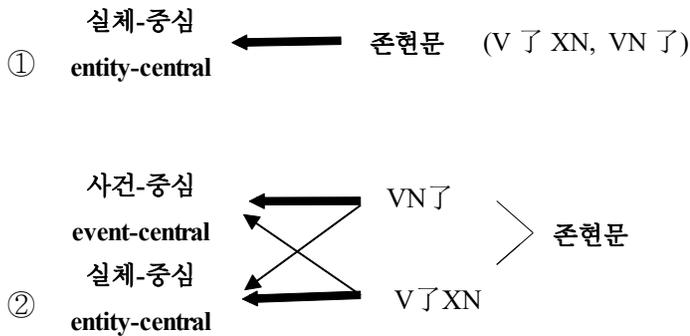


〈그림 7-5〉 ‘客人来了’의 화제 확장 방식

‘客人来了’는 ‘来客人了’와 ‘来了 X 客人’과 같은 계단식 확장 방식이 없다. ①에서 ‘客人来了’의 뒷절은 명사와 대명사로 ‘客人’을 소개하므로 기능적으로 계단식 확장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来客人了’와 ‘来了 X 客人’으로 도입되는 화제에는 일반적으로 묘사, 소개, 평가 등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④는 전형적인 평행식 확장 방식이다. ‘客人’에 대해 서술했지만, 손님에 대한 소개나 묘사가 아닌 행동 위주로 되어 있기에 이런 예문들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단지 앞에 이미 나타나는 화제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客人来了’의 비교적 전형적인 확장 방식은 ②와 ③이며, 출현빈도가 높은 편이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③a에서는 ‘来客人了’를 ‘来客人了’로 바꿀 수 있지만 ③b와 ④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3.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VN了’ 은현문, 그리고 ‘来客人了’와 유사한 문장의 담화 기능을 살펴 보면 존현문이 ‘실체-중심’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다른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림7-6〉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VN了’ 은현문은 존현문인데 그림①처럼 실체-중심의 제시문 기능만 나타나지 않고, 그림②처럼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화 기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7.3.1. 了₂의 담화 기능

‘来了X客人’는 전형적인 실체-중심 존현문이며, ‘客人来了’와 ‘来客人了’는 사건-중심의 기능이 비교적 강하다. 둘은 형태적으로 맨명사와 명사구의 차이 외에 ‘了’의 사용에도 차이가 있다. ‘客人来了’와 ‘来客人了’는 ‘了₂’가 쓰이고 ‘来了X客人’은 ‘了₁’이 쓰인다.

박정구(2019)에서는 ‘了₂’가 문장초점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刘月华(2001:383)에서는 ‘了₂’가 나타나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며 화자가

‘了₂’를 사용할 때 수신자의 주의를 끌거나 충고하거나 문제, 논평 등 도입하는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50) a. 下雨了, 把晾的衣服收回来吧。(提醒、建议)
비가 오니 빨래를 걷으세요.

王广全·柳英绿(2006)에서는 같은 명제, 상이한 ‘了’를 가진 문장의 차이점을 논의할 때 ‘사건-보고(报事), 사건-진술(叙事), 사건-평가(论事)’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了₁’이 나타나는 문장은 주로 ‘사건-진술(叙事)’, ‘了₂’가 나타나는 문장은 주로 ‘사건-보고(报事)’의 기능을 가진다.

- (1) 보고하는 순간, 보고자, 보고 대상, 보고 내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 (2) 보고서 내용은 ‘현재’(말하는 순간)와 연계되어 있으며 후경 정보가 아닌 전경 정보에 속한다.
- (3) 보고자는 보고된 정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정보는 기대했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표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사건-보고(报事)’에 대해 王广全·柳英绿은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 감탄류 단문으로 나타나는 ‘来客人了’가 많다는 통계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보고(报事)’의 기능과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문 시작 위치가 많이 등장하는 현상도 刘月华 등 학자가 제시하는 ‘了₂’의 담화 기능과 연관성을 가진다.

7.3.2. 경제성 원칙의 작용

철학 차원에서 ‘실체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Entities should not be multiplied unnecessarily)’라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원리가 있는데 언어학 차원에서는 A. Martinet 등 학자가 ‘경제성

원리(the Economy Principle)’를 제시하였다. 즉 언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잘 완성하도록 보장한다는 동시에 언어 활동에서 불필요한 형식, 수단 등을 경제적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张秋云(2004:183)에서는 ‘낮은 비용(低成本)’과 ‘높은 효율성(高效率)’, 陈平(1987:148)에서는 ‘명확함(明确性)’과 ‘경제성(经济性)’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였다. 즉 가장 경제적인 코딩과 가장 명확하고 성공적인 정보 전달 효과를 조절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존현문의 전형적인 기능은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이 실체는 종종 공간적 틀로 도입되어 문장의 끝에 초점으로 나타나고 청자의 관심을 끌어내며 후행절의 새로운 화제가 된다.

만약 실체가 인간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발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면, 존현문의 하위부류인 은현문 형식을 선택하여 보고하려고 할 때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은현문 중 단음절과 구어성이 강한 자동사를 선택하여 ‘了₁’은 ‘了₂’로, 복잡한 명사구 형식은 맨명사로 바뀌게 된다. 특정한 화용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来了一个客人’, ‘下了一场雨’, ‘死了一个人’, ‘少了不少钱’, ‘长了好多痘痘’, ‘炸了一个口子’보다 ‘VN了’ 형식인 ‘来客人了’, ‘下雨了’, ‘死人了’, ‘少钱了’, ‘长痘痘了’, ‘炸口子了’ 등은 더 경제적이고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吕叔湘(1980)에서 “세 글자로 쓸 수 있으면 다섯 글자를 쓰지 않고, 한 마디로 끝낼 수 있을 때는 두 마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상통한다.

7.4. 소결

일반적으로 은현문을 포함하는 존현문의 담화 기능은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장은 실제 예문에서 출발하여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 그리고 ‘来客人了’와 유사한 문

장들의 담화 기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을 보면 전형적인 은현문의 담화 기능과 다른 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N了’ 은현문은 화제-도입의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건-도입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또한 다른 의미자질을 가진 N도 ‘VN了’ 은현문의 담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주성이 떨어질수록 후속 문장에서 화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사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둘째, 대표적인 예문 ‘来客人了’와 유사한 ‘客人来了’, ‘来了 X 客人’를 분석한 결과 화제의 출현빈도와 지속성 측면에서 ‘来客人了’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来了 X 客人’과 같이 지속성이 강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客人来了’는 새로운 화제-도입을 하기 어렵다. 화제 확장 방식을 보면 ‘来客人了’와 ‘来了 X 客人’은 주로 계단식이고 ‘客人来了’는 주로 평행식이다.

셋째, ‘来客人了’를 포함하는 ‘VN了’ 은현문의 상기 담화 기능의 출현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간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발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높은 빈도로 발생함을 보고하려는 화용적 상황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VN了’ 은현문이 쓰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VN了’ 은현문의 사건-도입 기능은 일반 전형적인 존현문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8. 결론

본고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지닌 ‘VN了’ 형식의 은현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来客人了’, ‘出太阳了’ 등 대표적인 예문은 다른 논문에도 종종 보이지만 이들이 속하는 상위구조인 ‘VN了’ 은현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VN了’ 은현문은 어떤 하위부류를 포함하고 있는가? V와 N이 어떤 특질을 갖추어야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동일한 명제, 상이한 형식을 갖는 ‘VN了’와 ‘NV了’ 간에는 어떠한 화용적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기존연구에서 언급한 분류를 참고하여 《중국어동사용법사전》에 나타난 모든 은현문을 ‘生·死, 来·走, 下(雨), 增·减, 建·拆, 破·裂, 기타’와 같이 7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 묘사와 통계를 통해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다. ‘VN了’ 은현문은 ‘VN了’와 ‘LVN了’ 형식이 가장 많으며 V는 구어성, 단음절성을 가진다. 통사적 분포에서 ‘VN了’가 고빈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복문의 시작 부분과 진술, 감탄류 단문에서이다.

둘째, 본고는 제4장에서 의미적인 관점에서 ‘VN了’ 은현문의 각 성분을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능력-절대격성’을 갖는 자동사, 비전형적인 은현문일수록 타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사와 관련된 논항의 집합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행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하며, 타동사와 관련된 논항의 집합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피위자 의미역 위계’에 속한다. 표준중국어에서 은현문의 N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은 ‘VN了’ 형식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이어(傣语)에서는 N의 자주성이 낮을수록 ‘VN了’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V의

능력-절대격성, N의 자주성은 문장의 화용적 관계, 담화 기능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본고는 제 5장에서 정보구조 범주의 ‘확인 가능성’의 개념을 가지고 ‘VN了’의 인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V가 은현문의 인지적 특성과 일치한다면 은현문에 쓰일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현문에 쓰이기 어렵다. ‘走, 跑, 飞’ 등의 동사들은 후행하는 N이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므로 은현문의 N의 심적 표상과 일치하지 않아서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 고유명사, 친족 명사 등은 쉽게 활성화된 심적 표상이 되기에 ‘VN了’에 들어가기 어렵다. N은 ‘VN了’에서는 주로 확인불가하고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NV了’에서는 비활성화 상태를 제외한 다양한 심적 상태를 보인다. 또한 경고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앞에 문맥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인지상의 지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N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기에 쉽게 활성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고성 어투일 경우는 ‘NV了’ 형식을 우선 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심적 상태의 측면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VN_{동물}了’ 형식인 은현문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出太阳了’가 가능하지만 ‘*太阳出了’는 비문이 되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 중심 측면에서, 후자는 통시적 측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본고는 제 6장에서 ‘VN了’의 화용적 초점 관계, 주제 관계, 논리 판단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지시체의 심적 상태와 화용적 관계 간에 일대일 관계가 아니지만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문두+VN了’ 은현문은 서술어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로 기능할 수 있으며 논향초점구조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심적 상태의 제약을 받는다. ‘VN了’는 주로 문장초점구조로 나타난다. ‘VN了’와 유사한 구문 ‘NV了’는 서술어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 논향초점구조가 모두 가능하다. 표지, 음성 도치, 통사 초치 등의 방식을 통해 유표적과 무표적인 정보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다섯째, 본고의 제 7장에서는 ‘VN了’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일반

적으로 은현문의 기능은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어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VN了’ 은현문의 기능이 전형적인 은현문의 기능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은현문은 화제-도입의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VN了’ 은현문은 화제-도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다른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도 담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주성이 떨어질수록 후속 글에서 화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시 요약하면 ‘VN了’는 은현구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지시체를 제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형적인 은현문과의 차이점도 보인다. 인간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발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높은 빈도로 발생함을 보고하려는 화용적 상황에서 도상성과 경제성 등 원칙이 적용되어 ‘VN了’ 은현문이 쓰이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인간과 밀접한 관련함으로 구어적인 동사, 이와 결합할 수 있는 고빈도로 쓰인 명사들이 ‘VN了’ 은현문에 많이 출현한다. 또한, 돌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간적 도상성 원칙이 적용되어 논항이 동사 뒤에 이동한다. 능력-절대격성을 가진 동사의 내포적 특징은 ‘VN了’ 형식과 일치하기에 다른 동사보다 더 쉽게 ‘VN了’ 은현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와 관련된 지시체는 확인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출현한다. 행위자 주어가 없고, ‘了₂’가 나타나며 비활성화의 심적 사태 등을 근거로 ‘VN了’의 화용적 관계는 문장초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제성 원칙을 적용하여 은현문은 맨동사, 맨명사 또는 문두 생략을 특징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VN了’ 은현문은 주로 대화의 단문과 복문의 시작절에 많이 출현한다.

이러한 기능은 전형적인 은현문보다 비전형적인 은현문에서는 아직 잘 발견되지 않으며, 소실류 동사도 ‘VN了’ 은현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 화용적 요구와 구문의 수용도가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비전형적인 은현동사, 소

실류 동사도 이 구문에 수용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표8-1〉 ‘VN了’ 은현문의 특징

● 화용적 요구: 인간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현상이나 사건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상황에 이 현상이나 사건을 신속히 담화에 도입하기					
	화용	인간과 밀접한 관련	예상하지 못함	신속히	사건-도입
연관성	통사	-V: 구어성 단음절성 -N: 고빈도 (인간 중심)	-‘VN了’ 어순 (도상적) ↓	-맨명사 -맨동사 -문두 생략 (경제적)	-了 ₂ -단문(대화) -복문의 시작절
	의미		-능력·절대격성		
	인지		-확인불가/비활성화		
	초점				
	구조			-VN了: 문장초점	

‘VN了’ 은현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본고는 ‘VN了’의 대표적인 예문 ‘来客人了’와 유사한 ‘客人来了’를 함께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来客人了’가 장소 성분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달리 ‘客人来了’는 장소 성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단문의 사용 빈도는 ‘来客人了’가 ‘客人来了’보다 높은 반면 복문의 사용 빈도는 ‘客人来了’가 더 높다. ‘客人来了’는 ‘当, 等’ 등과 같이 출현할 수 있는데 ‘来客人了’에는 이러한 용례가 없다.

둘째,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각 성분은 같지만 통사적 어순이 다르기에 의미적 특성도 달라진다. ‘NV了’의 N이 내포하는 자주성은 ‘VN了’ 은현문에서 사라지기에 ‘来’는 단지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客人’은 단지 출현하는 실체일 뿐이게 된다. 따라서 ‘客人故意来了’는 성립되지만 ‘*故意来客人了’는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客人’이 ‘来客人了’에서는 주로 확인불가,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客人来了’에서는 비활성화 상태를 제외하면 다양한 심적 상태를 보인다.

가정문에 사용되는 경우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모두 확인불가능 상태가 된다.

넷째, ‘来客人了’는 주로 문장초점으로 쓰이고, ‘客人来了’는 서술어초점, 논항초점, 문장초점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모두 문장초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전자의 지시체는 확인불가하거나 비활성화 상태이고, 후자는 주로 텍스트, 상황, 추론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가능한 상태로 출현한다.

다섯째, ‘来客人了’의 화제-도입 기능은 전형적인 은현문 ‘来了 X 客人了’보다 비교적 약한 반면 사건-도입 기능은 ‘来了 X 客人了’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복문에서 사건-도입을 나타낼 때 ‘来客人了’와 ‘客人来了’는 변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화제 확장할 때에는 ‘来客人了’의 후행절은 주로 ‘客人’의 신분 소개, 평가, 묘사 등이고, ‘来客人了’의 후행절은 주로 ‘客人’에 관련 일련의 행동이다.

여섯째, 담화 참여자의 ‘뜻밖에’라는 의도를 전달할 때에는 ‘VN了’ 형식인 ‘来客人了’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N이 ‘客人’이 아닌 ‘警察、狼、小偷’와 같은 명사일 경우 ‘경고’라는 의도를 가지고 전달할 때 ‘NV了’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화문에서 단문으로 나타날 때 ‘客人’일 경우는 ‘VN了’형식으로, ‘警察、狼、小偷’일 경우는 ‘NV了’형식으로 많이 출현한다.

〈표8-2〉 ‘来客人了’와 ‘客人来了’의 차이점

차이			来客人了	客人来了
통사	문두 성분	시간	这时候来客人了。	这时候客人来了。
		소유자	我姐姐来客人了。	?我姐姐客人来了。
		장소	河南老家来客人了。	?河南老家客人来了。
	‘当, 等’ 등과 공기 시		*当来客人了, 祖父总是呼我念诗的, 我就总喜念这一首。 ?等来客人了, 让客人点餐。	当客人来了, 祖父总是呼我念诗的, 我就总喜念这一首。 等客人来了, 让客人点餐。
의미	V:	능력동사 (논항 위치 자유)	来客人了。	客人来了。

	N:	논항의 자주성 유지 여부	*故意来客人了。 *主动来客人了。	客人故意来了。 客人主动来了。
심적 상태	확인불가 (가정문 등)	家里永远没有茶叶, 客人来了 , 就只好倒白开水。	家里永远没有茶叶, 来客人了 , 就只好倒白开水。	
	확인불가 비활성화	四十三岁的杨菊花从井边挑着一担水回家, 看门前架着一辆崭新的凤凰牌自行车, 寻思: 来客人了! 往大厅一瞟, 却没有有人在。正迟疑间, 忽听房中衣柜有响声, 她神情紧张起来了, 便放下水桶, 快步向屋里走去。	四十三岁的杨菊花从井边挑着一担水回家, 看门前架着一辆崭新的凤凰牌自行车, 寻思: *客人来了! 往大厅一瞟, 却没有有人在。正迟疑间, 忽听房中衣柜有响声, 她神情紧张起来了, 便放下水桶, 快步向屋里走去。	
	활성화	*从哪儿来客人的? ? 等会儿 来客人了 , 要泡茶。	客人从哪儿来的? 等会儿 客人来了 , 要泡茶。	
		“啊! 我还得等几个 客人 ,” 她继续说道, “ *来客人了 , 我们就会快乐起来”。	“啊! 我还得等几个 客人 ,” 她继续说道, “ 客人来了 , 我们就会快乐起来”。	
他隔着门叫: “妙想家, *来客人了没有? 我饿了。” 木兰喊着说: “ 她来了 。”		他隔着门叫: “妙想家, 客人来了没有? 我饿了。” 木兰喊着说: “ 她来了 。”		
초점 구조	문장초점 (‘了’가 문장초점 표 지 기능을 가짐)	A: 怎么了? B: 来客人了 。 叩开倪越家的门, 5个孩子不约而同地迎上来, 先是好奇地问“你找谁”, 尔后回头对着厨房直嚷嚷: “妈妈, 妈妈, 来客人了! ” 장소: 집 화자: 아이 客人: 비활성화	A: 怎么了? B: 客人来了 。 我们正在诧异, 李嫂笑着打起卧房的布帘子, 说: “太太! 客人来了 。” S从屋里笑盈盈的走了出来, 身上穿着红丝绒的长衣… 장소: 집 화자: 하인 [통보는 하인의 책임 중 하나이다.] 客人: 접근가능	
	논항초점	A: 谁来了? B: *来客人了 。 A: 来什么人? B: ? 来客人了 。	A: 谁来了? B: 客人来了 。	
	서술어초점	A: 客人怎么了? B: *来客人了 。	A: 客人怎么了? B: 客人来了 。	
담화 맥락	T1+C1→ 사건1 →사건2→사건3	他 是芦湖上的渔夫, 客人来了 , 就放下钓船, 或者在湖上赏花。	他 是芦湖上的渔夫, 来客人了 , 就放下钓船, 或者在湖上赏花。	
	사건1 →사건2	来客人了 , 卿卿特别高兴。	客人来了 , 卿卿特别高兴。	
	T1→C1→C2→C3→C4	*来客人了 , 坐下, 诉苦, 一个走了, 轮到下一个, 排队似的。	客人来了 , 坐下, 诉苦, 一个走了, 轮到下一个, 排队似的。	

Lambrecht 는 제시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제시할 때 괄호 안에 ‘but not always’라고 주석을 달았다. 본고는 ‘but not always’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VN了’ 형식 은현문을 대상으로 문장 형식과 인지, 화용 등 요소가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연구했으며, 다양한 발화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경쟁하는 문장들 가운데 왜 ‘VN了’ 은현문이 선택되고 ‘NV了’는 선택되지 않는지, 왜 ‘NV了’가 선택되고, ‘VN了’가 선택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시도했다. 따라서 본고는 정보구조의 관점으로 ‘VN了’ 은현문의 통사적, 의미적, 인지적, 화용적 특성을 고찰하여 인간 언어의 ‘제시’에 대한 표현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강병규·김태은·박민준·박찬욱·신근영·유수경·윤유정·정인정·최은재·하두진)(2020), 《코퍼스를 활용한 중국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남궁양석(2008), 《현대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집》, 한국학술정보.
- 진준광(2007), 김현철·신수영·이옥주·전기정 옮김(2019), 《대조분석과 중국어교육》, 차이나하우스.
- 한민이(2014), 《맛있는 중국어 어법》, JRC 북스.
- 허성도(2005),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 등수신 지음, 김혜경 박용진 옮김(2014), 《현대중국어 문법연구》, 한국문화사.
- 守屋宏则 지음 남궁양석·윤진희 옮김(2002), 《中国语기초문법》, 시사중국어문화원.
- 陈昌来(2002), 《现代汉语动词的句法语义属性研究》, 学林出版社.
- 陈平福(2017), 《汉语的形式、意义与功能》, 商务印书馆.
- 陈建民(1986), 《现代汉语句型论》, 语文出版社.
- 陈年福(2001), 《甲骨文动词词汇研究》, 巴蜀书社.
- 邓思颖(2010), 《形式汉语句法学》, 上海教育出版社.
- 邓守信(1975), 侯方·邹韶华·侯敏译(1983), 《汉语及物性关系的语义研究》, 黑龙江大学科研处.
- 范晓(1987), 《汉语动词概述》, 上海教育出版社.
- 范晓(1998), 《汉语的句子类型》, 书海出版社.
- 范晓(2009), 《汉语句子的多角度研究》, 商务印书馆.
- 范晓·陈昌来(2015), 《汉语句式及其句式研究》, 学林出版社.

- 范晓·张豫峰(2003), 《语法理论纲要》, 上海译文出版社.
- 高明凯(1957), 《汉语语法论》, 科学出版社.
- 胡裕树·范晓(1995), 《动词研究》, 河南大学出版社.
- 黄伯荣·廖序东(1991), 《现代汉语》(增订版), 高等教育出版社.
- 黄伯荣·廖序东(1997), 《现代汉语》(增订二版), 高等教育出版社.
- 黄伯荣·李炜(2016), 《现代汉语》(第二版), 北京大学出版社.
- 刘月华·潘文娉·故韡(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刘正光(2011), 《构式语法研究》, 上海外语出版社.
- 卢福波(1996), 《对外汉语教学实用语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陆俭明(2005),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北京大学出版社.
- 李临定(1986), 《现代汉语句型》, 商务印书馆.
- 李临定(1990), 《现代汉语动词》,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黎锦熙(1924[1992版]), 《新著国语文法》, 商务印书馆.
- 李子云(1991), 《汉语句法规则》, 安徽教育出版社.
- 吕叔湘(1982), 《中国文法要略》, 商务印书馆.
- 吕叔湘·宋玉柱等著, 马庆株编(1999), 《语法研究入门》, 商务印书馆.
- 马庆株(2005),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大学出版社.
- 任鹰(2005), 《现代汉语非受事宾语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宋玉柱(1991), 《现代汉语特殊句式》, 山西教育出版社.
- 邵敬敏(2001), 《现代汉语通论》, 商务印书馆.
- 屈承熹著, 潘文国等译(2006), 《汉语篇章语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王建军(2003), 《汉语存在句的历时研究》, 天津古籍出版社.
- 吴为善(2016), 《构式语法与汉语构式》, 学林出版社.
- 吴卸耀(2006), 《现代汉语存现句》, 学林出版社.
- 邢福义(1991),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 邢福义(1998), 《汉语语法学》, 东北师范大学出版社.
- 徐烈炯·刘丹青(1998), 《话题的结构与功能》, 上海教育出版社.
- 徐烈炯·刘丹青(2003), 《话题与焦点新论》, 上海教育出版社.

- 杨成寅(1993), 《现代汉语句型概论》, 内蒙古教育出版社.
- 袁毓林(2012), 《汉语句子的焦点结构和语义解释》, 商务印书馆.
- 赵元任(1968), 《中国话的文法》, 香港中文大学出版社.
- 张中行(1985), 《非主谓句》, 上海教育出版社.
- 张先亮·范晓(2010), 《现代汉语存在句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 Croft, William(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un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eth(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eth & Hovav, M. Rappaport(2005),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N. & Thompson, A. S. (1989),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옮김(2015), 《표준 중국어문법》, 한울)
- Schmerling, Susan F.(1976), *Aspects of English sentence stress*, University of Texas Press.
- Wu Guo(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2. 논문류

- 강병규(2013), <중국어 코퍼스 분석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 비교 고찰 -WordSmith Tools 6.0 과 AntConc 3.2.4 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44, 131-163.
- 김아영(2008),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화제와 주어의 특성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어 조사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中国文学》 57, 437-466.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 김중호(2004), <현대중국어의 화제 표현 요소에 관하여>, 《중국학연구》 30, 297-322.
- 김현철·손미리(2009), <‘王冕死了父親(Sp+Vi+Oa)’구문의 존현문 성립 여부 고찰>, 《中国与文学论集》 59, 305-324.
- 남양우(2018), <현대중국어 존현구문과 관련구문들 간의 관계 연구>, 《중국언어연구》 78, 59-86.
- 남양우(2019), <현대중국어 파손·손해의미 은현문에 관한 소고>, 《중국언어연구》 81, 73-95.
- 남양우(2022), <중국어 존현문에 관한 소고 - 정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학》 80, 235-258.
- 박정구(2011), <중국어 동사구의 변이적 구조 고찰을 통한 언어변화론 연구>, 《中国文学》 68, 165-187.
- 박정구(2022),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부사 중의문의 특성 — ‘就’, ‘才’, ‘都’, ‘也’가 쓰인 구문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101, 55-85.
- 박정구·이명숙·유수경(2022), <현대중국어 논항 생략 기사문의 정보구조 — ‘我就是’, ‘就是我’ 형식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00, 109-138.
- 백은희(2005),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중국어와 문학》 17, 551-572.
- 백은희(2006), <중국어의 비한정 주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47, 197-209.
- 백은희(2007), <중국어의 문장구조는 논리판단의 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중국언어연구》 24, 367-388.
- 백은희(2015), <중국어 담화 지시체의 인지범주와 형식적 구현>, 《중국언어연구》 58, 27-48.
- 이형호(1991), <존현문(存現文)동사에 관한 고찰>, 《中国文学研究》 9, 311-324.
- 유수경(2012), <존현문 ‘Np1+來(了)+Np2’구문의 장소주어 ‘Np1’과 존현의미의 관계 고찰>, 《中国语文学论集》 73, 231-247.
- 전영철(2013),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國語學》 68, 99-133.

- 최봉량(2004), <중국어와 한국어의 화제구조 연구>, 《중국어문학》 43, 151-172.
- 陈平(1994), <试论现代汉语中三种句子成分与语义成分的配位原则>, 《中国语文》第 3 期.
- 陈庭珍(1957), <汉语中处所词作主语的存现句>, 《中国语文》8 月号.
- 崔建新(1987), <隐现句的谓语动词>, 《语言教学与研究》第 2 期.
- 崔建新(1991), <隐现句的分析与句型归类问题>, 《渤海学刊》第 1 期.
- 陈昌来(2000), <论现代汉语句子的语义结构>, 《烟台师范学院学报》第 17 卷 第 1 期.
- 刀洁(2002), <汉语‘来客了’及相关句式与傣语的比较研究>, 《语言研究论丛》第 9 辑.
- 储泽祥(2010), <汉语施事宾语句与 SVO 型语言施事、受事的区分参项——兼论汉语“句位高效”的类型特征>, 《民族语文》第 6 期.
- 戴浩一(1990), <以认知为基础的汉语功能语法刍议上>, 《国外语言学》第 4 期.
- 戴浩一(1991), <以认知为基础的汉语功能语法刍议下>, 《国外语言学》第 1 期.
- 邓思颖(2002), <经济原则和汉语没有动词的句子>, 《现代外语》第 1 期.
- 范晓(1989), <“施事宾语”句>, 《世界汉语教学》第 1 期.
- 范晓(1991), <及物动词和不及物动词的区分和再分类>, 《中国语言学报》第 4 期.
- 范晓(2003), <说语义成分>, 《汉语学习》第 1 期.
- 方梅(1995), <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 《中国语文》第 4 期.
- 方梅(2005), <篇章语法与汉语篇章语法研究>, 《中国社会科学》第 6 期.
- 古川裕(1997), <谈现象句和双宾语句的认知特点>, 《汉语学习》第 1 期.
- 古川裕(2001), <外界事物的“显著性”与句中名词的“有标性”——“出现、存在、消失”与“有界、无界”>, 《汉语学习》第 4 期.
- 胡晓研(1988), <现代汉语存现句显隐意义探微>, 《锦州市院学报》第 3 期.
- 黄正德(2007), <汉语动词的题元结构及其句法表现>, 《语言科学》第 4 期.
- 金立鑫(2019), <广义语法形态理论的解释力>(国际中国语言学学会第 27 届年会论文).
- 金立鑫·王红卫(2014), <动词分类和施格、通格及施语、通语>, 《外语教学与研究》

第 1 期.

李临定(1983), <宾语使用情况考察>, 《语文研究》第 2 期.

李临定(1984), <施事、受事和句法分析>, 《语文研究》第 4 期.

林忠(2014), <存现句后续小句回指形式对话题延续性的预测>, 《外国语文》第 30 卷 第 2 期.

吕叔湘(1989), <未晚斋语文漫谈>, 《中国语文》第 2 期.

李英哲(2019), <接受和施予: 汉语小句中内外动词的陈述功能>, 《汉语学报》第 2 期.

马庆株(1988), <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 《中国语言学报》第 3 期.

朴正九(2014), <从类型学角度看汉语否定词“没”的产生与发展>, 《语言的描写与解释·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朴正九(2016), <从类型学角度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第 4 期.

朴正九(2018), <从信息结构的角度探讨汉语的句子形式>(国际中国语言学学会第 29 届年会论文)

祁峰(2014), <汉语的焦点标记词>, 《汉语作为第二语言研究(CASLAR)》第 3 期.

宋玉柱(1987), <隐现句>, 《语言学论丛》第四辑.

宋玉柱(1989), <完成体动态存在句>, 《汉语学习》第 6 期.

宋玉柱(1989), <评“存现宾语”>, 《汉语学习》第 4 期.

宋玉柱(2004), <存在句研究史上的一篇重要文献>, 《汉语学习》第 1 期.

任鹰(2007), <动词语义特征对共现名词指称方式的制约和影响>, 《世界汉语教学》第 3 期.

沈家煊(2000), <句子与配价>, 《中国语文》第 4 期.

帅志嵩(2017), <从词汇—构式范式看汉语存现句的分类和范围>, 《语言教学与研究》第 3 期.

谭景春(1996), <一种表破损义的隐现句>, 《中国语文》第 6 期.

王灿龙(2017), <试说“N 来了”与“来 N 了”句式>, 《汉语学习》第 2 期.

王光全·柳英绿(1985), <同命题“了”字句>, 《汉语学习》第 6 期

- 许余龙(2005), <从回指确认的角度看汉语叙述体篇章中的主题标示>, 《当代语言学》第2期.
- 杨安红(2004), <“NP1 有 NP2”句式新探>, 《青岛大学学报》第4期.
- 袁毓林(2002), <论元角色的层级关系和语义特征>, 《世界汉语教学》第3期.
- 张伯江(2002), <施事角色的语用属性>, 《中国语文》第6期.
- 周韧(2020), <什么样的“客人”来了>,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 Bresnan, Joan(1994),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72-131.
- Dowty, D.R.(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53-572.
- Freeze, Ray(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595
- Huang, C.-T. James(1987), Existential sentences in Chinese and (in) definiteness, In Eric J. Reuland & Aliceter Meulen(eds.) *The Representation of (In) definiteness*, 226-253.
- Kuroda, S.-Y.(1972), The Categorical and the Thetic Judge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Kuroda, S.-Y.(2005), Focusing on the Matter of Topic: A Study of Wa and Ga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4, 1-58.
- Lambrecht, Kund(2000), When subjects behave like objects: An analysis of the merging of S and O in sentence-focus constructions across languages, *Studies in Language* 24(3), 611-682.
- Hopper, Paul J. and Thompson, Sandra A.(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vol.56 no.2, 251-299.
- Perlmutter, David M.(1978), Impersonal passives and unaccusative hypothesis,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57-190.
- Sasse, Hans-Jürgen(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511-580.
- Twardzisz, Piotr(2000), Virtual and actual existentials in English, Swedish, and

Icelandic,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22, 163-190.

3. 학위논문

박경혜(2013), <현대 중국어 변화표시 ‘VN了’ 구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창호(1997), <현대한어 주제에 관한 담화 황용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丁玲(2006), <存现句的主题结构和信息结构>, 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李樟花(2014), <甲骨文运动动词‘来、往’研究>,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潘文(2003), <现代汉语存现句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宋雪茹(2022), <基于信息结构理论的汉语存现句研究>, 大连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王建军(2001), <汉语存在句的历时研究>, 南京大学博士学位论文.

宣恒大(2011), <现代汉语隐现句研究>, 安徽大学博士学位论文.

4. 공구서 및 기타

陈演嘉(1986), 《常用文言词词典》, 吉林文史出版社.

崔恒昇(2001), 《简明甲骨文词典》, 安徽教育出版社.

方述鑫(1993), 《甲骨金文字典》, 巴蜀书社出版.

吕淑湘(1980),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李宗焜 整理(1998), 《甲骨文字编》, 中华书局.

孟琮·郑怀德·孟庆海·蔡文兰(1999), 《汉语动词用法词典》, 商务印书馆.

上海辞书出版社语文辞书编纂中心(1998), 《古汉语字典》, 上海辞书出版社.

王砚农·焦陇颀(2011), 《汉语常用动词搭配词典》,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徐中舒(1998), 《甲骨文字典》, 四川辞书出版社.

许宝华·宫田一郎主编(1992), 《汉语方言大辞典(第四卷)》, 中华书局.

张双棣·陈涛主编(1998), 《古代汉语字典》, 北京大学出版社.

汉典, <https://www.zdic.net>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 <http://ccl.pku.edu.cn>.

北京语言大学汉语语料库, <http://bcc.blcu.edu.cn>.

台湾中央研究院平衡语料库, <http://asbc.iis.sinica.edu.tw>.

부록:

《중국어동사용법사전(汉语动词用法词典)》의 존현동사 정리

	+了(124/35.3%)	+着(185/52.7%)	+보어(42/12%)
1. 安		大门上安着铜拉手。	
2. 安插	几个重要部门都安插了他的嫡系。		
3. 安置	学校里安置了几个人。		
4. 拔		腰上拔着火罐。	
5. 摆		桌子上摆着一对儿花瓶。	
6. 搬			楼上搬来两户人家。
7. 办	郊区办了一个酒厂。		
8. 拌	菜里拌了不少佐料。		
9. 绑		柱子上绑着一个人。	
10. 包		外边包着一层布。	
11. 保存		他身上一直保存着这张珍贵的照片。	
12. 抱		手里抱着一摞书。	
13. 爆发	中原地区爆发了农民革命。		
14. 蹦			树上蹦下一只小猴儿。
15. 编		钱包上编着两朵花儿。	
16. 变			手里变出一副扑克牌。
17. 标		椅子上标着号码。	
18. 病		家里病着一个人。	
19. 补 ₁		裤腿上补着一块儿蓝布。	
20. 补充		左翼补充了一个排。	
21. 擦		脸上擦着粉。	
22. 踩		床上踩着两个脚印。	
23. 藏 ₁ ⁸⁶⁾		屋里藏着一个人。	
24. 藏 ₂		北京图书馆藏着大量的科技资料。	
25. 插 ₁ ⁸⁷⁾		头上插着一朵红花。	
26. 插 ₂			前排插进俩人。
27. 差	这里差了两把椅子。		

28. 拆	院里拆了一个花坛。		
29. 换	炉灰里换了点儿沙子。		
30. 缠		腰上缠着一根草绳。	
31. 抄	本子上抄了两首诗。		
32. 抄写		墙上抄写着两条格言。	
33. 扯	裤脚扯了一个口子。		
34. 撤 ⁸⁸⁾	屋里撤了一张桌子		
35. 撤 ₄			墙上撤走一块儿砖。
36. 沉	海湾里沉了一条船。		
37. 称	筐里称了5斤苹果。		
38. 成立	黄村成立了一个小剧团。		
39. 承担		肩上承担着重任。	
40. 盛 ⁸⁹⁾		碗里盛着一些汤。	
41. 盛 ₂		盒子里盛着十个鸡蛋。	
42. 冲 _{2.1} ⁹⁰⁾	壶里冲了半壶茶。		
43. 冲 _{2.2}			河里冲走了一只小船。
44. 抽			马身上抽出几道血印子。
45. 出 ₃	墙上出了一个布告。		
46. 出 ₅	身上出了好多红点儿。		
47. 出来			屋里出来两个人。
48. 出去			屋里出去一个人。
49. 出现	班里出现了一些问题。		
50. 穿 ⁹¹⁾	棚顶上穿了一个窟窿。		
51. 穿 ₃		线儿上穿着一串山里红。	
52. 穿 ₄		身上穿着一件花外衣。	
53. 闯			张家庄闯出来一支人马。
54. 吹			屋顶上吹跑了两张席。
55. 存 ⁹²⁾	仓库里存了不少货。		
56. 存 ₂		这里存着很多水。	
57. 存 ₃		银行里存着很多款。	
58. 存 ₄	行李房里存了很多行李。		
59. 搭		河上搭着一座浮桥。	
60. 打 ₅ ⁹³⁾	上游打了一个大坝。		
61. 打 ₁₁	木板上打了一个眼儿。		
62. 打 ₁₆	瓶里打了一斤香油。		
63. 带 ⁹⁴⁾		身上带着几块钱。	
64. 带 ₃		脸上带着一团怒气。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65. 带 ₄		身上带着好多土。	
66. 戴		头上戴着一顶军帽。	
67. 挡		门外挡着一道栅栏。	
68. 倒	马路上倒了一根电线杆子。		
69. 到	车站到了一批货。		
70. 登 _{1, 2}		卡片上登着他的年龄。	
71. 登 _{2, 2}	桌子上登了几个脚印。		
72. 登记		本子里登记着取货的日期。	
73. 滴	汤里滴了几滴香油。		
74. 点 ₁ ⁹⁵⁾		两道眉毛中间点着一个红点儿。	
75. 点 ₅		鼻子里点着药。	
76. 点 ₁₀		桌子上点着蜡。	
77. 垫		脚下垫着一块砖。	
78. 调			所里调来了三个骨干。
79. 掉 _{1, 1} ⁹⁶⁾			树上掉下来一个苹果。
80. 掉 _{1, 2}	这一行掉了两个字。		
81. 跌			沟里跌进去一个小孩。
82. 叠		床上叠着一床缎子被。	
83. 叮	身上叮了几个包。		
84. 顶 ₁ ⁹⁷⁾		头上顶着一个包袱。	
85. 顶 ₄		门上顶着一根杠子。	
86. 钉		蹄子上钉着马掌。	
87. 冻		窗户上冻着几个柿子。	
88. 堵		路口堵着很多汽车。	
89. 端		手里端着花盆儿。	
90. 堆		院子里堆着很多建筑材料。	
91. 对 ₃ ⁹⁸⁾		屋子中央对着两张桌子。	
92. 对 ₈		凉开水里对着鲜橘汁。	
93. 蹲		门口蹲着两个石狮子。	
94. 躲		洞里躲着一个人。	
95. 躲藏		地道里躲藏着几名区干部	
96. 发 ₈		盆里发着面。	
97. 发表	报纸上发表了两篇回忆录。		
98. 发生	那个地方发生了一起抢劫案。		
99. 发现	太平洋上又发现了一个小岛。		
100. 翻	河沟里翻了一辆汽车。		

101. 放 ₃ ⁹⁹⁾		山上放着二百多只羊。	
102. 放 ₁₀		屋里放着很多东西。	
103. 放 ₁₁	锅里放了好多盐。		
104. 飞 ₁ ¹⁰⁰⁾		天上飞着一只鸟。	
105. 飞 ₂		天上飞着一架大客机。	
106. 飞 ₃		空中飞着许多柳絮。	
107. 分			医院分来两名实习大夫。
108. 缝	裤子上缝了两个补丁。		
109. 盖 ₁ ¹⁰¹⁾		身上盖着一件大衣。	
110. 盖 ₂		收据上盖着会计的图章。	
111. 盖 ₃	三环路两侧盖了许多高楼。		
112. 搁		桌上搁着一瓶花。	
113. 跟		小汽车后边跟着一辆大汽车。	
114. 跟随		他的背后跟随者千军万马。	
115. 公布	黑板上公布了入选名单。		
116. 刮 _{1, 2} ¹⁰²⁾		纸上刮着一层糨子。	
117. 刮 ₂	桌上刮了一层土。		
118. 挂 ₁ ¹⁰³⁾		门口挂着灯笼。	
119. 挂 ₃		皮鞋上挂着一层土。	
120. 拐			前边路口拐出来一辆小汽车。
121. 关		监狱里关着三名犯人。	
122. 跪		地上跪着一个人。	
123. 滚 ₁ ¹⁰⁴⁾			后台滚出来一个人。
124. 滚 ₃		袖口上滚着一圈花边。	
125. 裹		头上裹着绷带。	
126. 糊		窗户上糊着高丽纸。	
127. 划 huá	手上划了一个小口子。		
128. 划 huà	村边儿划了地界。		
129. 画 ₁ ¹⁰⁵⁾		纸上画着三匹马。	
130. 画 ₂	板上画了一条线。		
131. 混			会场混进去几个捣乱分子。
132. 活 huó		盆里活着二斤面。	
133. 活 huò	粥里再活一点儿肉末。		
134. 集合	操场上集合了三个连队的战士。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135. 集中	展览馆里集中了各地的 优质产品。		
136. 挤 ₁ ⁽¹⁰⁶⁾		屋里挤着二十个人。	
137. 挤 ₃	桶里挤了不少牛奶。		
138. 记 ₁ ⁽¹⁰⁷⁾		脑子里记着不少知识。	
139. 记 ₂		本子上记着好多事情。	
140. 记录		那个本子上记录着好多 有用的东西。	
141. 加 ₂ ⁽¹⁰⁸⁾	这儿加了两张桌子。		
142. 加 ₃	那里加了两张桌子。		
143. 夹 ₁ ⁽¹⁰⁹⁾		胳膊底下夹着一本厚厚 的书。	
144. 夹 ₂		游行队伍里夹着几个儿 童。	
145. 减	这里减了两排椅子。		
146. 减少	屋里减少了好多东西。		
147. 建立	城外建立了一所传染病 医院。		
148. 建设	海滩上建设了一座现代 化宾馆。		
149. 建筑	这座山里建筑了一条铁路。		
150. 降	西郊降了一场好雪。		
151. 降落	草坪上降落了一架滑翔机。		
152. 浇	地里浇了很多水。		
153. 接 ₁ ⁽¹¹⁰⁾		中间接着一根绳子。	
154. 接 ₂	盆里接了好多雨水。		
155. 解散	公司解散了两个办事机构。		
156. 进	屋里进了不少水。		
157. 卷 ₁ ⁽¹¹¹⁾		这张饼里卷着三根大葱。	
158. 卷 ₂		漩涡里卷着一个人。	
159. 掘	院里掘了一口井。		
160. 开 ₁ ⁽¹¹²⁾		屋里开着灯。	
161. 开 ₂	后墙上开了一个窗口。		
162. 扛		肩上扛着一袋面。	
163. 烤		炉子上烤着三个馒头。	
164. 靠		墙边靠着一个人。	
165. 磕	脑袋上磕了一个大包。		

166. 抠		镜框上抠着好多花纹。	
167. 扣		桌子上扣着两个盘子。	
168. 捆		树上捆着一个人。	
169. 拉 lá		西瓜上拉着一个三角口子。	
170. 落 ₁ ⁽¹¹³⁾	中间落了五个字。		
171. 落 ₂	沙发上落了一件衣服。		
172. 落 ₃	后边落了两个人。		
173. 来	家里来了几个客人。		
174. 拦		桥头拦着一道铁丝网。	
175. 立		路边立着许多木桩。	
176. 晾		海滩上晾着渔网。	
177. 裂	墙上裂了一道缝。		
178. 淋 lín	衣服上淋了好多油。		
179. 淋 lìn	盆里淋了不少水。		
180. 留 ⁽¹¹⁴⁾	店里留了两个人。		
181. 留 ₂		后脑勺留着一根小辫儿。	
182. 留 ₄		这个城市里还留着战争的遗迹。	
183. 流传		群众中间流传着好多关于他的传说。	
184. 流动		草原上流动着一只乌克兰牧骑。	
185. 流露			脸上流露出高兴的神情。
186. 搂		他怀里搂着两个孩子。	
187. 漏 ⁽¹¹⁵⁾			壶里漏出去好多水。
188. 漏 ₂	第五行漏了一个标点。		
189. 落 ₁ ⁽¹¹⁶⁾	院子里落了好多银杏的叶子。		
190. 落 ₂	山坡上落了一层厚厚的雪。		
191. 落 ₄	脸上落了一个疤。		
192. 埋		地里埋着几筐萝卜。	
193. 埋葬		山脚下埋葬着几位抗日英雄。	
194. 没有		院子里没有树。	
195. 磨	脚上磨了三个泡。		
196. 抹 ₁ ⁽¹¹⁷⁾		腿上抹着药膏。	
197. 抹 ₃	这一行抹了三个字。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198. 抹 mǒ		墙上抹着白灰。	
199. 拿		手里拿着一把扇子。	
200. 捏		手里捏着一根火柴。	
201. 拧		床架上拧着两个螺丝。	
202. 趴 ₁ ⁽¹¹⁸⁾		门口趴着一条狗。	
203. 趴 ₂		课桌上趴着一个学生。	
204. 爬			墙洞里爬出来一只老鼠。
205. 跑 ₁ ⁽¹¹⁹⁾			屋里跑出来一个人。
206. 跑 ₂	罐儿里跑了一个蟋蟀。		
207. 跑 ₄			煤气罐里跑出一股臭气。
208. 泡		盆里泡着绿豆。	
209. 佩带		腰间佩带着左轮手枪。	
210. 喷		墙上喷着一层白灰。	
211. 捧		手里捧着一捧大红枣。	
212. 碰	脑袋上碰了一个包。		
213. 批		文件上批着几个字。	
214. 披		身上披着棉袄。	
215. 劈	院里劈了一堆木柴。		
216. 漂		水上漂着一只小船。	
217. 飘			远处飘来一股清香。
218. 飘扬		天安门广场上飘扬着五星红旗。	
219. 泼	地面上泼了很多水。		
220. 破	窗户上破了一块玻璃。		
221. 扑		脸上扑着很厚的粉。	
222. 铺		地上铺着一层瓷砖。	
223. 骑		马背上骑着两个人。	
224. 起	身上起了好多痱子。		
225. 起来 ₁ ⁽¹²⁰⁾	车后边起来一个人。		
226. 起来 ₂	机场上起来两架飞机。		
227. 砌	院里砌了一个花池。		
228. 掐	脑袋上掐了几个红印。		
229. 签 ₁ ⁽¹²¹⁾		本子上签着他的名字。	
230. 签 ₂		袖口上签着一道花边。	
231. 切除	腹腔里切除一个大肿瘤。		
232. 清洗			我们单位清洗出去三个受贿人员。

233. 缺 ₁ ¹²²⁾	这儿缺了一把椅子。		
234. 缺 ₂	衣服上缺了一个口子。		
235. 扔		地上扔着很多碎纸。	
236. 热		炉子上热着饭呢。	
237. 揉	案板上揉了二十多个馒头。		
238. 洒		地上洒着消毒水。	
239. 撒	地里撒了不少麦种。		
240. 塞		树窟窿里塞着不少泥。	
241. 散		地上散着两个粮包。	
242. 散发			草丛里散发出阵阵清香。
243. 晒		场上晒着很多麦子。	
244. 删	这一行删了五个字。		
245. 闪			门后闪出一个人。
246. 上 ₅ ¹²³⁾			台上上去三个演员。
247. 上 ₆	货架上上了 50 件毛衣。		
248. 上 ₇		大门上上着一把锁。	
249. 上 ₈		脸上上着药膏。	
250. 烧		锅里烧着茄子。	
251. 少	里屋少了一把椅子。		
252. 渗	绷带外边渗了好多血。		
253. 升			东方升起一轮红日。
254. 生		屋里生着火。	
255. 生长		山坡上生长着一人多高的野生植物。	
256. 剩		锅里还剩下不少菜呢。	
257. 拾			筐里拾来不少蘑菇。
258. 收集		他的笔记本里收集着很多资料。	
259. 梳		头上梳着两个小辫儿。	
260. 树立	山西树立了两个典型。		
261. 刷		墙上刷着两条标语。	
262. 栓		树上栓着一头驴。	
263. 撕	桌上撕了一堆纸。		
264. 死	路边死了一只狗。		
265. 锁 ₁ ¹²⁴⁾		屋里锁着一个人。	
266. 锁 ₂		衣服上锁着一道花边。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267. 塌	东边塌了一孔桥。		
268. 摊 ₁		桌上摊着好几本书。	
269. 躺		地上躺着一个人。	
270. 烫			嘴上烫起一个泡。
271. 掏	墙上掏了一个洞。		
272. 逃	逃了两个犯人。		
273. 逃走	监狱里逃走了两个犯人。		
274. 套 ₁ (125)		毛衣外边套着一件呢子外衣。	
275. 套 ₂		车上套着三匹马。	
276. 踢	腿上踢了一个大包。		
277. 提		手里提着一个篮子。	
278. 填 ₁ (126)	院子里填了一口井。		
279. 填 ₂		第一栏里填着 5 个字。	
280. 挑 tiāo		肩上挑着满满的两筐土。	
281. 调		牛奶里调着可可粉。	
282. 挑 tiǎo		竹竿上挑着一挂鞭炮。	
283. 跳			草丛里跳出一只兔子。
284. 帖		墙上贴着一张宣传画。	
285. 捅	窗户纸上捅了好几个窟窿。		
286. 停		门口停着一辆小轿车。	
287. 透			洞里透进一道阳光。
288. 涂 ₁ (127)		脸上涂着油彩。	
289. 涂 ₂			书上涂去了一行字。
290. 吐	地上吐了一口痰。		
291. 退			枪膛里退出两颗子弹。
292. 脱 ₁ (128)	手上脱了一层皮。		
293. 脱 ₄	这一行脱了两个字。		
294. 拖 ₁ (129)		马后边拖着一辆车。	
295. 拖 ₂		身后拖着一条大辫子。	
296. 托		手上托着一个碗。	
297. 驮		马背上驮着不少东西。	
298. 挖	马路中间挖了条沟。		
299. 围		头上围着绷带。	
300. 喂	家里喂了十只鸭子。		
301. 握		手里握着一支冲锋枪。	

302. 捂		身上捂着两床被子。	
303. 吸, ¹³⁰⁾	嘴里吸了一口凉气。		
304. 下, ¹³¹⁾			车上下来两个人。
305. 下 ₂	地上下了好多雪。		
306. 下来			山坡上下来两个人。
307. 下去			井里下去一个人。
308. 写		墙上写着四个大字。	
309. 卸, ¹³²⁾	楼后卸了两车砖。		
310. 卸 ₃			窗户上卸下来两块玻璃。
311. 修	山里修了一条公路。		
312. 绣		枕头套上绣着一支梅花。	
313. 压, ¹³³⁾		水泥上压着防水布。	
314. 压 ₅		仓库里压着好多东西。	
315. 腌		小缸里腌着二百个鸡蛋。	
316. 演		台上正演着走钢丝。	
317. 掩盖		上边掩盖着稻草。	
318. 养		鱼缸里养着几条热带鱼。	
319. 养活		圈里养活着几头猪。	
320. 噎		嗓子里噎着一口痰。	
321. 遗留		这个洞里遗留着原始社会的人类文明。	
322. 隐藏		地道里隐藏着一个排的战士。	
323. 印		纸上印着一个“寿”字。	
324. 用		门上用了两块好木料。	
325. 有 ₂ ¹³⁴⁾		院里有一棵大槐树。	
326. 有 ₄	这孩子嘴里有牙了。		
327. 扎		腰上扎着武装带。	
328. 栽		门口栽着两棵枣树。	
329. 糟蹋	地里糟蹋了好多粮食。		
330. 凿	墙上凿了一个洞。		
331. 扎	手上扎了一根刺儿。		
332. 摘	篮子里摘了好多梨。		
333. 沾	馒头上沾了点儿土。		
334. 蘸	面包上蘸了好多果酱。		
335. 长	腿上长了一个疮。		
336. 掌握		手里掌握着一大笔钱。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337. 招	屋里招了好多苍蝇。		
338. 蒸		锅里蒸着两屉馒头。	
339. 织	毛衣上织了一个红五星。		
340. 肿	腿上肿了一个大包。		
341. 种		门口种着一棵杨树。	
342. 住		家里住着几位客人。	
343. 抓		脸上抓着几道口子。	
344. 装 ₂ . ₁ ¹³⁵⁾		筐里装着鸭梨。	
345. 装 ₂ . ₂		校门口装着一盏灯。	
346. 撞			马路上撞倒了一个人。
347. 走	他们家走了两位客人。		
348. 钻	木头上钻了一个窟窿。		
349. 坐 ₁ ¹³⁶⁾		台上坐着主席团。	
350. 坐 ₂		靠窗户的地方坐着两个年轻人。	
351. 坐 ₃		炉子上坐着一把水壶。	

- 86) 藏₁ : 躲藏 ; 隐藏。藏₂ : 收藏 ; 储藏。
- 87) 插₁ : 长形或片状的东西放进、挤进、刺进或穿入别的东西里。
插₂ : 中间加进去或夹进中间去。
- 88) 撤₁ : 除去。撤₄ : 去掉 ; 抽出。
- 89) 盛₁ : 把东西放在器具例, 特质把饭菜放在碗、盘里。盛₂ : 容纳。
- 90) 冲₂.₁ : 用开水等浇。冲₂.₂ : 冲洗 ; 冲击。
- 91) 穿₁ : 破 ; 透。穿₃ : 线上穿着一串山里红。穿₄ : 把衣服鞋袜等物套在身体上。
- 92) 存₁ : 储存 ; 保存 ; 结存。存₂ : 蓄积 ; 聚集。存₃ : 储存。存₄ : 寄存。
- 93) 打₅ : 建造 ; 修筑。打₁₁ : 揭 ; 凿。打₁₃ : 放射 ; 发出。打₁₆ : 舀取 ; 买。
- 94) 带₁ : 随身拿着, 携带。带₃ : 呈现 ; 含有。带₄ : 连着 ; 附带。
- 95) 点₁ : 用笔加上点子。点₅ : 使液体一滴滴地向下落。点₁₀ : 引着火。
- 96) 掉₁ : 落。掉₂ : 遗失 ; 遗漏。
- 97) 顶₁ : 用头支撑。顶₄ : 支撑 ; 抵住。
- 98) 对₃ : 使两个东西配合或接触。对₈ : 搀和(多指液体)。
- 99) 放₃ : 把牛羊等赶到草地里, 让它吃草和活动。放₁₀ : 使处于一定位置。
放₁₁ : 加进去。
- 100) 飞₁ : (鸟、虫)鼓动翅膀在空中活动。飞₂ : 利用动力器械在空中行动。
飞₃ : 在空中漂浮游动。
- 101) 盖₁ : 由上而下地遮掩 ; 蒙上。盖₂ : 打上(印)。盖₃ : 建筑(房屋)。

- 102) 刮_{1,2}: 在物体表面上涂抹。刮₂: (风)吹。
- 103) 挂₁: 借助于绳子、钩子、钉子等使物体附着于高处的一点或几点。
挂₃: 蒙上; 糊着。
- 104) 滚₁: 滚动; 翻转。滚₃: 缝纫方法, 沿着衣服等的边缘向上布条、带子等。
- 105) 画₁: 用笔或类似笔的东西做图形。画₂: 用笔或类似笔的东西做出线或作为标记的文字。
- 106) 挤₁: (人或物)紧紧靠拢在一起。挤₃: 用压力使从空隙中出来。
- 107) 记₁: 把印象保持在脑子里。记₂: 记录; 记载; 登记。
- 108) 加₂: 使数量比原来大或程度比原来高; 增加。加₃: 把本来没有添上去; 安放。
- 109) 夹₁: 从两个相对的方向加压力, 使物体固定不动。夹₂: 夹杂; 搀杂。
- 110) 接₁: 连接; 使连线。接₂: 托住; 承受。
- 111) 卷₁: 把东西转成圆筒形。卷₂: 一种大的力量把东西撮起或裹住。
- 112) 开₁: 使关闭着的东西不再关闭; 打开。开₂: 打通; 开辟。
- 113) 落₁: 遗漏。落₂: 把东西放在一个地方, 忘记拿走。
落₃: 因为跟不上而被丢在后面。
- 114) 留₁: 停止在某一个处所或地位上不动; 使留。留₂: 保留。留₄: 遗留。
- 115) 漏₁: 东西从孔或缝中滴下, 透出或掉出。漏₂: 遗漏。
- 116) 落₁: 物体因失去支持而下来。落₂: 下降; 使下降。落₄: 停留; 留下。
- 117) 抹₁: 涂抹。抹₃: 勾掉; 去除; 不计在内。
- 118) 趴₁: 胸腹朝下卧倒。趴₂: 身体向前靠在东西上; 伏。
- 119) 跑₁: 两只脚或四条腿迅速前进。跑₂: 逃走。跑₄: 液体因挥发而损耗。跑₁
- 120) 起来₁: 由躺而坐, 由坐而站。起来₂: 泛指兴起、出现、升起等。
- 121) 签₁: 为了表示负责而在文件、单据上亲自写上姓名或画上記号。
签₂: 粗粗缝合起来。
- 122) 缺₁: 缺乏; 短少。缺₂: 残破; 残缺。
- 123) 上₅: 出场。上₆: 添补; 增加。上₇: 把一件东西安装在另一件东西上。
上₈: 涂; 搽。
- 124) 锁₁: : 用锁使门、箱子、抽屉等关住或使铁链拴住。
锁₂: 缝纫方法, 用于衣服边缘或口眼上, 针脚很密, 斜线交或钩连。
- 125) 套₁: 罩在外面。套₂: 用套栓系。
- 126) 填₁: 把凹陷的地方垫平或塞满。填₂: 填写。
- 127) 涂₁: 使油漆、颜色、脂粉、药物等附着在物体上。涂₂: 抹去。
- 128) 脱₁: (皮肤、毛发等)脱落。脱₄: 漏掉(文字)。
- 129) 拖₁: 拉着物体使挨着地面或另一物体的表面移动。拖₂: 在身体后面耸拉着。

-
- 130) 吸₁ : 把液体、气体等从口鼻等孔引入体内。吸₃ : 吸引。
- 131) 下₁ : 由高处到低处。下₂ : (雨、雪等)降落。
- 132) 卸₁ : 把运输的东西从运输工具上搬下来。卸₃ : 把零件从机械上拆下来。
- 133) 压₁ : 对物体施压力(多指从上向下)。压₅ : 搁着不动。
- 134) 有₂ : 表示存在。有₄ : 表示发生或出现。
- 135) 装_{2.1} : 把东西放进器物内。装_{2.2} : 装配; 安装。
- 136) 坐₁ : 把臀部放在椅子、凳子或其他物体上, 支持身体重量。
坐₂ : 乘; 搭。坐₃ : 把锅等放在炉子上。

【中文摘要】

国立首尔大学 中国语言文学系

唐莉

表示某人或某物出现、存在、消失的现象内化于语言中形成了存现句(包括存在句和隐现句)。存现句虽被广泛研究,但关注点主要还是典型形式的例句。‘来客人了’、‘出太阳了’、‘*来狼了’等虽零散见于各类研究文献,但对其所隶属的‘VN了’隐现句的研究却难见踪迹。信息结构理论为我们提供了一个从句法、认知、语用等层面的相互作用中来整体观察‘VN了’隐现句的视角,由此可以找到解锁这些代表性例句成句的动因,及其在与相似句式竞争中被选择的关键线索。

本文参照前人研究和《汉语动词用法词典》对‘VN了’形式的隐现句进行了全面整理和分类,在此基础上对其句法特征进行了详尽的描述与统计。从各成分的特点来看,动词具有口语性和单音节性,场所作为句首成分出现的频度极高,仅次于无句首的‘VN了’句。从句法分布来看,其主要出现在对话体的单句及复句的起始句。句式的简洁性和分布特点正是基于事件导入的篇章功能的要求。

从语义层面来看,首先,越是接近原型义隐现句中的动词,更多是具有施通格性的不及物动词,而越是距离原型义隐现句较远的类型,则及物动词的使用率增加。由于施通格性的不及物动词内在论元的位置,与隐现句式的论元位置高度匹配,因此成为第一批进入这个句式的动词类别。反之,主宾格性的不及物动词内在论元的位置与隐现句式并不匹配,因此很难进入。但由于表达丰富性的要求,句式发展中一部分及物动词加入,因为不及物动词受事论元的位置与隐现句论元位置匹配,另外多出的施事论元则可通过隐现

句的句首成分进行压制。其次，与这些不同类型动词紧密相关的论元，分别分布在主体和客体两个语义强弱渐变的连续体中。微小的语义差异，特别是自主性的强弱，看似对‘VN了’句式并不造成影响，但在其他语言(如傣语)中会成为左右句式选择的要因。动词的施通格性及论元的语义差异，也会牵制焦点结构和篇章功能的选择。

在句法和语义研究的基础上，本文运用信息结构理论中的识别性和激活性概念，对相关实体的心理特征进行了分析。首先，‘VN了’隐现句典型地反映了语言范畴中时间顺序的‘像似性’，因此与之相关的实体一般是很难被识别和未被激活的。动词内在论元的激活性若与之一致则可以进入句式，反之会受到制约，这也是‘*停雨了’、‘*走客人了’等难以成句的原因。此外，被允许进入的动词还要面对名词的匹配，极易被激活的专有和亲属名词等也因此被制约而不能产生诸如‘*来爸爸了’这样的表述。其次，‘NV了’中的N除了未被激活状态外，整体呈现多样化的心理特征。特别是警告语气下，由于说话人对相关实体极高的警戒性使之极易处于意识中心，因此更倾向于采用‘NV了’形式，这也可以解释为什么在寓言《狼来了》中说‘狼来了’而不是‘*来狼了’。需要强调的是，‘激活性’能解释关于‘VN了’的很多语言现象，但并不是唯一对‘VN了’造成制约的因素。整体来看出现在‘VN了’形式中的动物类名词并不多见，这与‘人类中心’原则有关；此外，对‘出太阳了’可以成句而‘*太阳出了’不成句的现象，我们也需要从历时及其他角度进行考量。

从语用关系来看，首先，‘VN了’的焦点结构虽然与识别性特征并非一一对应，但不可否认二者具有高度关联性。无句首成分的‘VN了’主要体现为全句焦点；有句首成分时，可以表现为谓语焦点和全句焦点，但受激活状态牵制，只有部分例句表现为论元焦点。因为自主性低，离原型施事较远的论元，很自然选择‘VN了’形式，并且有逐渐词汇化倾向，其对激活性的敏感性较弱；反之，类似‘客人’这样自主性高，离原型施事较近的论元，在动词前后的移动较为灵活，也对‘激活性’更为敏感，受到的制约也更强烈。其次，‘NV了’形式可表现为谓语、论元和全句焦点结构，这充分说明了有限性的语言

材料如何承担着多样化的语用要求。但通过韵律倒置、句法倒置、焦点标记等方式可以对形式类似，语用不同的结构进行甄别。关键在于，同样由‘了₂’标记的‘VN了’和‘NV了’均可作为‘全句焦点’出现，那么差异落在何处？

除激活性差异外，二者的不同还体现在语篇功能和话题链的扩张方式上。一般认为存现句的语篇功能是以承继的方式引入一个新的实体，导入到后续篇章中成为新的话题。通过对‘VN了’隐现句后续小句的分析，可以发现‘VN了’具有较弱的导入新实体的功能，反之，导入某个事件或事态的功能更为明显。而且不同类别的隐现句呈现出一定差异性，除‘下(雨)’类外，一般自主性强、生命度高的论元，话题导入的功能略强，反之导入事件的功能略强。‘NV了’虽然与‘VN了’形式类似，但受句法形式的制约，使其几乎不具有引入新实体的条件，大多是导入某个事件或事态，或以平行方式延续既有的话题。综上，我们可以得出如下结论：

‘VN了’承继了典型隐现句的语用功能，可以导入某个新的实体进入后续篇章，并以这个实体为话题，展开持续性不强的叙述。但由于新的语用要求，典型形式的隐现句在经济原则的作用下形式精简，进而对某种频繁出现的、与人类息息相关的、突然发生的现象或事件，进行快速而高效的报道。

若这种报道具有警告性，则倾向采用‘NV了’形式，若不具有警告性，则同为全句焦点的‘VN了’和‘NV了’会在心理特征上呈现一定差异。

这种语用功能的‘VN了’隐现句，在原型和非原型性的隐现句，出现句和消失句中的呈现是非常不均衡的。但高频的语用要求下，‘VN了’隐现句的接纳度也有进一步拓宽的可能性。

本文通过大量语料分析和统计，在相似句式的对比中，运用信息结构理论串联并梳理出了‘VN了’隐现句在句法、语义、认知和语用上的相互关联与制约，这些共性特征中不同小类也会呈现出一定差异。本文在整体研究的基础上，也对‘来客人了’，‘出太阳了’，‘*来狼了’等一些代表性例句进行了详尽分析，期望通过‘以大观小，以小窥大’的考察，梳理出各个层面环环相扣的

현대중국어 ‘VN了’ 형식 은현문의 정보구조 연구

连接点, 也对隐现句研究中一些易被忽略的部分有所完善。

学 号 : 2015-30726

关键词 : ‘VN了’隐现句, 信息结构, 激活性, 焦点结构, 篇章功能, 像似性,
经济原则